춘천기독교
120년사

2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 **이수형**(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편집위원장 : **오의석**(순복음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동정(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집 필 위 원 : **노성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김동정(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오의석(순복음조은교회 담임목사)
김 훈(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병철(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최상도(춘천성시신문 편집장)
김상철(전 강원소방본부 행정과장)
임대형(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집 위 원 : **최재훈**(꿈꾸는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총 괄 편 집 : **임대형**(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일러두기 |

– 편찬목적

본 책의 편찬목적은 춘천기독교120년의 역사를 현대에 재조명하여 춘천기독인들과 시민들에게 춘천지역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춘천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선조들의 믿음을 교훈 삼아 기독인들의 믿음과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성시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또한, 학계의 연구자에게는 춘천기독교연구와 지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서술 원칙

- 본 책은 1898년 춘천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 된 이후 오늘날까지의 기독교와 내용을 서술하였다.
- 본 책은 편찬에 앞서 편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원고 집필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분담하였으며, 별도의 감수와 윤문을 거쳐 내용의 충실을 기하였다.
- 이 책은 제1편 기독교의 한국 · 강원도 전래와 발전, 제2편 춘천지역의 복음 전파와 성장, 제3편 춘천기독교 교단별 역사와 발전, 제4편 춘천의 기독교 기관과 활동, 제5편 춘천의 선교단체 및 협의회 활동, 제6편 춘천의 사회단체 등 총 6편 46장으로 구성하였다.
- 글은 학술서 수준을 유지하면서 문장은 간결하고, 내용은 정확하고 평이하게, 누구나 쉽게 읽고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 원고는 각주를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부득이한 경우 각주를 활용하였다. 각주와 집필자 명, 참고문헌은 원고 뒤에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 본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괄호 안에 넣었다.
- 집필내용과 학술용어는 분야별 집필자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용어 사용이 다르므로 필자의 견해를 존중하되, 원고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감수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실에서 수정 · 보완하였다
-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 본문의 내용과 사진은 각 교회의 교회사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삽입하였으며, 각종 기관, 단체, 협의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종 논문과 언론 및 매체를 통한 자료도 참고하여 기술되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 2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ontents

제1편 기독교의 한국 · 강원도 전래와 발전

제2편 춘천지역의 복음 전파와 성장

제3편 춘천기독교 교단별 역사와 발전

제4편 춘천의 기독교 기관과 활동

제5편 춘천의 선교단체 및 협의회 활동

제6편 춘천의 사회단체

제3편 춘천기독교 교단별 역사와 발전

12 제1장 춘천의 감리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
12 1절 춘천 감리교단의 전래와 성장
25 2절 춘천 감리교단의 조직과 주요활동
35 3절 춘천 감리교단의 교세현황과 발전
56 4절 춘천 감리교단 교회현황

60 제2장 춘천의 장로교단
60 1절 춘천 장로교단의 전래와 성장
64 2절 춘천 장로교단의 조직과 주요활동
90 3절 춘천 장로교단 교회현황

95 제3장 춘천의 성결교단
95 1절 춘천 성결교단의 전래와 성장
104 2절 춘천 성결교단의 주요활동
107 3절 춘천 성결교단의 교회현황

109 제4장 춘천의 순복음교단
109 1절 춘천 순복음교단의 전래와 성장
117 2절 춘천 순복음교단의 주요활동
119 3절 춘천 순복음교단 교회현황

121 제5장 춘천의 침례교단
121 1절 춘천 침례교단의 전래와 성장
123 2절 춘천의 침례교회
131 3절 춘천 침례교단 교회현황

132 제6장 춘천의 그리스도의교회교단
132 1절 그리스도의교회의 유래
132 2절 춘천의 그리스도의교회
137 3절 춘천 그리스도의교회교단 교회현황

138 제7장 춘천의 구세군교단
138 1절 춘천 구세군교단의 전래와 활동
141 2절 춘천 구세군교단을 빛낸 인물
143 3절 춘천 구세군교단의 비전과 전망
143 4절 춘천 구세군교단 교회현황

144 제8장 춘천의 기타교단
144 1절 루터교회
147 2절 대한성공회
153 3절 춘천독립교단 및 기타교단
158 4절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Contents

제4편 춘천의 기독교 기관과 활동

164 제1장 춘천기독교연합회
164 1절 춘천기독교연합회의 설립
165 2절 춘천기독교연합회 역대회장
165 3절 주요활동

168 제2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68 1절 성시화운동의 유래
172 2절 춘천성시화운동의 전개
180 3절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주요활동

188 제3장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188 1절 춘천목회자연합회의 창립
189 2절 주요활동
190 3절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역대회장

192 제4장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192 1절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의 창립
193 2절 역대 회장 및 주요 활동

195 제5장 춘천홀리클럽
195 1절 춘천홀리클럽의 유래
196 2절 춘천홀리클럽의 창립과 연혁
199 3절 춘천홀리클럽의 주요활동

203 제6장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203 1절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의 설립배경
204 2절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의 주요활동

206 제7장 기타 기관
206 1절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209 2절 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 모임
211 3절 통일광장기도회 춘천 모임

제5편 춘천의 선교단체 및 협의회 활동

216 제1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216 1절 개관
217 2절 강원지회의 역사
218 3절 주요 사역

222 제2장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222 1절 개관
222 2절 주요 역사
224 3절 주요 사역
224 4절 역대 회장 및 회원 선교회

227 제3장 춘천운전기사선교회
227 1절 개관
228 2절 주요활동
229 3절 임원 및 조직

231 제4장 베드로선교문화센터
231 1절 개관
232 2절 주요 역사
233 3절 기본 사역의 방향
234 4절 진행하는 사역들
235 5절 향후 사역 방향 및 배출 인물

236 제5장 청년 대학생 전도를 위한 선교회
236 1절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춘천지구
244 2절 예수제자운동(JDM) 춘천지부
250 3절 예수전도단(YWAM) 춘천지부
254 4절 한국기독학생회(IVF) 강원지방회
261 5절 기독대학인회(ESF) 춘천지구

264 제6장 한국 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264 1절 개관
265 2절 춘천캠프의 역사
266 3절 주요 사역
267 4절 향후 사역 방향

268 제7장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268 1절 어린이전도협회 소개
269 2절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개관
271 3절 주요 사역
274 4절 향후 사역 방향

275 제8장 청소년선교단체 예스컴(YES COME)
275 1절 개관
276 2절 예스컴(YES COME)의 창립정신과 활동

Contents

281 제9장 광염회
281 1절 개요
281 2절 창립동기와 역사
282 3절 중심사역

286 제10장 효신고등공민학교
286 1절 효신고등공민학교의 설립
287 2절 효신상업전수학교

289 제11장 기타 선교단체 및 문화예술체육 사역
289 1절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
295 2절 사랑의 메아리
298 3절 예수마을선교공동체
300 4절 백합공동체
304 5절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307 6절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310 7절 강원기독문인회
312 8절 CCF 목회자회
316 9절 한아름 선교회
317 10절 문화예술체육 선교단체
327 11절 춘천소년원

제6편 춘천의 사회단체

332 제1장 춘천YMCA
332 1절 개관
335 2절 춘천 YMCA
340 3절 춘천YMCA의 주요사업
344 4절 춘천YMCA 회원활동

349 제2장 춘천YWCA
349 1절 개관
352 2절 춘천YWCA
356 3절 춘천YWCA 주요활동사항
359 4절 춘천YWCA 주요 프로그램

361 제3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61 1절 개관
366 2절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368 3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요활동사항
373 4절 자원봉사

375 제4장 기아대책 강원본부
375 1절 개관
378 2절 기아대책 강원본부

385 제5장 (사)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385 1절 개관
389 2절 춘천연탄은행·밥상공동체 주요활동사항

395 제6장 (사)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395 1절 개관
398 2절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407 제7장 홀트 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407 1절 개관
410 2절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412 3절 홀트아동복지회 춘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17 제8장 강원 CBS
417 1절 개관
419 2절 강원CBS
421 3절 강원CBS 주요활동(www.gwcbs.co.kr)

426 제9장 춘천와이신협(신용협동조합)
426 1절 개관
429 2절 춘천와이신협

436 제10장 두란노춘천아버지 · 어머니학교
436 1절 두란노아버지학교
438 2절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
442 3절 두란노어머니학교
444 4절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지부

450 제11장 춘천기독교 사회복지기관
450 1절 춘천기독교 사회복지협회
451 2절 춘천의 기독교사회복지협회 기관

472 **부록**
1. 참고문헌
2. 춘천 교단별 교회 현황

제 3 편

춘천기독교120년사

춘천기독교 교단별 역사와 발전









제1장 춘천의 감리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 12
1절 춘천 감리교단의 전래와 성장 12
2절 춘천 감리교단의 조직과 주요활동 25
3절 춘천 감리교단의 교세현황과 발전 35
4절 춘천 감리교단 교회현황 56

제2장 춘천의 장로교단 60
1절 춘천 장로교단의 전래와 성장 60
2절 춘천 장로교단의 조직과 주요활동 64
3절 춘천 장로교단 교회현황 90

제3장 춘천의 성결교단 95
1절 춘천 성결교단의 전래와 성장 95
2절 춘천 성결교단의 주요활동 104
3절 춘천 성결교단의 교회현황 107

제4장 춘천의 순복음교단 109
1절 춘천 순복음교단의 전래와 성장 109
2절 춘천 순복음교단의 주요활동 117
3절 춘천 순복음교단 교회현황 119

제5장 춘천의 침례교단 121
1절 춘천 침례교단의 전래와 성장 121
2절 춘천의 침례교회 123
3절 춘천 침례교단 교회현황 131

제6장 춘천의 그리스도의교회교단 132
1절 그리스도의교회의 유래 132
2절 춘천의 그리스도의교회 132
3절 춘천 그리스도의교회교단 교회현황 137

제7장 춘천의 구세군교단 138
1절 춘천 구세군교단의 전래와 활동 138
2절 춘천 구세군교단을 빛낸 인물 141
3절 춘천 구세군교단의 비전과 전망 143
4절 춘천 구세군교단 교회현황 143

제8장 춘천의 기타교단 144
1절 루터교회 144
2절 대한성공회 147
3절 춘천독립교단 및 기타교단 153
4절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158

제1장
춘천의 감리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

제1절 춘천 감리교단의 전래와 성장

1. 감리교의 한국전래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이전부터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들은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여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1744년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5~1791) 목사에 의해 첫 감리교회 연회가 시작된 이후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미국의 감리교회는 1784년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독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 감리회 볼티모어(Baltimore) 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아펜젤러가 부인과 함께 아들을 안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유영익 저 『이승만의 삶과 꿈』)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 선교를 개척했던 매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고종의 윤허를 받았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 국외여선교부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하여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하였다.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 1887년 10월 9일 서울에서 오늘의 정동제일교회의 모체인 '벧엘예배당'이 설립되었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엡웟청년회(Epworth League)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와 청장년선교회 및 남·여 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골,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남감리회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 윤치호가 망명 중인 188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세례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남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촉구하였다. 이에 1895년 10월 18일 중국에 있던 헨드릭스(E. R. Hendrix) 감독과 리드(C. F. Reid) 선교사가 내한하였고 이듬해 8월 리드 부부가 서울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897년 5월 2일 고양읍에 첫 남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춘천여자관(1925년)

남감리회에서도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태화여자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사회관을 설립하여 한국 근대 사회복지사업의 문을 열었다.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사참배는 물론이고, 1941년 친일지도자가 주도하여 연회를 해산하고, 일제의 각본에 따른 법을 통과시켜 친일교단을 조직하였다. 일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친일교단에서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참으로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종교계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더불어 민족독립국가 형성에 참여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이러한 역량은 물론 이에 대한 자각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지 종교활동의 보장과 다종교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종교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의 관철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신교였다. 한국의 개신교 교파들은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달되고 성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산주의와의 관계를 유신론과 무신론 간의 대결 구도에 따라 반공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기독교의 각 교단 대표들(남쪽만의 교단 지도자들)은 1945년 9월 8일 서울 새문안장로교회에서 향후의 진로를 모색하는 '남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일본에 아부하던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교단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교단별로 주도권 문제 등으로 복잡해지면서도 곳곳에 교회 재건과 재창립, 교회 개척의 열정이 일어났다. 그러나 6.25전쟁을 겪게 되면서 또 한 번 교회의 시련기가 왔다. 전쟁으로 파손된 남·북한 교회의 피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장로교의 경우, 완전소실 된 교회 152개, 파괴된 교회 467개로 합계 619개 교회였으며, 감리교의 경우, 완전소실된 교회 84개, 파괴된 교회 155개로 합계 619개 교회, 성결교의 경우, 완전소실 된 교회 27개, 파괴된 교회 79개로 합계 106개 교회, 구세군의 경우, 완전소실된 영문 4개, 파괴된 영문 4개로 합계 8개 영문이었다. 이것을 합치면, 완전소실 된 교회 267개, 파괴된 교회 705개로 합계 972개 교회가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1] 이러한 와중에서도 강원지역의 기독교회는 전화를 극복하며 꾸준히 부흥하였다.


파괴된 철원감리교회(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3호)

형제교회인 미국교회와 세계 감리교회는 고난에 빠진 한국감리교회를 돕는 데 온갖 힘을 다하였으며, 형제들의 사랑은 한국 감리교인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교회의 도움으로 곳곳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피난 온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지역은 선교 초기에 체결된 선교 협정에 따라 감리교회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었다.

한국감리교회는 1964년 파송제를 포기하고 개교회 청빙제를 채택함으로 교역

1) 「기독교공보」(1952.6.30), 이상용, 『기독교연감』, 배합출판사, 1969, 37쪽.

자가 한 군데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 되면서 급속한 교회성장을 경험하였다. 감리교회의 교회성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부흥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교회 성장의 과정에서 여러 번 교회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치된 교회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된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감리교회는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사회선교를 과감히 펼치는 등 인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 나라 민주화에 적극 동참하였다. 한국감리교회는 해마다 계속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회와 지방회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2. 감리교의 춘천 전래와 성장



이덕수 전도사

1897년 12월 8일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의 강원도 선교 결정으로 1898년 4월 나봉식, 정동렬이 춘천지역 선교를 시작하여 퇴송골(현 퇴계동 남춘천파출소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교회가 춘천의 중앙감리교회이다. 1901년 4월에는 춘천 퇴송골에 첫 속회가 조직되었고 1902년 10월에는 이덕수 성도(경기도 장단 고량포교회)가 전도사로 내려와 아동리(현 봉의동)에 초가 5칸을 매입하여 사랑채 두 칸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교인 수는 세례교인 1명과 성인 7명, 어린이 3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춘천지방 사역이 시작된 이후 1907년 춘천구역의 교세는 무려 48개 교회에 입교인 202명, 학습인 1,814명으로 보고되었다.[2)]

2) 『유튜브』 영상(춘천중앙감리교회,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이덕수 전도사)」, 2022.4.5).


무스 선교사의 자전거 이동 모습(월산교회 홈페이지)

그 후 1908년 10월 남감리회 춘천 선교부가 개설되어 복음 전도에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이때 무스(J. R. Moose) 선교사가 춘천에 와서 춘천시 조양동 48칸 양옥을 구입하고 예배장소를 옮기는 한편, 교회 확장 등 지방 조직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3.1운동을 비롯하여 민족운동에도 외면하지 않았다. 11명으로 시작한 교인이 1940년 춘천지방에 2,156명으로 증가하였다.

1905년에는 철원읍에 강원도로서는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07년 장·감선교회의 합의에 따라 감리교회로 편입하게 되었고, 한편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이 장로교회로 편입되면서 1908년 웰본(Welbon) 선교사가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에 선교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고, 그를 이어 램프(H. W. Lampe) 선교사가 활동하다가 1909년 프레쳐 박사(Dr. Fletcher)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년 장·감리회의 선교지역의 재조정 협의로 1907년 이전으로 환원되었고, 따라서 강원도 지역은 거의 감리교 지역으로 되었다.

춘천 선교부가 1908년 개설된 후 불과 1년 사이에 예배당을 확장하고,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토착 전도인, 특히 춘천에 먼저 들어와 선교 기반을 조성한 이덕수의 공이 컸다. 이 점은 무스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실이기도 했다. 그는 남감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 후보생이었다. 이런 그에게 1909년 9월 3일 남감리회 선교연회는 정식으로 '본처 전도사'(local preacher) 직첩을 주었다. 이덕수는 6명밖에 되지 않는 남감리회 토착 전도사 중 한 명이 되었다. 아직 한국인 목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다.

이덕수가 전도사 직첩을 받은 1909년 9월 연회에서 춘천지방이 처음으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 춘천·양구 구역으로 분할되었는데, 이덕수는 무스와 함께 춘천구역에 파송되었다. 구역 담임은 무스였지만 실질적인 목회는 이덕수가 담당했다.

이로써 그는 춘천교회에 파송된 첫 한국인 목회자가 되었다. 이덕수가 정식 전도사로 부임함에 따라 무스는 대판리 춘천교회를 중심으로 한 춘천구역뿐 아니라 양구 구역까지 그에게 맡겼다. 1910년 9월 연회 때 제출한 무스의 '눈물의 보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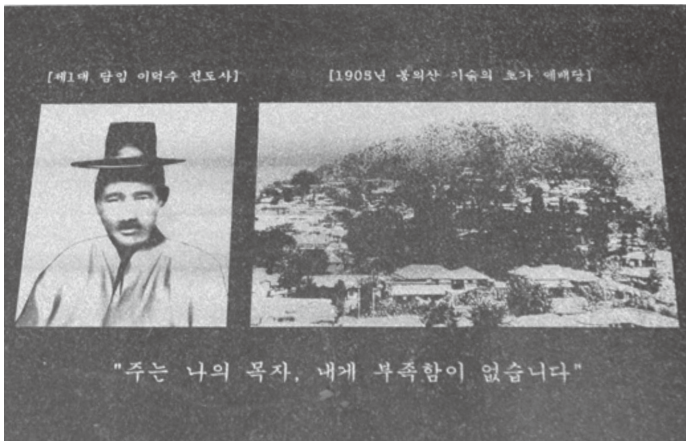
> *지난(1909년) 연회 때 지방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두 구역을 나의 동역자인 본처 전도사 이덕수에게 맡겼습니다. 금년(1910년) 초 이덕수 형제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하늘에 있는 연회로 이명하여 그곳에서 그가 주님을 알고 난 후 그토록 사랑하고 위하여 봉사하였던 주님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별세는 우리 사역에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그의 자리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가 운명할 즈음 나는 지방에 나가 있었습니다. 무스 부인이 운명의 순간 함께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에게 "목사님께 남길 말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목사님께 전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였답니다.*[3]

이덕수의 목회 구역은 춘천 시내가 아니었다. 춘천지방회 구역으로 확정된 강원도와 경기도 6개 군이 그의 오랜 목회 구역이었다. 그는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도 좋지 않은 강원도 산간벽지를 돌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결국 겹친 과로로 이덕수는 건강을 잃었고 결핵에 감염되어 손쓸 사이도 없이 1910년 4월, 무스 목사가 지방 순회를 나간 사이 아동리 사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 42세였다. 이덕수 전도사의 마지막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무스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의 별세 장면을 증언하였다. 둘은 친구 같은 짝이 되어 춘천 선교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춘천교회와 춘천지방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기에 이덕수의 죽음은 춘천지방회뿐 아니라 남감리회 한국선교연회 전체의 슬픔이었다.

그리하여 1910년 9월 20일, 개성 한영서원에서 열린 제14차 선교연회 기간 중 연회를 주재하던 호스(E. E. Hoss) 감독은 연회원들에게 "본처 전도사 이덕수 씨의 별

---

3) J. R. Moose, "Report of Choon Chun District", MECS(1910), 28쪽. 『춘천중앙교회사(1898~2006)』 150쪽에서 재인용.



이덕수 전도사 묘비에 새겨진 유언, 시편23편 1절 말씀
(주는 나의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였고 "한국의 본처 전도사 중 첫 번째 희생자인 이덕수 전도사 무덤에 적당한 글귀를 새겨 기념비를 세우자"는 콜리어의 건의에 따라 특별 헌금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회 결의에 따라 연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개성북부교회에서 이덕수 전도사 추도예배로 드리면서 유가족을 위한 헌금을 실시하였다. 연회원들의 헌금으로 이덕수가 춘천에 처음 들어와 자리 잡았던 아동리, 춘천 선교부 가까운 언덕에 마련된 그의 무덤에 묘비가 건립되었는데 묘비에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성경 말씀이 새겨졌다.

춘천구역과 춘천지방에도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교회마다 자급(自給), 자전(自傳)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춘천지방 각 교회는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백만 명 구령운동, 즉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100만 명 신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전국적으로 전개한 초교파적 부흥운동이 시작되자 이덕수를 비롯한 '토착' 전도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는 선교사들을 계속 감동시켰다. 무스의 1910년 선교 보고에는 그런 감동의 보고로 점철되어 있다.

> *"토착 사역자—전에 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들 신실한 토착 전도인들이 없었다면 나로서는 이만큼이나마 사역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길거리나 골목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전부 13명이 되는데 이들은 매월 보고서를 내는데 새 신자에 대해 보고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업의 성장은 전적으로 이들이 사역한 결과입니다."[4]

라고 하였으며, 토착 사역자들의 전도는 춘천 시내보다는 산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도 좋았다. 특히 양구와 인제 같은 내륙 지방에서 많은 개종자가 나왔고 교회가 설립되었다.

백만 명 구령운동의 결과는 춘천지방 구역 분할로 이어졌다. 즉, 1909년 9월 연회에서 춘천지방은 춘천과 양구, 2개 구역으로 나뉘었고 1910년 9월 연회에서 다시 춘천과 양구, 홍천 등 3개 구역으로 분할되었다. 이제 구역 분할이 이루어진 1909년 이후 1912년까지 춘천지방회 각구역별 교세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지방회 교세 통계표(1909~1912년)

구분	1909년	1910년	1911년	1912년	참고
선교사	4	4	5	6	
목사, 전도사	1	1	1	1	춘천 1명
권사, 전도인	9	10	15	16	
총 교인	402	740	766	794	입교인, 학습인
성인세례자	86	189	109	23	
교회수	20	46	36	39	
주일학교	6	8	11	11	
신학생수	4	5	4	7	

* 『춘천중앙교회사(1898~2006)』 157쪽 참조.

위의 표를 보면,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는 약 2배 인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는 이덕수 전도사의 별세 탓인지 증가세는 소폭에 그쳤다.

한편, 교회 옆에는 학교, 병원이 세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 2천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춘천교회 구내에 병원과

4) J. R. Moose, "Report of Choon Chun District", MECS(1910), 29~30쪽. 『춘천중앙교회사(1898~2006)』 156쪽에서 재인용.

학교가 세워졌다. 1908년 리드(Gilbert Reid, 1857~1927) 의사에 의해 개원된 춘천병원은 강원도에 있어서 서구 의료기관의 효시가 되었고, 1910년 에드워즈(Miss L. Edwards)에 의해 개교된 정명(貞明)여학교는 강원도 현대 여성 교육의 시발점이 됐다.


남궁억이 세운 모곡학교(『불굴의 얼』)

1920년경 감리교계 보통학교는 8개교가 있었는데, 남궁억 선생의 모곡학교는 민족주의 교육기관으로 유명했다. 그가 작사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으로 시작되는 찬송가는 암담한 세월을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봄 돌아와 밭 갈 때'를 바라보게 희망을 주는 애국 사상을 표현했다 하여 일제강점기 말년에는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도내 유치원도 22개 교회에 세워져 있었고, 춘천여자관과 원주사회관은 전도사업과 더불어 부녀 계몽사업에 공을 남겼다. 8.15광복 이후에는 원주청년관이 설립되어 현재 박용구 목사가 관장으로 남녀 청년들에게 종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도 대단했는데, 3.1 만세운동 때에는 도내 전교회가 참여했고 김영학(양양), 이진구(간성) 두 목사는 가혹한 고문과 옥고를 겪어야 했다. 1920년에는 철원애국단이 조직되었다. 감리교 유한익 목사 외 5명과 평신도 김상덕 등 40여 명으로 이뤄진 철원애국단 운동은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국내 모금단체임이 발각되어 35명이 실형을 받았고, 평신도 조종대(趙鍾大)는 옥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후평리교회(현 신성교회)에서는 추수를 마친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를 주일학교 주관으로 펼쳤다. 1926년 9월 17일 『동아일보』에 실린 「농민위안극(農民慰安劇) 성황리 종료(盛況裡 終了)」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군 동내면 후평리 주일학교에서는 연중 고로(苦勞)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하룻밤 위안(慰安)이라도 주고자 청량(靑粱)한 중추가절(仲秋佳節)을 맞이하여 지난 12일 밤 8시부터 농민위안음악연극대회를 동리예배당에서 개최하고 무료로 입장케 하였다는데 정각 전부터 운집(雲集)하는 남녀관중은 무려 4백여 명에 달하여 입추(立錐)의 여지가 없게 되어 당지초유(當地初有)의 대성황을 이룬 정각이 되어 손용섭(孫用燮)씨의 간단한 개회사가 있은 후 차광은(車光恩)씨의 4현학 독주를 위시하여 김남기(金南基)양의 독창, 기타(其他) 바이올린, 무도 등의 청쾌(淸快)와 선율(旋律)에는 만장청중(滿場聽衆)이 도취되었으며 천진난만(天眞爛漫)한 소년소녀들의 봉접(蜂蝶)같은 가극에는 장내를 진동하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끝으로 「무도덕한 지주의 횡포」라는 연극은 현하(現下) 소농민들의 실생활(實生活)의 반영(反映)이었으므로 당야(當夜)에 회합(會合)한 군중의 대부분인 농민가족들은 보는 바 연극이 자기네가 당하는 여실(如實)한 현실이므로 심통(沈痛)한 자극을 받게 되어 더 한층 이채(異彩)를 띠었더라는데 동야(同夜) 11시 반경까지 공전성황(空前盛況) 속에 24종의 프로그램을 원만히 필(畢)하고 폐회하였더라더라(춘천)*

라고 하여 24개 프로그램으로 3시간 30분 동안 연주와 연극으로 400여 명의 농민을 위로하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당시 후평리교회는 1924년 1월 29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3435호에 의하면, 1923년 12월 5일에 학곡리·약사리·송암리·거두리·퇴계리예배당과 함께 예배당이 설립되었다고 하였다. 우두리예배당(춘천군 신북면 우두리 115)은 『조선총독부관보』 제2646호(1921.6.7)에 의하면 1921년 3월 12일에 설립되었다가 1923년 7월 6일 예배당이 폐지[『조선총독부관보』 제3317호(1923.8.30.)]되었다. 이어서 7월 7일에는 아동리예배당도 폐지되었다. 아동리예배당(춘천군 부내면 아동리, 한인수 목사 관할)은 1915년 12월 28일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다. 1923년 2월 3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3142호에는 유포리·마산리·고탄리예배당(부라만 선교사 관할)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15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3403호에는 11월 5일에 허문리예배당이 설립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455호에 실린 1928년 전임자인 안지선 목사 후임으로 정춘수 목사가 관리하던 춘천지역 교회는 다음과 같았다.

정춘수 목사 관할 춘천지역 교회현황(1928년)

번호	담임자		예배당	주소	비고(현 교회)
	전임자	후임자			
1	안지선	정춘수	후평리예배당	춘천군 동내면 후평리 238-2	신성교회
2			학곡리예배당	춘천군 동내면 학곡리 312	
3			거두리예배당	춘천군 동내면 거두리 193	거두리교회
4			송암리예배당	춘천군 신남면 송암리 190	
5			창촌예배당	춘천군 남산면 창촌리 161	
6			퇴계리예배당	춘천군 신남면 퇴계리 180	안디옥교회
7			율문리예배당	춘천군 신북면 율문리 297	
8			고탄리예배당	춘천군 사북면 고탄리 73	
9			마산리예배당	춘천군 신북면 마산리 271	
10			유포리예배당	춘천군 신북면 유포리 121	
11			내평리예배당	춘천군 북산면 내평리 125-2	내평교회
12			조교리예배당	춘천군 북산면 조교리 603-2	
13			허문리예배당	춘천군 춘천면 허문리 125-2	춘천중앙교회

* 『조선총독부관보』 제455호(1928년 7월 5일) 참조.

1931년 2월 2일 『조선총독부관보』 제1221에는 거두리·조교리예배당이 없어지고 석사리예배당과 금산강의소와 후동강의소가 들어있다.

한편, 1932년 춘천 남천우 감리사를 당수로 한 십자가당(十字架黨)은 정당 성격을 지닌 애국단체로써, 역시 왜경에 발각되어 당수 외 1인이 옥고를 치렀다. 일제강점기 말년 신사참배 거부와 독립정신 성격의 설교 사건으로 동해천곡교회 최인규 권사, 회양교회 권원호 전도사, 철원교회 강종근 목사 등이 대전감옥에서 옥사했다.

1936년 9월 11일에는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장로회 총회에서 장·감 양교파의 선교지역제를 철폐하기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와같이 강원도의 복음선교는 번복되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한때 선교활동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1936년 9월 총회에서 선교구역 철폐를 결정한 후, 장로교회에서는 첫 사업으로 1939년 강원도에 춘천소양장로교회(지금의 동부교회와 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한편, 춘천읍교회는 광복과 동시에 개명하여 '춘천중앙교회'라 하면서 춘천과 강원도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활기차게 출발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폐지된 주일학교 지도자 강습회와 성경학원, 여자관사업 등을 재개하였고 각종 구제·지원헌금을 통하여 '돕는 교회'로 점차 정착되어 갔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요선동 예배당을 포함한 선교부 모든 시설은 인민군이 징발하여 사용하였다. 1950년 10월 18일, 국군이 북진을 거듭할 때 1만 명의 인민군 패잔병들의 춘천침입으로 '마석피란'을 겪었고 또한 1.4후퇴 등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서북지역이 중공군 침투로 큰 피해를 보았다. 이때 춘천읍교회도 파괴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6.25전쟁 때에도 순교 당한 목사와 평신도들이 있었다. 목사로서는 서기훈, 조춘일, 박승학, 유득신, 이윤성(이상 철원지역), 정대식(인제), 평신도로서는 한병옥(철원, 의사), 오인철(화천) 등이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했다.

춘천중앙교회는 반파된 옥천동 73번지 선교부병원 건물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1955년 10월 18일에는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업과 교육을 활기차게 추진하였다.

한편, 1930년 남북 감리교회가 합동되어 독립교단으로 조선감리교회가 탄생하였고, 강원도 교회는 충북, 서울 동부지역과 함께 동부연회로 조직되었다. 그 후 교세가 확장되어 1980년 3월 28일 열린 제13회 총회 제2차 특별총회에서 전국 5개 연회를 행정구역별로 분할함에 따라 강원도, 충청북도 일원이 동부연회로 개편되었고 동부연회 본부는 원주 감리회관에 자리잡았다.



동부연회 감리회관(원주시 일산동, 1980년대)

1998년 4월 2일에는 동부연회가 분할되어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충북연회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연회는 19개 지방이 되었다. 2005년 4월 6~7일에 원주삼천교회에서 제64회 동부연회가 박거종 감독

의 사회로 열려 감독회의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5년 연회부터 남미선교지방(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을 동부연회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24개 지방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24개 지방회는 다음과 같다.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동해삼척지방, 속초남지방, 속초북지방, 영월지방, 영월서지방, 원주동지방, 원주서지방, 원주남지방, 인제지방, 정선지방, 철원동지방, 철원서지방, 춘천동지방, 춘천서지방, 춘천남지방, 춘천북지방, 태백지방, 평창지방, 홍천동지방, 홍천서지방, 횡성지방, 남미선교이다.

2절 춘천 감리교단의 조직과 주요활동

1. 감리교의 조직

기독교대한감리회 의회조직은 총회,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로 구성되어 있다.

1) 총회

총회의장인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총회(總會)는 전국 단일조직으로 1개이며,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그리고 홀수 연도에는 입법의회로 모여 감리교회의 신앙과 법(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한다. 이 회의 의장은 각 연회의 대



기독교대한감리회통합연회 및 통합총회기념(1949년 4월 30일)

표자들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독 회장이 맡는다.

감독회장은 4년 단임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 수반으로서 총회실행 위원회와 감리회 본부를 지휘, 감독한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나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총회 실행 부위원회가 처리하게 된다.

2) 연회

연회의 장인 감독이 주재하는 연회(年會)는 개체교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준회원 교역자 및 협동회원으로 구성한 지역별 연례회의이다. 그리고 그 의장은 각 연회의 정회원 11년 차 이상의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자에 의해 선출된 연회 감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연회는 전국 지역에 따라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인천 · 경기서부), 경기연회(경기남부), 중앙연회(경기북부), 동부연회(강원), 충북연회, 남부연회(대전·충청), 충청연회, 삼남연회(경상), 호남특별연회, 미주자치연회(미국), 서부선교연회(북한 및 동북3성 선교)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회의 모습
(춘천중앙교회, 2020년 5월 19일)

동부연회는 1931년 6월 10일 조선 감리회 제1회 연합예배를 개성에서 개최하고 당시 서부·중부·동부연회로 구성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33년 동부연회는 원주, 홍천, 춘천, 철원, 원산, 강릉 6개 지방으로 조직되었고, 1951년 이후 교세 확장으로 1998년 '충북연회'가 분리되어 강원도는 최초의 연회 명칭을 지키기 위해 '강원연회'가 아닌 '동부연회' 명칭을 갖고, 강원도 전역에 24개 지방으로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 13개 연회별로 감독이 있고, 감리교단 대표로 감독 회장이 있으며, 한때는 중앙집권제도로 교역자(목사)를 총리원에서 파송하다가 현재는 목사 파송은 각자의 교회에서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여 '담임자'를 청빙하고, 연회에서 파송하는 절

차를 밟아 목회자의 신분과 자격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를 밟는다.

3) 지방회


11회 춘천지방회 후 기념(석사감리교회, 1956년 11월 29일)

지방회의장인 감리사가 주재하는 지방회는 개체교회의 담임자와 장로, 구역 대표자 및 연합회 대표, 연회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례회의로서 의장은 연회에서 지방회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연회 감독에 의해 임명된 2년 임기의 감리사(목사)이다.

각 연회마다 지역별로 12~30개 이하의 지방이 있다. 감리사는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게 된다. 지방실행부위원회는 지방회 임원과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 대표 각각 3인과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및 교회학교 연합회장 및 감사로 구성되는 실무회의이다.

실무를 위해 지방회 업무는 감리사와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사회평신도부총무, 서기, 회계, 통계 서기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방회는 연1회 모여 각 분과위원회가 열려 지방회의 소관업무를 분담, 조사 연구하여 보고한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장로의 인사 및 교역자 평신도 간의 인화 및 친교를 담당한다.

한편, 1933년 4월 19일 춘천에서 동부연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지방 구성은 원주, 홍천, 춘천, 철원, 원산과 강릉의 6개 지방이었다. 1982년 3월 22일 제33회(개편 제2회) 동부연회가 충주제일교회에서 윤춘병 감독의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춘천지방이 춘천동 · 춘천서지방으로 분할되었다. 1991년 4월 2~4일 제42회(개편 제11회) 동부연회가 속초교회에서 박성로 감독의 사회로 열렸으며, 춘천동지방이 춘천동·춘천남지방으로 분할되어 춘천지방회는 춘천동·서·남지방 3개 지방으로 확장되었다. 1999년 4월 6일 속초교회에서 제58회 동부연회가 김명기 감독의 사회로 열

렸으며, 춘천동·서·남지방이 춘천동·춘천서·춘천남·춘천북지방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시대 때 춘천지방은 단일지방시대가 있었다. 1933년 4월 19일부터 춘천단일지방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감리사가 활동한 시기는 박내철 감리사 때부터이다. 물론 이전에 정춘식·임진국·조상문·이경중 감리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다. 이에 박내철 감리사 이후 동지방과 서지방으로 분리되는 1982년까지 감리사는 다음과 같다.

춘천단일지방시대 감리사(1949~1982년)

구 분	성 명	시무기간	구 분	성 명	시무기간
1대	박내철 감리사	1949년 4월~1955년 3월	9대	김연호 감리사	1973년 3월~1974년 3월
2대	이철상 감리사	1955년 3월~1957년 4월	10대	김종철 감리사	1974년 3월~1975년 4월
3대	명관조 감리사	1957년 4월~1959년 3월	11대	임택창 감리사	1975년 4월~1977년 3월
4대	이정엽 감리사	1959년 3월~1963년 3월	12대	송기창 감리사	1977년 3월~1979년 3월
5대	김연호 감리사	1963년 4월~1967년 4월	13대	이영호 감리사	1979년 3월~1980년 10월
6대	장인덕 감리사	1967년 4월~1969년 3월	14대	곽철영 감리사	1980년 10월~1981년 10월
7대	김연호 감리사	1969년 4월~1971년 3월	15대	권정홍 감리사	1981년 10월~1982년 3월
8대	장인덕 감리사	1971년 3월~1973년 3월			

이후 1982년 3월 22일 동부연회 춘천동·서지방으로 분리되었고 1991년 4월 2일에는 동부연회 춘천동·서·남지방으로 분할하였다. 1982~1999년까지 역임한 감리사는 다음과 같다.

춘천동·서·남 3개지방분할시 감리사(1982~1999년)

지방분할	구분	시무기간	동지방 감리사	서지방 감리사	남지방 감리사
동·서지방 분할 (1982년 3월 22일)	1대	1982년 3월~1983년 3월	김창수	안경호	
	2대	1983년 3월~1985년 3월	김창수	안경호	
	3대	1985년 3월~1987년 3월	조충원	노정관	
	4대	1987년 3월~1989년 3월	임택창	이영호	
	5대	1989년 3월~1991년 4월	차관식	안경호	
동·서·남 지방 분할 (1991년 4월 2일)	1대	1991년 3월~1993년 3월	장병욱	신청웅	임택창
	2대	1993년 3월~1995년 3월	김창수	권오서	원기배
	3대	1995년 3월~1997년 3월	이복규	길동휘	차관식
	4대	1997년 3월~1999년 4월	김영원	유진형	정상문

1999년 2월 22일에는 동부연회 춘천동·서·남·북 4개 지방으로 분할하였다. 4개 지방 감리사는 다음과 같다.

춘천동·서·남·북 4개 지방 분할시 감리사(1999~2021년)

구분	시무기간	춘천동지방	춘천서지방	춘천남지방	춘천북지방
1대	1999년 4월~2001년 3월	차관식	권오서	김명분	한 균
2대	2001년 4월~2003년 4월	이기승	송홍식	양기태	김종홍
3대	2003년 4월~2005년 4월	박영호	백낙영	박인관	최헌영
4대	2005년 4월~2007년 4월	양한영	박두원	김명분	이순남
5대	2007년 4월~2009년 4월	이상묵	윤병식	허태수	김흥수
6대	2009년 4월~2011년 4월	원종국	김윤정	원기배	김광석
7대	2011년 4월~2011년 12월	차양근	곽영준	최종수	최영조
8대	2011년 12월~2013년 4월	김종호	장춘근	최종수	최영조
9대	2013년 4월~2015년 4월	백낙영	임용웅	유진형	배장춘
10대	2015년 4월~2017년 4월	정해창	정명성	손학균	조병권
11대	2017년 4월~2019년 4월	이학상	윤병식	염명동	임점길
12대	2019년 4월~2021년 4월	유대식	서재동	류호선	이용호
13대	2021년 4월~	윤영호	홍순석	박인관	신현명

4) 구역회



임시구역회 개표 모습(춘천동지방 윤영호 감리사 주재, 신성교회, 2022년 4월 17일)

구역회의장인 감리사가 주재하는 구역회는 해당 구역의 연례회의로서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모여 구역 안의 영적 정황 및 수입지출 결산 및 재산권(부동산 구입, 매매, 임대차),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또 지방회 대표 선출 및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구역회원 1/3이 요청 시에는 감리사는 임시 구역회를 소집한다.

감리사 및 담임자와 연회원 교역자, 평신도사역자, 당회 각 부서장, 교회자치단체장(남여선교회장 및 청장년, 청년회, 교회학교장) 및 당회서기, 감사, 임원 중 장로, 권사, 속장에 의해 구성되는 이 회의의 의장은 감리사이다. 감리사는 담임자에게 의장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감리사 유고 시에는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

또 구역인사위원회는 교역자의 인사문제를 처리한다. 구역인사위원회는 구역소속 지방회원과 연회원 교역자로 구성되며, 담임목사의 인사는 재적의 2/3로,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 등은 1/2 이상의 가표로 인사 처리한다. 한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 처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회


신성감리교회 당회 모습(2020년 12월 13일)

당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주재하는 당회는 세례받은 18세 이상의 입교인과 연회 및 지방회에서 파송한 교역자가 매년 11~12월 중 모이는 의회이다. 이 의회에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고 집사, 권사, 감사, 교회학교장, 장로를 선출한다.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된 임원들을 당회의 결의(장로는 2/3)로 선출하고, 남녀청장년 선교회장과 청년회장을 인준한다. 보통 담임 교역자는 신년 목회계획을 발표하고, 교회의 행정적 보고와 일반 업무를 처리한다. 개체교회의 부서는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재무부, 관리부가 있고 각 부장은 부서에서 선출한다. 또 담임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당회의 실행부 위원회는 임원회로서 분기별로 모여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분

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와 접수를 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임원은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과 당회에서 인준받은 각 선교단체의 회장 및 당회 서기와 연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 회원과 장로로 구성하되 7명 미만인 경우에는 권사, 집사의 순으로 7명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2. 봉사 및 전도(선교)

1) 봉사

봉사에는 대내적인 봉사와 대외적인 봉사가 있다. 전도 역시 봉사의 범주에 속한다. 대내적인 봉사에는 교회 및 성전 청소를 비롯하여 주방 봉사, 설거지 봉사, 교회학교 교사 봉사, 찬양대 봉사, 꽃꽂이 봉사, 안내 봉사, 주차안내 봉사 등 다양한 봉사가 있다. 대외적인 봉사로는 의료봉사, 요양원 등의 시설 방문 봉사, 반찬을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반찬 봉사, 연탄배달 봉사,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집짓기 봉사, 사회를 변화시키는 봉사 등등 다양하다. 두 가지 예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춘천연탄은행은 추위에 떨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한 장의 작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으로 2004년 10월 1일 개원하여 매년 자원봉사자 4,000여 명과 함께 춘천 전 지역 에너지 빈곤층 1,000세대에 30~40만 장 정도의 연탄을 무료 지원하고 있



제자감리교회 정해창 목사가 운영하는 춘천연탄은행의 후원 및 봉사자 모습(2015년 11월 21일)

다. 연탄은행은 기부자의 후원과 시민봉사자들을 통하여 운영된다. 이를 운영하는 제자감리교회 정해창 목사는 2004년 10월 1일 개업한 이래 2016년까지 연탄나눔 3,150,000장, 사랑의 도시락 18,500가정, 무료급식 12,752명, 김장김치 2,130가정, 사랑의 쌀 15,200kg, 연탄보일러교체 21가정, 기타 집수리와 도배, 인재장학금 수여 등을 실천해왔다.



사랑의 집짓기 기공식[앞줄 가운데 이사장 김창수 목사 (신성감리교회), 2008년 3월 21일]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는 2003년 3월 8일 설립한 이래 집짓기, 집 고치기 등을 진행해 왔다. 2004~2012년 12월에는 춘천시 신북읍 17동 68세대 건축하였고 2013년 4월~2016년 12월에는 춘천시 동면 지내리 10개 동 40세대 건축하였다. 이때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에는 춘천시 동면 가산로45 (사)한국해비타트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으며, 이사장에 신성감리교회 김창수 목사, 부이사장(실행위원장 겸함)에 춘천제일감리교회 허민구 장로가 봉사하였다, 사무국에는 행정팀장에 박유식 목사(6년 근무), 건축팀장에 성석중(11년 근무) 목사가 맡고 있었다.

2) 국내외선교

봉사와 동시에 복음도 전한다. 전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수가 구세주'임과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한다.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전한다.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2만 8천여 명이라 한다.

춘천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춘천지역의 감리교회들은 개인이나 기관 등에 후원금을 보내며 선교를 하고 동시에 많은 교회도 설립했다. 동부연회 춘천동지방회 소속 춘천지역의 연도별 교회설립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부연회 춘천동지방 소속 춘천지역교회 연도별 설립현황

동부연회 지방회	교회(설립, 현재 담임자)	계
1898~1910	춘천중앙(1898.4.1), 천전(1905.4.5)	2
1911~1944	남산(1917.4.10), 춘천안디옥(1919.8.2.), 신성(1920)[5], 춘천석사(1922.4.5), 우두(1931.4.5)	5
1945~1959	혈동(1945.4.1), 산천(1949.4.1), 신남(1952.10.10), 가산(1953.6.10), 지내리(1953.11.23), 춘천명성(1954.4.6), 성암(1959.3.15)	7
1960~1979	북산(1962.12.20), 덕두원중앙(1965.8.18), 사북(1966.4.1), 동원(1969.4.19.), 신매(1971.11.29), 남부제일(1973.5.6), 춘천광장(1973.12.2), 춘천벧엘(1974.7.17), 강촌(1975.11.10), 원평(1975.12.8), 춘천제일(1976.3.13), 덕촌(1976.7.4), 춘일(1977.6.12), 평화동산(1878.4.23), 금성중앙(1978.6.1), 지암(1978.11.20), 거두리(1979.4.8), 만천(1979.12.17)	18
1980~1999	희망(1980.3.10), 후평중앙(1981.10.5), 춘천세광(1982.2.28), 원창(1982.3.21), 행복한(1986.5.4), 의암(1982.11.14), 하일(1983.8.15), 강북(1984.1.17), 시온(1984.5.20), 춘천강남(1984.9.30), 한길(1984.12.2), 상걸리(1985.11.7), 등불(1986.10.9), 창신(1987.3.7), 푸른하늘(1987.5.30), 팔미(1988.8.11), 효자(1988.9.30), 참사랑(1989.8.29). 제자(1989.11.19), 군자(1990.2.13), 대은(1990.9.15), 창대(1991.1.15), 임마누엘(1991.5.20), 서춘천(1992.3.2), 강촌광림(1991.7.1), 생명수(1991.10.12), 춘천광염(1991.10.22), 소양(1992.2.19), 갈릴리(1992.9.20), 창대(1993.9.24), 복지(1994.1.31), 부름(1994.3.16), 사랑(1995.2.27), 서광(1995.10.3), 주님의(1996.9.9), 금산시온(1997.9.30), 들꽃(1997.10.22), 선한(1998.9.3), 푸른언덕(1999.2.12), 온의(1999.9.3)	40
2000년대	현대(2000.1.24), 로뎀나무(2000.4.16), 세움(2000.7.23), 단비(2000.11.4), 봄내(2000.10.15), 햇빛(2002.1.5.), 은혜(2002.2.4.), 참빛(2002.5.31), 가일(2003.4.1), 시냇가에심은나무(2003.4.6.), 밀알(2004.9.16), 동부중앙(2004.11.11.), 창솔(2005.3.7), 샘솟는(2005.4.30), 예수원(2005.10.31), 칠전(2006.3.27), 세광(2007.3.24), 오탄생명(2007.4.5), 사도행정(2007.8.19), 꿈의(2007.12.3), 예현(2008.3.19), 창조(2008.3.25), 바나바(2008.3.27), 치앙마이한인(2008.7.1), 싱가포르늘푸른(2008.12.16), 글로리아(2009.5.20.), 나무아래(2010.3.27), 임마누엘(2010.10.7), 엠마오(2010.11.16), 나눔(2011.2.13), 감사하는(2011.3.17.), 찔레곤늘푸른(2011.9.18), 소망(2012.1.20), 하늘소망(2012.3.18), 민들레(2012.4.28), 이음(2012.9.2). 가온누리(싱가포르, 2013.1.6), 연리지(2013.3.8), 더사랑(2013.3.21), 화평(2013.5.23), 푸른샘(2013.9.2), 하늘문(2014.2.16), 두드림(2016.4.23), 춘천반석(2016.6.10), 초대(2017.3.1), 춘천우리(2017.4.15), 부활의(2018.6.3.), 세움(2019.9.29.), 화천 시골(2019.3.10)	50
계		122

5) 당시의 후평리교회는 구체적으로 설립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20년에 춘천중앙교회의 유한익 목사의 사모인 유사라 전도사가 관리했다는 근거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둔다.(『춘천중앙교회사(1898~2006)』, 381쪽 참조).

위의 표에서와 같이 1898년 춘천중앙교회가 설립된 이후 12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춘천에 설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도 선교를 파견하고 해외에 교회도 많이 지었다. 춘천지방 소속 많은 교회들이 해외선교에 매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다. 2021년 춘천지역 교회의 선교사 파송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지역 교회 감리교 선교사 파송현황(2021년)[6]

순번	이름	연급	지방회	소속교회	사역자
1	이우현	정	강릉남	강릉중앙	태국
2	김형백	정	강릉남	강릉중앙	탄자니아
3	홍흥기	정	강릉남	반석	온두라스
4	유인혁	정2	강릉북	사천	c국
5	신승자	정	동해삼척	성민	필리핀
6	김재욱	정	새영월	길갈	c국
7	김제환	정	속초북	속초	캄보디아
8	안규은	정	원주동	문막	키르기스스탄
9	김주영	정	원주동	문호	필리핀
10	문종현	정	원주동	동성	캄보디아
11	유병훈	정11	원주동	심천	카자흐스탄
12	추성웅	정	원주서	원주제일	인도네시아
13	박유관	정7	원주서	원주중앙	밀레이시아
14	임선우	정6	원주서	명륜	태국
15	최보람	정2	원주서	원주제일	인도네시아
16	이성민	준2	원주서	원주제일	필리핀
17	최대한	정	원주남	신림	C국
18	박구성	정2	원주남	만제복음	일본
19	박형근	정	정선	정선	인도
20	호승철	정7	춘천동	만천	C국
21	강진록	정6	춘천동	효자	태국
22	이준연	정6	춘천동	효자	일본
23	탁성현	정3	춘천동	춘천제일	인도
24	이영희	정	춘천서	춘천중앙	C국
25	한인자	정	춘천서	춘천중앙	말레이시아

6) 『제81 동부연회자료』(2022), 115~116쪽.

순번	이름	연급	지방회	소속교회	사역자
26	김재승	정	춘천서	초대	C국
27	송기택	정10	춘천서	남산	필리핀
28	권혁수	정9	춘천서	춘천중앙	인도네시아
29	김 찬	정8	춘천서	춘천중앙	인도네시아
30	김성수	정	춘천남	춘천석사	카자흐스탄
31	강희열	정11	춘천남	동원	C국
32	김종화	정4	춘천남	춘천석사	라오스
33	김승환	정	춘천북	열린	필리핀
34	김성일	정	춘천북	우두	C국
35	김해영	정6	춘천북	천전	일본
36	한득용	정	홍천서	홍천	C국
37	허명숙	정6	횡성	횡성	필리핀

위의 표와 같이 일본, 인도를 비롯하여 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지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온두라스 등지에 선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절 춘천 감리교단의 교세현황과 발전

1. 교세 현황

『춘주지』(1984)에 의하면, 1978년 7월 춘천·춘성을 합쳐 6개 교단의 교회수는 83개소, 교직자 수는 159명, 신도 수는 14,361명으로 춘천 인구 130,000명의 11%에 해당한다. 신자가 제일 많은 교단은 감리교(5,111), 장로교(4,954), 성결교(3,366), 침례교(650), 성공회(100), 구세군·순복음교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수도 같은 순위로 나타났으나 교직자 수에 있어서는 장로교(74), 감리교(46), 성결교(19), 침례교(11), 순복음교(7), 구세군·성공회(1) 순으로 나타났다.



동부연회 본부(원주 행구동, 2000년대)

1993년도 강원도의 감리교 교세는 다음과 같다. 지방 수 16, 교회 수 512처, 교역자 수 589명, 교인 수 92,056명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본부는 원주시 일산동 16113에 위치하고 있다가 2003년 12월 17일에 원주시 행구동 604-24에 신축 준공(1,045.6㎡)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8년 4월 2일 동부연회가 분할되어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충북연회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연회는 19개 지방이 되었다. 2000년 이후 교회 수와 교역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교인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세현황 (단위 : 개/명)

연도	2000	2003	2005	2007	2010	2013	2016
지방수	22	22	22	24	24	24	24
교회수	569	588	605	618	641	659	677
교인수	98,282	101,916	108,409	114,901	115,252	114,688	108,021
교역자수	711	752	791	822	905	954	985

* 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도별 교세현황」(각 연도 5월 기준).

그렇다면 춘천지방의 교세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춘천지방회 교세현황(1950~2000년대)

동부연회 지방	1958			1988			2008			2018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춘천동	39	3,169	38	39	10,217	43	29	8,480	38	34	6224	49
춘천서				28	7,883	31	31	9,433	56	42	10083	72
춘천남				30	7,060	39	32	11,810	56	34	7637	55
춘천북							27	6,532	37	29	3231	37
계	39	3,169	38	97	25,160	113	119	36,255	187	139	27,175	213

* 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1958·1988·2008·2018년 연회록』 참고.
* 교역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전도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위의 표와 같이 1958년도 교회는 39개소, 1988년은 97개소, 2008년은 119개소, 2018년은 139개소로 꾸준히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교인 수는 1958년 3,169명에서 1988년 지방회가 세 지방회로 나누어졌을 때 25,160명으로 30년이 지나면서 8배 정도 늘었다. 2008년에도 계속 성장하여 교인이 36.255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7,175명으로 줄었다. 교역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8년은 춘천에 복음이 들어온 지 60년이 되는 시점이고 6.25전쟁이 끝난 5년 후로, 당시 춘천지방 감리사 명관조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춘천지방은 구역 수 26, 교회 수 35, 기도처 수 15였으며, 교역자는 정회원4, 준회원3, 협동회원7, 서리전도사16, 여전도사6, 선교사2 등 38명이 시무하였다. 교인은 3,169명으로 입교인 1,023명, 영아세례 83명, 세례인 46명, 학습인 489명, 원입인 1,528명 등이었다. 당시 춘천지방에는 장로 17명, 권사 50명, 유사 116명, 탁사 98명, 속장 196명, 주교장 29명, 청년회장 28명이 있었으며, 주일학교 학생 수 5,203명, 청년회원 수 1,034명, 여선교회 회원 548명, 속도수 1,440, 유치원 수 2개소가 있었다.

1958년에서 다시 60년이 지난 2018년에는 교회 139개소, 교인 27,17명, 교역자 198명으로, 교회는 3.5배, 교인은 8.8배, 교역자는 5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의 2019년 춘천동·서·남·북 지방회 교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춘천동서남북 지방회 현황(2019년)

동부연회 지방회	교회(설립 연월일, 현재 담임자)	계
춘천동	양구(1910.3.30, 이강혁), 신성(1920, 박진형), 양구 가오작(1952.4.25, 김선), 가산(1953.6.10, 윤영호), 양구 방산(1969.10.12, 박선양), 양구 시온(1974.3.5, 이정섭), 춘천제일(1976.3.13, 이용호), 만천(1979.12.17, 유대식), 후평중앙(1981.10.5, 이학상), 한길(1984.12.2, 최정식), 양구 원당(1985.8.11, 차양근), 상걸리(1985.11.7, 김영명), 등불(1986.10.9, 김종태), 양구 오미(1986.10.26, 박은석), 양구 군량리(1987.3.23, 김동원), 효자(1988.9.30, 김종호), 참사랑(1989.8.29, 김희경), 창대(1993.9.24, 이병기), 주님의(1996.9.9, 조성연), 들꽃(1997.10.22, 정종태), 선한(1998.9.3, 박태균), 온의(1999.9.3, 이용욱), 단비(2000.11.4, 탁종수), 햇빛(2002.1.5, 임인택), 은혜(2002.2.4, 성낙환), 밀알(2004.9.16, 오세혁), 사도행정(2007.8.19, 박재영), 나눔(2011.2.13, 박유식), 가온누리(싱가포르, 2013.1.6, 김영우), 화평(2013.5.23, 옥재명), 하늘문(2014.2.16, 민충기), 두드림(2016.4.23, 서진석), 춘천반석(2016.6.10, 홍혁수), 춘천우리(2017.4.15, 김은택)	34
춘천서	춘천중앙(1898.4.1, 심성수), 남산(1917.4.10, 신성환), 춘천명성(1954.4.6, 임용웅), 덕두원중앙(1965.8.18, 전기환), 신매(1971.11.29, 이종석), 남부제일(1973.5.6, 장동식), 강촌(1975.11.10, 이석), 춘일(1977.6.12, 서재동), 춘천세광(1982.2.28, 정택은), 의암(1882.11.14, 이신선), 춘천강남(1984.9.30, 윤병식), 행복한(1986.5.4, 김윤정), 창신(1987.3.7, 한희준), 푸른하늘(1987.5.30, 김석상), 팔미(1988.8.11, 정명성), 강촌광림(1991.7.1, 전선옥), 소양(1992.2.19, 손영대), 부름(1994.3.16, 조형연), 서광(1995.10.3, 김희산), 금산시온(1997.9.30, 김지현), 온의(1999.2.18, 이용욱), 늘푸른(1999.9.26), 세정(2001.4.30, 전영상), 참빛(2002.5.31, 고종수), 시냇가에심은나무(2003.4.6, 정용재), 새소망(2006.3.27, 김시윤), 꿈의(2007.12.3, 홍순석), 예현(2008.3.19, 김력), 창조(2008.3.25., 조춘실), 싱가포르늘푸른(2008.12.16, 이희문), 글로리아(2009.5.20, 김민우), 열방(2009.5.20, 김창희), 나무아래(2010.3.27, 이덕균), 찔레곤늘푸른(2011.9.18, 장경호), 하늘소망(2012.3.18, 류해운), 이음(2012.9.2, 김푸른), 연리지(2013.3.8, 박용한), 더사랑(2013.3.21, 박대성), 푸른샘(2013.8.2?, 김용기), 초대(2017.3.1, 이상권), 부활의(2018.6.3., 곽승연), 세움(2019.9.29, 한현성)	41
춘천남	춘천안디옥(1919.8.2, 이준복), 춘천석사(1922.4.5, 손학균), 혈동(1946.3.1, 문충기), 신남(1952.10.10, 양기태), 성암(1959.3.15, 허태수), 동원(1969.4.19, 이주헌), 춘천광장(1973.12.2, 황종윤), 거두리(1979.4.8, 남궁만), 희망(1980.3.10., 류호선), 원창(1982.3.21, 유낙환), 시온(1984.5.20, 안정희), 한길(1985.2.10, 최정식), 군자(1990.2.13, 박진성), 대은(1990.9.15, 홍성두), 창대(1991.1.15, 이성신), 임마누엘(1991.5.20, 이종백), 생명수(1991.10.12, 정예성), 춘천광염(1991.10.22, 박인관), 서춘천(1992.3.2., 이창희), 복지(1994.1.31, 엄현수), 사랑(1995.2.27, 염명동), 진리(1996.10.21, 고윤원), 푸른언덕(1999.2.12, 박영주), 현대(2000.1.24, 박현종), 로뎀나무(2000.4.16, 김수영), 봄내(2000.10.15, 최종수), 창솔(2005.3.7, 정득), 예수원(2005.10.31, 최영길), 세광(2007.3.24, 정일석), 바나바(2008.3.27, 유병준), 치앙마이한인(2008.7.1, 김문환), 엠마오(2010.11.16, 김효승), 감사하는(2011.3.17, 이민규), 소망(2012.1.20, 고덕필)	34

동부연회 지방회	교회(설립 연월일, 현재 담임자)	계
춘천북	천전(1905.4.5, 강희찬), 화천제일(1909.4.1, 공기현), 화천 원천(1921.3.21, 양세훈), 우두(1931.4.5, 안창원), 산천(1949.3.1, 조병권), 지내리(1953.11.23, 한종동), 화천 봉오(1957.2.1, 성요한), 화천 열린(1957.7.20, 김광석), 화천 상서제일(1958.7.1, 이강호), 북산(1962.12.20, 김성권), 사북(1966.4.1, 한주희), 춘천벧엘(1974.7.17, 김국환), 원평(1975.12.8, 신창윤), 화천 덕촌(1976.7.4, 이경복), 평화동산(1878.4.23, 한균), 금성중앙(1978.6.1, 마태일), 지암(1978.11.20, 김재신), 하일(1983.8.15, 이득영), 강북(1984.1.17, 임점길), 화천 사방(1985.6.20, 홍성혁), 화천 소망(1986.12.19, 박영삼), 화천 신광(1987.1.23. 김용식), 화천 부촌(1987.3.14, 박세광), 제자(1989.11.19, 정해창), 갈릴리(1992.9.20, 최영조), 가일(2003.4.1, 전동훈), 동부중앙(2004.11.11, 신현명), 샘솟는(2005.4.30, 김동윤), 오탄생명(2007.4.5, 이현구), 임마누엘(2010.10.7, 홍경일), 민들레(2012.4.28, 안세현), 화천 시골(2019.3.10, 이동규)	30
계		139

* 『2019년도 동부연회 춘천동·서·남·북지방 통계표』 참조.

춘천4개 지방은 동부연회 규정에 따라, 연간 예산액 3,500만원 미달 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지방, 연회, 본부 등의 보조금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개인 활동, 겸직, 등으로 보충한다. 춘천4개 지방의 미자립교회는 139교회 중 동지방 21, 서지방 22, 남지방 16, 북지방 11, 총 70교회가 미자립 교회이다.

교세현황을 보다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 2021년도 춘천동·서·남·북지방회의 교회수, 교역자, 교회임원, 교인현황, 조직현황, 교회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춘천동서남북지방 기본통계표(2021년 12월 31일)

구분	세 항	춘천동	춘천서	춘천남	춘천북	합계	참고
교회수	동부연회 24지방 694교회	34	38	34	32	138	
교역자	목사 (정회원)	44	59	53	40	196	
	준회원	2	3	1		6	
	전도사	1	1	2		4	
	원로목사	3	10	5	6	24	
	합 계	50	73	61	46	230	

구분	세 항	춘천동	춘천서	춘천남	춘천북	합계	참고
교회임원	장로(여)	47 (5)	101 (10)	53 (4)	44 (7)	245(26)	
	권사	606	1.056	824	461	2,947	
	집사	982	1,259	1,197	553	3,991	
	원로장(여)	44 (7)	70 (10)	60 (4)	36(3)	210(24)	
	합 계	1.679(12)	2.486(20	2.134(8)	1,094(10)	7,393	여(50)
교인현황	원입인	643	2,079	524	488	3,734	
	세례인	312	625	269	134	1,340	
	세례아동	323	505	399	225	1,452	
	소계	1.278	3.209	1.192	847	6,526	
	입교인(남)	1.667	2.625	1.504	887	6,683	
	입교인(여)	2.444	3.812	3.018	1.431	10,705	
	소계	4.111	6.437	4.522	2.318	17,388	
	합 계	5.790	8,923	6,656	3.412	24,781	여(50)
조직현황	선교사파송	4	5	2	3	14	
	미자립교회	21	19	20	11	71	3,500만원 미만 교회
	남선교회	20	46	26	18	110	
조직현황	여선교회	75	101	60	56	292	
	청장년회	15	33	18	12	78	
	청년회	10	14	11	10	45	
	찬양대	12	28	14	8	62	
	속회	150	433	72	38	693	
	합 계	307	679	223	156	1,365	
교회학교	아동부	74	119	98	48	339	
	중고청부	76	89	76	52	293	
	성인부	56	65	60	40	221	
	교회학교 수	206	273	192	120	791	
	교회학교학생수	2.878	3.995	2,706	1.156	10,735	
	합 계	3,290	4,541	3,132	1,416	12,379	

2. 춘천지방회 각 교회의 발전

1) 춘천중앙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모습(2022년)

춘천중앙교회는 춘천과 강원도 선교는 1897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감리회 한국선교회 연회에서 강원도 선교를 결의하고, 1898년 봄 남감리회 파송을 받은 매서인 나봉식과 정동렬이 처음으로 강원도 도청 소재지 춘천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이 곧 춘천과 강원도 '모교회'로서 춘천중앙교회 역사의 시작이다. 이후 여러 매서인들이 주기적으로 춘천과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며 전도한 결과 춘천과 주변 지역에 교인들이 생겨났고, 1901년 4월 무스 선교사가 춘천을 방문하여 퇴송골(현 퇴계동)에서 첫 속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02년 무렵부터 무스와 함께 춘천을 왕래하며 전도하던 이덕수가 1905년에 춘천으로 이주하여 봉의산 기슭 언덕에 초가집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퇴송골뿐 아니라 춘천 인근 교인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함으로 춘천구역을 조직하였다.

이후 1세기가 지나 권오서 담임목사는 사도 바울의 로마행(行)을 담은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 기록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Acts 29 비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권오서 목사는 사도행전 29장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인 것을 강조하였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9장의 계승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Acts 29 비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중앙 임원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이미 창립 108년이라는 유구한 교회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뒤

안길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손으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자 오늘도 힘차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명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전 ACTS 29'를 열면서 우리 춘천중앙의 어린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4천여 춘천중앙의 가족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또 다른 베드로와 또 다른 바울, 그리고 스데반, 빌립,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이 되는 2008년에는 장년 예배자 5,000명! 그리고 꿈터교회, 새싹교회, 푸른교회, 드림교회, 비전교회 예배자 5,000명! 그리하여 도합 '춘천중앙 1만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의 어둠에 신선한 영적인 생명불을 밝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7]

이러한 담임 목사의 호소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춘천중앙교회 임원들은 적극 화답하였고 3일간 기도와 토론을 거친 후 2008년 1월 10일 마지막 날 저녁 다음과 같은 내용의 'Acts 29, 2006 비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핵심은 '두 날개'로 표현된 '예배와 전도'였다. 이처럼 춘천중앙교회는 2006년을 'Acts 29 비전' 운동의 출발로 삼고 교회 창립 110년을 맞는 2008년에 '1만 가족'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예배와 전도 중심의 교회로 재도약, 체질 개선을 추구하였다. 춘천중앙교회 미래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춘천중앙교회의 2019년 교세는 아동(616명), 청년(718명), 성인 등 6,079명(남2,632, 여3,447)이었다. 2019년에 새로 부임한 심성수 담임목사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3,000명의 제자, 300개의 소그룹, 30개의 선교지'라는 비전 실천전략을 가지고 교인들과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

---

7) 『춘천중앙교회(1898~2006)』, 895~896쪽.

2) 천전교회


천전교회 전경

춘천북지방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천전교회는 1915년 4월 7일 설립되었다. 천전교회는 일찍이 도미 유학을 하고 귀국한 윤석규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하였으며, 지금의 율문4리에 첫 교회를 건립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4044호, 1926.2.15)에는 율문리예배당(춘천군 신북면 율문리)은 1925년 12월 8일 구 담임자인 부라만(夫羅萬, 브래넌 Brannon. Rev. &Mrs. Lyman Coy. 1880~1971)에서 신 담임자인 안지선으로 담임자가 교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일제의 탄압과 6.25전쟁으로 갖은 어려움을 당한 끝에 교회의 문을 닫는 슬픔을 겪어야 했지만, 9.28서울수복 이후 지금의 천전초등학교 정문 우측에 '율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천막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이후 지금의 율문5리에 천전교회로 교회건물을 건축한 후, 다시 근처의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함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전교회 역대 교역자로는 1대 장정문 전도사, 2대 이희경 전도사, 3대 김봉재 전도사, 4대 윤영원 목사, 5대 이강복 목사, 6대 안정헌 목사, 7대 연규태 목사, 8대 장병욱 목사, 9대 이복규 목사가 사역하였으며, 현재 강희찬 목사(2014~현재)가 담임목회자로 천전교회를 섬기고 있다.

2001년 10월 25일부터 나눔의 집(양로원)을 운영하다가 강희찬 목사가 2015년 9월 요양원으로 변경해 장영수 사무장, 김정화 원장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천전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세 겹 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힘써 모이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전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신성교회


춘천신성교회 모습(2007년)

동지방의 중추교회인 신성교회는 설립에 관한 역사가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춘천구역을 책임진 무스선 교사의 선교보고에 의하면, 1905년 세례교인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들이 8개 있으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원입인이나 학습인들로 조직된 모임도 여러 곳 있다. 이 중 몇 곳은 교인 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1906년 선교보고에 의하면, 속회나 기도처 형태로 모이는 정규모임이 48곳이 있는데, 세례교인이나 학습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교회규모를 갖춘 곳도 상당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현재의 신성교회는 1905~6년에 기도처 정규모임으로 시작했거나 어느 정도 교회를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 『춘천중앙교회사』에 의하면 1920년 유사라 전도사가 후평리교회와 퇴계리교회도 함께 섬겼다고 하였다.[8] 그리고 1926년 『동아일보』에 의하면, "후평리교회 주일학교에서는 9월 12일 저녁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400여 명을 모시고 24개의 프로프램으로 농민위안 음악연극대회를 열어 농민들을 위로했다"(『동아일보』 1926년 9월 17일 「농민위안극 성황리종료」).

이후 일제의 압박과 6.25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70년 후평교회를 신성(新聖)교회로 교명을 바꾸고 1972년 김창수 담임목사의 부임으로 기사회생하여 오늘의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2019년 교세는 아동부(129), 청년(57), 성인 등 2,463명(남1,059, 여1,404)이다. 2022년 새로 부임한 박진형 담임목사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고백하며 변화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양육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음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과 함께

8) 『춘천중앙교회사』 381쪽.

동행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종일뿐입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사명과 가치를 가지고 교인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 모습

안디옥교회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유한익 전도사가 춘천군 신남면 퇴계리 박수근 소유의 건물에서 퇴계리 교회를 개척,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폐교되고 6.25전쟁으로 예배도 중단되었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2005년에는 새성전 완공 후 안디옥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9년 현재 춘천남지방회의 중추교회로서 아동(71명), 청년부(124명), 성인 모두 포함하여 교인 1,925명(남638, 여1,287)의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이준복 담임목사는 “『기도·전도·헌신 열에 불타는 안디옥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강조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 교회인 안디옥교회와 같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성경의 안디옥교회같이 지역봉사와 세계선교의 큰 꿈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5) 춘천석사교회

춘천석사교회는 1922년 4월 5일 이창하 씨의 집에서 당시 춘성군 동내면 면장이던 박윤원 등이 예배를 드림으로 춘천석사교회가 창립되어, 남감리교회 춘천지방회 춘천 남선교처에 속하여 원익상 목사, 이윤석목사, 강재의 목사, 유한익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천막교회 시대를 거쳐 춘성군 동내면 석사리 109에 함석 양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장하였다. 약 2년 동안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 되었지만 다시 일어났고 6.25전쟁으로 예배당이 불타고 교인들이 흩어졌지만, 다시 일


춘천석사교회 모습

어나서 2019년 현재 춘천남지방회의 중추 교회로서 아동(115명), 청년부(132명), 성인 모두 포함하여 교인 1,641명(남640, 여1,001)의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손학균 담임목사는 예수님을 인생의 안내자, 영혼의 안내자로 만나고 따름으로 의미 있는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전 교인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춘천지방에 있는 100년 이상 된 중추적인 여러 교회와 130개 이상되는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특히 때로는 개별교회 중심으로, 때로는 동서남북 지방별로, 때로는 춘천지방회 연합으로 말씀공부, 전도 및 선교, 봉사 등을 하면서 120년 전 믿음의 감리교 선배들이 남긴 유업들을 교훈으로 삼아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6) 춘천제일교회


춘천제일교회 전경(2021년)

춘천제일교회는 1975년 11월 25일 심이택 권사 주택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1976년 2월 25일에 요선동 목조 2층 건물 1층 1동을 임대하여 개척하였다. 1976년 3월 5일 김건도 목사가 제1대 담임목사로 부임(이임 1978년 2월 21일)하였고 이틀 후인 3월 7일

교회 이름을 춘천제일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제일교회)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6일 후인 3월 13일에 창립예배(집례 마경일 총회장)를 드렸다.

1978년 2월 21일에는 차관식 목사가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은퇴 2003년 7월)하였다. 1980년 11월 25일 제1성전 봉헌예배를 드렸다. 1982년 3월 22일에는 동부연회에서 춘천지방을 춘천동지방·서지방으로 분할하였을 때 춘천동지방에 속하였으며, 1989년 3월에는 차관식 목사가 춘천동지방 감리사 취임하였다. 1991년 4월 2일 동부연회에서 춘천동지방을 춘천동지방·남지방으로 분할하였을 때에는 춘천남지방에 속하였다.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집회시 가득 메운 제일교회 예배당 모습(1997년 7월 13일)

1991년 8월 20일 제2성전 봉헌예배가 있었고 1995년 3월 31일 차관식 목사가 춘천남지방 감리사 취임했다. 1997년 7월 13~16일까지 동부연회 주관으로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춘천지역선교대성회가 개최되었을 때, 4일 동안 거행된 저녁집회는 춘천제일교회에서 열렸다.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어 본당 위까지 가득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집회였다. 1999년 4월 6일 동부연회에서 춘천동·서·남·북지방으로 분할하였을 때에는 다시 춘천동지방에 속하였다.

2003년 7월 18일에 원종국 목사가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은퇴 2018년 4월 15일)하였고 2005년에는 예배당을 리모델링하였다. 이때부터 춘천제일교회는 춘천지역을 비롯하여 동부연회와 춘천성시화에도 기여하였다. 2008년 11월 1일 원종국 목사는 제17대 동부연회 감독 취임, 2010년 11월 3일 춘천시기독교연합회장 취임했을 때에나 2012년 12월 28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3대)에 추대되었을 때에도 교인들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원종국 신임 이사장은 "중책을 맡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임기 동안 춘천성시화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2013년 5월 20일 강





이용호 목사 취임 후 기념(2021년 3월 14일)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백미10㎏ 100포를 교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춘옥)에 전달(2022년 6월 19일)하는 이용호 목사와 안치정 장로

원도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제일교회에서 창립모임을 갖고 초대 대표회장에 역시 원종국 목사가 선출되었다. 따라서 제일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사명을 뒷받침하였다.

춘천제일교회가 2019년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동부연회에 보고한 교회통계표에 의하면, 교인이 972명(남393, 여579)이었고 그 중 초등부 53명, 고등부 2명 등 55명이 있었으며, 임원에는 장로 4명, 권사 34명, 집사 109명이 있었다. 이때는 원종국 목사 은퇴 후 공기현 목사가 담임으로 재직할 때로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때였다.

2020년 12월 14일 하나님 은혜로 모든 소송을 끝내고 하나의 교회를 회복했다. 5대 이용호 목사는 2021년 2월 24일 양명환 목사(전 동부연회 감독)의 직권파송을 받고 2021년 3월 14일 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면서 취임했다. 이용호 목사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상처입은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위로했다.

2022년 8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었던 엘리베이터 건축을 마쳤고 1층 로비를 휴게실로 만들어 성도들의 쉼터로 제공했다. 2022년 군선교회 강원지회 지회장으로 취임해 춘천, 화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장병들을 섬기고 있다. 최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백미10㎏ 100포를 교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춘옥)에 전달했다.

7) 평화동산교회

평화동산감리교회는 1978년 4월 23일 당시 한균 전도사와 3명의 권사 가정으로 춘천시 후평동 516 향군회관 3층에서 창립되었다. 3년이 지난 1981년 4월에는 춘천시 동면 장학리 901-9의 공단 내 대지를 800여 평을 매입하고 기존 공장 건물을 교회로 개조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1997년에 주변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2000여 평의 대지에 기존 건물을 확장 개축하였고, 2000년에 이르러서는 교세 2천여 명의 대형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춘천복음화·민족복음화·세계선교를 표어로 한균 목사는 춘천 복음화를 위해 춘천과 강원도 기독교 기관의 회장과 대표를 맡아 헌신하였고, 인도를 비롯한 해외 7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 개척과 세계선교를 확대해 나갔다.

2007년에는 기존 대지 외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착공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건설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교회는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를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2009년 11월 1일 신축 예배당을 완공하고 입당도 하였다. 새 예배당은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500평에 달했다. 카페와 식당, 세미나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건축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3년 5월 불가피하게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 전체를 한마음 침례교회에 매각하고 춘천시 동면 노루목길 8-43으로 이전하여 교회명을 평화감리교회에서 평화동산감리교회로 개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균 목사(오른쪽)는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박재호 관장을 방문해 한 달간 난방비 지원 모금활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 275만원을 기탁하고 기념(2009년 12월 23일)

어려움 속에서도 춘천시 동면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교회 대강당으로 초청,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를 열었다. 한균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월이 흐

르면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풍토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교회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9)]

평화동산감리교회 담임 목회자인 한균 목사는 춘천에서 1978년 교회를 개척하여 춘천지역을 위해서 춘천북지방감리사(1999년 4월~2000년 3월),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장(2004년 11월~2005년 10월),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2006년 11월~2007년 10월), 강원경찰청 경목실장(2013년 4월~현재) 등을 역임하면서 2022년 현재까지 44년간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춘천과 강원도의 교계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8) 광염교회

광염교회는 기독교 선교모임인 광염회 춘천모임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발의하고 기금을 조성하였다. 광염교회는 광염회 회원이었던 박인관 목사를 담임목사로 하여 1991년 10월 22일 후평2동 1단지 시장 입구 순흥상가 3층을 세 얻어 두 가정으로 창립되었다.

창립목적에 따라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하고 첫 주부터 헌금의 30%를 선교비 통장으로 분류하여 필리핀, 인도, 중국, 캄보디아 등에 매년 창립주일 헌금으로 제3세계 국가에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과 담임목사의 성경의 맥 세미나를 인도하고 매년 학생, 대학, 장년부의 비전트립을 통해 선교를 고취하고 전화설교를 설치하고 매일 전도지를 만들어 전도하였고, 인도를 주력 선교지역으로 정해 CCF교회들과 연계하여 7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워 7명의 목사를 배출하고 1만평의 농지를 30년 임대하여



노방전도 나가며 파이팅 외치는 교인들(2011년 4월 3일)

9) 『국민일보』(2010.10.31), 「춘천 평화감리교회, 어르신 500명 초청 큰 잔치」.



광염교회 새성전 모습(2020년)

가나안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광염교회는 1991년부터 부흥하여 7년만인 1998년 석사동 진흥아파트 앞(석사동 728-8)에 건평 240여 평의 교회를 건축 입당했으며, 7년 만인 2005년에 건축 부채를 다 갚고 그해에 거두리에 1,500평의 교회 건축 부지를 마련했으며, 2020년 12월 5일에 연건평 580평의 교회를 경찰청 맞은편에 건축하고 입당했다.

광염교회가 동부연회에 보고한 교회통계표에 의하면, 2019년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는 교인이 547명(남163, 여230)이었고 그중 영아부 11명, 유치부 16명, 초등부 25명, 중등부 17명, 고등부 24명, 청년부 62명 등 103명이 아동 · 청년부였으며, 임원에는 장로 9명, 권사 39명, 집사 126명이 있었다.

담임목사인 박인관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5년 춘천동지방 송암교회를 담임하고 1990년 목사안수를 받고 1991년 10월 22일 광염교회를 개척하고 31년째 목회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춘천남지방 감리사를 두 번, 춘천목회자연합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섬기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강원CBS이사장을 역임하고 CCF교회들과 25년째 교제하며 연합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의 맥을 조명한 『아버지의 마음』, 성경통독 큐티교재인 『주님과 함께』를 출판하고 새가족을 위한 행복에로의 초대를 제작 · 활용하고 있다.

9) 우두교회

우두교회는 1931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경기도 가평에서 이주한 이규붕(李圭鵬) 형제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교회다. 초대 담임은 이윤석 목사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광복 후 1946년 7대 담임목사로 이윤석 목사가 재부임하였고 다음 해인 1947년에 8대 이진호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를 부흥시켰다. 1949년에는 전국감



우두교회 초창기 모습

리교회 주일학교 경진대회 성적우수상을 수상하고 1950년 수여받은 우승기 전달식 중 6.25전쟁 발발로 교인들 모두 피난하게 되었다.

1954년 4월 1일 제10대 이재선 전도사가 부임하여 소실된 예배당을 재건축하여 1955년 5월 20일 봉헌하였다. 그 후 1967년 제15대 신중균 목사가 부임하여 모범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를 성장시켰고 1976년 4월 1일 주성호 목사가 부임하여 4년 동안 더 든든한 교회를 성장시켰다.

1980년 5월 16일 제18대 김영원 목사가 부임하여 2012년 은퇴할 때까지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 특히 군선교와 종교 안보강연, 해외 선교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4년 3월 25일 우두교회는 저녁예배를 경찰선교를 위한 헌신예배로 드렸고, 1986년부터는 2사단 포병연대 633대대 대은교회 군종병 이재수 상병이 우두교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군선교의 길을 트고 자매결연을 하였고, 1991년에는 901중대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군선교를 하게 되었다.





우두교회 모습과 2011년 전교인 모습

이에 더하여 1998년 6월 30일 633부대부터 시작한 종교 안보강연도 2009년까지 34차례 진행되었으며, 군부대 교회건축 및 수리지원도 병행하여 13개 교회를 지원하였다. 성탄절 군부대 십자가 점등식도 지원하여 매년 7개 소초 및 교회에 지원하였다. 이에 더하여 2사단, 5사단, 7사단, 12사단, 15사단 등을 방문하여 병사들을 위문하고 다과와 세탁기 등을 부대 위문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는 안창원 목사가 우두교회 담임을 하고 있다. 안창원 목사는 1994년 4월 7일 필리핀에 파송되어 춘천동지방 소속 교회들의 필리핀 교회개척에 많은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관리하였던 선교사였다.

10) 춘천가산교회


춘천가산교회 모습(2005년)

춘천가산교회는 6.25전쟁이 종전되기 전인 1953년 6월 10일 강순이 권사의 가정에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휴전협정 이후인 1953년 8월 10일에는 기도처를 가산교회로 호칭하면서 첫 교역자 이영선 전도사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미 제24사단 2공병단에 근무하던 댄 소위의 도움으로 교회건축이 시작되고 미 공병대의 인력과 자재의 지원으로 1954년 5월에 십자가를 내건 예배당이 완공되어 동면지역의 복음을 담당했다.

이후 2대 김수연 전도사(1954년 6월~1956년 3월), 3대 이동철 전도사(1956년 9월~1957년 4월), 4대 김항식 전도사(1957년 5월~1962년 5월), 5대 김구철 여성 목사(1962년 5월~1967년 4월), 6대 박정일 전도사(1967년 4월~1969년 3월), 7대 김항식 전도사(1969년 4월~1970년 4월), 8대 김신웅 전도사(1970년 4월~1971년 4월), 9대 장춘익 전도사(1971년 4월~1974년 2월), 10대 양운주 전도사(1974년 3월~1975년 8월), 11대 박찬화 전도사(1975년 8월~1978년 1

월), 12대 최종운 전도사(1978년 1월~1979년 12월), 임형순 전도사(1979년 12월~1980년 12월), 1980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에는 곽호갑 목사가 염명동·이상규·김석범 교육전도사들과 함께 교회를 본 궤도에 올려놓았고 1999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임한 이상묵 목사 역시 교회를 부흥시켰다.

1984년 곽호갑 목사 시절 새 예배당을 건립하고 2005년 이상묵 목사 시절 외부 리모델링을 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3월 26일에는 본당에서 춘천에서 처음 열린 목회자아버지학교 수료식이 있어 아내를 위한 세족식 등 감동을 주었다. 이들 목회자들은 2월 말부터 5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40여 명이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개강 전부터 관심을 모았는데, 춘천지역 목회자들은 물론 양구, 철원, 화천 등 도내 곳곳에서 참석하는 등 관심을 끌었다.

2013년 가산교회는 교회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보은 차원에서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이원주 선교사(충북연회 제천 시온성교회 소속)를 통해 잉마뼁교회, 인레곤교회 두 교회를 건축(2019년 봉헌)을 하였고 현재 민동교회와 기숙사를 건축 중에 있다.





춘천가산교회의 미얀마 인레곤교회 봉헌2019년 9월 24일)

2019년 동부연회에 제출된 「교회통계표」에는 교인 169명(남65, 여83)이었고 이중에서 아동부 19명(유치부5, 초등부14), 중등부 5명, 고등부 3명, 청년부 7명이었다. 교역자는 정회원 1명, 임원은 86명(장로2, 권사44, 집사40)이 있었으며, 속회는 9속 86명(남28, 여58)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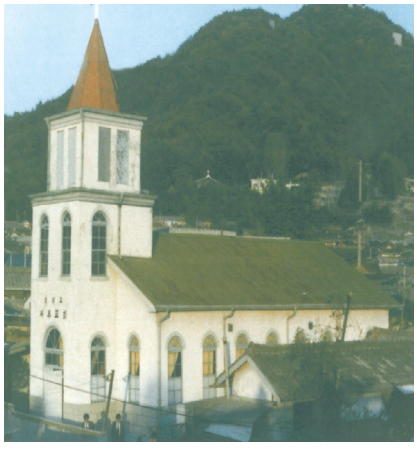
현재 2009년에 부임한 16대 윤영호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사랑나눔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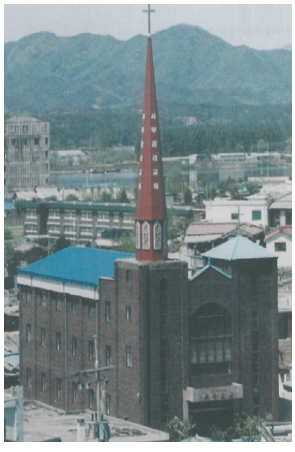
기증 등도 최근까지 하면서 주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5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제80회 연회에서 춘천동지방 감리사가 되어 가산교회와 동지방 34개 교회를 섬기고 있다.

11) 춘천명성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명성교회는 1954년 4월 6일 소양로2가 박춘자 권사 자택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원래 이름은 '서부교회'였으나 2006년 교회 이름을 '춘천명성교회'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지역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기와집골'은 강원도청 아래 과거 부자들만 살았던 지역이어서 오래된 기와집들이 있었고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준상(배용준분)이네 집이 교회 옆에 있어 한류 열풍이 한창일 때는 매일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주변 지역 재개발로 그 흔적은 사라졌다.

현재 담임목사로 임용웅 목사가 2012년 부임하여 목회하고 있다. 교회의 방향과 목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요4:23), "훈련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딤전4:6),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약2:16)이다. 전도와 양육을 위한 훈련을 통해 잘 훈련된 성도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로서 본질적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부르심'이 쇠퇴해 가는 시대에 진정한 부르심을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이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4절 춘천 감리교단 교회현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중앙교회	1898년 4월	심성수	춘천시 영서로 2151번길 30	감리교서지방
천전교회	1915년 4월 7일	강희찬	춘천시 신북읍 율문3길 49	감리교북지방
남산교회	1917년 4월 10일	신성환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94	감리교서지방
춘천안디옥교회	1919년 8월 2일	이준복	춘천시 퇴계농공로 4	감리교남지방
신성교회	1920년	박진형	춘천시 후석로 381	감리교동지방
춘천석사교회	1922년 4월 5일	손학균	춘천시 우석로 4번길 28	감리교남지방
행복한교회	1929년	김윤정	춘천시 남면 소주고개로 153	감리교서지방
우두교회	1931년 4월 5일	안창원	춘천시 사우로 154번길 13	감리교북지방
혈동교회	1946년 12월 1일	문충기	춘천시 신동면 혈동고개길 180-12	감리교남지방
산천교회	1948년 3월	조병권	춘천시 신북읍 샘뜨락길 46-88	감리교북지방
신남교회	1952년 10월 10일	양기태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0	감리교남지방
가산감리교회	1953년 6월 10일	윤영호	춘천시 가산로 58-9	감리교동지방
지내리교회	1953년 11월 1일	한종동	춘천시 신북읍 성문 1길 41	감리교북지방
춘천명성교회	1954년	임용웅	춘천시 기와집길 9번길 3	감리교서지방
성암교회	1959년 3월 15일	허태수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2길 25	감리교남지방
북산교회	1962년 12월 20일	김성권	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443	감리교북지방
덕두원중앙교회	1965년 2월 15일	전기환	춘천시 서면 덕두원길 44-6	감리교서지방
사북교회	1966년 4월 1일	한주희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63-12	감리교북지방
동원교회	1969년 4월 10일	이주헌	춘천시 효자로 124번길 15	감리교남지방
신매교회	1971년 11월 29일	이종석	춘천시 서면 박사로 1247-14	감리교서지방
남부제일교회	1973년 5월 6일	장동식	춘천시 효명길 26-4	감리교서지방
춘천광장교회	1973년 12월 2일	황종윤	춘천시 효자로 150번길 8	감리교남지방
춘천벧엘교회	1974년 7월 17일	김국환	춘천시 충열로 16번길 13	감리교북지방
강촌교회	1975년 11월 10일	이 석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55	감리교서지방
원평교회	1975년 12월 8일	신창윤	춘천시 사북면 원평길 45	감리교북지방
춘천제일감리교회	1976년 3월 13일	이용호	춘천시 춘천로 223번길 13	감리교동지방
춘일교회	1977년 6월 12일	서재동	춘천시 안마산로 338	감리교남지방
평화동산교회	1978년 4월 23일	한 균	춘천시 동면 노루목길 8-43	감리교북지방
금성중앙교회	1978년 6월 1일	마태일	춘천시 신북읍 맥국7길 25-31	감리교북지방
지암교회	1978년 11월 20일	김재신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2길 43-27	감리교북지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거두리교회	1979년 4월 8일	남궁만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241-4	감리교남지방
만천감리교회	1979년 12월 5일	유대식	춘천시 만군길 21	감리교동지방
희망교회	1980년 3월 10일	유호선	춘천시 우석로 85번길 9-13	감리교남지방
후평중앙교회	1981년 10월 5일	이학상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29	감리교동지방
강북교회	1982년 1월 17일	임점길	춘천시 충열로 67번길 18-4	감리교북지방
원창교회	1982년 3월 26일	유낙환	춘천시 동산면 원창안말길 40	감리교남지방
하일교회	1983년 8월 15일	이득영	춘천시 동면 공단로 70번길 202	감리교북지방
춘천세광교회	1982년 2월 28일	정택은	춘천시 효자로 57, 2층 203호	감리교서지방
의암교회	1982년 11월 17일	이신선	춘천시 신동면 의암1길 19-18	감리교서지방
춘천강남교회	1984년 9월 30일	윤병식	춘천시 칠전서길 5-13	감리교서지방
시온교회	1984년 5월 20일	안정희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51-12	감리교남지방
한길감리교회	1985년 1월 22일	최정식	춘천시 복골길 29	감리교동지방
상걸리감리교회	1985년 8월 11일	김영명	춘천시 거은골길 24	감리교동지방
등불감리교회 (전 샬롬교회)	1986년 10월 9일	김종태	춘천시 춘천로 380 5층	감리교동지방
창신교회	1987년	한희준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670	감리교서지방
푸른하늘교회	1987년	김석상	춘천시 서면 노동길 18-20	감리교서지방
팔미교회	1988년 8월 11일	정명성	춘천시 신동면 팔미길 5	감리교서지방
효자감리교회	1988년 8월 30일	김종호	춘천시 두하길 14	감리교동지방
참사랑감리교회 (전 반석교회)	1989년 8월 29일	김희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327	감리교동지방
제자교회	1989년 11월 19일	정해창	춘천시 동면 하일길 186-3	감리교북지방
군자교회	1990년 2월 13일	박진성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95	감리교남지방
대은교회	1990년 9월 15일	홍성두	춘천시 효석로 89번길 25, 1층	감리교남지방
창대교회	1991년 1월 15일	이성신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48	감리교남지방
임마누엘교회	1991년 5월 22일	이종백	춘천시 공지로 317번길 19	감리교남지방
생명수교회	1991년 10월 12일	민경진	춘천시 벌말길 34-8 2층	감리교남지방
춘천광염교회	1991년 10월 22일	박인관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60	감리교남지방
강촌광림교회	1991년 6월 23일	전선옥	춘천시 서면 경춘로771-79	감리교서지방
서춘천교회	1992년 3월 2일	이창희	춘천시 우석로 38번길 85	감리교남지방
소양교회	1992년 2월 19일	손영대	춘천시 공지로 442-15	감리교서지방
갈릴리교회	1992년 9월 20일	최영조	춘천시 우두강둑길 163	감리교북지방
사랑교회	1993년 3월 29일	염명동	춘천시 우석로 38번길 15	감리교남지방
복지교회	1994년 1월 31일	엄현수 전도사	춘천시 공지로 234-16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B1	감리교남지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부름교회	1994년	조형연	춘천시 삭주로108번길 25	감리교서지방
서광교회	1995년	김희산	춘천시 공원2길 15	감리교서지방
주님의감리교회 (전 좋은교회)	1996년 9월 9일	조성연 전도사	춘천시 춘천로 438 3층	감리교동지방
들꽃감리교회 (전 등대교회)	1997년 10월 22일	정종태	춘천시 금옥길 7, 101호	감리교동지방
금산시온교회	1997년	김지현	춘천시 서면 금산2길 42-1	감리교서지방
선한감리교회	1998년 9월 3일	박태균	춘천시 춘천로 256번길 2	감리교동지방
푸른언덕교회	1999년 2월 12일	박영주	춘천시 스무숲4길 42	감리교남지방
온의감리교회	1999년 2월 18일	이용욱	춘천시 효평길 30	감리교동지방
현대교회	2000년 1월 24일	박현종	춘천시 동내면 향군길23, 산수빌A상가 203호	감리교남지방
로뎀나무교회	2000년 4월 16일	김수영	춘천시 동내면 금촌로 93	감리교남지방
봄내교회	2000년 10월 15일	최종수	춘천시 후석로 66번길 18-1	감리교남지방
햇빛감리교회	2002년 1월 5일	임인택	춘천시 춘천로 381-2	감리교동지방
은혜감리교회	2002년 2월 4일	성낙환	춘천시 서부대성로 175	감리교동지방
참빛교회	2002년 5월 30일	고종수	춘천시 백석골길 22번길 47	감리교서지방
가일교회	2003년 4월 1일	전동훈	춘천시 사북면 가일길 394-5	감리교북지방
동부중앙교회	2003년 11월 2일	신현명	춘천시 사북면 토둔길 44	감리교북지방
시냇가의심은 나무교회	2003년 4월 6일	전유미 전도사	춘천시 충혼길 18번길 10	감리교서지방
밀알교회(전 이루어가는교회)	2004년 9월 16일	오세혁	춘천시 삭주로 134, 3층	감리교동지방
창솔교회	2005년 3월 7일	정 득	춘천시 새롬공원길 4번길 3-16	감리교남지방
샘솟는교회	2005년 4월 30일	김동윤	춘천시 영서로 2924	감리교북지방
예수원교회	2005년 10월 31일	최영길	춘천시 소전길 40	감리교남지방
칠전교회	2006년	김시윤	춘천시 칠전서1길 6	감리교서지방
세광교회	2007년 3월 24일	정일석	춘천시 효석로 141, 2층	감리교남지방
오탄생명교회	2007년 4월 5일	이현구	춘천시 사북면 우레골길 164-16	감리교북지방
꿈의교회	2007년 12월 3일	홍순석	춘천시 안마산로 214 퇴계주공 상가 3층	감리교서지방
사도행전교회 (새생명교회)	2008년 2월 21일	박재영	춘천시 애막골길 3번길 35	감리교동지방
바나바교회	2008년 3월 27일	유병준	춘천시 공지로 258, 2층	감리교남지방
예현교회	2008년 3월 19일	김 력	춘천시 효석로 37 401호 비전센터	감리교서지방
창조교회	2008년 3월 24일	조춘실	춘천시 춘천로 151번길 2	감리교서지방
글로리아교회	2009년 6월 5일	김민우 전도사	춘천시 후만로 95, 2층	감리교서지방
나무아래교회	2010년	이덕균	춘천시 공지로 338 상가2층	감리교서지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엠마오교회	2010년 11월 16일	김효승	춘천시 퇴계로 245, 3층	감리교남지방
나눔감리교회	2011년 2월 13일	박유식	춘천시 삭주로 128	감리교동지방
감사하는교회	2011년 3월 19일	이민규	춘천시 대룡산1길 129-9	감리교남지방
소망교회	2012년 1월 20일	고덕필	춘천시 안마산로 213, 퇴계타운상가 202호	감리교남지방
하늘소망교회	2012년 3월 18일	류해운	춘천시 시청길 8 오성빌딩 4층	감리교서지방
민들레교회	2012년 4월 28일	안세현	춘천시 영서로 2800	감리교북지방
이음교회	2012년 9월 2일	김푸른	춘천시 벌말길47번길 4	감리교서지방
하늘문감리교회	2014년 2월 14일	민충기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13	감리교동지방
화평감리교회	2013년 5월 25일	옥재명	춘천시 세실로 196-1	감리교동지방
푸른샘감리교회	2013년 10월 19일	김용기	춘천시 후만로 11	감리교동지방
연리지교회	2013년	박용한	춘천시 영서로 2315	감리교서지방
더사랑교회	2013년	박대성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1길 63	감리교서지방
세움교회	2019년 9월 29일	한현성	춘천시 소양로163번길 10	감리교서지방
두드림감리교회	2016년 4월 23일	서진석	춘천시 후만로 63-1	감리교동지방
춘천반석감리교회	2016년 6월 13일	홍혁수	춘천시 후석로 459 202호	감리교동지방
춘천우리감리교회	2017년 4월 15일	김은택	춘천시 만천로 145-1 2층	감리교동지방
초대 교회	2017년 3월 1일	이상권	춘천시 남춘로5번길 27-8	감리교서지방
부활의교회	2018년	곽승연	춘천시 행촌로 30	감리교서지방

제2장
춘천의 장로교단

1절 춘천 장로교단의 전래와 성장

1. 장로교의 강원도 전래

1890년 말부터 미북장로회의 선교사역이 철원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 승동교회를 목회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웰본(A.G.Wellbon. 한국명:오월번)과 무어(S.F. Moore. 한국명:모삼열) 선교사의 지도하에 토착 매서인(賣書人)들의 전도가 철원까지 이르렀다. 이들의 전도로 1900년에 세례교인 2명과 학습 교인 20명으로 철원읍에 최초의 장로교가 세워졌다.[10]

1907년 남감리회와 북장로교 사이에 맺어진 분할협정에 의해 철원 지역이 남감리교로 이전되어 남감리회의 크램(W.G. Cram) 선교사의 관할하에 속하게 되었고[11]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은 북장로교의 선교지역이 되어 1908년에는 웰본(Wellbon)과 렘프(H.W. Lamp)가, 1909년은 플래쳐 박사(Dr. Flecher)가 맡게 되었다.[12] 그러나 1909년에 확정된 최종적인 선교지 분할협정에 의해 원주지역을

10)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25~26쪽.
11) 『원주제일교회 80년사』, 원주제일교회, 1985, 77~78쪽.
12)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79~80쪽.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이 미감리교 지역으로 결정되어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 지역으로 되었다.[13]

> *장로교와 감리교는 1916년부터 구체적인 연합활동에 들어가 "연합공의회"를 조직하였다. 1917년 장로교 총회는 "장감 연합협의회 규칙"을 채택하였으며, 1918년 2월 26일에는 "장감 연합협의회"가 조직되었다.*[14]

그러나 1934년 9월 7일~14일에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23회 총회에서 장로교는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상설기관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1935년 9월 6일~13일에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24회 총회에서 장로교는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36년 9월 11일~19일에 광주 양림정교회에서 열린 제25회 총회에서 "장감 선교구역을 철폐"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5] 제25회 총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강원도에 장로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2. 장로교의 춘천 전래와 성장

춘천의 장로교는 평신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춘천에는 서북 출신의 장로교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 선교지 분할협정으로 감리교회만 있었기에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선교지 분할협정이 파기된 1936년 이후 제중의원 의사인 박민식과 박성봉 등이 중심이 되어 1939년 5월 7일에 어른 12명과 어린이 7명이 모여 소양로 3가 박민식의 집에서 조선예수교장로교회 춘천읍교회가 창립하게 되었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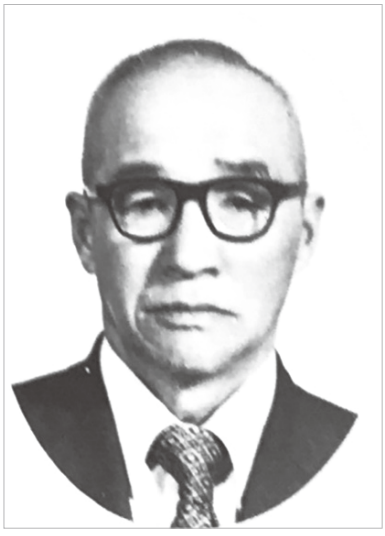
창립 맴버들은 1939년 9월 8일 신의주 제2교회에서 개회된 제28회 조선예수

13)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26쪽.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79쪽.
14)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29쪽.
15)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30~31쪽.
16)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90쪽.

교장로회 총회에 춘천에 장로교 모임이 만들어졌음을 알리며 총회 개회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고 목회자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회에서 박상설 씨가 황동노회 신설 청원을 하였고 평양, 황해 노회가 허락하여 9월 26일 황주읍교회에서 황동노회가 창립되었다.[17]

춘천읍장로교회는 1939년 5월 7일 박민식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1939년 11월 10일 예배장소를 춘천시 소양로 3가 126번지 박성봉 자택인 홍아여관 2층으로 옮기게 되었다.[18]

평신도들이 세운 춘천읍장로교회는 1940년 3월 5일 황동노회에서 파송한 조택수 목사의 부임과 함께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조택수 목사가 부임한 이후 곧바로 새로운 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겼다. 새롭게 옮긴 곳은 "서울 사는 어떤 김씨의 집 두 칸"으로 월 30원의 세를 내며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약 3달 사이에 장년이 배나 늘었고, 아이들도 창립 때보다 약 10배 정도가 늘게 되었다. 이에 보다 더 넓은 예배 처소가 요청되었다.[19]


김유찬 목사

그 후 1941년 4,000원으로 예배당 기지 150여 평을 준비하게 되었다.[20] 이 비용으로 새롭게 구입한 곳은 소양 통 3 정목 24번지로 107평의 대지에 약 20평이 넘는 초가로 된 12간의 집으로 이것이 춘천읍장로교회가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최초의 예배당이다.[21]

약 2년 4개월간 춘천읍장로교회의 기초를 다져 놓은 조택수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고 1942년 9월경 곡산읍교회로 부임하였다.[22] 이에 춘천읍장로교회는 14개월 동안 목자 없이 평신도들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다, 1943년 사리원 서부교회

17)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83쪽.
18)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93쪽.
19)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138~139쪽.
20) 『조선예수교 장로교회 총 제30회 회록』, 96쪽.
21)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142~143쪽.
22)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148쪽.

에서 개회된 제32회 총회 때 목회자 파송을 요청하였다. 총회에서는 황동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김유찬 목사를 파송하여[23] 1943년 11월 3일 춘천읍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24]

8.15해방 후 1946년 춘천읍장로교회는 교회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동부교회와 제일교회로 나뉘게 되었다. 당시 춘천에는 일본인들이 세웠던 절이 세 채 있었는데 교인이 늘어나자 그중 한 곳, 즉 운교동에 있는 1300평의 대지에 총 100평의 적산가옥 3동(천리교당)을 분할받아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 교인이 다 갔다가 그중 일부 교인들이 본래의 소양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미군정청 여론 조사관으로 파견나와 있던 방효정 목사가 이들과 연결되어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나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제일장로교회이다. 이후 춘천장로교회는 운교동에서 현재의 조양동으로 옮기면서 동쪽으로 옮겼다고 하여 동부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5]

1960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를 놓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장로회의 개교회주의와, 교회일치운동 간의 해석 차이를 놓고 WCC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라졌다. WCC 지지파는 연동교회에, WCC 반대파는 승동교회에 모였으므로 연동파, 승동파라고 불렸다. WCC 지지파는 기장 측 일부 온건파 인사들과 연합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를 만들었고, WCC 반대파는 1951년 독립해 나갔던 고신 교단과 손을 잡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를 만들었다.[26]

이 연동측과 승동측의 갈등과 분열은 춘천동부교회와 춘천제일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결정적인 불씨를 던져 주었다. 1959년까지는 두 교회다 승동측으로 기울었다가 1960년에 들어와 춘천동부교회는 연동측을 택하고 춘천제일교회는 승동측을 택하였다.[27]

---

23)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85쪽.
24)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150쪽.
25)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86~87쪽.
26) 「대한민국의 장로회 교단 분열사」, 『나무위키』.
27) 『춘천동부교회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2012, 264쪽.

2절 춘천 장로교단의 조직과 주요활동

1. 춘천장로교연합회의 조직

1) 춘천장로교연합회의 역사

춘천장로교연합회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춘천지회로 지방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합회로써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아래 2022년 현재 140여 개의 교회가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춘천장로교연합회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결성하고 각 지역에도 장로교연합회를 결성하자는 결의에 따라 구성되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1995년 장로교 총회 80주년이 되는 해에 서로 연합하여 9월에 서울 소망교회에서 역사적인 장로교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활성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1981년 통합, 합동, 고신, 기장, 대신 교단이 장로교협의회로서 구성되어 활동해 오다가 1995년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분열된 한국장로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필요한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장로교회는 한 형제라는 인식의 공통 기반을 갖게 되었다. 한국장로교회는 비록 교단이 갈라져 있으나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그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 확인과 의식이 결속을 가능하게 하였다.

춘천장로교연합회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결성된 이듬해인 1996년에 결성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김은일 목사(신북교회, 1996~1997년)가 맡았으며 그 이후로 2대 엄대섭 목사(한빛교회, 1997~1998년), 3대 임신영 목사(춘천동부교회, 1998~1999년), 4대 장효근 목사(동신교회, 1999~2000년), 5대 박상호 목사(춘천제일교회, 2000~2001년), 6~7대 사공정 목사(춘천중앙교회A, 2001~2003년), 8대 문정섭 목사(사우동교회, 2003~2004년), 9대 김유식 목사(한신교회, 2004~2005년), 10대 지용찬 목사(춘천은혜교회, 2005~2006년), 11대 문충식 목사(화목교회, 2006~2007년), 12대 권기호 목사(춘천시민교회, 2007~2008년), 13대 김종익 목사(광명교회, 2008~2009년), 14대 지태성 목사(춘천장로교회, 2009~2010년), 15대 정명훈 목사(예강교회, 2010~2011년), 16대 이병

서 목사(동신교회, 2011~2012년), 17대 한철인 목사(금산교회, 2012~2013년), 18대 김순재 목사(밝은빛교회, 2013~2014년), 19대 정재호 목사(늘사랑교회, 2014~2015년), 20대 조용아 목사(성광교회, 2015~2016년), 21대 김원중 목사(춘천우리교회, 2016~2017년), 22대 김혜영 목사(춘천중앙교회 B, 2017~2018년), 23대 최승호 목사(춘천은평교회, 2018~2019년), 24대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2019~2020년), 25대 이병철 목사(주향교회, 2020~2021년), 26대 최춘배 목사(주창성교회, 2021~2022년), 27대는 이광우목사(신촌교회, 2022~현재)가 맡고 있다.

2) 춘천장로교연합회의 활동

춘천장로교연합회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 목회자 세미나(2~3월) : 춘천장로교연합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매년 년 초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목회자들의 목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증경회장단과 임원진들의 만남 2회(2월, 10월) : 매년 두 차례 증경회장단과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다 발전적으로 춘천장로교연합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목회자 친목 여행(4월) : 목회자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
- 춘천장로교 전 교우 연합체육대회(5월) 및 바자회 : 춘천의 장로교회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연합 체육대회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자회를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목회자와 장로들이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 연합대부흥 성회(종교개혁 주일) : 춘천장로교연합회는 매년 종교개혁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 춘천장로교연합회 주관으로 부흥성회를 갖는다. 부흥성회는 종교개혁 정신을 고취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청소년 집회를 마련함으로 신앙의 세대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때로 가정생활 세미나, 전도 세미나 등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미자립교회(5~7개 교회 선정) 후원금 전달 : 춘천장로교연합회 회원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거나 어려운 중에 있는 목회자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한다.

2. 춘천장로교연합회 산하 교단

1)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연합회의 조직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35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표적 교회는 아래와 같다.

(1) 춘천동부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동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1939년 5월 7일 춘천시 소양로3가 126번지에서 어른 12명, 어린이 7명의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춘천읍장로교회가 세워졌고, 1945년 11월 춘천동부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춘천동부교회는 일제의 강점기에 잔혹한 일본의 만행 가운데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앞장섰다. 6.25전쟁으로 처절하게 파괴된 폐허 위에서도 성전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민족과 상처받은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 민족의 격동기의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오직 기도와 쉼 없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83년 동안 초대 조택수 목사, 김유찬 목사, 우춘익 목사, 손길용 목사, 황태주 목사, 전덕열 목사, 임신영 목사, 박창운 목사들을 통해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에 힘써 왔다.

2011년 4월 17일 춘천동부교회 제9대 김한호 목사가 부임하면서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춘천 동부교회」라는 비전을 통해 영혼 구원과 함께 섬김의 실천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니아 사명의 완수를 위해 2012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을 4

단계로 나눠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약·정착단계를 거친 후 2029년까지 확장단계까지 끌어올려 「디아코니아 모델교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디아코니아'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속의 역사에 기초하여 한국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소망과 강한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

춘천동부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교회 섬김(국외 선교와 국내 선교), 사회 섬김으로 나누어진다. 국외 선교 분야에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필리핀 나보타스 선교에 협력선교로 카자흐스탄, 케냐, 대만, 몽골, 필리핀, 북한 선교와 선교사 훈련을 지원하는 후원선교로 운영한다. 국내 선교 분야에는 강원지역 농어촌교회 및 목회자 동반성장 후원, 지역 내 기독교 기관 후원, 동부아기학교, 독거노인을 섬기는 소망반,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실로암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어린이를 찾아가는 마구간 153, 강원도 차세대 리더들을 후원하는 디아코니아 장학금, 디아코니아 심화연구를 위한 디아코니아 연구소 운영 등이 있다. 사회 섬김은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사업을 통한 춘천시 민관 협력 분야로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춘천남부노인재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춘천시 아이돌봄지원센터, 퇴계 꿈자람 나눔터, 꿈나리도서관, 자원봉사수요처가 있다.

(2) 성광교회

8.15해방 이후의 미·소에 의한 영토분할과 6.25전쟁은 수많은 월남민을 만들었다. 8.15해방 이후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은 전국적으로 500여만 명, 강원도 내에는 30여만 명이었다.[28] 성광교회는 이러한 피난민 중심의 교회로 설립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고난의 체험을 경험했던 서북의 이주민 집단이 고백한 그 신앙이 성광교회 신앙의 모형이 되었다.[29]

1953년 2월 23일 성광교회는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다. 남자 19명, 여자

28)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91쪽.
29)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96쪽.



성광교회 창립예배(1953년 2월 23일)와 초기 교인들

16명, 어린이 3명이었으며 설교는 오길훈이 하였다.

1953년 5월 11일 오후 2시 새로 부임한 임정묵 목사를 모시고 공식적인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953년 늦은 봄 판자집 교회를 지었다. 1956년에 임대했던 대지 매입과 건물 내 외벽을 바르고 마루, 교회 내 시설과 기구를 갖추게 되었다. 성광교회는 성경구락부를 통한 평신도 활동, 서면의 금산교회와, 동두천의 동성교회 개척을 도왔다.[30)]

1959년 11월 25일 제2대 목사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 한오권 목사가 부임하였다. 당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활동 등이 활기가 띠었다. 또한, 군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였다.

제3대 목사로 오창흠 목사가 1965년 2월 28일 부임하였는데, 오창흠 목사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장신대를 마친 실력도 인정받고 열정적이면서 신실하였다.

1967년 11월 14일 제4대 목사로 이치백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1968년 10월 24일 이치백 목사를 위임목사 위임식을 하였다. 오랜 기간 기도하며 준비되었던 성전신축 공사가 진행되었고 1971년 11월 17일 입당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후 성광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개척교회 설립과 후원에 커다란 비중을 두게 되었다.[31)]

---

30)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102~110쪽.
31) 『성광교회 35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1989, 199쪽.

1984년 4월 9일 제5대 김광국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11월 29일은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김광국 목사는 교육목회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관을 건축하였다.

2009년 9월 30일 제6대 조용아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국내 농촌 지역을 꾸준히 섬기고 있으며, 해외 선교 6곳(남아공, 케냐, 인도네시아 3곳, 베트남)을 건축하였고, 춘천장로교연합회 20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3) 신북교회



신북교회 초창기 천막교회 모습(1950년 초반)

6.25전쟁의 막바지에 신북교회가 신북일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동하였다. 1953년 초에 서울 남대문교회의 이권신 권사가 당시 신북면 율문1리(현 율문3길 29-1)의 마을 공회당에서 동네 주민들을 초청하여 전도모임을 시작한 것이 신북교회의 모태이다. 1953년 10월 7일 차광훈 군목이 이권신 권사, 김성섭 군목과 협력해서 천막 12평을 구입하여 예배 공간(현 사랑말2길 55-6)을 마련하고 신북교회 창립예배를 드린 것이 신북교회 역사의 시작이다.

1954년 1월 5일에 장기택 전도사를 초대 교역자로 모시고 서울 남대문교회로부터 12,000원의 보조를 받아 예배당을 신축(현 율문3길 37)하여 이전하므로 교회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창립 1년 후인 1954년 크리스마스 기념사진에 의하면 어린이 100여 명, 청장년 50여 명에 이를 정도의 규모였으며 이후 장기택 목사가 사임(1955년 1월 30일)하고 김승규 목사, 함익환 목사, 원응호 담임전도사가 부임과 사임을 거듭하면서 1950년대는 신북교회가 신북지역의 영혼 구원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든든히 이어가기 위한 초석을 놓는 시기였다.

1960년대에는 임연묵, 정삼조 담임전도사의 사역으로 창립 이후 계속 부흥과


1960년대 초 신북교회 모습

성장을 더 해 가는 중에 예배 공간 절대 부족으로 율문리 256-22번지(297평 부지)에 40평 규모의 예배당 신축 기공예배를 드린 것이 1969년 4월 6일이다. 예배당 신축 과정에 박우만 강도사가 부임(1969년 10월 1일)한 후 교회 창립 17년만인 1970년 10월 7일 신축 예배당 봉헌과 박우만 목사 목사안수로 1970년대 사역을 시작하며 신북교회 부흥기의 시발점이 되었다. 새 성전 봉헌 다음 해(1971년 5월 8일)에 있었던 박우만 목사 위임과 김익보 장로의 장립으로 신북지역 복음화 조직과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73년 군목으로 예편한 김은일 목사의 부임으로 신북교회는 안정적인 복음 사역의 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김은일 목사는 24년(1997년 11월 8일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동안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지역 사회 속의 신북교회를 지향하며, 김익보 장로(1997년 11월 8일 원로장로 추대)를 비롯한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친숙한 교회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덕준 담임전도사가 2002년 10월 6일 부임한 다음 해에 새 성전 부지(율문리 258-18, 1500평)를 매입하고, 2009년 11월 22일에 헌당하며 신북교회가 일취월장 성장해 가는 중에 조덕준 목사 소천(2010년 12월 26일)과 이석진 목사 부임 및 사임, 조현석 목사 부임(2015년 3월 1일)과 소천(2016년 4월 6일)으로 짧은 기간동안에 교회가 큰 위기 상황을 맞았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영적 회복 탄력성 등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창봉 목사가 신북교회 12대 담임목사로 부임(2016년 7월 31일)하며 신북교회는 성도들이 신북지역 중심에서 춘천시 일원으로 확장 분포하며,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2019년 10년 6일)을 계기로 교회의 영적 외연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지역사회 친화적인 목회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2012년 2년 26일 '신북기부천사'를 발족한 이래, 10년째 총 1억원 이상을 기부)로 정착해 가고 있다. 교



현재 신북교회 모습

회 창립 70주년(2023년 10월 7일)을 기념하며 전교인 성경 700회 통독, 지역사회 섬기기, 교회 70년사 편찬, 필리핀 팔라완에 신북 인테리어처치 건축 등으로 선교의 내실을 다지고 그 지경을 확대해 가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연합회의 조직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29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표 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1) 춘천제일장로교회

1939년 5월 7일에 춘천읍교회 교인 중 장로교회를 선호하던 박민식 장로(박성녀), 김조길 권사(김활란), 박성봉 집사, 백성일, 김기찬, 송혜균, 유화청 성도(김자선), 하신자-김메례 12명과 어린이 7명은 박선웅, 박정자, 김재옥, 김재영, 김재중, 김재복 등과 미명의 1인 7명이었다. 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소양로 2가 박민식 장로댁에서 결의하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소양교회로 하기로 하였다. 1941년 3월 26일 황동노회 전도목사 조택수 목사가 부임하였고(1대), 1944년 4월 신의주 제3교회 파송 김유찬 목사가 부임하였다(제2대). 1945년 조양동 언덕에 성경구락부를 발족하고 어린이 400여명을 교육하였다. 이때, 동부교회와 분리하게 되었다.

1946년 7월 신의주 제3교회 방효정 목사가 부임(3대)하여 낙원동 45번지에 대지 136평 대부하고, 50평 교회당 신축하여 춘천제일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



방효정 목사(1946년 7월)

노회에 가입하였다.

1978년 10월 16일 현 낙원동 46-5에 새성전 건축하기로 하고 성전건축위원회 조직하고, 건축헌금 작정하였다(제1차). 1983년 7월 박희남 목사 담임 위임하고(제10대), 성전건축기공 예배가 현 위치에 780평 규모로 시작되었다. 1987년 8월 27일 박경환 목사 부임(11대)하였고, 교회 선교 활동을 위하여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89년 11월 16일 새 성전 입당 지하 1층, 지상 3층 780평 규모의 전통적 고딕 교회 건물이었다. 1989년 12월 10일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50년 교회역사 사진 전시회, 장기근속 성도 축하 기념패 증정) 1993년 10월 30월 새성전 헌당 및 임직 은퇴예배를 드렸다. 1999년 5월 7일 교회창립 6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 원로장로 추대하였다. 2000년 1월 2일 방인선 중국선교사 파송하였으며, 2001년 3월 15일 교회설립 62주년 기념 몽골 선서글렁제일교회를 기공하고 최근욱 선교사가 관리하게 하였다. 최근욱, 노상희 선교사가 몽골 평안교회에 파송되어 있어서, 본 교회에서는 선교사 사역을 돕기 위하여 제1회부터 10회까지 10년간 몽골 단기선교 (몽골 평안교회, 선서글렁교회, 흐틀명운교회를 중심으로) 14~22명 내외의 대원으로 약250여 명이 봉사하였다. 후에 선서글렁교회, 흐틀명운교회, 평안교회를 건축하였다. 2002


춘천제일교회 신축(1960년 8월 22일)

년에는 일본 삿포로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단기선교하였다.

본 교회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축구선교회 즉 마하나임 축구선교단, 자전거동호회, 등산선교회, 골프선교회, 색소폰선교회 등이 활성화 되였다. 그중 마하나임 축구선교단은 춘천 시내 교회대항에서는 수차례 1위, 전국 3위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등산선교회도 철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재미있는 여행을 한 바 있다. 2004년 7월 28일 제1회 일본 단기선교 실시(7월 28일~8월 13일 삿뽀로 교회)에는 14명이 참여하여 235명을 전도·결신시켰다. 그 후부터 일본단기선교는 매년 가게 되었는데 선교희망자를 모집한 후 1년간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선교훈련을 받는다.

즉 기초 일본어 교재와 일본어 찬양, 일본어 요절과 전도문 외우기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거의 외울 정도가 된다. 이 선교팀의 지도는 김진현 장로(강원대 법대교수), 황병호 장로(강원대 산림대 교수), 김세환 집사(강원대 체육대 교수) 등이 2022년까지 헌신적으로 지도하여 주었다. 이 일본선교팀의 멤버 중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선교사로 활동 중인 사람과 일본 현지 목사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도 있다. 일본 대학으로 유학하여 졸업 후에 현지 일본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있으며,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현재까지 결신자의 수는 약 6,000여 명이며 매일 명단을 보며 중보기도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월 23일 필리핀 단기선교(1월 23~29일 퇴계2구역) 11명이 다녀온 후, 2007년 필리핀 2차 단기선교(퇴계2구역) 13명이 현지에서 큰 봉사를 하면서 선교현장의 어려움을 체험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우고 있다.

2005년 10월 18일 박상호 담임목사가 춘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춘천시 장로교단 연합회 회장으로 섬겼다.

2006년 5월 27일 교회설립 67주년 감사예배 및 문화복지관을 준공하여(3층 300평)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교육부가 활용하고 있다. 양성찬 목사를 2007년 1월 10일 몽골 단기선교사로 파송하여 최근욱 선교사와 협력하게 하였다. 2007년 봄 노회에 박상호 담임목사가 강원노회장 피선되어 노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같은 해 최근욱, 노상희 부부를 몽골선교사로 파송하고, 박상호 목사는 몽골장로교신학교 후원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강의와 신학생을 격려하였다.

2009년 3월 14일 춘천 LMTC 개원을 하고 목사, 장로, 평신도 42명이 선교교육을 받고 제1회 수료식을 하였고, 계속하여 5기까지 졸업했으며, 현재는 춘천 온


춘천제일교회 전경

누리교회로 옮겨서 계속하고 있다.

2009년 5월 23일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 은퇴 예배 시 한남수 원로장로 추대, 피영환 장로가 은퇴하였다. 2013년 1월 5일 인도 단기선교로 1명을 파송하였다(김홍주 목사). 그 후에 3차례 인도 단기선교로 파송하게 되었다. 2013년 미얀마 단기선교 4명 파송 (1월 11~19일)과 2015년 미얀마 단기선교 8명을 파송하여 선교사를 도왔다.

2014년 몽골 평안교회준공 및 헌당예배에 박상호 담임목사와 해외선교위원장 황병호 장로가 참석하였으며, 건축비는 125,000,000원이 소요되었고,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이었다. 2016년 3월 1일 박상호 목사가 은퇴하고 제13대에 김창성 목사가 위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현재까지 사역 중이다.

(2) 효신교회

초대 방효정 목사가 춘천제일교회를 개척 은퇴 후 춘천교도소에서 죄수선도를 위해 봉사를 계속하다가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효도 '효(孝)자'와 '믿을 신(信)'자를 따서 "효신교회(孝信敎會)"로 명칭하여 1959년 4월 15일 소양로 4가 94번지에 개척하였다. 효신교회는 효신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복음을 전하고, 춘천의 변두


춘천효신장로교회

리 지역인 '온의동 14번지'로 이전하여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

초대 방효정 목사, 2대 방지각 목사, 3대 방지산 목사로 이어오다 1987년도에 효신고등공민학교 폐교 후 중간기를 거쳐 4대 이상욱 목사가 부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장 교단에서 합동으로 분리되었다. 그 후 2005년 교회를 건축하여 현대식 교회로 면모를 갖추었으며 2017년 7월 2일 제5대 이경욱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서 행복한 비전을 품고, 춘천성시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3) 춘천성도교회

춘천성도교회는 1954년 11월 3일 1대 차광운 목사(군목)의 주선으로 유영우 전도사가 현 부지(야산)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한(효자1동) 것이 시작이다. 1955년 12월 15일 군부대 협조로 24평 목조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959년에 제1대 김은양 장로의 장립식이 있었다. 1971년에 사택 15평 증축하고, 교회부지 210평 구입하였다. 1973년 12월 22일 최운택 목사가 부임하여 1975년에 효자동교회를 춘천성도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로 이상광 장로(1977년), 박봉식, 신학선 장로(1984년), 전낙준 장로(1990년), 조현묵 장로(1995년), 김용수, 최명걸 장로가(2001년) 장립하였다. 2006년 11월 12일 최운택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뒤를 2007년 2월 4일 이정화 목사가 부임하였다. 이정화 목사가 부임 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 단기선교를 다녀오고, 2010년에는 탄자니아에 이진동, 신순임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2014년에는 김영식, 윤일란 선교사 가정을 말레이시아에 파송하였다. 2020년 2월 29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21년 9월 13일 교회 건물 준공심사 처리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춘천성도교회

춘천성도교회는 지역 어르신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고, 화요 국수전도단을 통해 복

음을 전하고, 2014년에 효제초, 춘천중, 봉의초 장학금 전달을 시작하여 현재는 효자1동 지역 학생 20명에게 매년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주고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교회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쌀, 기름, 생필품 등 선물을 나누고 있다. 해마다 김장을 해서 지역의 단체들이나 미자립교회 100여 곳에 나누고 있다. 청소년 밴드〈카르페디엠〉 경연대회를 열고 진행 중인데 코로나로 잠정 중단되었지만 다시 지속하여 청소년 사역을 할 것이다.

춘천성도교회 파송 & 협력 선교사

탄자니아	이진동, 신순임	필리핀	신영준, 이영임
말레이시아	김영식, 윤일란	캄보디아	백종수, 황태상
아시아	주기철, 박예숙	베트남	남사무엘, 안한나
캄보디아	전대식, 황영미	미얀마	천요섭, 김흥순
파키스탄	오창균, 조수화	GMS본부	전철영, 윤은혜
몽골	최근욱, 노상희	네팔	서 산, 장 강
인도네시아	이광수, 강순옥	E.M 국	김노아, 윤라합
영국	김태규, 유성희	탄자니아	한재균, 정병애

(4) 그말씀양문교회



그말씀양문교회

1972년 시작된 양문교회와 2011년 시작된 그말씀교회가 2018년 그말씀양문교회로 하나가 되었다. 양문교회는 이성철 목사가 부임한 이후 30년을 목회하면서 예배당 건축도 하고 부흥하였으나, 목회자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성도들의 고령화로 인해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다. 반면 그말씀교회는 2011년 엄기홍 목사에 의해 개척되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이 골고루 있는 젊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임대교회의 한계에 부딪혀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던 단계였다.

이에 양문교회와 그말씀교회가 합병이라

는 방법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즉, 합병을 통해 양문교회는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린이가 뛰놀고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활기 넘치는 교회가 되었고, 그말씀교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축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승승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또한, 조기 은퇴한 양문교회 이성철 목사를 원로목사로 존중해 드리는 가운데 그말씀교회의 엄기홍 목사가 합병한 그말씀양문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 이제 그말씀양문교회는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룬,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교회를 비전으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를 목표로 삼아 지역사회 전도와, 제자훈련, 세계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5) 춘천온누리교회

1990년 5월 5일에 개척한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창환)는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마28:19-20)는 비전을 바탕으로, 성경 중심적이며 선교 지향적인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 영광(예배), 복음전파(전도) 제자훈련(교육), 세계선교(선교), 사역동역(봉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처음부터 선교단체와의 동역과 지역교회들과의 연합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성도들에게 기초양육, 교리교육, 이단 대처 예방, 제자훈련, 선교훈련, 사랑실천의 봉사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선교단체 18곳과 연관하여 후원하고, 교회가 미진한 부분의 훈련과 사역을 공유



춘천온누리교회

한다. 2022년 현재 파송선교사 5가정 후원, 협력선교사 45가정을 후원 동역하며,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시골교회 한 곳을 건축비 전액 지원하여 봉헌했다. 35명의 대학생을 1년 단기선교사로 파송하여 장기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역량을 키우도록 하는데 청년들을 계속 도전시킨다. GMS(총회세계선교회)와의 동역으로 평신도선교사 훈련(lmtc)을 수료한 성도들이 비즈니스 선교와 대륙별 선교담당을 맡아 헌신하고 있다. JDM(예수제자운동)과는 윤태호 대표와 1978년부터 친분을 맺고 장기간 한국이사장으로 섬기다가 2021년부터 120명의 선교사를 돕는 국제 이사장직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 개척 시부터 학생 선교단체 간사들을 부서 사역자로 동역하여 청소년들이 활기를 띠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훈련과 섬김을 하고 있다. 선교사를 선교 목사로 함께하여 직장 청년들이 복음전파,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되도록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청년들이 더 많아져서 헌신하고 있다. 춘천성시화와 기독교연합사역, 사회단체들과 연계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혁에 참여한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웨스트민스터 소·대요리문답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통해 42명의 독거노인을 섬긴다. 24년간 한곳에 임대교회로 있다가 2014년 현 위치에 예배당 1500평, 하버센터(선교) 400평을 건축하고 이전했다. 목사 자신과 성도들의 예수님 성품 닮음을 중시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역자로 모든 사역과 열매는 오직 하나님 은혜다.

(6) 춘천우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우리교회는 2000년 5월 6일 김원중 전도사가 춘천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개척하였다. 개척 당시는 강남온누리교회로 설립하였으나, 이후 2007년 교회당 이전과 함께 춘천우리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였다. 춘천우리교회는 성경중심적이며 선교지향적인 사

랑의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성경적 삶과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며, 9가정의 선교사를 파송 및 협력 후원하며 본질적 사명인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전인적인 소그룹인 셀 모임을 통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제자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불신자 전도인 오이코스(oikos) 사역을 통한 성경적 부흥을 꿈꾸며 사역하고 있다. 춘천우리교회는 개척 이후 22년째 지역복음화인 춘천성시화와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7) 주향교회

주향교회는 2001년 4월에 몇 명의 성도들이 교회 설립을 위해 우두동 동부상가 3층 13평을 임대하고, 당시 화천에서 국내선교사(사랑의교회 파송) 사역을 하고 있던 이병철 목사를 청빙하여 몇 개월의 준비 후에 7월 9일 설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 주향교회는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란 모토를 갖고 출발했다. 주님만 향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2002년 봄에 '세이레 다니엘 파워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던 중에 임대했던 상가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여 위기를 맞았으나 이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우두동 396-2에 607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150평을 단층으로 건축하고 2002년 12월 7일에 입당하였다. 주향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네 가지 비전을 갖고 출발하였다. '평



주향교회

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이다. 이 네 가지 비전을 담아 사명 선언문을 만들게 되었다. 주향교회는 "은혜의 복음으로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춘천 성시화, 복음적 평화통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선교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 지역의 변화에 따라 2009년에 증축하게 되었다. 주요사역으로는 첫 번째 제자훈련 사역이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 제자훈련 사역을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국제제자훈련원 네트웍과 강원 칼넷에 임원으로 섬기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연합 사역이다. 이병철 목사는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춘천교경협의회 회장과 춘천장로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연합기도회이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 2011년 12월에 설립되어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복음 통일에 대한 춘천지역 연합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11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통일 코리아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 주니어 쥬빌리 대표를 맡아 여름마다 통일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는 선교사역이다. 주향교회는 세 가정을 해외에 파송하였다. 박남규, 강성금 선교사는 태국에, 김숙 선교사는 세네갈에, 안대인, 권서인 선교사는 성경번역선교회(GBT) 소속으로 사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셀이 한 선교사를 기도와 후원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 세 명의 장로(김무형, 박영규, 이원구)가 세워져 더욱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3)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연합회의 조직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은 1980년에 세워진 장로교 교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그해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과 합쳐 합동정통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9년에는 백석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단 본부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으며 설립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통성 수호이고 주요활동은 칼뱅주의 신앙을 근거로 한 개혁주의 신앙전파, 해외 선교, 목회자 양성이다. 교육기관으로 백석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 백석문화대학, 백석신학교, 대전신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이 있다. 기관지로는 기독

교연합신문을 발행한다.

백석교단의 춘천 전래는 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지용찬 목사가 1994년 1월 춘천시 근화동에 춘천은혜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다솜교회, 대흥교회 등이 교단소속 교회로 개척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춘천에 백석교단 교회는 강원도를 연고로 한 노회의 춘천지역 시찰 소속 교회와 타 지역 노회 소속 교회를 포함하여 20여 개 교회가 춘천지역의 복음화와 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

4) 춘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연합회의 조직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은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와 분리되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단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춘천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는 2022년 현재 9개 교회이다. 9개의 교회는 교동교회, 대명교회, 새누리교회, 새희망교회, 세계로교회, 열방선교교회, 한신교회, 신포교회, 오탄교회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춘천시민을 잘 섬기며 복음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교동교회


교동교회 전경

교동교회의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 함경도 태생인 강원하 목사와 그 일가가 춘천에 정착하고 사역을 시작한 1995년 1월 2일이 역사의 시발점이다. 함경도와 만주·간도 지역은 캐나다 선교부의 선교지역이었기에 자연스레 강원하 목사는 캐나다 교회의 협력 속

에 강원지역의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기장 교회는 초창기 그의 헌신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숨죽이던 한국 사회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층 강화된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 침묵을 깨는 소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려왔다. 이 일은 춘천과 강원지역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교동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1982년 4월 강원대 성조기 소각 사건이었다. 이후 교동교회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춘천과 강원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더욱 고도화되도록 크게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압력, 교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강원하 목사는 교동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후 교동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점차 힘을 잃었고 교회는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엄혹한 시대에 샛별 같았던 성도들이 교회 속의 신앙생활로 안착하지 못한 일은 교회의 과제가 되었다.

2000년 12월에 부임한 김치홍 목사는 시대의 요청을 부응하느라 소홀했던 일들을 회복하고 나아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서도록 지금껏 성도와 함께 헌신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숙원이었던 교회당 건축까지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교회의 자리를 찾는 일에 바탕이 되도록 50년 교회 역사를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그와 함께 두 명의 선교 동역자를 안수 후 몽골, 말라위에 파송하기도 했다. 교동교회는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를 아우르면서 또한 교회의 일과 시대의 소명을 분리하지 않는 통전을 꿈꾸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5)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 연합회의 조직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은 10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한국교회연합회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원 교단으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다.

춘천 합동개혁교단 교회는 1998년 강원총신교회(용석만 목사), 2000년 평안한 교회(김다윗 목사), 2009년 수정교회(공병용 목사), 2009년 시온성교회(이경애 목사), 2011년 춘천드림교회(고성언 목사), 2019년 샘물교회(이영심 목사), 2019년 참된교회(최은옥 목사), 2020년 광염교회(이종례 목사), 2020년 주성령교회

(김정일 목사), 2021년 행복한교회(김광민 목사)이다.

(1) 강원총신교회



강원총신교회

1998년 10월 15일 용석만 신학생이 생명수교회를 개척함으로 춘천에서의 합동개혁 총회 교회가 시작되었다. 처음 교회는 가정에서 3명이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2년 10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수교회(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서)를 상가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 후 2020년 3월 29일 밝은빛(신망애)교회와 합병을 하였으며 2020년 4월 13일 총회신학교 이전, 2020년 10월 12일 교회명을 강원총신교회로 변경하였다. 현재 용석만 담임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최강경 부목사와 최호진 장로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2) 평안한교회



평안한교회

평안한교회는 2000년 11월 20일 소양로(일명 기와집골 입구 2층)에서 설립하였다. 2001년 20명으로 성장하여 춘천시 신북읍 상천 2길43 부지 320평을 구입하고, 1층 80평 건축 이전하였다. 김다윗 담임목사, 하혜숙 부목사, 이지영 장로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6)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연합회의 조직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은 7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백석대신 강원노회(35개 교회)는 춘천시찰, 원주시찰, 홍천시찰, 영동시찰로 구성되어 있고 춘천시찰에 소속된 교회는 현재 9개 교회(춘천지역 외 2개 교회 포함)이다.

1986년 9월 7일에 김종익 목사가 춘천광명교회 설립 이후, 1990년 1월에 사공정 목사가 춘천중앙교회A를, 1990년 8월에는 이규영 목사가 하라교회를, 1992년 5월에는 김면기 목사가 단비교회를, 1996년 12월에 이병주 목사가 평강제일교회를, 2000년 8월에 김희문 목사가 예수자랑교회를, 2006년 2월에 최춘배 목사가 주창성교회를 설립하였다.

춘천시찰회 소속으로 춘천지역 외에 화천영은교회(김병화 목사), 양구사랑의교회(이순애 목사) 2개 교회가 있다.

(1) 조직 및 교세현황

교 회 수	9교회	조직교회	1교회	미조직교회	8교회
목회자수	12명	담임목사	9명	강도사	
		무임목사	3명		
교 인 수	363명	전도사		장로	1명
		장년부	202명	청년부	40명
		대학부	8명	고등부	15명
		중등부	19명	유초등부	72명
		유치부	3명	영유아부	2명
세례교인	248명				

(2) 전도, 선교, 봉사, 구제 등의 활동

– 전도

춘천광명교회(김종익 목사)와 단비교회(김면기 목사)가 개척을 하면서 어린이선교원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선교원을 폐쇄한 상태이다. 현재 춘천광명교회(김종익 목사)에서 매주 토요일에 전도사역을 하고 있고, 하라교회(이규영 목사)에서 춘천교도소 재소자들을 전도하고 있다.

– 선교

춘천광명교회(김종익 목사)가 필리핀에 사공세현선교사를 2004년에 파송하였고, 파라과이 곽성건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국내선교로는 춘천예현교회 김력 목사를 후원하고 있다.

단비교회(김면기 목사)가 태국 위효선 선교사를, 춘천중앙교회A(사공정목사)와 평강제일교회(이병주 목사)와 예수자랑교회(김희문 목사)가 필리핀 사공세현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예수자랑교회(김희문 목사)가 필리핀 전기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 봉사

춘천광명교회(김종익 목사)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역하는 지역별 도시락배달에 10여 년간 봉사하다가 봉사자들이 노년화 되면서 아쉽게도 중단된 상태이다.

– 구제

춘천광명교회(김종익 목사)가 지암리에 있는 나눔의 동산을 후원하고 있으며, 1:1양육으로 에콰도르의 께이네르와 알렉산드라 어린이 2명, 필리핀의 마리아 파멜라를 양육하고 있다.

7)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연합회의 조직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은 9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은 1912년에 세워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뿌리로 삼고 있으며 1979년 합동 교파의 분열로 생겨난 교단으로 칼빈주의적 보수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현재 춘천의 교회는 다음과 같다.

춘천의 개혁교단은 춘천중앙교회(박영남 목사), 주안교회(김용욱 목사), 중앙교회(김혜영 목사), 동성교회(장영우 목사), 주성원교회(김병철 목사), 축복교회(최재영 목사), 평안교회(최승국 목사), 일심교회(이순주 목사), 춘천새누리교회(한수진 목사)가 있다.

8)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연대) 연합회의 조직

개혁연대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야외총회에 있다가 개혁연대총회로 분립 되었다가 2019년에 대한예수교장로교 산하에 개혁연대로 총회등록 되었다.

현재 춘천에서는 봄내사랑교회(김희균 목사)가 2018년 2월에 개척하여 2019년 춘천의 개혁연대 첫 교회로 등록되었고, 나눔교회(탁명수 목사)가 2019년에 편입되었다.

9)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연합회의 조직

고신총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던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1952년 9월 11일 제1회 총노회를 경남 진주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된 장로교 교단이다. 설립 목적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유지, 칼뱅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내세웠다. 특히 2022년은 고신총회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고신총회는 부산에 고신대, 대전에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 그리고 서울에 총회본부가 있고, 2015년 제65회 총회에서는 고려총회와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교단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35개 노회, 2,124개 교회로 약 40만여 명의 교인 수를 보유하고 고신총회는 순교자적인 신앙 선배들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교제와 협력을 경주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려 한다.

춘천의 고신총회는 우리 춘천기독교연합회의 일원으로 1990년 2월에 춘천시민교회(2022년 10월 새시민교회로 변경)가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장자교회, 소양시민교회, 섬김의교회(2022년 10월 온전한교회로 변경)가 춘천성시화에 동역하고 있다.

10)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연합회의 조직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강원노회의 영서 시찰에 속한 춘천지역에는 현재 4개 교회가 있다. 춘천의 합신교단 교회는 늘사랑교회(1985년), 봄내로뎀교회(1993년), 조양장로교회(1996년), 춘천돋움교회(2017년)가 있다.

(1) 늘사랑교회(정재호 목사)

늘사랑교회(개척 당시 교회명, 언약교회)는 1985년 4월, 언약교회로 김병학 목

사(제1대 목사)의 개척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제2대 정규상 목사, 제3대 김형원목사(늘사랑교회로 명칭변경), 제4대 김성렬 목사를 거쳐 1998년 제5대 목사로 정재호 목사(박성미 사모) 부임하여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2004년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전하면서, 21세기 성시모델 교회(5대비전)와 선교공동체(7대사역)를 표방하며 재창립을 선언하였다.

교회의 5대 비전은 성시모델 교회, 선교공동체 형성, 평신도 리더십 강화, 통일한국운동,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으며, 교회의 7대 중점 사역은 연합섬김, 선교사역, 통일비전, 경건운동, 가정천국운동, 일터세우기, 청지기운동에 있다.

(2) 봄내로뎀교회(김승권 목사)

봄내교회는 1993년 늘사랑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영미 자매와 개척을 시작하여 1994년 12월 퇴계동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했다. 봄내교회는 2014년 12월에 은퇴하는 박수권 목사의 로뎀교회와 서로 합쳐서 '봄내로뎀교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김승권 담임목사는 봄내로뎀교회를 세대 차이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조양장로교회(전효진 목사)

조양장로교회는 1996년 전효진 목사가 후평동 동부초등학교 옆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시작했다(당시 교회명은 예성교회). 예성교회는 2006년도에 동산면 조양리로 옮기면서 교회명을 조양장로교회로 변경한 뒤 농가 주택을 개조하여 현재까지 예배드리고 있다. 지역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려고 힘쓰고 있다.

(4) 춘천돋움교회(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는 현산교회(최덕수 목사)의 전적인 개척지원에 힘입어 2017년 5월 1일 춘천시 후평동 주공 5단지아파트의 상가동(101호)에서 개척설립 예배를 드렸다. 춘천돋움교회는 2021년 5월에 서부대성로 113(2층)으로 예배당을 옮겨 현재까지 예배드리고 있다.

춘천돋움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은 첫째, 춘천돋움교회는 인간의 영혼에 심긴

하나님의 생명을 싹틔우며 진리의 말씀으로 돋우는 교회,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누리며 성화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 셋째,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출현한 역사적 개혁교회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문서의 고백을 따라 성경에 일치된 신앙과 바른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

11)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성장) 연합회의 조직

대한예수교장로회(성장)은 1962년도에 합동에서 분리되어 성장(성경장로회)으로 바뀌게 되었다.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26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홍천군 자은면의 두 마을에는 병원도 설치하였던 마두원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방효정 목사(제일장로교회 개척)가 제일장로교회를 후임자에게 위임하고 1959년 4월 15일에 효신교회 장로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후 효신교회는 1962년 합동에서 분리되었고 성장으로 바뀌게 되었다.(현재 효신교회는 합동 교단에 속해 있다) 춘천 성장 교단 소속 교회는 강남교회(이상수 목사), 드림교회(최금희 목사), 나눔교회(탁명수 목사), 예안교회(이광원 목사), 참사랑교회(손두진 목사), 동산교회(김정애 전도사)가 있다.

12)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연합회의 조직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은 2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교회는 새비전교회(남기덕 목사), 충성교회(이재진 목사)가 있다.

13)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연합회의 조직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은 1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순장 교단은 1901년 시작된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를 모체로 시작된 총회가 1938년 9월 9일,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규정하고 힘써 지키기로 가결함에 따라, 이 치욕의 역사를 반대한 이계실 목사와 5개 교회(덕천교회, 동상리교회, 기곡교회, 장흥교회, 상수리교회) 성도들이 함남노회(1921년 함주군 동천면 풍서리 덕천교회)를 탈퇴(1938년 9월 10일)함으로 만들어졌다.

이계실 목사와 5개 교회 성도들이 일제의 신사참배 및 동방요배를 일사각오로 배척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해방 이후 5년간 북한 공산치하에서 온갖 핍박과 유혹도 이겨내던 중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 비극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해 겨울(1.4 후퇴 이전), 12월 20일 흥남철수 대작전시 이계실 목사가 인도하던 5개 교회와 본궁교회 교우들 130 여 명은 기적의 UN군 구원선 LST호를 타고 흥남 엑소도스(exdous) 후, 거제도 연초면 연사리로 피난, 연합덕천교회를 세워 신앙생활 시작했다. 1954년 3월 23일 거제도를 떠나 부산 문현동으로, 1955년 3월 서울 신길동으로 이주, 모(母) 교회인 동천교회 남여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개척 헌신한 결과,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순장) 시대를 열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 남부노회, 동부노회, 중부노회 등 3개 노회와 해외에 북미주, 대양주 등 2개 노회로 구성되었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1992년 2월 22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춘천교회는 1970년 6월 28일 설립되었다. 모교회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에 위치한 영천교회(1958년도 6월 설립)이다.

춘천교회는 김기덕 장로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김기덕 장로가 예배당 부지를 헌납하여 지금의 후평동 언덕에 춘천교회가 세워졌다. 역대 교역자로는 1대: 박제일 목사, 2대: 홍순진 조사, 3대: 권정희 목사, 4대: 전재길 목사, 5대: 윤석산 목사, 6대: 김기선 목사가 사역하였으며, 현재 지태성 목사(2000~현재)가 담임목회자로 춘천교회를 섬기고 있다.


춘천교회(순장) 모습


춘천교회 예배 모습

2000년도에 지태성 목사의 부임 후 구역 조직 및 남녀전도회, 제직회 위원회를 재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친교 및 사회 봉사 등에 전력하여 2020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태성 목사는 춘천지역 내 교회 연합운동에 활발하게 활동하여 춘천장로교연합회 회장(2010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2022년)을 역임하였다. 춘천교회는 춘천지역의 성시화, 복음화하는 일에 동참하고 섬기고 있으며, 순장 교단과 춘천교회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4)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연합회의 조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는 1979년 총신대에서 나와 합동비주류로 시작되었다. 춘천에는 1986년 11월에 동성교회(장효근 목사)로 춘천 후평동에서 처음 개척되었다. 현재는 광영교회(조득용 목사)가 있다.

3절 춘천 장로교단 교회현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동부교회	1939년 5월 7일	김한호	춘천시 금강로 68-6	예장 통합
서상교회	1947년 3월 2일	나순형	춘천시 서면 골미길 54	예장 통합
영광교회	1947년 5월 10일	전진구	춘천시 충열로 1-10	예장 통합
가정리교회	1950년 3월 1일	이영기	춘천시 남면 충효로 1492-13	예장 통합
춘천성광교회	1953년 2월 23일	조용아	춘천시 안마산로 298-16	예장 통합
천전교회	1953년 7월 10일	손형일	춘천시 신북면 신샘밭로 667	예장 통합
신북교회	1953년 10월 7일	이창봉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6	예장 통합
금산교회	1954년 2월 21일	한철인	춘천시 서면 금산길 17-8	예장 통합
한빛교회	1954년 4월 10일	여성우	춘천시 공지로264번길 23	예장 통합
월송교회	1955년 4월 15일	장기채	춘천시 서면 월송길 505-11	예장 통합
춘천동산교회	1958년 10월 10일	김창부	춘천시 동산면 조양길 266	예장 통합
신촌교회	1964년 2월 2일	이광우	춘천시 동내면 향군1길 6	예장 통합
성문교회	1975년 9월 27일	김성덕	춘천시 공지로 163-1 3층	예장 통합
맑은세상세린교회	1977년 5월 28일	정희성	춘천시 부평길 11-2	예장 통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방동교회	1980년 5월 26일	서성복	춘천시 서면 방동리 425-1	예장 통합
벧엘군인교회	1983년 12월 17일	김동열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590	예장 통합
함께하는교회	1996년 2월 26일	김호경	춘천시 우두벌1길 79	예장 통합
광진교회	1997년 12월 3일	박정민	춘천시 세실로 173 (세경4차아파트상가)	예장 통합
새중앙교회	2002년 9월 29일	이영규	춘천시 사우로 31-6	예장 통합
마평교회	2002년 11월 8일	임승호	춘천시 사북면 말고개길 82-11	예장 통합
강촌교회	2006년 10월 28일	박우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92	예장 통합
예사랑제일교회	2007년 6월 17일	노승환		예장 통합
대광교회	2007년 12월 1일	홍명표	춘천시 칠전동길 32	예장 통합
춘천벧엘교회	2007년 12월 8일	김성태	춘천시 거두택지길 26번길 9	예장 통합
예광교회	2009년 3월 12일	김시온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65-27	예장 통합
춘천상현교회	2015년 2월 8일	박대광	춘천시 공지로 125	예장 통합
하늘뜻이룸교회	2022년 6월 5일	박도준	춘천시 보안길 42, 202	예장 통합
춘천제일교회	1939년 5월 7일	김창성	춘천시 중앙로68번길 15-1	예장 합동
효신교회	1954년 4월 15일	이경욱	춘천시 방송길 102	예장 합동
춘천성도교회	1954년 11월 30일	이정화	춘천시 효자상길 36	예장 합동
북춘천교회	1955년 6월 5일	이정훈	춘천시 옥산포길 14	예장 합동
광판교회	1955년 6월 21일	강한돌	춘천시 남산면 김유정로 165	예장 합동
춘남교회	1956년 1월 16일	한상민	춘천시 영서로2269번길 13	예장 합동
그말씀양문교회	1972년 8월 26일	엄기홍	춘천시 칠전서길 46-37	예장 합동
장본교회	1981년 8월 16일	김광철	춘천시 신북면 장본2길 40	예장 합동
춘천중부교회	1983년 4월 23일	현흥만	춘천시 공단로 10-4	예장 합동
성은교회	1984년 8월 14일	김달억	춘천시 소양로163번길 49-8	예장 합동
신동교회	1985년 5월 3일	이선행	춘천시 동포1길 6-18	예장 합동
사우동교회	1985년 5월 27일	백광일	춘천시 윗가래목길 9	예장 합동
화목교회	1986년 8월 15일	문충식	춘천시 동면 건일길 34-7	예장 합동
수정교회	1989년 3월 26일	유병욱	춘천시 서면 수정2길 245-18	예장 합동
온누리교회	1990년 5월 5일	김창환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100-51	예장 합동
예강교회	1995년 5월 25일	정명훈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94번길 10	예장 합동
세인교회	2000년 3월 4일	양성찬	춘천시 공지로 61-5, 3층	예장 합동
춘천우리교회	2000년 5월 6일	김원중	춘천시 안마산로 114 5층	예장 합동
주향교회	2001년 7월 9일	이병철	춘천시 새청말길 5	예장 합동
예담교회	2002년 3월 31일	권기찬	춘천시 후석로186번길 9	예장 합동
행복을전하는 교회	2006년 4월 4일	최도윤	춘천시 후석로 287-1, 3층	예장 합동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축복교회	2012년 6월 30일	윤종찬	춘천시 승지골길 53	예장 합동
감사교회	2013년 3월 17일	김수일	춘천시 공지로 218, 2층	예장 합동
하늘시민교회	2015년 12월 6일	유경수	춘천시 후석로 421, 2층	예장 합동
사랑의교회		심승남	춘천시 효석로 67번길 25	예장 합동
세나무교회		우영태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9	예장 합동
하늘샘교회	2014년 9월 20일	한재웅	춘천시 후석로 66번길 25, 3층	예장 합동
후평장로교회	1981년 1월 14일	조만식	춘천시 후만로 126번길 32	예장 합동
춘천은혜교회	1994년 1월 23일	지용찬	춘천시 영서로2434번길 9-11	예장 백석
대흥장로교회	1994년 7월 24일	박성균	춘천시 칠전서2길 6	예장 백석
한영교회	1994년 9월 4일	박윤영	춘천시 백석골길22번길 19	예장 백석
다솜교회	1994년 12월 8일	정순규	춘천시 영서로 2347	예장 백석
예닮교회	1997년 1월 16일	최윤식	춘천시 춘천로 213번길 7-1	예장 백석
고은교회	1999년 3월 1일	김은선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84-21	예장 백석
기쁜교회	2000년 5월 11일	함영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15	예장 백석
춘천은평교회	2000년 9월 21일	최승호	춘천시 스포츠타운길529-7	예장 백석
주님의교회	2002년 11월 22일	박상윤	춘천시 후만로 98번길 22	예장 백석
임마누엘교회	2004년 9월 18일	노영길	춘천시 대룡산길 46-6	예장 백석
춘천사랑의교회	2005년 4월	윤대영	춘천시 효자로 14번길 12-28	예장 백석
갈릴리교회	2005년 6월 10일	임인혁	춘천시 중앙로146.3층	예장 백석
새비전교회	2012년 3월 1일	임해경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21	예장 백석
은혜비전교회	2012년 10월 7일	이명옥	춘천시 칠전서1길 21	예장 백석
강북중앙교회		남궁상규	춘천시 신샘밭로 526-22	예장 백석
새희망교회	1983년 11월 28일	조용태	춘천시 근화동 601-1	기장
교동교회	1955년 1월 2일	김치홍	춘천시 서부대성로 105-8	기장
새누리교회	1946년 12월 21일	신현천	춘천시 춘천로 310번길 45	기장
열방선교교회	1989년 7월 4일	정수열	춘천시 춘천로 64번길 32	기장
대명교회	1993년 12월 16일	이상호	춘천시 남춘천새길 41번길 7	기장
한신교회	1987년 12월 17일	박동주	춘천시 대양당길 19-1	기장
세계로교회	2004년 9월 5일	백승국	춘천시 춘천순환로42 삼익2차@ 상가	기장
신포교회	1954년 4월 18일	신은섭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4819-12	기장
오탄교회		홍봉의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1336-9	기장
강원총신교회	1998년 10월 15일	용석만	춘천시 동면 한솔만천로 15-6	예장 합동개혁
평안한교회	2000년 11월 20일	김다윗	춘천시 신북읍 상천2길 43	예장 합동개혁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수정교회	2009년 7월 13일	공병용	춘천시 춘천로 254, 2층	예장 합동개혁
시온성교회	2009년 7월 13일	이경애	춘천시 퇴계로 146번길 4-1	예장 합동개혁
춘천드림교회	2009년 11월 13일	고성언	춘천시 서부대성로 239번길 47-26	예장 합동개혁
참된교회	2012년 10월 20일	최은옥	춘천시 후만로 24번길 13 현대5차상가 401호	예장 합동개혁
주성령교회	2020년 6월 10일	김정일	춘천시 공지로 432-1, 2층	예장 합동개혁
광염교회	2020년 7월 25일	이종례	춘천시 세실로 187 청실아파트상가 3층	예장 합동개혁
행복한교회	2021년 8월 27일	김광민	춘천시 후만로 126번길 20-1	예장 합동개혁
샘물교회	2021년 10월 24일	이영심	춘천시 벌말길104 지하	예장 합동개혁
춘천광명교회	1986년 9월 7일	김종익	춘천시 동광길 16-1	예장 백석대신
춘천중앙 장로교회 A	1991년 3월 1일	사공정	춘천시 우묵길 60번길 18	예장 백석대신
하라교회	1990년 8월 23일	이규영	춘천시 춘추로 179번길 6-6	예장 백석대신
단비교회	1992년 5월 5일	김면기	춘천시 법원뒷길 12	예장 백석대신
평강제일교회	1996년 12월 3일	이병주	춘천시 퇴계동 944 한주아파트상가 2층 201호	예장 백석대신
예수자랑교회	2000년 8월 15일	김희문	춘천시 거두택지길 61-16	예장 백석대신
주창성교회	2006년 5월 30일	최춘배	춘천시 공지로 426	예장 백석대신
일심교회	1984년 1월 3일	이순주	춘천시 동면 공단로 70번길 200	예장 개혁
동성교회	1986년 6월	장영우	춘천시 금촌로 388	예장 개혁
춘천새누리교회	1989년 11월 14일	한수진	춘천시 동면 143번길 28	예장 개혁
춘천중앙교회	1993년	박영남	춘천시 모수물길 60	예장 개혁
중앙교회	1994년 8월 20일	김혜영	춘천시 보안길 79	예장 개혁
주성원교회	2006년 6월 11일	김병철	춘천시 만천로 215번길 21	예장 개혁
축복교회		최재영	춘천시 우두상리길 14-4	예장 개혁
평안교회	1990년 초반	최승국	춘천시 화목원길 116-6	예장 개혁
주안교회	1984년 4월 1일	김용욱	춘천시 동면 하일길 128	예장 개혁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봄내사랑교회	2018년 3월 1일	김희균	춘천시 동면 하일길 61	예장 개혁연대
하이교회	2020년 2월 2일	정성용	춘천시 공지로 270, 5층	예장 개혁연대
새시민교회	1990년 2월	권기호	춘천시 후평동 산1-46	예장 고신
장자교회	1999년 2월	정승남	춘천시 효평길 101	예장 고신
소양시민교회	2000년 11월	김신구	춘천시 충열로 170	예장 고신
온전한교회	2002년	박종천	춘천시 마장길 60 롯데캐슬 상가내 302	예장 고신
늘사랑교회	1985년 4월 7일	정재호	춘천시 우석로 79번길 7-9	예장 합신
봄내로뎀교회	1994년 12월 12일	김승권	춘천시 우석로 101번길 83 부영A상가	예장 합신
조양장로교회	1996년 2월 1일	전효진	춘천시 동산면 모래재길 19-6	예장 합신
춘천돋움교회	2017년 5월 1일	이원평	춘천시 서부대성로 113, 2층	예장 합신
강남교회		이상수	춘천시 춘주로 174	성장
드림교회	2002년 10월 2일	최금희	춘천시 춘천로 296번길 21	성장
나눔교회	2005년 10월 30일	탁명수	춘천시 동면 만군길 233-1	성장
예안교회		이광원	춘천시 금강로89-1	성장
참사랑교회		손두진	춘천시 후석로 58	성장
동산교회		김정애 전도사		성장
새비전교회		남기덕	춘천시 안마산로 213 퇴계타운408	예장 대신
충성교회		이재진	춘천시 춘주로 147번길 22-14	예장 대신
춘천장로교회	1970년 6월 28일	지태성	춘천시 춘천로 295번길 8	예장 순장
광영교회		조득용	춘천시 만천로 195번길 25	예장 합동보수

제3장
춘천의 성결교단

1절 춘천 성결교단의 전래와 성장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 죽림동 성결교회의 창립과 춘천중앙성결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교회전경(1953년)

춘천중앙성결교회는 죽림동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1934년 7월 3일 김의용 전도사가 창립했다. 1938년 일제의 탄압으로 김의용 담임목사가 서울서대문형무소에 투옥당하고, 1943년에는 일제의 만행으로 공 예배가 강제로 중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총독부령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강제 해산되었다.

1945년 광복 후 2대 교역자로 김규호 담임목사가 부임하여 죽림동 현 대지의 건물을 대여하여 예배(죽림동성결교회)를 드렸다. 1950년에는 6.25사변으로 교회가 해산

되었다가 1953년 9월에 목조건물로 교회당을 신축했다.

1966년 6월에 김관수 담임목사가 취임하였으며, 1968년 10월 3일 연건평 200평의 예배당을 봉헌했다. 1976년 4월 6일에는 윤철중 담임목사가 부임하여 새 교회를 신축하고 헌당했다(1983년 11월 15일).

2000년 9월 26일 윤철중 담임목사가 제94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으로 취임했다. 2003년 5월 15일 윤철중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유동선 목사가 제5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2010년 8월 22일 드림센터(교육관)를 건축하였다. 2015년 5월 27일에 유동선 담임목사가 제109년 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으로 취임했다. 2018년 3월 18일 유동선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같은 해 5월 6일 장기동 목사가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장기동 목사와 교회는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춘천중앙성결교회의 개척교회 사역지원은 아래와 같다.

① 소양성결교회 개척(1953년 12월, 홍순우 목사)
② 삼천동성결교회(구, 삼천리교회) 개척(1967년 6월 11일)
③ 춘천성결교회(구, 대흥교회, 현, 행복한우리교회) 개척(1972년 3월 5일)
④ 사암중앙교회 개척(현, 사암교회. 1989년 1월 3일)
⑤ 원통중앙성결교회 창립 60주년 기념교회 성전봉헌예배(1994년 9월 29일)
⑥ 멕시코 아드미라블레교회 건축봉헌(1998년 11월 7일)
⑦ 이천제일성결교회 교단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 및 건축(2008년 9월 2일)
⑧ 드림교회 분립개척(백승환 목사/2014년 3월 30일)–창립 80주년 기념교회

2) 소양성결교회

1953년 가을 춘천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 홍순우 신학생을 통해 소양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1월에 죽림동교회 이응만 집사를 주축으로 기와집 골에서 교회를 세우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1957년 5월 10일에 요선동에 목조로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이만선 목사, 김해문 목사, 김상하 목사, 이연식 목사, 곽순찬 목사가 차례로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 이후 1979년 이기성 목사가 현재 위치에 성전건축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이정익 목사가 1980년에 완공하였다. 1987년 이원호 목사가 부임한 이래 지역내 교회



소양성결교회

를 연합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원호 목사의 부음 이후, 김선일 목사가 새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김선일 담임목사는 신앙의 내실화에 힘썼으며 춘천시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강원CBS 이사와 목회자 대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사역하고 있다.

1996년 11월 3일 소양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소양제일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소양성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해 온 이주호 목사를 담임으로 12가정을 파송 받아 퇴계 타운 401호에서 분립개척 감사예배를 드렸다. 개척 2년 후인 1998년 12월 20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후 소양제일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2010년 8월 15일 이근택 목사 외 22명을 파송하여 바울교회를 재분립 개척하기에 이른다. 또한 1991년 9월 14일 100대대 횃불교회를 봉헌했다.

3) 소양제일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는 소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이주호 목사가 1996년 상가를 임대하여 소양교회로부터 분립 개척하였다. 이후 2년 만에 춘천시 퇴계동 93-1번지(현 교회부지)에 성전건축과 입당예배를 드렸다. 2006년 2월 24일에는 교회 본 건물 옆에 선교관을 건축하게 되었고 사랑샘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호 목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목회 비전으로 삼고, 춘천시 사회복지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밖으로는 세계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소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소양제일성결교회

2010년 8월 15일에는 이근택 목사를 담임자로 춘천바울교회를 분립 개척했다. 바울교회는 2년 후 동내면 거두리 43번지에 신축하여 입당예배를 드렸다. 또한 2019년 한경묵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여 행복나무교회를 분립 개척하였다.

4) 하늘평안교회



하늘평안교회

1991년 9월 8일 오생락 목사가 개척하였다. 2000년 3월 13일에 옥한흠 목사의 CAL세미나를 참석하고 목회의 방향을 재정립한 이래 제자훈련은 하늘평안교회와 오생락 목사의 목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과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비전으로 품었던 오생락 목사는 2011년 교단 진흥원에서 진행한 개척교회를 지속적으로 돕는 코칭사역의 강원지부를 감당하였다. '지역 코칭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마테테스 코칭넷'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DPA 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다섯째 주일은 '교회개척주일'로 지키며 교회개

척을 위한 헌금을 한다. 매월 '십일조 헌금의 십일조'를 교회 개척을 위해 적립하였다.

2017년 10월 부목사였던 노효철 목사를 통해 하늘소망교회를 분립 개척하였다(청장년 54명, 청소년5명, 아동부3명).

5) 춘천나눔교회



춘천나눔교회

1993년 2월 21일 피종호 목사와 15명이 삼익2차 아파트 202동에서 설립예배를 시작으로 개척하였다. 춘천교육대학 앞 지하상가를 거쳐 2003년 4월 30일 현 퇴계동 998번지에 건축 후 입당하여 현재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나눔교회는 처음부터 사명선언문을 "춘천성시화와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로 춘천시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였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CBS, 홀리클럽, 대학생선교단체들과 긴밀히 연합하였고, 강원재활원, 월드비전춘천지부등 복지기관을 후원하였다.

나눔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해서 교회 경상비의 11%를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비전트립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선교지(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동북아 등)에 파송하였다. 또한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의료선교팀(내과, 소아과, 치과 등)을 구성하여 알바니아, 세네갈, 태국 등 의료환경이 열약한 지역에 의료봉사를 통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도 힘썼다.

현재 7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했으며, 15여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이순복목사를 프랑스(~2013년)에 파송하여 프랑스 리용나눔교회를 개척하고 세네갈(~2021년) 사역을 지원했다. 또한 2022년에는 지푸름&김나무선교사 가정을 V국에 파송하였다.

6) 새춘천교회



새춘천교회

1967년 6월에 창립된 새춘천교회(현 석사동 스무숲 소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교회의 3대 사명으로 삼는다. 1986년에 4대 목회자로 부임한 신재원 목사는(1대 김창길 목사, 2대 최선명 목사, 3대 허균 목사) 1991년부터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초기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는 칼넷(CAL NET)의 강원지역 책임을 맡아 춘천과 강원도의 많은 목회 후배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은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각처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철저한 말씀훈련과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해외 선교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두 곳과 중국의 한 곳에 교회건축을 후원하였고, 선교사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에는 새춘천교회가 처음 출발한 삼천동에 이승구 목사를 세워 삼천동교회를 분립 개척하였다.(김광태 목사 담임)

7) 사암교회

1986년 가을부터 춘천중앙교회의 송융남, 심경자 집사 가정(송영채, 송영주, 송영호)이 이영수, 신성균, 조은제 등과 함께 사암리와 학곡리지역의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후 송융남 집사 가정의 토지기증과 춘천중앙교회(윤철중 목사)의 지원으로 사암리 1174번지에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치리목사로 윤철중 목사, 피종호 목사, 허경 목사, 고재만 목사, 김동오 목사가 협력사역을 하였고, 1988년부터 이광국 전도사(1대), 손성삼 전도사(2대), 최예석 전도사(3대)가 전담사역자로 활동하였다. 1996년 3월, 최상도 목사(김수정 사모)가 부임하여 청년자원을 발굴하고,



사암교회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시선교모델인 춘천성시화, 사암리 평화예수마을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헌신된 교우들과 함께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1996년부터 CCC사역과 네비게이토, IVF, 기독교학문연구회, 평화한국 사역을 폭넓은 제자훈련방식으로 채택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셀 운동인 가정교회(국제가정교회사역원) 사역방식을 접목하였다. 현재, 김진솔 부목사와 현재용 장로, 김주식 장로, 오성남 장로(송융남, 송융광, 최명용 은퇴장로)를 영적 지도자로 14개의 목장연합체를 형성하여 온전한 도시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2.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 연원 및 변천

예수교대한성결교회(한국 성결교회)는 1907년 일본 동경에 있는 동양선교회 소속의 "성서학원"(聖書學院)에 1905년 입학하여, 1907년 졸업한 한국인 정빈(鄭彬), 김상준(金相濬)이 1907년 5월 30일, 서울 종로염곡(현 무교동)에 한옥을 세얻어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Gospel Mission Hall, 복음선교청)이란 간판을 걸고 전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국 성결교회는 바로 이 동양선교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동양선교회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성결교회의 처음 이름은 동양

선교회 복음전도관이었으며, 그 다음은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성결교회였다. 동양선교회라는 말이 성결교회의 명칭에서 빠진 것은 해방 이후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란 복음전도관에서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성결교회'라고 성결교회로 교단 전환을 한 1921년을 기점으로 하여 1962년 4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신앙노선의 차이로 갈라져 1962년 총회를 '41회 연차 대회 및 총회'로 교단의 연원을 두고 시행해 오고 있다. 2022년인 올해는 '116연차 대회 및 101회가 총회'가 된다.

1960년대 한국 성결교회는 교회일치운동 동참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며, 예성과 기성 두 교단으로 양분되었다. 1961년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하였던 조선기독교연합회(NCC)와 복음동지회(NAE) 가입 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두 연합기관 탈퇴안이 보류되고 두 기관에 더 많은 대표단이 파송되자 "연합기관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신앙의 세속적 부패를 바로잡아 본래의 성결교회 복음신앙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내세우며 1962년 4월의 총회에서 신앙 노선의 환원과 동시에 교단 명칭도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 바꾸고 기존 교단에서 분립을 결정하게 되었다. 1962년 4월 24~26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총회가 성결교회의 모교회(母敎會)인 중앙성결교회에서 개최되어 성결교회 본연의 성경적인 복음 신앙으로 환원하려는 교단 신앙 정체성 회복과 갱신운동으로 설립되었다.

분립 당시 600여 교회 가운데 270여 교회가 참가했으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측의 불법단체 주장으로 한때 교세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3년 4월 법인인가를 받고 기관지 『성결』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1월에는 종로구 행촌동에 신학교를 설립하여 1965년 12월에 첫 졸업생을 내었다.

현재 예성은 2020년 현재 1,284개(국내 1,084개, 해외 200개), 교인 수 161,068명, 세례교인 수가 80,534명이다. 국내에는 전국 각 지역 별로 32개 지방회를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미주지역총회,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대양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필리핀지방회로 모두 10개의 지방회로 조직되어 있다.

2) 춘천에서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회일치운동의 진보와 보수의 이견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춘천의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1961년도에 국가건설 사업으로 춘성군 신북면 용산리 2구(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춘천댐 발전소 공사로 많은 노무자들이 거주하게 되고 주민들이 입주케 됨에 따라 소양교회(昭陽敎會)는 담임 교역자 김해문 목사(당시 전도사)와 성도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 2회 전도하였다.

1962년 3월 27일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가옥 한 동을 전세로 구하여(일금 일만 이천 원) 예배처를 삼게 되고, 1962년 4월 19일에 서수일 전도사를 초대 교역자로 세우고 소양교회의 주최로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신북교회로 명명하고 김해문(金海文) 소양교회 시무 전도사의 인도와 이석호(李錫鎬) 치리목사(횡성교회 시무)의 설교로 창립되었다.(같은 해 6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7월 26일에 완공한다.)

기성과 예성의 합동이 있던 1973년 7월 1일 정기 직원회의에서 신북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그대로 계속 신앙의 보수를 지키기로 결의했으므로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유일한 예성으로 남게 된다.



신북교회

신북교회는 1977년 10월 1일 비어있던 전 소양성결교회 건물을 빌려 염광교회(이진식)를 설립하고, 1978년 4월 10일 용산리에 제일성결교회도 설립하게 된다. 1984년 4월 30일~5월 2일 예성 제63차 총회가 서울 충신교회에서 개최되어 지방회 재조직 및 분할을 하게 되어 신북교회는 총회 직할지방회에서 서울지방회로 속하게 된다(1985년 5월 3일~1988년 3월 21일).

1986년 9월 6일 호반교회(이근택) 설립, 1986년 11월 29일 춘천교회(김창섭, 설립예배는 6월 1일), 1986년 12월 효자동교

회(김익환 목사, 현 평성교회(서규환 목사)), 1987년 푸른교회(고영일 목사), 벧엘교회(김상철)가 설립되고, 1988년 67회 총회에서 강원도의 예성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방회가 세워진다(1988년 7월 7일 강원지방회 창립 예배가 갈멜산 기도원에서 개최 회장 : 장한석 목사 / 부회장 : 박덕규 목사, 류호근 장로 / 서기 : 황영기 목사 / 부서기 : 김익환 목사 / 회계 : 박준섭 목사). 이어 1988년 10월 춘천교회(이영규 목사, 서규환 목사)가 설립되면서 춘천에서 예성의 터를 닦고, 2022년 현재 앞의 교회 외에 나눔의동산교회(김재숙 전도인), 대흥교회(최덕순 목사), 벧엘교회(전석규 목사), 주향기교회(김성호 목사), 후평제일교회(한정자 목사), 함께하는교회(이장복 목사), 반석교회(현민석 목사, 군인교회)가 세워지므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2절 춘천 성결교단의 주요활동

1. 춘천중앙성결교회의 사회봉사

대표적인 봉사기관으로 송암장학회가 있으며, 1967년 3월 26일 송암장학회 정기 소집예배를 드렸다. '송암'은 김제영 집사의 호를 딴 장학회로 교회자금이나 이미 조성된 장학 기금 없이 어린 시절 마음껏 공부하고 싶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재를 들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장학사업은 1975년도까지 지속되다가 고인이 되신 김제영 장로의 유훈을 받들어 장남에 의해 제2의 송암장학회를 준비하고 있다.

① 춘천중앙노인대학 개교(2004년 5월 6일)
② 춘천중앙지역아동센터 개관(2009년 7월 19일)
③ 사랑의 연탄 및 쌀 나눔(2018년 11월 10일, 2019년 1월 29일, 2021년 9월 13일)

2. 소양성결교회의 사회봉사

1) 예수사랑누리 선교회 장애인 주말학교

1997년 3월 22일 변춘자 전도사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말학교'를 개교하였다. 초기엔 작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20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춘천시로부터 정식으로 지원을 받는 부서가 되었다. 다양한 활동으로 장애인 특수사역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2) 지역사회 반찬봉사

매달 50가정씩 쌀과 필요한 물품들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에게 전달하고 있다. 단순한 물품 전달 사역이 아닌 집집마다 방문하여 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들어주고 보살피는 귀한 사역이다.

3) 사랑의 연탄나눔

매년 초겨울 지역사회의 에너지 약자분들에게 성도님들의 후원과 동참을 통해 연탄을 구입하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진심이 복음을 전할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

3. 소양제일성결교회의 사회 봉사기관들과 세계선교

1) 춘천호스피스

이주호 목사는 거두리에 '기쁨의 집'을 2000년 11월 2일에 시작하게 되었고 호스피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1년 11월 30일에 춘천호스피스(부설) 완화의료센터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말기 암환우들을 위해서 세례예식과 안수기도, 시설확충과 인력 수급 등 암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썼다.

2) 사랑샘어린이집

2004년 3월 2일 개원한 사랑샘 어린이집은 교회의 선교사역에서 큰 축을 감당

하고 있다. 개원 후 현재까지 2,047명의 어린이들을 졸업시켰다.

3) 웰빙음악회

2005년 6월 24일에 시작된 웰빙음악회는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로 소양제일성결교회 성도들과 일반 재능봉사자들의 협력으로 소양제일성결교회와 성심병원 신우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4) 샬롬하우스 요양원

2019년 5월 26일 개원한 샬롬하우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세운 공동체이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지켜가도록 영적 돌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해외선교

소양제일성결교회는 여러 부서와 목장들이 해외 단기선교팀을 이루어 일본, 필리핀, 인도,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했다. 그중에서도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선교를 지향하며 필리핀의 빈민촌인 빵아랍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고, 지역 안에 있는 빵아랍교회와 협력하여, 2017년 12월 정동성 목사를 협동 선교사로 파송했다. 1페소(한화 약 20원)만 받고 빵을 나누는 '러브 브레드 나눔'사역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을 위해 '필리핀 의료선교사역'을 시작했다. 또한 2019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힘콰이어 합창단 30명을 한국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교회 내 단기선교팀을 조직하여 필리핀 빵아랍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4. 춘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선교사와 복지시설

김익환 선교사(이향우 선교사)의 "마닐라한국아카데미"는 1994년 오지에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 자녀(Mission Kid)들을 위하여, 한국인의 정체성과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국제인으로서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이다.

이진석 선교사(정은숙 선교사,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Autazes)는 2018년부터 아마존 강가에 거주하는 인디오 부족과 28개 마을 선교, 2011년 중국에서 5년간 사역을 한 바 있다.

이현정 선교사(백승렬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는 2009년 보츠나와에서 사역하였다. 이현정 선교사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어주신 남부 아프리카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선교의 일과 전도와 교사들을 제자 삼고 어린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습니다. 저희에게 선교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아공 국가 이동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살리러 가는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동산〈나눔카페(김재숙) 대표이사 백성분〉에서는 정신지체 자매들을 돌보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대학과 취업까지 연계하는 복지시설이다.

3절 춘천 성결교단의 교회현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중앙교회	1934년 7월 3일	장기동	춘천시 약사고개길 14	기성
소양교회	1954년 1월 30일	김선일	춘천시 서부대성로 43번길 19	기성
산솔교회	1954년 2월 10일	강성용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440-12	기성
새춘천교회	1967년 6월 11일	신재원	춘천시 스무숲 3길 26-5	기성
삼천동교회	1967년 6월 11일	김광태	춘천시 옛경춘로 816-7	기성
추곡교회	1972년 5월 5일	이종서	춘천시 북산면북산로 44	기성
행복한우리교회	1973년 4월 20일	강문구	춘천시 마장길77	기성
춘천엘림교회	1976년 11월 14일	김진수	춘천시 백령로75번길 35-1	기성
충인교회	1977년 8월 22일	이종규	춘천시 후석로 311-1	기성
구암교회	1986년 2월 4일	서창범	춘천시 동산면 새술막길 638-10	기성
사암교회	1989년 5월 12일	최상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3-28	기성
평화교회	1990년 9월 25일	염윤호	춘천시 신동면 올미길21-7	기성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하늘평안교회	1991년 9월 8일	오생락	춘천시 후석로 11-6	기성
안디옥교회	1991년 10월 20일	김왈욱	춘천시 춘천로296번길 3	기성
춘천제일교회	1992년 3월 15일	김승범	춘천시 외솔길19번길 9	기성
춘천나눔교회	1993년 2월 21일	피종호	춘천시 승지골길15	기성
주의길교회	1995년 4월 17일	최재용	춘천시 선들길 54	기성
소양제일교회	1996년 11월 3일	이주호	춘천시 윗무린개길16	기성
춘천소망교회	1997년 5월 2일	최인호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16	기성
새순교회	1998년 12월 28일	박찬욱	춘천시 영서로 2000	기성
강변제일교회	2004년 1월 1일	손광오	춘천시 강남동 73-4	기성
세상을비추는교회	2006년 12월 3일	기준호	춘천시 삭주로126	기성
춘천바울교회	2010년 8월 15일	이근택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34	기성
선한이웃교회	2010년 11월 14일	김중천	서부대성로239번길19	기성
좋은나무교회	2010년 11월 28일	조선영	춘천시 성심로35번길 1,2층	기성
주님의교회	2011년 5월 29일	김철영	춘천시 신북읍 사랑말길 114	기성
춘천새소망교회	2013년 6월 30일	김지백	춘천시 금강로114대용빌딩 2층	기성
춘천드림교회	2014년 3월 30일	백승환	춘천시 만천양지길 17-48	기성
선한목자교회	2017년 1월 22일	김선영	춘천시 명동길21	기성
춘천평안교회	2017년 3월 5일	임동혁	춘천시 만천로205번길 29	기성
봄내교회	2017년 5월 31일	박희훈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3 3층	기성
하늘소망교회	2017년 10월 15일	노효철	춘천시 영서로2261(5층)	기성
행복나무교회	2019년 6월 31일	한경묵	춘천시 동면 춘천로451-1	기성
신북교회	1962년 4월 19일	이영규	춘천시 신북읍 서원말길 30	예성
평성교회	1985년 12월 16일	서규환	춘천시 만천로 249번길6	예성
푸른성결교회	1987년 6월 3일	고영일	춘천시 공단로 54번길 4	예성
나눔의동산교회	2005년 7월 28일 (1987년)	김재숙 전도인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2길 43-25	예성
대흥성결교회	1993년 4월 18일	최덕순	춘천시 삭주로 197-1	예성
주향기교회	2002년 9월 15일	김성호	춘천시 후만로 98번길 10-1	예성
후평제일교회	2003년 3월 22일	한정자	춘천시 후만로 119 금호빌리지 상가 2층	예성
벧엘교회	2004년 6월 22일	전석규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1길 26	예성
함께하는교회	2018년 10월 30일	이장복	춘천시 후석로344번지3	예성

제4장
춘천의 순복음교단

1절 춘천 순복음 교단의 전래와 성장

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설립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회'라는 명칭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성령 운동'을 한 것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 체스넛(A. B. Chesnut) 목사이다. 그를 중심으로 목회자 몇 명이 모여 1953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The Korea Assemblies of God)'라는 교단을 결성하였다. 교단 결성의 태동은 1953년보다 이전인 8.15 해방기에 시작하였다. 박성산 목사를 중심으로 배부근 목사와 허홍 목사가 교단 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950년 4월 9일 '제1회 대한 기독교 오순절 대회'를 개최하였다. 안타깝게도 '제1회 대한 기독교 오순절 대회'가 개최된 지 채 두 달 남짓 무렵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순절 교회는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아 구체적인 교단 조직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성회' 결성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6.25전쟁이 한창일 무렵, 미국 군종 목사 엘라우드(Ellowed)가 입국하였다. 그는 군목으로 근무하며 한국 오순절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다가 허홍 목사를 만나고 1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미국 하나님의 성회를 한국에 소개하였

다. 1951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 오순절 교회와 미국 하나님의 성회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엘라우드 목사의 노력으로 1952년 여름 미국 하나님의 성회 동양 선교부장이던 오스굳(Osgood) 목사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오스굳 목사는 한국에 머물며 허홍, 박성산, 배부근 목사를 만나 한국 오순절 교회의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귀국하였다. 같은 해 12월 15일 정식으로 파송된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 체스넛(Arthur. B. Chesnut) 목사가 한국 땅을 밟았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65번지'에 위치한 목조 2층 건물 '남부교회'에서 열렸다. 이곳은 원래 허홍 목사의 개인 소유로 1층은 조그만 예배실과 허홍 목사 가족의 거실로 사용하고, 2층은 체스넛 목사가 기거하였다. 1953년 4월 8일 오전 10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결성 총회에서 체스넛 목사가 사회를 맡고 허홍 목사가 통역을 담당하였다. 첫 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교역자 7명(체스넛, 허홍, 박성산, 곽봉조, 배부근, 윤성덕, 박귀임)과 방청인 4명으로 모두 11명이었다. 교단 창립에 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며 교단의 명칭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The Korea Assemblies of God)'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헌장을 제정 및 가결하고, 헌장에 의해 총리에 체스넛 목사를 선출하였다. 교역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 설립을 의결하여 교장에 체스넛 목사, 학감에 허홍 목사를 내정하였다.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다음 달 1953년 5월 남부교회에 순복음신학교를 설립하였다. 1953년 8월 1일 교사(校舍)를 서대문구 충정로 1가 21번지로 이전하고, 1955년 2대 학장으로 존 스렛츠(John Stetz) 선교사가 부임하였다. 같은 해 신학교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교단에서는 교세 확장을 위해 3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첫 번째로 1957년 가을 세계적 부흥사 허먼(H. Herman) 목사가 내한하여 중앙청 앞 광장에서 24일간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1958년 여름에는 비어드(Ralph Byrd)목사가 수원과 대전과 부산에서 성회를 인도하였다. 1961년에는 사무엘 토드(Samuel J. Todd)목사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서대문 네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조용기 전도사가 통역을 담당하였다. 일련의 집회를 거치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자리를 잡아갔다.

1958년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순복음신학교를 제4회로 졸업하고

같은 해 5월 19일 최자실 전도사가 대조동 천막 교회를 개척하였다. 얼마 후에 조용기 전도사가 합류하여 함께 목회를 시작하였다. 최자실 목사가 5명으로 성도를 시작한 대조동 천막 교회가 바로 지금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전신이었다. 조용기 전도사의 합류로 교회는 부흥 일로를 달려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여 1973년 '순복음중앙교회'(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 민족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기에 이르렀다.

2. 순복음춘천교회의 개척과 성장

춘천의 순복음교회 시초는 1972년 4월 3일 순복음춘천교회의 창립으로 시작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의 등장 이전에 춘천지역의 성령운동은 개인적으로 기도원 등지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자 권사와 집사들이 모이는 소모임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서 활동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숨거나 억압을 받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1971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강원체육관에서 있었던 조용기 목사의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순복음의 성령운동이 처음으로 춘천지역에 선을 보였다. 동시에 춘천지역 목회자의 제안으로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한 도지사 조찬기도회도 열어 '정상천 지사'를 초청한 가운데 도 단위기관장과 시 단위기관장, 각 단체장, 춘천지역 교역자 백여 명이 강원도청 문화관 회의실에 모여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조용기 목사는 낮 집회가 끝난 후 2군단 장병과 춘천교도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입체적인 전도 운동을 벌였다.

조용기 목사의 춘천 성회는 춘천 기독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1년 부흥성회는 춘천 기독교계의 풍토를 서서히 바꿨다. 결국 이러한 춘천지역의 성령 운동의 씨앗이 춘천순복음교회의 설립으로 이르게 되었다.

1972년 4월 3일 춘천에 김주환 전도사와 김동례 사모가 효자1동에 있는 18평 2층을 교회 예배실로 개척하면서 춘천지역 순복음의 역사는 시작됐다. 교회 개척 6개월 만에 부흥하여 효자3동으로(26평) 확장 이전했다. 이듬해 5월 14일 김주환 전도사가 교단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성전기공식(1973년 6월 25일)

1973년 4월 3일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당시 장년 성도 1백1명, 교회학교 80명 등 2백 명 가까운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해 6월 효자2동 651번지 밭 197평을 성전대지로 구입하고 1974년 10월 1일 100평에 가까운 건물이 준공되었다. 이후 1975년 7월 20일 오후 4시 소양강에서 감격스러운 첫 번째 침례식이 거행되었고, 남녀 122명의 성도가 침례를 받았다. 1977년, 1981년, 1989년에 걸쳐 성전이 증축되는 효자동 시대를 맞이했다. 이후 부흥과 성장이 이뤄지면서 춘천지역의 성시화 운동과 성령 운동의 선봉에 서서 소명을 다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는 춘천성시화를 위해 10개의 교회 개척을 목표하였다. 1995년 4월 베드로순복음교회, 1996년 4월 안드레순복음교회, 1999년 10월 19일 남춘천순복음교회(현 순복음조은교회), 2001년 1월 아름다운순복음교회, 2018년 5월 6일 순복음늘찬양교회 등 5개 교회에 개척자금을 지원하였고 개척 초기 몇 년 동안 교회 임대료를 매월 지원하기도 하였다.

효자동시대의 부흥과 성장의 열매는 1997년 3,500평의 만천 성전 대지 구입으



현 순복음춘천교회 모습


이수형 담임목사 아프리카 선교활동 모습

로 이어져 1999년 5월 만천 벧엘성전 입당예배를 드리고, 2002년 6월 9일 만천 성전 본당 완공 감사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만천시대의 문을 열었다.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는 2013년 5월, 창립자 김주환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이수형 목사가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춘천성시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는 교회',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라는 4대 목회비전 아래 교회를 섬기고 있다.

3.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제일교회는 1980년 7월 5일 춘천시 효자1동 547번지 상가 2층에서 창립되었다. 1984년 5월 23일 2대 목사로 하기철 목사가 부임하여 현 장소인 춘천시 근화길 85에 대지 200평을 구입하고, 1990년 5월 20일 건평 305평(지하1층, 지상3층) 성전을 기공하여 1991년 5월 27일 준공 헌당예배를 드렸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0년에는 태국 방콕 안디옥교회 3층 건물을 매입하여 11월 30일 헌당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세계선교에 동참하였다. 2020년 창립 40주년을 맞이


순복음제일교회

하여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기념예배를 드렸다.

순복음제일교회는 새로운 도약으로 믿음과 행함 · 영성과 인격, 다음 세대와 장년부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오고 있다.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같은 말 · 같은 마음 · 같은 뜻 · 같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4.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전경

순복음조은교회는 1999년 10월 19일 강원예식장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설립 당시 남춘천순복음교회) 당시 순복음춘천교회가 춘천성시화를 위해 1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순복음조은교회도 개척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퇴계동 상가교회를 거쳐 2011년 7월 삼천동 22-13번지에 교회부지를 계약하고 2012년 7월 31일 단층의 예배당을 완공하여 입당예배를 드렸다. 2013년에 현재의 순복음조은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고, 2015년 9월 2층 증축 공사를 시작해 2018년 6월 10일 준공 및 입당예배를 드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의석 담임목사는 춘천성시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강원도·춘천 지역 교회연합회 활동에 활발히 그 역량을 발휘하였다. 오의석 목사는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7년), 강원도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거쳐 춘천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5.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열린교회는 1989년 10월 3일 설립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권오묵(이설희)전도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래 위치는 춘천 팔호광장 옆의 3층 건물에서 시작되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뜻에 온의동의 한 지하상가로 이전하였다. 2000년 8월 1일에 현 위치인 춘천시 춘주로 176-9(퇴계동 426)에 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였다. 열린교회는 "오늘은 춘천, 내일은 강원과 한국, 모레는 세계를!"을 표어로 삼고 있으며, "부흥·제자양육·꿈·봉사·축복"의 비전을 품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역대 교역자로는 1대 권오묵 전도사(1989년 10월~1993년 8월), 2대 신성균 목사이고, 현재 신성균 목사(1993년~현재)가 담임목회자로 순복음열린교회를 섬기고 있다. 신성균 목사는 강원대학교 교수와 목회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은퇴 예정이다. 신성균 목사 다음으로 현재 미국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조은 선교사가 2025년 1월부터 담임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예정이다.

6. 순복음행복한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소속의 순복음행복한교회는 1998년 7월 12일 춘천시 온의동 539-7번지 상가의 10여 평 지하에서 박문수 전도사의 세 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참여하여 '예배와 찬양, 기도와 전도, 선교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첫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다음



순복음행복한교회

날인 7월 13일 강원지방회 주관으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순복음행복한교회는 창립 첫 해 2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다음 해인 1999년 9월에는 춘천시 퇴계동 964-2번지에 1차 건축과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후에도 점진적인 부흥을 이루어 2008년에는 퇴계동 1121번지에 다시 부지를 구입하고, 2010년 9월부터는 두 번째 성전건축을 시작하여 2012년 2월 22일 현재의 교회를 완공였다. 올해로 교회창립 25주년을 맞는 순복음행복한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인격을 가진 개인이 교회 주변의 이웃과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또한, 국내 미자립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25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이 사역을 이룸에 멈춤이 없기를 소망한다.

7.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제자교회(독립지교회 1호 교회)로서 2009년 9월 11일 설립되었다. 춘천성시화와 강원지역 복음화, 나아가 북한 선교와 땅끝 선교의 사명을 받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7에 설립되었으며, 1대 담임목사로 이상열 목사가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북한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행1:8, 사54:2-3)를 비



전삼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는 교회 창립 1년 만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말씀 따라 C국 등 다수의 지역에 제자사역(3개처 신학교 섬김)을 하고 있다. 돌봄 섬김사역으로는 춘천교도소와 전국교도소 및 소년원 관련 담당사역, 북한복음화와 통일한국시대를 위한 통일비전헌금 작정,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병원치유사역, 국내외 신학교 제자사역, 사이버 어린이성경학교의 운영과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위한 드림사역, 연말 성탄절 희망박스 전달 등을 행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자 기도에 힘쓰며, 지·구역 소그룹 활동을 통한 제자양육과 지역사회에 사랑과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2절 춘천 순복음교단의 주요활동

1. 순복음춘천교회의 활동

순복음 교단의 사회활동은 순복음춘천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소외당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 춘천시 폐기물관리과와 자매결연을 하고, 환경미화원 초청 예배와 행사를 가졌다. 2003년 7월 6일 교회 월보 '순복음 샘터'를 창간하였다. 2009년 6월 23일 강원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이었던 김주환 목사를 주축으로 북강원도 결핵 어린이 돕기 운동본부를 결성, 결핵 약품 1만 명분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2009년 1월 3일 김주환 담임목사가 2009년 강원도 DMZ 평화상(남북교류 협력 부분)을 수상하였다.



혜민사랑의집 큰잔치 모습

'순복음춘천교회'가 만천리로 옮기며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을 생각하던 김주환 목사의 뜻에 따라 외롭게 지내는 지역 어르신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매일 제공하고자 2003년 5월 5일 11시 '혜민사랑의집' 개관 예배를 드렸다. 혜민 사랑의 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성도들의 성금으로 운영되었다.

이수형 목사(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는 춘천성시화를 위해 2013년부터 사랑나눔 바자회를 실시하여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고, 2014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2022년 현재 총 20kg 3,000포 상당), 시민초청 탁구대회(2008~2019년), 시민초청 게이트볼대회(2018~2019년),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캠페인(2014~2020년), 서울 연세사랑병원 초청 사랑의 무료진료(2013~2022년), 환우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감과 위로 음악회(2019~2021년까지 7회), 중증장애 거주 시설 〈홈에버그린〉 지원(2017~2019년) 등의 사역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또한, 세계성령협의회 대표회장, 강원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맡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역,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사역,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사역 등에 동참하였고 제1~2회 강원도 조찬기도회 개최,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GIG) 발족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현재 GIG 이사장으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 인터강원협력위원회를 세워가며 남북강원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에는 순복음춘천교회 출신 해외선교사(17가정, 35명)들을 초청하여 선교대회를 열었다. 2013~2022년까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대만, 중국,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총 30회의 단기선교를 실시하였다. 현재 아시아, 북미, 호주 등 11개국

17명의 해외 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선교지 다음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81명의 성도들이 몽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의 학생들 106명에게 매월 장학헌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순복음춘천교회가 주력하는 대표적인 사역 중의 하나는 군선교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1사단 신병교육대와 논산 연무대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하여 총 18,6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외에도 2군단 산하 군교회 연합찬양제 개최(2016~2019년), 수련회 및 종교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21사단 전방초소에 사랑의 독서카페를 기증하였다. 2017년 5월 17일 '사단법인 사랑나눔 춘천지회'를 설립한다. '사단법인 사랑나눔 춘천지회'는 2017년 9월 27일 춘천시와 '북부노인복지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6일 '북부노인복지관'을 설립하여 11월 27일 개관하였다. 또한 '숲속자이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24일, 삼천동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수탁 운영에 들어갔다. 2021년 4월 1일 명칭을 '사단법인 사랑나눔'으로 변경하였다.

2. 무지개동산요양원

1986년 10월 26일 '금옥골교회(이은준 담임목사)'는 후평1동 1510번지에 교회 개척과 동시에 '무지개동산요양원'을 설립하였다. 현재 고인이 된 이은준 목사의 뒤를 이어 '무지개동산요양원'과 함께 '행복의집이' 설립되어 노인복지 사역에 특화된 특수 목회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3절 춘천 순복음교단 교회현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순복음춘천교회	1972년 4월 3일	이수형	춘천시 만천로 143번길 84-8	순복음
순복음제일교회	1980년 7월 5일	하기철	춘천시 근화길 85	순복음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새능력순복음교회	1981년 5월 3일	정석호	춘천시 후석로 290 3층	순복음
열린순복음교회	1989년 10월 3일	신성균	춘천시 춘주로 176-9	순복음
호산나교회	1993년 12월 5일	백영신	춘천시 애막골길11번길 14	순복음
새생명교회	1993년 2월 21일	최동혁	춘천시 소양로 217	순복음
순복음삼성비젼교회	1993년 5월 25일	박보배	춘천시 소양로 148	순복음
행복한순복음교회	1997년 7월 17일	박문수	춘천시 퇴계로 145번 걸 3-16	순복음
순복음조은교회	1999년 10월 19일	오의석	춘천시 옛경춘로 826	순복음
순복음호반교회	1999년 7월 12일	강맹룡	춘천시 후석로 344번길 3	순복음
순복음명성교회	2001년 12월 10일	송재근	춘천시 공지로317번길 14-10	순복음
춘천순복음제자교회	2001년 1월 6일	이정하	춘천시 백령로 186, 2층	순복음
순복음청목교회	2001년 7월 1일	이승리	춘천시 신동솔밭길 78	순복음
거두리순복음교회	2003년 10월 3일	고범석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26번길 29	순복음
순복음생명샘교회	2004년 4월 24일	윤정호	춘천시 공지로 234-12	순복음
순복음비젼교회	2005년 7월 4일	김성훈	춘천시 성심로 82, 2층	순복음
방주순복음교회	2008년 8월 8일	박찬숙	춘천시 충열로67번길 9-5	순복음
강촌순복음교회	2009년 11월 30일	이정희	춘천시 남산면 봄내길 1길 81	순복음
여의도순복음 춘천교회	2009년 9월 11일	이상열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7	순복음
포도나무교회	2010년 8월 28일	이승재	춘천시 효자로 121	순복음
두란노교회	2011년 3월 26일	김 헌	춘천시 춘주로 150	순복음
춘천실로암교회	2011년 6월 25일	민영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9-15 보배아파트 상가 302호	순복음
참빛사랑의교회	2012년 5월 27일	원선희	춘천시 공지로 331, 2층	순복음
한결교회	2012년 6월 20일	최승찬	춘천시 삭주로 154, 대덕농산 2층	순복음
순복음예향교회	2014년 2월 15일	박제훈	춘천시 춘천로 312, 향군회관 지하	순복음
순복음 쉼이있는교회	2014년 6월 14일	전순화	춘천시 세실로 184	순복음
헵시바교회	2015년 3월 17일	이영숙	춘천시 우두강둑길 23 런던빌딩 3층	순복음
더조은교회	2016년 2월 27일	유희수	춘천시 후석로 275	순복음
꿈꾸는 순복음교회	2016년 8월 27일	최재훈	춘천시 성심로47번길 46	순복음
순복음시온교회	2016년 9월 18일	최정용	춘천시 후석로45번길 5	순복음
순복음 늘찬양교회	2018년 5월 6일	이상철	춘천시 사우5길 7	순복음
사랑의빛교회	2019년 7월 2일	김보실	춘천시 공지로 252번길 44-1	순복음
호두나무교회	2022년 9월 3일	표명혁	춘천시 향교앞길 13-4	순복음

제5장
춘천의 침례교단

1절 춘천 침례교단의 전래와 성장

기독교한국침례회는 1889년 12월 8일 캐나다의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 선교사가 내한하면서 시작되었다. 1895년 보스톤침례교회 엘라싱(Ellathing) 기념선교회에서 파송한 3명의 선교사가 입국하여, 1896년 원산에 한국 순회 선교회(선교총부)를 설립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1903년 공주에서 교역자 양성기관 성서학원을 개원하였다.

1906년 충남 강경에서 31개 교회로 "대한기독교회" 교단 창설(초대 감목 펜윅 선교사)을 하였다. 1921년 "동아기독교회"로 교단 명칭을 개명하여 만주와 몽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손상열 목사와 1925년 4월 김상준, 안성찬, 이창희, 박문기, 김이주, 윤학영 전도인이, 1928년 이현태 교사, 9월 14일 만주 간도성 종성동교회 김영진 목사·김영국 감로의 형제, 정춘보 신도와 이규현 총장(집사) 등이 공산당에 순교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핍박으로 1933년 교단 명칭을 "동아기독대"로, 1940년 교단 명칭을 "동아기독교"로 개명하였고, 1942년 6월 32명의 교단 지도자가 원산 감옥에 투옥되었다. (감목 : 이종근 / 목사 : 전치규, 김영관, 김용해, 노재천, 박기양, 신성균, 이덕상, 장석천, 백남조, 문규석, 방사현, 박성도, 김재형 / 감로 : 김주언, 이덕여, 이상필, 김

만근, 정효준, 박병식, 박두하, 김해용, 전병무, 문재무, 안영태, 남규백, 한기훈, 박성은, 한병학, 박성홍 / 교사 : 위춘혁, 강주수 이상 직분별 투옥 순). 1944년 2월 13일 3대 감목 전치규 목사가 함흥 감옥에서 고문으로 순교하였고, 1944년 5월 10일에는 일제에 의하여 교단이 해체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1945년 제5대 감목 이종근 목사가 만주에서 공산당에 순교하였고, 1946년 36회 강경대화회에서 감목 정치에서 회중 정치로 총회 체제 형성하였다. 1949년 9월 7일 울진 행곡에서 전병무 목사가 공산당에 순교하였고, 1950년 9월 28일 강경교회에서 2대 감목과 1~5대 총회장을 지낸 이종덕 목사가 공산당에 순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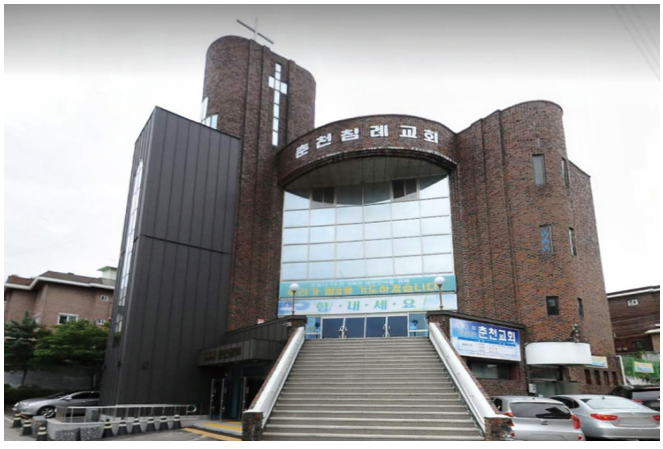
1951년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침례회 설립하였다가, 1976년 "기독교한국침례회"로 교단 및 재단 명칭 변경하여 오지와 낙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성장하여, 유지재단,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회진흥원, 국내선교회, 교역자복지회, 해외선교회, 침례신문사, 군경선교회, 전국남여선교연합회, 뱁티스트, 은혜재단의 기관을 두고 2013년 8월 22일 여의도에 총회 빌딩을 건축하였다.

총회와 지방회 가입한 총 3,098개 교회 중 2,575개 교회가 제출한 2021년도 교세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1,997개 교회 중 자체건물이 905개, 상가 건물 881개, 가정교회 211개 교회이다. 농어촌 지역은 578개 교회 중 자체건물이 449개, 상가 건물은 85개, 가정교회가 44개이고 도서지역에 39개 교회가 있다. 현역 목회자는 2022년 3월 현재 4,758명으로 담임목사 2,609명, (부)목사 743명, 전도사 1,406명이고, 성도 현황으로 재적 교인 350,676명에 출석교인 314,733명, 침례교인이 176,215명이고 직분자는 안수집사는 6,865명, 집사는 81,509명, 교사는 14,065명이다.

춘천의 침례교회는 6.25전쟁 이후 1954년에 춘천교회, 샘밭교회, 옥산포 교회가 미군의 영향, 도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성도 중심으로 세워져 순회 목회자들이 사역하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 1969년 허걸 목사가 1대 지방회장으로 춘천지방회가 조직되었다. 1971년부터 춘천교회 장시정 목사가 회장을 3년 연임하고, 6대에 허걸, 7대에 황영찬(옥산포교회), 8대에 송관수(남춘천) 9대 황영찬(옥산포) 1978년 10대에 허걸 목사가 5년간 회장을 연임하다가 1983년 황영찬(춘천교회) 목사가 2년 연임하면서 활발하게 성장하여 1995년에 22개 교회가 되었다.

2절 춘천의 침례교회

1. 춘천교회



춘천침례교회

1953년 4월 5일 이우영 목사가 6명의 교인(한이남, 한태봉, 성기범, 성봉래, 이창을, 유재인)과 함께 옥천동의 창고를 임대하여 개척 예배를 했다. 1954년 봄에 미군 목사 로렌스 외 미군부대 교인들의 헌금으로 낙원동 21번지의 대지 305평을 매입,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955년 봄 미군부대의 보조를 받아 예배당 58평을 신축(목조 구조물, 시멘트벽, 골판함석 지붕, 종탑에는 사랑 애(愛)자가 쓰여져 있었다.) 하였다.

1955년 12월 최영선 전도사를 거쳐, 1956년 봄 한태경 목사가 부임했다가 1964년 9월 장시정 목사가 부임해 1980년 12월 14일까지 사역했다. 1967년 2월 학생회, 청년회 담당으로 한명국 전도사가 부 사역자로 부임하여 춘천군인센터 초대관장을 지냈다. 교회부지(낙원동 21번지)를 등기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 분실로 인해 1968~1972년 재판 그리고 재구입 침례교유지재단 등기필했다.

1967년 4월 28일에 남춘천교회를 춘천교회의 첫 번째 지교회로 송관수 목사(조길보, 차혜자 집사 가정의 지원)가 남춘천 파출소 맞은편에서 개척했다. 1975년 7월 17일에는 제일교회(현 예광교회 예사랑)가 춘천교회 두 번째 지교회로 이정운 전도사가 담임목회자로 임영일 집사가정에서 개척했다. 1980년 12월 14일 황영찬 목사가 5대 목회자 부임하여 1989년 1월 24일 낙원동 대지를 매각하고, 춘천

시 후평동 711-38 외 3필지 294평을 교회부지로 구입하여 1989년 3월 22일 예배당 기공예배 및 착공(연건평 520평)하여 1994년 8월 27일에 기독교한국침례교 유지재단에 등기하고, 1995년 4월 5일 성전봉헌 및 집사안수(박석경, 김종남, 홍영길)를 했다.

황영찬 목사와 춘천교회는 계속 부흥성장을 해 2003년 11월 6일 홍영길·백영숙 성도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277-1(2,876m²), 277-4(1,150m²)를 수양관 부지로 기증했고, 2008년에 주차장 부지로 후평동 710-25, 28번지 2필지 347.2m²를 구입했다. 2012년 4월 1일 이지인 목사가 제6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2022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역사관을 준비하고 있다.

2. 옥산포 교회



옥산포교회

1954년 4월 김충렬 전도사가 춘천시 사농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1955년 4월에 예배당을 목조로 33평 기공하여 8월에 헌당예배를 했다. 이후 김승학 전도사, 이창송 목사, 장시영 목사, 최천국 전도사, 성준호 전도사가 담임목회자로 사역했다.

1968년 3월에 황영찬 전도사가 7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972년 성가대와 여전도회 조직, 1973년 8월 사신단(학생회), 1976년 청년회, 1979년 4월 9일 지교회로 신동교회를 개척하였다.

8대 정상교 목사가 1984년 1월 29일 남전도회 조직하고, 1986년 1월 26일 "이웃의 교회"를 지교회로 세웠다. 10대 목회자 1988년 김석철 목사가 1989년 8월

10일 성전(연면적 378,62㎡) 신축 기공예배 드리고, 1991년 5월 4일 성전 봉헌 예배 및 문관창, 이형근, 이택규 안수집사를 세웠다. 1994년 11월 9일 11대 담임 목회자로 유인배 목사(강명숙 사모)가 부임하여, 1997년 푸른초장교회(정덕현 목사)개척 후원금 천만 원 지원하고, 1998년 10월 9일에 문경식 선교사를 몽골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정착금 천만 원을 지원했다.

2000년 12월 4일 김기만 목사(이명자 사모)가 12대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3층 비전센터 증축하였고, 영서로3047 주택 393(대지 121평 /1층 28평, 2층 18평)을 매입하였다.

3. 샘밭 교회



샘밭교회

6.25전쟁으로 미군의 주둔지가 된 천전리에 몇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였는데, 1954년 6월 7일 미24사단 보급부대 소속 미군목의 천막 기증으로 천전1구 동회사무소 앞 광장에 천막 예배당을 세워 천전침례교회라 이름하였다.

1955년 8월 17일 미 남침례회 선교부의 보조 3천 환으로 천막 목제 가건물을 설립하였고, 1956년 9월 강봉의 전도사가 부임하여 1957년 1월 3일 초대 서리집사로 이구연, 이봉구, 오성용, 김상옥, 김연봉, 강순희 선출하고 바로 사임하였다. 1957년 6월 양태영 전도사가 부임하여, 현 예배당 부지를 10월 18일 천전1리 528 대지 420평을 미 남침례교 선교부 보조 16만 환으로 구입하고, 80만 환의 보조로 11월 11일 목조예배당 25평을 건립하였다. 1960년 4월 14일 정진황 전도사가 부임하여 1961년 1월 8일 제1회 사무처리회 창립총회를 열어 샘밭침례교회로 개명하였다. 1966년

9월 11일 허걸 목사가 부임하여, 춘천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였다. 1977년 7월 춘천 침례교의 첫 안수집사로 이용호 집사를 세웠다. 1987년 8월 20일 정상교 목사 부임하여 2008년 7월 31일까지 사역하였다. 1997년 11월 19일 교회 90평, 사택 25평 건축 준공 및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1999년 12월 18일 이광호, 이성우 집사 안수를 하였다.

2008년 10월 1일 차성회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 대지에 지어진 주택 매입, 2009년 10월 31일 성전 새단장 및 3층 교육관, 2층 유아실, 목양실, 부엌, 샤워실을 건축했다. 2010년부터 필리핀 연합제일국제학교 및 교회에 지교회를 세웠다.

4. 남춘천 교회



남춘천교회

1967년 4월 28일 춘천침례교회의 첫 번째 지교회로 송관수 목사가 춘천시 퇴계동 346-5(현위치)에 춘천교회 성도의 지원으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개척하였다. 1978년 6월 11일 송관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장길준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95년 최현묵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96년 7월 21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1997년 1월 21일 3층 구조물 연건평 216평을 완공하고 입당예배를 드리다가 2006년 4월 23일 성전 봉헌예배를 드렸다.

2007년 1월 15일 최현묵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강종원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본당과 3층 교육관, 1층 교육관(벧엘실)과 티룸을 리모델링하고 목양실을 건축다. 2019년 12월 15일 강종원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은퇴목사가 되고, 이응철 목사가 7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예사랑 교회



예사랑교회

예사랑교회는 예광침례교회와 사랑의침례교회가 2016년 3월 13일 통합하여 탄생한 교회다. 예광교회는 1975년 7월 17일 춘천침례교회의 두 번째 지교회로 이정운 전도사가 담임목회자로 임영일 집사가정에서 제일침례교회로 개척 예배하였다. 이후 조영춘 목사가 부임하여 예광교회(춘천시 효자동 373-83)로 개명하였다. 사랑의교회는 1989년 7월 17일 개척하여 창립한 교회이다. 예사랑교회는 춘천시 안마산로 34-6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대지 500평에, 평면적 100평, 총 건평 400평으로 건축하였다.

예사랑교회는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 선교사 가족을 파송하여 동경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8년째 파송교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영춘 선교목사를 파송하였고, C국의 정운도 선교사와 필리핀에 아이따 족을 후원하고 있다.

6. 반석 교회

1985년 3월 1일 춘천시 약사동에서 나순규, 박광복 전도사가 “이웃의 침례교회”로 개척하여, 1986년 김영석 목사가 부임하여 “반석 침례교회”로 개명하였다. 1988년 박치숙 성도가 퇴계동 259-12 대지 50평을 기증하여 지하20평, 1층 30평으로 예배당을 지어 입당했다. 1992년 허창 목사가 부임하여 예배실 2층에 사택 25평을 증축하였다.

2001년 석사동 157-2를 새 성전 부지로 매입하여 2002년 8월 15일 성전(대



반석교회

지/ 913㎡, 건평/지하 1층 예배실 244.19㎡, 지상 1층 친교관 177.37㎡, 지상 2층 목사관 111.47㎡)을 건축하여 봉헌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1일 춘천시 석사동 727-5 진흥아파트 상가동 301호로 이전하였다가 2012년 5월 31일 춘천시 동내면 97(신촌리 430번지)로 이전하였다.

7. 강원 교회

강원교회는 1986년 7월 29일 부안초등학교 앞 지하 53㎡에서 당시 남춘천침례교회를 사임한 장길준 목사가 개척하였다. 교회 창립 후 장길준 목사가 미국 뉴욕 한신교회의 담임으로 가면서 동년 10월 1일 후임으로 차덕수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1987년 3월 26일 무의탁 노인복지를 위한 무지개 동산 개원 예배를 드렸으며, 1989년 7월 10일 강원사대부고 앞(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30-3) 건물 3층(159㎡)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1994년 3월 7일 동내면 거두길 88번지 교회 대지(1,167㎡)를 구입하여 8월 28일 예배당(106㎡), 목사관(50㎡)을 건축하여 입당예배를 하였다. 1995년 4월 20일 사회복지를 위해 86㎡ 규모의 베다니 고을을 증축하였다. 2000년 7월 26일 교회 대지(562㎡)를 추가 매입하였고, 2001년 4월 27일 교회 부대시설인 식당 증축공사를 하였다. 2005년 12월 10일 목사관을 신축하였다. 담임목회자 차덕수 목사는 1986년 10월 1일 부임 이후 침례교 춘천지방회장,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장,



강원교회

침례교 강원도목회협의회장, 춘천시기독교연합회장, 강원CBS이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로 섬기고 있다.

8. 한마음 교회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가 중학교 교사로 1986년 캠퍼스에서 대학생 6명 제자 양육을 시작으로 1990년 8월 20일 춘천 한마음교회를 개척하였다. 15평 상가 건물 지하에서 시작해, 동면 장학리 우사(牛舍)를 개조한 예배당에서 지내다가 춘천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2013년 5월에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82의 건평 1,007㎡, 연면적 4,948㎡ 규모의 신 예배당으로 이전하였다.

춘천한마음교회는 '제자를 삼는 것(마 28:18, 19)'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44

개 작은교회(Cell Church)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쁠리타 두니아 신학교를 세워 해외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쁠리타 두니아 신학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유일한 신학교로 신학과와 기독교육학과가 있으며 150여 명의 학생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있다. 한마음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가치는 '복음→교회공동체→세계복음화'이다. '복음'으로 '교회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공동체가 함께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 2,000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9. 한울섬김 교회



한울섬김교회

한울섬김교회는 노에녹 목사 부부가 CBS공동체 성경공부를 번역하여 공부하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

2010년 1월 첫 주 춘천 YMCA 본관 3층 강단을 빌려 첫 예배를 드렸다. 같은 해 재능있는 지역 아동들을 후원하기 위한 풀뿌리 장학회 '한섬 재능 나눔 장학회'(이사장 변우현 박사/ 강원대학)가 시작되었고, 전시 공간 갤러리와 토요 그림 교실, 작은 도서관 등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2015년 12월 20일 춘천시 스무숲1길 16 소재 3층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였다.

10. 은혜 더하는 교회

2015년 춘천지방회의 전략개척교회로 우두동에 부지와 건물을 지어서 시작하기로 지방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여 시작되었다. 2015년 최병유 목사를



은혜더하는 교회

개척자로 선정하고, 2016년 교회 부지로 우두동 144-9번지(331m)를 지방회 지원금과 개척자의 헌신으로 구입, 건축하였다.

3절 춘천 침례교단 교회현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교회	1953년 4월 5일	이지인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침례교
옥산포교회	1954년 4월	김기만	춘천시 영서로 3051	침례교
샘밭교회	1954년 6월 7일	차성회	춘천시 신북읍 맥국2길 48-5	침례교
남춘천교회	1967년 4월 28일	이응철	춘천시 퇴계로 77번길 7-10	침례교
춘성교회	1973년	함재진	춘천시 신동면 솟발길 22	침례교
예사랑교회	1976년 7월 17일	홍요셉	춘천시 안마산로 34-6	침례교
춘천농인교회	1982년 2월 8일	허인영	춘천시 안마산로 34-8	침례교
거성교회	1984년 8월 28일	이성훈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길 12	침례교
반석교회	1985년 3월 1일	허 창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97번지	침례교
강원교회	1986년 7월 29일	차덕수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88	침례교
한마음교회	1990년 8월 20일	김성로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82	침례교
푸른초장교회	1998년 4월 17일	정덕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 2길 24번	침례교
제자들교회	2003년 7월 15일	정선문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3길 20-23	침례교
돌봄교회	2008년 7월 1일	정상교	춘천시 춘천로 70-3	침례교
한울섬김교회	2010년 1월 1일	노에녹	춘천시 스무숲1길 16	침례교
은혜더하는교회	2017년 3월 25일	최병유	춘천시 우두상리4길 12	침례교
하늘뜻교회	2019년 5월 19일	유영호	춘천시 후만로 65, 2층	침례교
회복교회	2019년 12월 6일	주정환	춘천시 신북읍 율문3길 37	침례교
그린교회	2019년 12월 17일	표동진	춘천시 공원3길 24	침례교

제6장
춘천의 그리스도의교회교단

»

1절 그리스도의교회의 유래

그리스도의교회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의 결과로 생겨났다. 환원운동은 여러 교파로 분열된 교회의 일치(unity)를 목표로 신약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초대교회로의 복귀(restoration)를 주장한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흔히 스톤-캠벨 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 환원운동은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다. 그리스도의교회(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인 교회(Christian Church),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파 되지 않았다.

2절 춘천의 그리스도의교회(Churchs of Christ)

춘천에는 현재 4개의 그리스도의교회가 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1967년 3월 10일에 강대 병원 아래쪽에 춘천그리스도의교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암동에 자리한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이다. 세 번째가 화목원길의 새춘천그리스도의교

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촌에 자리 잡은 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이다. 춘천 지역의 이 4개의 교회는 춘천그리스도의교회에서 사역하였던 목회자들로 이루어졌고 춘천그리스도의교회의 직간접적인 도움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이다.

1. 춘천그리스도의교회(교회설립 1967년 3월 10일)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사람들 셋이 있다. 첫째는 이흥식 전도자이고, 둘째는 오크린 부부이고, 셋째는 당시 박경원 도지사이다. 이흥식 전도자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함경북도 북청 출신으로 28세 때 세례를 받고 월남을 한 사람이다. 아내를 북에 두고 딸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북에 아내가 있으니 재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거세(去勢)를 하고 혼자 평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남한에 많은 그리스도의교회를 세웠던 초기교회 지도자였다. 춘천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교회를 한국에 최초로 전파한 동석기 목사가 미국에서 나와 당시에 강원도지사로 있었던 박경원 씨가 미국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의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박경원 도지사는 5.16군사정변 이후 미국연수를 갔다가, 엄청난 발전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이유가 종교의 문제라고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동석기 목사였다. 박경원 도지사는 경북도지사로 있다가 강원도지사로 춘천그리스도의교회가 창립되기 1년 전에 왔다.

그 당시 그가 도지사로 부임할 때 강원도는 가난해서 정부에서 대여미(貸與米)를 타서 먹고, 미국이 원조하는 밀가루로 살고 있었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서 도지사가 소득으로 잉어를 키워 소득원으로 삼으려 하다가 물이 너무 차서 불가함을 깨닫고, 송어를 양식할 생각을 하였다. 그는 1년 동안 준비해서 미국 켈리포니

아에서 송어 치어를 미 군용기로 싣고 왔는데. 그 당시 송어는 당시 한국에서 보도 듣지도 못한 물고기였다. 그는 일본이 120년 전에 송어가 들어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일본으로 갔다. 나중에 둘째 아들을 보내서 1년간 배우게 하였다. 둘째 아들이 박상우 씨인데 지금 평창에서 '강원수산'이라는 이름으로 송어양식장 운영자였다. 이 '강원수산' 양어장은 총면적 1200평에 연간 60여 톤의 송어를 생산하고 있다. 1965년 1월 3일 무지개송어 알 1만 개가 미국에서 강원도로 수송된다. 송어 알을 수입할 돈이 없어서 68년까지 3년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송어 알 30만 개를 기증 받았는데 가격은 1개당 5원 그때 돈으로 150만 원이였다. 강원도는 평창과 정선을 중심으로 국내 송어의 60~70%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송어를 강원도에 들여온 장본인이 박경원 도지사였다.

당시 강원도에 농업 미국 고문관으로 나와 있던 오클링(MR. cing)은 (해방 후 미 군정기(軍政期)나 6.25전쟁 때, 우리를 돕던 미국이 군사 고문관(顧問官)이나 각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했다.) 그리스도의교회 교인이었고, 그 아내가 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의 딸이었다. 이 사람이 춘천에 그리스도의교회를 세우는 데 두 가지 이바지를 했는데 첫째는 첫 목회자 이호열에게 50불을 생활비로 후원을 한 것이고, 또 지금 교회 땅 750평을 불하받을 때 그 비용을 헌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때 강원도지사가 박경원 도지사였다.

이흥식, 오클링, 박경원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1967년 3월 10일 낙원동 101번지 건물 12평을 임대(25,000원에 월 3,500원)하고, 12일 주일에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개척 후 신학생 김중환 전도사가 몇 달을 섬기다가, 7개월 후 10월 1일에 이호열 전도사가 취임하였는데 오클링이 생활비를 50불을 제공하였다. 2년 후 1969년 10월 시유지 780평 불하를 받았다. 이때 오클링이 그 비용을 헌금하고 현재의 장소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호열 목사는 5년 후 1972년 사임하고 1년간 이흥식, 김진건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하다가 1973년 전두병 목사가 부임하게 되고 전두병 목사는 교회 땅을 매각해서 문제가 생겨 1985년에 떠난 후, 1985년 9월에 조영호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조영호 목사 부임 후 강원 CBS 방송설립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국 후 방송 설교를 오랫동안 하였고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였으며, 특히 해외선교에 열심을 내어서 여러 번

춘천성시신문에 그 활동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춘천교회에 목회자로 김중환 신학생(6개월)-이호열 목사(6년)-전두병 목사(12년)-조영호 목사가 34년으로 차례로 사역을 하였고, 2019년에 조영호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그리스도신학대학에 교목실장으로 있던 하용수 목사가 부임하여 섬기고 있다. 춘천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던 박종식 목사와 이상준 목사는 송암동과 강촌에 각각 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하였다. 아울러 춘천교회에서 사역하였던 전두병 목사는 그의 아들이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다.

2.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교회설립: 1996년 9월 16일)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는 춘천그리스도의교회의 기도와 개척지원으로 춘천 퇴계동 26블럭 10롯트 2층(25평)에서 시작되었다. 만 4년 후 2001년 6월 18일 지금의 송암길 17-15(송암동 194번지)로 이전하여 감사예배를 드린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춘천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라는 성경말씀과 그리스도의교회 환원운동의 구호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라는 기치 아래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1년까지 순수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609명이 등록하였고, 그중에 57명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침례를 받았다.

현재 두 명의 선교사를(서영훈·임수정) 파송하였고 중국, 네팔, 파키스탄 선교에 힘을 쏟고 있다. 가족으로는 이재송 사모와 두 딸이 있다. 교회 주소는 춘천시 송암길 17-15이다.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는 자비량 선교단체 사단법인 MJD(한국세계선교협의회 소속)와도 협력하고 있다.

3.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교회설립: 1998년 10월 18일)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

전성원 목사는 춘천그리스도의교회에 사역하였던 전두병 목사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다. 전성원 목사는 오랜 기간 춘천 청소년 수련원 원장으로 사역하였고 청소년과 청년사역의 비전을 갖고 생활해오고 있다. 92정비대대 내에 있는 선진교회, 강북지역아동센터, 춘천 은혜기도원과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아내와 자녀로는 세 딸이 있다. 교회 주소는 화목원길 45이다.

4. 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교회설립: 2019년 3월 2일)

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움직이는 그리스도의교회'(이상준 목사)가 춘천이 연고지인 이상준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강촌에서 2019년 3월 2일 설립예배를 드리며 두 가정으로 시작되었다. 작지만 교제와 나눔이 있는 가정공동체를 소망하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모토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


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

이상준 목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기능적인 요소(가정폭력, 음주 및 중독현상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치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는 성도의 삶의

실제적 변화를 위해 가족상담, 여행, 등산(운동), 제자훈련(말씀), 기도회, 개인의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교육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이자희와 두 아들이 있고 교회 주소는 남산면 강촌리 676-30이다.

3절 춘천 그리스도의교회교단 교회현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그리스도의교회	1967년 3월 10일	하용수	춘천시 백령로138번길 3	그리스도의교회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1996년 9월 16일	박종식	춘천시 송암길 17-15	그리스도의교회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	1998년 10월 18일	전성원	춘천시 화목원길 45	그리스도의교회
역동적인 그리스도의교회	2019년 3월 2일	이상준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76-30	그리스도의교회

제7장
춘천의 구세군교단

1절 춘천 구세군교단의 전래와 활동

구세군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복음주의 교단으로 복음증거와 사회봉사를 통해 전인적 구원을 추구하는 국제적 단일 개신교단이다. 구세군의 한국 선교는 1908년 10월 구세군 국제본영이 파송한 영국인 허가두(Robert Hoggard) 사관에 의해 당시 경성 평동에서 시작되었다.

춘천의 경우 오랫동안 일부 기부금 모집 활동 외에 구세군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없었는데 구세군 한국군국 위일선(Thomas Wilson) 사령관의 결정으로 1937년 6월 21일 구세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구세군 사관으로 처음 임관받은 장응화, 응경달 사관을 춘천의 개척사관으로 임명하여 파송하였다. 두 청년 사관은 3개월의 준비 사역



것헌박지가한과행일의관령사로으영긔식영개대쇼천춘 은진사
Comrades of Choon Chon Corps with their Territorial Commander and Mrs. Wilson at the Official Opening of their Corps.

구세군춘천소대 개영식 기념사진(1937년)

끝에 1937년 9월 26일 춘천시 소양동 2정목 153번지에서 공식적인 개영식을 갖고 춘천 최초의 구세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문이자 구세군의 기관지인 구세신문 1937년 11월 1일자 관련 기사를 보면 '사령관의 각지전전(各地轉戰), 춘천소대공식개영식인도(春川小隊公式開營式引導)'라는 제목하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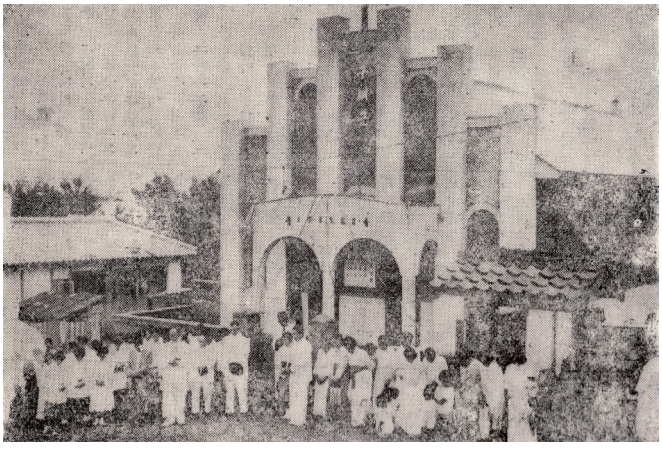
강원도의 수부인 춘천에 구세군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 오던 차, 지난여름(6월 말) 소위 장응화, 음경달을 개척사관으로 춘천에 파송하여 사업을 시작한 바 두 청년사관이 주야로 분투 노력한 결과 매우 양호한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정식으로 개영식을 갖지 못하다가 9월 26일 개영식을 갖기로 계획하고 사령관 동부인은 석미두 소좌 등 6인을 대동하고 전일 (토) 오후에 도착하였다. (춘천시 소양동 2정목 153번지)

그날 오후 8시에는 사령관 환영회 겸 공동집회가 열렸는데 회중은 열정으로 사령관 동부인을 환영하였고 처음으로 병사 입대식을 거행한 바 병사 1명과 예비병 8명이 입대하였다.

다음 날 오전 성결회도 사령관께서 인도하셨는데 소좌 이규연 씨의 간증과 3부 합창이 있은후 사령관께서 "구세군인 즉 그리스도인의 실체적 생애에 요소되는 것"을 들어 열변을 토하여 설교하신 결과 남녀 군우 중 여러 사람이 앞으로 나와 다시 헌신하고 성결의 복을 받았다. 그날 오후 2시에는 춘천공회당에서 개영식이 열렸던바 관민 유지 다수가 참석하였는데 춘천군수 이노우에, 춘천읍장 용택성, 감리교 선교사 부라만, 감리교 목사 김광호, 동양선교회 전도사 김의용, 조선일보사 춘천지국장 유화청, 제씨의 의미심장한 축사가 있었다. 소좌 석미두 등 3인의 합창에 이어 개영을 선언하는 사령관의 식사 겸 설교로 구세군의 사업과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내빈과 참석자들에게 큰 감명과 감화, 개심과 선교의 장이 되었다. 그날 밤 구령회는 구세군회관에서 열려 대위 정명하의 간증과 사령관의 설교 후 일반 회중 가운데 4명이 회개석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다.

1940년 11월 10일 일제는 '종교단체법'에 의하여 기존의 구세군을 강제 해산

하고 구세단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영국에 있던 세계 구세군 본부와는 일체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구세군 선교사들도 전원 추방되었으며 일본의 감시하에 일본인 단장이 구세단의 수장이 되었다. 당시 구세군춘천영문 3대 담임사관이었던 신호필 사관은 1940년 9월 10일부로 구세군 사관직을 사직했다. 그 후 1년 6개월가량 담임사관의 공백 후에 1942년 4월 김현장 4대 담임사관이 다시 부임하였으나 1944년 1월 4일 5대 장형일 담임사관 재임 중 결국 구세군춘천영문은 폐쇄되고 말았다.


춘천영문 헌당식 광경(1957년 6월 17일)

구세군춘천영문이 재건된 것은 11년 후인 1955년이었다. 6.25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가을 당시 구세군 서울지방장관이었던 권경찬 사관은 구세군춘천영문 재건을 위하여 충북 구세군영동영문 심임숙 부교(집사)와 함께 현지를 답사하였다. 이후 구세군대한본영에 보고서를 올려 매달 구세군대한본영에서 6천 환, 구세군서울지방본영에서 6천 환, 구세군춘천영문에서 3천 환을 책임지기로 하고 1955년 6월 11일 안상호 사관을 제6대 사관으로 파송하여 춘천시 소양로에 구세군 교회를 재건하였다(춘천시 소양로 3가 60번지).

구세군춘천영문은 19대 이한열 담임사관 재임 중 춘천시 석사동 676번지 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1993년 2월 21일 소양로에서 석사동으로 이전하였다. 이듬해인 1994년 11월 21일에는 소양로의 기존 성전 건물에 두 번째 구세군교회인 구세군소양영문을 개척하고 안건식 개척사관을 파송하였다. 1996년 5월 9일에는 춘천시 사농동 90-3번지에 세 번째 구세군 교회인 구세군북춘천영문을 개척하고 안근정 개척사관을 파송하였다. 구세군소양영문과 구세군북춘천영문은 구세군대한본영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통합되어 춘천 시내 구세군 교회는 현재 구세군춘천영문(석사동 소재)과 구세군북춘천영문(사농동 소재) 두 곳만이 남아있다.

1973년 12월 춘천에서 처음으로 구세군의 대표적인 활동인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시작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2월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구세군 교회에서는 초창기부터 설과 추석 명절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수해, 눈사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긴급지원,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배달과 무료급식 등 지역 내 사각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절 춘천 구세군교단을 빛낸 인물

1. 구세군 한국군국 17대 사령관 김석태 사관


김석태 사관

김석태 사관은 1926년 1월 23일 평안남도 영원에서 출생하였다. 6.25전쟁 발발과 함께 인민군으로 징집되어 남하했다가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서 3년간 생활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반공포로로 석방되어 국군에 입대한 그는 1954년 7월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초임지로 춘천에 있는 제3보충대대에서 복무하였다. 춘천에서 복무하던 당시 주일에 청소년 사역으로 봉사할 교회를 찾던 중 부대교회 예배 시간에 군목이 "춘천 시내에 구세군교회가 시작되고 있으니 병사들 중에 구세군 개척사업을 도와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손을 번쩍들면서 "부족하지만 개척교회를 돕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였고 군목의 인도로 춘천시 소양로에서 막 개척한 구세군춘천영문에 출석하게 된 김석태 사관은 청년정교(장로)로 임명되어 제대할 때까지 3년간 영문학생교관,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공부를 도맡아 지도하였다.

1956년 8월 제대 후에 담임사관의 주선으로 구세군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1957년 6월 10일 구세군 사관으로 정식 임관되어 구세군사관학교 교수로 첫 보직을 받았다. 이후에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구세군의 교단장인 제17대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을 역임하며 구세군 교단 내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성결운동을 벌였다.

2. 유용태 구세군춘천영문 원로정교


유용태 원로정교

유용태 원로정교는 1932년 5월 1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학사경찰 1기생으로 경찰에 입문해 강릉·철원·화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3년 총경으로 퇴임했다. 현재 구세군춘천영문의 원로정교로서 45년간 매년 12월마다 자선냄비 봉사를 이어온 살아있는 춘천구세군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퇴임 이후 강원고미술연합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역임하면서 강원도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고문서와 골동품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한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강원일보사 '유용태의 진귀품 감상' 코너를 통해 강원민예품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으며 저서 『강원의 美』I · II · III 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국립춘천박물관, 경찰박물관, 춘천교대박물관, 강릉시박물관, 김유정문학촌 등에 8,000여 점에 달하는 수집품들을 기증하여 그동안 돈벌이 수단이나 경매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고미술품과 옛 자료들을 감상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힘썼고 강원고미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강원경찰박물관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고 강원도문화상과 제15회 동곡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하였다.

3절 춘천 구세군교단의 비전과 전망

구세군 교단은 병설 기관으로 사농동의 구세군북춘천영문에는 구세군북춘천다문화센터를(2017년 5월 17일), 석사동의 구세군춘천영문에는 구세군춘천커뮤니티센터를(2021년 12월 1일) 새롭게 설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목회와 마을교회를 꿈꾸며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 살맛 나는 세상”을 기치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는 생명운동과 성결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교세의 확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교회,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필요를 채우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4절 춘천 구세군교단 교회현황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구세군교회	1937년 9월 26일	윤영숙 사관	춘천시 후석로 66번길 17	구세군
북춘천구세군교회	1996년 5월 8일	안진영 사관	춘천시 사우 5길 13	구세군

제8장
춘천의 기타교단

1절 루터교회

1.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중세교회의 타락에 맞서 교회개혁 운동을 이끈 마르틴 루터(1483~1546년)의 사상을 이어받아 초대교회로부터 전승된 복음과 전통을 따르는 교회다. 수도사이자 교수였던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제성 기념일 전야에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성 교회 문에 붙임으로써 촉발된 교회개혁 운동은 전체 서방 기독교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그의 개혁 사상은 교회, 문화, 교육, 민족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터의 개혁 원리는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성서만으로!"였다. 이는 새로운 신앙 규범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복음과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다. 따라서 루터교회는 중세 로마교회의 인위적이고 비 성서적인 풍습은 버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전래 된 유익하고 성서적인 전통은 계승하고 있다. 성례전과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 교회력에 따른 기도문과 찬트, 절기 예식, 성무일도, 죄의 고백과 사죄 등을 보존하고 있다. 루터교회는 신구약성서를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규범(Norma Normans)으로, 보편 신조인 사도신조, 니카야신조, 아다나시안 신조

를 신앙의 요약으로(Norma Nor-mata) 고백한다.

루터교회의 명칭은 미국,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한국처럼 루터교회 혹은 복음루터교회로 불리지만 북유럽에선 보통 국교회로 부른다. 스웨덴은 스웨덴 국교회로,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 국교회 또는 복음주의 루터교회로 부른다.

루터교인을 뜻하는 루터란(Lutheran)이라는 표현은 마르틴 루터와 논쟁을 벌였던 로마교회 신학자 요하네스 에크(Johannes Eck)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의미로 사용한 루테라니(Lutherani, 루터의 추종자)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루터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자고 주장하였으므로 교회에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지 않았으나 로마교회에서 이 말을 빈번히 사용하면서 루터의 신앙과 신학에 찬동하는 교회의 명칭이 되었다.

2. 루터교회의 전래

1) 루터교회와의 접촉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루터교 목사였던 카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였다. 그는 1832년 황해도 몽금포(현재 황해남도 용연군)에 도착하였고 백령도를 거쳐 충청남도 고대도(현재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로 갔다. 그곳에서 홍주 목사 이민회 등의 관리들을 통해 순조 임금에게 통상을 청원하는 서한과 한문 성경을 비롯한 26종의 책자와 망원경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고대도에서 20여 일을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서적과 및 약품을 나눠주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1950년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 많은 서구 루터교 교회의 지원이 있었다. 서구 여러 나라의 루터교회는 한국교회를 통해 병원, 교육기관, 기독교방송, 아카데미 하우스 설립 등과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과 가난한 청년들을 도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독교 장로회는 현재까지 독일 여러 지방 루터교회와 유대를 갖고 있다. 또한 서구 교회들의 지원으로 많은 한국 청년이 미국이나 독일 등으로 유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중에 지원용이라는 청년도 있었다.

2) 한국루터교회의 선교활동

본격적인 한국 선교는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루터교회 3명의 선교사와 한국인으로 루터교 목사가 된 지원용이 입국하여 한국루터교 선교부를 세우고 문서, 방송, 출판, 사회봉사를 통해 선교하기 시작했다. 초기 한국루터교 선교목표는 전체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였다. 컨콜디아 출판사를 통해 각종 신학 서적을 공급하였고 루터란아워의 TV와 라디오 방송 "이것이 인생이다", "여명 200년", "신사도행전", "성경 인물전"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의 선교를 도왔으며 새 생명 신앙잡지, 기독교 통신강좌, 베델성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성경 출판, 지역 환경정비 봉사 등으로 전체 한국교회 선교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루터교회를 원하는 교인이 늘어나게 되었고 1959년 2월 19일 YMCA 회의실에서 첫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17일 성령 강림절에 서울역 앞에 위치한 집회소에서 4명의 세례 신자와 7명의 입교 신자와 함께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되었으며, 1970년 서울특별시 후암동에 현 루터대학교의 전신인 루터신학원을 세워 소수의 목회자를 양성하여 각 처에 교회를 세워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루터신학원은 1983년 용인시 신갈로 옮겨 현 루터대학교가 되었다).

3. 교회현황

2022년 현재 루터교회는 공식적인 교구나 지방회가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에 국제교회와 재한 독일어권 교회를 포함하여 10교회가 있고 경기도 22교회, 인천 3교회, 강원도 3교회, 충남 4교회, 충북 2교회, 대전 3교회, 전북 1교회, 광주 2교회, 경북 2교회, 대구 1교회, 부산 2교회, 제주 1교회 총 55교회가 있으며 파송된 목회자가 없는 공소교회 1곳과 개척 준비 중인 교회가 2곳이 있다.

춘천에는 2018년 대림절 첫 주일인 12월 2일 창립된 춘천교회(원종호 목사)와 2022년 6월 26일 창립된 가까운교회(최준혁 목사)가 있다.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춘천루터교회	2018년 12월 2일	원종호	춘천시 효자상길 10	루터교
가까운교회	2022년 6월 26일	최준혁	춘천시 사농동 568-2	루터교

2절 대한성공회


홍갈로 신부

대한성공회 춘천교회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1933년 춘천교회는 영국 성공회의 지원을 받아 중앙로(현 위치)에 교회 터와 사택을 매입하고 성공회서울대성당(당시 구주장림성당)의 선교교회로 출발했다. 선교교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제가 정식으로 파송되지 않았으며, 주일마다 서울에서 사제가 와서 성찬례를 집전했다. 그러다가 영국 선교사 사제인 홍갈로(洪嘉路, Charles Hunt 1889~1950)[32]신부가 춘천교회 관할 사제의 역할을 했으리라 추정된다. 1940년에 간행된 『강원도지』에 의하면 당시 춘천 성공회 신자는 99명이라고 기록되어있다.

1949년 12월 성모설지전(聖母雪池殿)이란 이름으로 춘천교회를 축성한다. 눈내리는 겨울에 춘천교회의 부지가 연못처럼 보인다고 하여, 설지(雪池)라는 이름을 붙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최초로 축성된 성모설지전 성당이 소실되었다. 1954년 소실된 성당을 재건하고, 전쟁 이후의 춘천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주

32) 춘천교회의 제1대 관할사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홍갈로 신부는 1889년생으로 더럼(Durham)대학을 졸업한 후 성어거스틴 대학을 다녔다. 연극과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이광수와도 교제했다고 한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성공회 4대 주교인 구세실(세실 쿠퍼)주교와 마리아 클라라 두 분과 포로로 끌려가 1950년 11월 20일 해창리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

력한다.

1961~1969년, 1961년 빠실 신부의 안중교회로 발령 이후, 1969년까지 어떤 사정 때문인지 상주하는 사제가 없이 태백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를 비롯한 다른 사제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고 가며 성찬례를 드렸다.

1969년 황정기 신부가 1969년 6월 11일 노대영(Cecil Richard Rutt, 2대 대전교구장) 주교에게 사제서품을 받고 춘천으로 부임한다. 지금의 춘천교회는 영국 U.S.P.G에서 지원을 받아, 1969년 8월에 착공하여 1970년 12월 15일에 축성을 한 것이다.(1971년 1월 제59호 성공회월보). 70여 평으로 된 현재의 성당 내부는 구원의 배를 상징하는 방주형 성당으로 만들어졌고, 성당 창문을 작게 만든 것은 당시 춘천 시내에 있던 군부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이후 창문이 노후가 심해서 현재 성당 창문으로 2018년에 교체된 것이다. 종탑 안에 설치된 성당 종은 당시 조은혜 교우가 봉헌했다.

1974년 남태일(요셉) 신부[33]가 부임하고, 대한성공회 헌장 법규 개정으로 인한 교구 구역변경에 따라 춘천교회는 대전교구에서 서울교구로 이관된다. 남태일 신부가 온수리로 발령 난 이후에, 당시 사제 수보다 돌볼 교회는 많은 상황에서 김태순(엘리야) 신부[34]가 은퇴 후에 춘천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1976년 정연우(안토니오) 신부[35]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한다.

1980년 춘천교회 안 기존의 사제관을 증축한다. 이때부터 사제관을 마리아관이라 하였다. 거실 한쪽 벽에는 벽난로를 설치하였는데, 신자들과 지역주민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었다. 마리아관은 현재 춘천교회 카페 설지 자리이며 2017년에 철거되었다.

---

33) 제4대 관할사제 남태일 신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대구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서울교구로 이적했다. 춘천에서 온수리로 옮긴 후 연탄가스 사고로 별세했다.

34) 김태순 신부는 1968년 6월 은퇴한 이후 춘천교회를 섬겼다. 관할 사제로 파송 받지 않았지만 세례성사를 베풀기도 하였다. 김태순 신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 해준 이보순(애다) 교우는 "김태순 전도사님이 성경공부를 가르쳤는데, 지금도 그때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태순 신부는 5대 서울교구장인 김근상 주교의 선친이다.

35) 춘천교회 제 5대 관할사제 정연우 신부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1969년 10월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강남교회 등에서 시무했고 총사제직을 역임했다. 일본성공회에서 교환사제로 근무하기도 했다.

1982년 3월 석광훈(모세) 신부[36]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한다.

1984년 호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마리아관을 증축한다. 이 공간은 강원지역 선교단체인 CCC와 IVF의 활동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당시 한림대학교 교수였던 김진만(베드로) 교우 등이 함께했다.

1986년 6월에 윤정현(그레고리)[37] 신부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한다.

1987년 윤정현 관할사제 당시, 평화통일을 위한 교실을 운영하고 북한강 포럼을 진행했던 '춘천사회선교센터' 축복식이 김성수 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이정구(어거스틴) 신부[38]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한다.


장난감 도서관사업을 설명하는 후리다 사모

1989년 당시 경찰들의 감시하에 마리아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출범되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야학 "예맥"을 지원했으며,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1990년 11월 이정구 신부가 부임하던 11월 4일 첫날 교회위원선거에서 44명의 투표권자가 선출한 총 5명의 교회위원 중 청년이 3명(한영원, 최선녀, 청년 오상운, 고희정, 이경희)이나 선출되어 춘천교회는 젊은 교회로 성장한다. 축성 2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1990년 12월 15일)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박인기(프란시스) 청년회장이 별세하였고(1990년 12월 17일) 지금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당시 함께 활

36) 제6대 석광훈 신부는 1982년 4월 21일 사제서품을 받고 춘천교회에서 사제 직무를 시작하여 강남교회, 온수리 교회, 교무국장, 인천 간석교회, 동대문 교회 등에서 사목활동을 하였다.
37) 제7대 관할사제 윤정현 신부는 1987년 2월에 사제서품을 받았고 1990년 7월까지 춘천에서 사목활동, 대전교구에서 은퇴하였다.
38) 제8대 관할사제 이정구 신부는 1954년 생으로 1987년 2월에 사제서품을 받았고, 1992년 12월까지 춘천에서 사목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2019년에 은퇴하였다.

동했던 이들이 매년 춘천교회에서 모여 추모성찬례를 봉헌하고 있다.

1991년 춘천지역 기독청년회 시국기도회가 있었으며, YWCA와 연대하여 무기류 장난감 추방운동을 벌였다. 또한 EYC 주최로 창조질서보전에 관한 강연회가 열렸다.

1992년 정길섭(바우로) 신부[39]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했다. 춘천에서 김진만 교수, 이재정 신부, 정철범 주교 중심으로 '성공회 신학회' 모임이 이뤄졌다.

1993년 서울 주교좌 대성당 후원으로 강원대학교 기독학생회인 SCA를 지원했다.

1995년 교구창립 30주년 기념주간을 맞이하면서 그해 6월에 춘천사랑청년회 주관, 춘천교회 후원으로 신영복 선생 강연회를 가졌다. 또한, 정길섭 관할사제와 청년들이 YMCA · YWCA 공동평화기도회에서 활동했다.

1996년 박성순(야고보) 신부[40]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한다. 사회복지영역에서 활동할 춘천 나눔의 집을 설립하고, 자활 후견기관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다. 신자회장 이창훈(요셉) 교우의 봉헌으로 무료급식소(현재 요셉관 자리)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우들의 애찬실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1999년 춘천교회에서 실직자를 위한 '새희망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노숙인을 위한 바자회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고 외에도 자연환경 특강(생태연구소장 여진구)을 진행하였다. 이해 12월에는 교회위원으로 유순식, 조용필, 이경희, 조태영, 김기정, 이창훈 교우 등을 선출하였다.

2000년 해님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8월에는 자활 후견기관을 수탁하였다.

2001년 최자웅(레오) 신부[41]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하였고, 당시 춘천자활후견기관 담당자로 이명근 신부가 부임한다. 이해 11월 춘천교회에서 강촌 프란시스수도회(크리스토퍼/ 스테파노/ 로렌스 수사) 축복식을 진행했다.

---

39) 제9대 관할사제 정길섭 신부는 1958년 생으로 1991년 12월에 서품을 받았으며, 1996년 2월까지 춘천에서 사목활동을 하였다.

40) 제10대 관할사제 박성순 신부는 1962년 생으로 1991년 12월에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2001년 3월까지 춘천에서 사목활동을 하였다. 대한성공회 교무국과 대학로교회를 거쳐 현재는 서울교구 주교좌성당 주임사제로 시무하고 있다.

41) 제11대 관할사제 최자웅 신부는 1950년 생으로 1979년 8월에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춘천에는 2003년 4월까지 사목활동을 하였다. 2015년 은퇴하였다.

2002년 3월 나눔의 집 주관으로 하천 살리기 및 나무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로렌스 수사가 춘천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으며, 스테파노 수사 동행하에 어린이 복사단 강화성지 답사를 진행했다. 7월 김동환(시몬) 신부가 춘천자활후견기관장 및 춘천교회 협동사제로 부임했다.

2005년 4월, 강관석(마태) 신부[42]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한다. 5월, 춘천자활후견기관 관장으로 춘천교회 이정열(어거스틴) 교우를 발령했다.

2006년 오정열(애단) 신부[43]가 춘천교회 관할 사제로 부임한다. 같은 해 5월에 강남교무구 어머니연합회 수련회를 개최하고 교회에 찬양 팀이 운영되었다. 영성모임 '이고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나눔의 집 소식지 '나눌샘'이 발간되었다.

2007년 9월 춘천 나눔의 집이 춘천교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춘천지역자활센터장으로 박순진(에제키엘) 신부가 2008년 9월에 부임한다.

2009년 2월 이한오(프란시스) 신부[44]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한다. 동시에 박순진 신부가 나눔의 집 원장 겸 춘천교회 협동사제로 발령받았다.

2009년 7월 18일 춘천교회에서 '홈커밍데이 및 성공회 춘천선교협의회 발족식'을 진행하였다. 춘천교회 홈 커밍데이 순서는 1부 감사와 미래선교를 위한 예배, 2부 감사와 회고의 시간, 3부 성공회 춘천교회의 미래선교를 위하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춘천선교협의회는 춘천교회, 춘천나눔의집, 강촌 프란시스수도회, 강촌 성요한피정의집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모태로 하여 현재는 강원도 성공회선교협의회로 발전하여 강릉, 원주, 태백교회로 확대되었다. 이 당시 교회위원으로는 신자회장 조용필, 사제회장 이창훈, 성당관리위원 김용갑, 재무위원 강연경, 총무 및 교육위원 이경희, 친교 및 봉사위원 이정열, 예전위원 및 어머니회장으로 고종숙 교우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춘천교회 교육관(요셉관)을 신축했다. 서울교구 교구장 김근상(바우로) 주교의 집전과 설교로 성 요셉관 축복식을 거행했다. 행사는 축복식과 축하연주회

---

42) 제12대 관할사제 강관석 신부는 1958년 생으로, 1990년 12월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춘천교회에는 2005년 12월까지 사목하였다.
43) 제13대 관할사제 오정열 신부는 1967년 생으로 2003년 5월에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춘천교회에는 2009년 2월까지 사목하였다.
44) 제14대 관할사제 이한오 신부는 1966년 생으로 2005년 5월에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춘천에는 2013년 1월까지 사목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동탄교회에 시무하고 있다

(정세실:클라리넷, 황정기 신부:트럼펫)와 함께, 교육관 건축헌금 마련 퀼트바자회도 진행했다.

2013년 선대현(요셉) 신부[45]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했다. 춘천교회에서 매년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작은 음악회'가 1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2014년 10월 28일 성공회 춘천교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진보 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모인 '세월호 춘천시민행동' 주관으로 '세월호 유가족 초청 춘천시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이 춘천시민들과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입장과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제시하며 진실 알리기에 나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2014년 10월 28일 / 춘천뉴시스 박혜미 기자 글 中)

2015년 방홍식(예레미야) 신부[46]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했다.

2017년 정기 교회위원회에서 마리아관(사제관) 거실 쪽, 소예배실, 사목실을 철거하여 카페 공간 마련을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소예배실과 사목실은 교육관(요셉관)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8월에 새로운 사제관을 완공하고 축복식을 진행하였다.



대한성공회춘천교회 모습

2018년 관할사제 방홍식 신부의 집전으로 춘천교회 카페 '설지' 축복식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교회 입구의 카페와 교회 간판은 최승룡(루카스) 교우의 봉헌으로 설치되었다. 10월, 최승철(마태) 은퇴 신부가 춘천교회 아버지회(요셉회) 신앙공부 지도사제로 봉사하였다.

2019년 '건강한 교회 비전세우기' 자체 워크

45) 제15대 관할사제 선대현 신부는 1966년 생으로 1998년 5월에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춘천에는 2015년 2월까지 사목활동을 하였다.
46) 제16대 관할사제 방홍식 신부는 1970년 생으로 2008년 5월 사제서품을 받았다.

숍을 진행하였으며, '신앙으로 활력을 얻어 공동체로 활동하는 교회'라는 교회비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후속 모임을 총 9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월, 춘천·춘천나눔·강릉·태백·원주교회 등이 참석한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강릉교회에서 진행하였다. 4월, 마리아회(어머니회) 주관으로 산불피해 강릉 이재민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8월, 세실대학 3기 김인희(에스델)교우가 춘천교회 처음으로 평신도 사역자(돌봄과정)로서 2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다. 10월, 강남교무구 어머니연합회 기도회가 100여 명 이상 교우들이 참여하여 춘천교회에서 진행되었다. 12월, 제8회 사랑 나눔 작은 음악회가 성당에서 진행되었으며 후원금은 달팽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다.

2020년 2월, 춘천교회축성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장으로 이정열(어거스틴), 위원으로 이경희(애린), 이형민(바우로), 은영철(다니엘), 유재경(아그네스), 허문영(모세), 이병길(이레네오) 교우들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기로 하였다. 10월 17일, 춘천교회 축성 50주년을 맞아 서울교구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가 춘천교회를 방문하였고, 코로나 상황으로 간소하게 기념예배 및 견진성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 2월 김희철(호세아) 신부가 춘천교회 관할사제로 부임하였다.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대한성공회 춘천교회	1933년	김희철 신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113번길 19	대한성공회

3절 춘천독립교단(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등등) 및 기타교단

1. 독립교단의 전래와 성장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을 맞이하고 있다, 교회부흥과 성장에 큰 영향력을 준 요인이 다양하나, 교단과 교파의 역할이 큰 영향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교단정치를 통한 교회활동의 장단점과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1997년경부터 시작된 독립교단이라 불리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

합회(카이캄Kaicom)를 통한 탈 교단 교회와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도 활동을 하고 있다.

교단산하의 교회들이 장단점이 있어도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탈 교단의 목회를 지향하며 독립교단의 장점을 부각하기도 하지만 교단의 조직이나, 행정, 상위기관이 없으므로 협력과 보호 기구의 부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독립교단의 단점이요, 구축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독립교단 중에는 대표적인 독립교단이라 불리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소속교회, 한국기독교신합협의회(기신협), 보수개혁중앙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있다.

춘천지역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중심의 교회들이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독립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지는 13년 정도 되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성서대학교,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이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다. 장로교 합동 측 같은 교단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교단에서 안수를 허용하지 않은 여성 목회자들은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전념하며 복음전파에 받은 소명을 감당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2. 독립교단의 전도 선교 봉사 구제 등의 활동

독립교단은 그야말로 교단으로부터 독립되어 각자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독립체제의 행정조직으로 총회, 노회, 시찰회, 연회 등의 조직기관이 없다. 목사안수받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 각자의 신학과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복음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독립교단의 연합활동은 없으나 개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산천무지개교회는 해마다 봄가을로 이웃 주민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설로 잘 준비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통하여서는 개교회들의 수련회, 캠프 등에 장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복음전파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독립교단은 산하의 교회들의 연합기구가 없으므로 단체 활동이나, 연합활동은 없지만 산천무지개교회는 자체 교회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미교회도 선교사 초청잔치와, 선교사 후원, 이웃사랑의 봉사활동으로 해마다 미용봉사활동을 하고, 절기와 명절을 맞이하여 주변 마을까지 달걀을 50판씩 나누기도 하고, 교회 창립기념으로 여름모기퇴치용 제품을 150개 가량을 해마다 나누고 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햅쌀 나누기, 주변 광판중학교, 광판초등학교 간식나누기 등을 절기에 맞춰 해왔다. 코로나시대를 당하여서는 학교출입은 자제하고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3. 춘천의 독립교단의 현황

춘천지역의 독립교단 소속의 교회는 수적으로 아주 소수이다. 10개의 교회가 존재했지만, 그것마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회를 정리한 곳도 있고,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목회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곳도 있다. 예본교회(박문국 목사-13년)는 상가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늘기쁨교회(이선형 목사-3년)도 상가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자유교회(권취우 목사-가정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아미교회(이연희 목사-8년)는 400여 평의 대지와 건물이 있는 교회로 임대료 없이 자체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눔과섬김교회(정노아 목사), 시은소교회(박진영 목사), 예수촌교회(차성도 교수) 등이 있다.



한국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라는 한기신협 산하의 교회 중 대표적인 교회는 신북면 산천리에 위치한 산천무지개교회(윤재선 목사-5년)는 3천여 평의 대지 위에 사택과 게스트하우스, 예배실, 교육관 등을 구비하고 매주일 예배와 캠

프 등에 교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천무지개교회의 윤재선 목사는 한림성심대 교수로 재직하던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교수사역과 목회사역을 겸하여 해왔다. 지난해 2021년 2월 정년 퇴임하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윤재선 목사는 파송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성도들을 성장시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주변으로 파송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특별히 한일관계에 지대한 발전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기적인 한일평화포럼을 개최하여 한일국제관계 개선과 평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원도발전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척한 지 3년 된 하늘기쁨교회는 이선형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쥬빌리사역을 통해 북한 복음통일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중보기도사역에도 집중하고 있다.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로 소개할 교회는 자유교회이다. 자유교회는 권휘우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하는 교회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다 코로나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존 교회건물을 정리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교회로 전환하였다. 교회의 추구하는 목회방향은 "선교적 자유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서로사랑"을 추구한다. 독립된 예배 처소는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춘천남부교회로 시작하였다가 개명하여 자유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2007년 4월에 개척하였다.

독립교단 소속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예본교회로 담임목회자는 박문국 목사이다. 후평동에 개척한 지 13년이 흘렀다. 독립된 예배공간이 아직 없어 빌딩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배중심의 교회로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데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2022년 올해로 개척한 지 8주년 창립예배를 드린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집 아미교회는 주소는 홍천으로 되어있지만 춘천과 홍천의 바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 이연희 목사는 춘천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아미교회는 선교적 교회 중심으로 선교활동에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해외선교로는 선교현지를 방문하여 선교현장을 돌아보며 선교사들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선교지에서 철수해 입국해 있는 수많은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사들과의 소통과 사역을 지원하는 소모임을 여러 차례 주선하였다. 국내 선교 측면에서는 농촌 지역의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관계망을 확보하고 복음 전달자로서의 접촉점을



아미교회 2021년 성탄초청잔치

구축하고 있다. 어린이 중심의 다음 세대 사역도 활발하다. 서울서부터 시작된 다음 세대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키파스쿨이라하여 온라인 사역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초·중·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부모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원CBS 기독교 방송사역도 개척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생방송 진행에 협력자로 활동하고 지금은 운영이사로 참여하여 방송사역을 도모하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에는 수년째 관여하여 강원도 수부도시, 도청소재지 춘천의 복음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성시신문 편집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언론, 간행물 출판물을 통한 복음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나눔과섬김교회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 소속 교회로, 정노아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2012년 3월 4일 춘천 소양로 2가 178-3번지에서 개척하였다. 20여 년 전 춘천성시화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시작된 작은 교회로, 한 영혼 더!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총체적 복음 전도를 목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화목 공동체이다.



나눔과섬김교회 정노아 목사


시은소교회 전교인 야외예배(2022년 10월 1일)

시은소교회는 2015년 11월경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1월 3일 성도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박진영 목사를 청빙하였다.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법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도 하지만 시은소라고도 한다. 시은소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그룹모임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고 수요성경공부모임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시은소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세워지려고 기도하고 있다.

예수촌교회의 차성도 교수(강원대)는 독립교단산하의 교회로 군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4절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1. 국제교회의 역사

춘천에서 국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21세기에 춘천에 찾아온 국제 유학생들과 원어민 교사들과 이민자들과 외국인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교회와 그들을 품어줄 공동체가 필요했다.

또한, 그들에게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예배모습

요했다. 이 일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던 미국인 릭(Richard De Graaf) 목사는 2005년부터 한국의 특정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며 기도한 끝에 그 도시가 춘천임을 확신했다.

2007년에 미국에서 춘천에 온 에릭(Eric Beck)은 자기 집에서 성경공부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엔 소수에 불과했지만, 점차 기도모임은 성경공부와 영어예배로 성장했다. 특히 한림대와 강원대에서도 영어예배와 성경공부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시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준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추수의 때'라는 뜻인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라는 이름을 정하여 2010년 10월 24일에 첫 주일예배를 시작했다.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는 릭 목사(2010~2014년)와 에릭 목사(2015~2016년)와 박남신 목사(2017년~현재)가 담임목사로 섬겼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특별히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았던 석사감리교회와 순복음열린교회와 YMCA와 효자감리교회 등의 협력이 있었고, 일찍이 외국인 사역에 뜻이 깊었던 목회자들과 교수들과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2. 국제교회의 현황

현재 국제교회에는 2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모이고 있다. 주로 강원대와 한림대에서 박사와 석사와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국제 유학생들이다.

그 외에도 원어민 영어 교사들과 결혼 이민자들과 다문화 자녀들과 소수의 한국인들과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이 끝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기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일군으로 살아가게 된다.

현재 국제교회는 박남신 선교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효자교회에서 오후 4시에 주일예배로 모이고 있다. 재적수는 80여 명이고 평균 주일예배 참석자 수는 50여 명이다. 담임목사를 포함한 5명의 리더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11명의 코디네이터들이 각 팀을 이끌며 교회 사역을 섬기고 있다.

3. 국제교회의 사역방향 및 주 사역



국제음식 페스티벌

국제교회의 사역방향은 국제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자요 제자양육자요 선교사로 역 파송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21세기 선교사역을 위한 새롭고 중요한 전략이다. 국제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중에 강원대와 한림대 등에서 전도하고 성경공부모임을 갖고 있으며 홈 그룹 성경공부와 기도회로도 모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0년부터 선교사훈련학교(MTS)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20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서 가르치며 국제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다.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는 매 학기 초마다 리더훈련과정(LTC)을 운영하고 있고, 캠퍼스 식사교제, 단기선교 비전트립, 사랑의 연탄배달, 국제음식 페스티벌, 바자회,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주소	교단
하베스트타임국제교회	2010년 10월 24일	박남신	춘천시 두하길 14	독립교단 외국인교회
산천무지개교회	2015년 5월 30일	윤재선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420-10	독립교단
예본교회	2016년 6월 5일	박문국	춘천시 후석로 263-1 2층	
하늘기쁨교회	2019년 3월 9일	이선형	춘천시 효자로87 2층	
나눔과섬김교회	2012년 3월 4일	정노아	춘천시 만천로 227번길 5	독립교단 카이캄
시은소교회	2016년 1월 3일	박진영	춘천시 공지로 541번길 16	
자유교회		권취우		
예수촌교회		차성도 교수		

제 4 편

춘천기독교120년사

춘천의 기독교 기관과 활동









제1장 춘천기독교연합회 164
1절 춘천기독교연합회의 설립 164
2절 춘천기독교연합회 역대회장 165
3절 주요활동 165

제2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68
1절 성시화운동의 유래 168
2절 춘천성시화운동의 전개 172
3절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주요활동 180

제3장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188
1절 춘천목회자연합회의 창립 188
2절 주요활동 189
3절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역대회장 190

제4장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192
1절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의 창립 192
2절 역대 회장 및 주요 활동 193

제5장 춘천홀리클럽 195
1절 춘천홀리클럽의 유래 195
2절 춘천홀리클럽의 창립과 연혁 196
3절 춘천홀리클럽의 주요활동 199

제6장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203
1절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의 설립배경 203
2절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의 주요활동 204

제7장 기타 기관 206
1절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206
2절 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 모임 209
3절 통일광장기도회 춘천 모임 211

제1장
춘천기독교연합회

»

1절 춘천기독교연합회의 설립

1990년대 춘천지역에서는 목회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등의 교회 연합회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춘천에는 춘천교역자연합회만 있었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연합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되고 춘천기독교 전반을 대표하는 기독교연합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96년 목회자연합회의 회장이었던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 중심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창설되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등의 조직을 갖추었고, 초대 회장으로 임택장 목사(석사감리교회)가 추대되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춘천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당시 전문에는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1898년 춘천에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춘천 복음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그 공동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합회를 조직한다”고 되어있다.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하나님의 정의실현과 춘천복음화를 위해 교회 협력과 교회 권익 보호 및 연합사업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절 춘천기독교연합회 역대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 제1대 회장은 임택창 목사(석사감리교회, 1995~1996년)을 맡았고, 2대는 윤철중 목사(중앙성결교회, 1996~1997년), 3대는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1997~1998년), 4대는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 1998~1999년), 5대는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1999~2000년), 6대는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2000~2001년), 7대는 임신영 목사(춘천동부교회, 2001~2002년), 8대는 오승룡 목사(춘천성결교회, 2002~2003년), 9대는 유진형 목사(안디옥감리교회, 2003~2004년), 10대는 박상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 2005~2006년), 11대는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 2006~2007년), 12대는 한균 목사(평화감리교회, 2007~2008년), 13대는 장효근목사(동성장로교회, 2008~2009년), 14대는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 2009~2010년), 15대는 원종국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 2010~2011년), 16대는 엄대섭 목사(한빛장로교회, 2011~2012년), 17대는 피종호 목사(나눔성결교회, 2012~2013년), 18대는 박인관 목사(광염감리교회, 2013~2014년), 19대는 지용찬 목사(춘천은혜교회, 2014~2015년), 20대는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2015~2016년), 21대는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 2016~2017년), 22대는 신재원 목사(새춘천성결교회, 2017~2018년), 23대는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 2018~2019년), 24대는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 2019~2020년), 25대는 손광호 목사(강변제일성결교회, 2020~2021년), 26대는 지태성 목사(춘천장로교회, 2021~현재)이다.

3절 주요활동

1. 신년교례회

매년 1월 초순에 춘천기독교연합회 산하의 각 연합회와 선교단체,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2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신성감리교회)

2. 3.1절 연합예배

3.1절 연합예배는 1996년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창설되자 그동안 춘천목회자연합회가 담당하였던 전통을 이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삼일절을 전후하여 주일이나 수요일에 춘천시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일제에 저항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친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2006년 3.1절 연합예배(2006년 3월 1일 석사감리교회)

3. 부활절 연합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마다 연합예배를 드린다. 시청 광장·호반체육관·교회 등에서 예배를 드렸고, 코로나19 기간동안 인터넷 중계를 통한 연합예배를 시도하였다.



2006년 부활절연합예배(춘천시청)



2007년 부활절연합예배

4. 성탄 트리 점등식

해마다 성탄이 다가오면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춘천시의 협조를 받아 춘천 중앙로 로터리에 성탄 트리를 밝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알렸다. 춘천역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점등식 행사의 장소를 옮기고 그곳에도 성탄 트리를 밝혔다.



성탄 트리 점등식(2006년 12월 9일)

제2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절 성시화운동의 유래

성시화운동은 전(全) 교회가, 전(全) 복음을, 전(全)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즉 "내가 사는 도시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총체적 복음운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고 이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있으며 이 운동의 방법은 총체적 복음운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개념이다. 성시화의 의미를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도시를 성결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성결화는 복음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복음화와 성결화가 성취되면 복음의 능력과 성결의 능력으로 범죄와 부패 및 이로 인한 빈곤과 질병 등 사회문제도 치유되어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성시화는 도시 성결화 자체뿐 아니라 도시 복음화와 도시 복지화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도시 복음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시화운동의 본질은 도시 복음화이지만 인격 변화와 사회치유를 포함한 도시 완전복음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기원은 1530년대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제네바가 어린이들의 영아 교육부터 전 시민의 신앙

과 행위의 표준이 성경이었고, 시의회와 행정과 사법의 기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당시 인구 10만 명의 춘천에서 '춘천 성시화 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은 C.C.C의 김준곤 목사가 민족복음화 운동을 외치던 중에 제네바와 같이 한국에도 모델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당시 춘천에서 '성경 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춘천에서는 춘천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족복음화 운동의 지역화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운동' 차원에서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972년 4월 춘천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로 '춘천시성시화운동위원회'가 조직되어 본격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이 전개될 때 김연호 목사는 초대 위원장으로, 홍형표 목사는 문서운동부장으로 각각 선임되어 지도부를 구성하였고 김연호 목사와 이경애 권사, 왕정걸 유사 등은 미국에서 개최된 '엑스플로 72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해(1972년) 5월에 들어 춘천성시화 전도요원강습회를 비롯하여 춘천성시화성가단 발족, 춘천성시화 가정대회 등 초교파적인 연합 집회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열렸으며,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강원체육관에서 춘천시성시화전도대회(강사 김준곤 목사)가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다.[1)]

김연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을 일으켰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기도회를 비롯하여 성시화 운동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 기도회원들은 목사, 장로, 교육계 인사, 언론인, 정계인, 각계 인사들의 집단이었다. CCC의 후원을 받고 강원도 지사와 시장과 제2군단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전도 집회를 가지게 되어 전국 각처에서 모인 성도가 7천여 명, 춘천에 있는 강원체육관에 수용하고 밤에는 특별 집회, 낮에는 분과 공부를 하고,*

1) 『춘천중앙교회사』, 2007, 548~549쪽.

각 학교를 얻어서 수용하고 100명씩 먹을 수 있는 밥솥 50개를 만들어 소양강 변에 걸고 군대 트럭으로 각 학교에 날라서 2,500여 명의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며 4박 5일의 성회를 가졌다."

집회는 대성공이었다.

"모인 회원들은 불이 붙어 오후에는 나가 전 시가지에 퍼져서 인구 십만의 춘천시를 뒤덮고 전도했다. 거리 요소에는 춘천 성시화운동 플래카드가 펄렁거렸다. 춘천은 일주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이게 되었다. 언론기관인 강원신문사, 춘천방송은 우리의 진행을 보도해 주었다. 수천 명의 결신자를 내었고, 교회마다 생기를 얻게 되고, 사회 일반의 교회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모든 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구호는 전 시가지를 메아리쳤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한 주에 한 번씩 초교파적으로 성시화운동 추진 기도회가 있었다."[2]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춘천에 속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한다. 성시화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도시에 충만한 상태로서 이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상태를 말한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초청을 받으며, 춘천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시민적, 국가적 삶이 제사장적 삶으로 성화되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첫째로 복음 전도 운동이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시화운동은 중세에 일어났던 무력강점식의 십자군적 방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비폭력, 적극적 사랑의 섬김과 나눔으로만 이루어진 십자가 정신으로 할 수 있다.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성숙 된다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가정이 변화된다면 사회가, 사회가 변화된다면 국가가, 국가가 변화된다면 이 민족과 세계가 변화될 것이다.

---

2) 김연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밀알라이프, 2021, 188쪽.

성시화운동은 둘째로 교회 갱신 운동이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현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주의의 거센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 갱신은 영원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구세주의 피로 하나 되고 회복된 모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 가신다.

성시화운동은 셋째로 사회개혁운동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도 명령과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회적, 문화적 책임도 부여하셨다. 따라서 이 세상의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불합리와 문화의 왜곡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성화적 삶의 노력은 교회 갱신의 사역으로 이어져야 하며, 교회 갱신의 불꽃은 춘천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개혁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3)]

성시화운동은 스위스 제네바와 같이 춘천이 평화 도시, 중립의 핵심은 결국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갈급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그분의 식탁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터에 서게 하신다. 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렬한 기도, 영혼을 향한 열정이 도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이 된다. 그 한 사람은 그 옆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러한 확산이 결국은 도시를 흔들었다. 도시의 각 영역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해졌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꿈꾸게 되었다.

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편,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신앙계, 1997, 329~340쪽.

2절 춘천성시화운동의 전개

1. 평신도구락부를 시작으로 춘천성시화전도대회 이전(1972년 이전)

춘천성시화운동의 시작은 1972년 7월 31일~8월 4일까지 열린 '춘천성시화운동전도대회'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70년, 71년은 준비 기간이었다. 대학생선교회(C.C.C)가 주최한 민족 복음화 운동요원 강습회가 수원농대에서 열렸는데, 민족 복음화한다는 큰 꿈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수천 명의 젊은이가 몰려들 때 윤수길 간사의 강청으로 조남진 장로가 참가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온 이후에 민족 복음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복음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윤수길 간사를 지도자로 소수의 사람이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성경을 배우며 각자가 체험한 신앙을 간증하는 일은 색다른 관심을 모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평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대학교수, 초·중·고 교원, 공무원, 언론인, 경찰관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이 모였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였는데 단시일 내에 20, 30명이 모이기 시작하여 내 고장 복음화 열기로 가득하였다. 이 모임은 '평신도성경구락부'로 명명되어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어갔다. 이런 사실이 김준곤 총재에게 알려지면서 춘천을 방문하게 되었다.

김준곤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은 마치 스위스 제네바와 같다면서 제네바가 성시화운동을 벌여 범죄 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가 되었는데, 춘천에 성시화운동을 벌여 시범적인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나누었다. 그때 김준곤 목사는 민족복음화운동을 강하게 외치고 있었는데, 민족 복음화의 총체적 전략을 한 도시에 결집하여 민족 복음화 이전에 우선 한 도시라도 완전 복음화된 모델 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인데, 그 모델을 춘천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중앙감리교회를 시무하던 김연호 목사를 만나 이 비전을 나누고 추진하기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1972년 7월 31일~8월 4일)

로 했다. 이에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연호 목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들과 함께 춘천성시화 운동 전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의 시작은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성시화전도대회를 개최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에 C.C.C가 전개하고 있는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를 겸하여 열렸기 때문에 전국에서 5천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여름 방학 때라 춘천 시내 각 학교를 숙소로 사용하고 소양강 강변에 이들 5천 명을 먹일 특설 취사장이 설치되었으며 2군단 군용 트럭이 동원되어 밥을 실어 나르는 등 대단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춘천성시화전도대회는 예배와 전도로 수 천 명의 전도 대원들이 춘천 시내 곳곳을 휩쓸며 전도 열기로 가득하여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2. 춘천성시화운동의 준비기(1972~1995년)

춘천성시화전도대회가 성황리에 마친 후에 안타깝게도 춘천교회의 목회자들과 대학생선교회 간에 의견 마찰로 인해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가 해체되었고, 공식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모체였던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는 계속 모임을 가졌다. 1973년에는 예수원 원장인 토레이 신부, 1974년에는 데이비드 로스 목사, 그 후에 황희융 박사, 최재선 박사 등을 모시고 신앙 강좌를 열기도 했다. 특히 1974년에는 강원체육관에서 조용기 목사를 모시고 '춘천복음화전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가졌으며, 군부대와 교도소 방문 집회 등 다양한 전도 활동을



춘천복음화전도대회(1974년 10월 14~17일) 강사 조용기 목사

펼쳤다. 1980년 1월 21일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춘천복음화운동 위원회를 결성,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춘천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춘천을 성시화 하자”는 주제로 춘천복음화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강사로 김준곤 총재와 김세창 세계복음화운동 총재를 초청했다. 그 이후 춘천복음화를 위한 연합선교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집회들이 열렸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특이한 점은 강원도청, 춘천시청, 전신전화국, KBS, 강원일보 등 각 직장마다 신우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마침 1990년 4월 17일 춘천, 춘성 지역 8개 직장신우회가 동부장로교회에서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생활을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1991년 춘천지방 검찰청 차장 검사로 전용태 권사가 취임해 왔다. 전용태 차장 검사는 1992년 춘천성시화대회 평검사 때 부인과 함께 참석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의 재현을 소망했다. 이리하여 봉의동에 있는 차장 검사 사택은 성경공부의 요람이 되었고, 당시 김기수 검사장을 비롯한 일부 기관장들과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춘천성시화운동의 재점화를 지펴나갔다. 1992년 ”예수 평화 대행진’과 ‘성시화연합집회’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춘천시민에게 보다 더 대중적으로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낮에는 “예수평화대행진”이란 표어를 쓴 현수막을 내걸고 시가행진을 하였고, 밤에는 전 과학기술처장관 정근모 장로를 초청하여 성시화 연합성회를 열었다. 이날 성회에서 문재선 강원대 총장이 춘천성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조남진 장로는 춘천성시화 운동의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 모임에 1,500명의 교계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그 후 8개 직장신우회로 시작한 춘천 직장신우회 연합회는 33개 신우회를 가입하는 등 급진적인 발전

을 이루었다.

또한 1994년에는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대표 허문영 박사, 소장 이영길 박사)와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실무책임자 안동규 교수, 차성도 교수)이 공동 주최하고, 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복음과 춘천94대회」(춘천제일장로교회)가 열리게 되었다.

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탄생(1996년 9월 19일)

춘천성시화운동은 1995년에 들어서 전용태 장로가 춘천지검장으로 다시 부임하면서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양인평 장로가 춘천법원장으로, 이범찬 안수집사가 안기부 지부장으로 부임해 왔고 성시운동의 초기 멤버였던 조남진 장로가 강원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영향력 있는 기관장들이 춘천에 모여들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후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기관장들이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관장 기도 모임을 매주 금요일에 가지면서 성시화운동을 활성화하여 춘천을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들기로 하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독교연합회를 만들어 기독교 운동체로 세우고, 여기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들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1996년 9월 2일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개소(월드비전)를 하고, 성시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춘천기독교연합회'(1996년 9월 12일)의 탄생을 도왔으며, 1996년 9월 19일에 소양성결교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 창립 감사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예배(1996년 9월 15일)

를 드렸다.

당시 부활절연합예배와 8.15 광복절 예배를 주관하던 '춘천교역자연합회'라는 교역자들 간의 친목 단체만 있었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연합체가 없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당시 '춘천교역자연합회' 회장인 이원호 목사의 결단을 힘입어 만들어진 춘천기독교연합회 초대회장은 임택창 목사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본부장에는 조남진 장로가 취임하였고, 월드비전 강원도지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현판식을 가졌다.

이리하여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분부가 연합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춘천성시주간으로 선정, 성시 토론회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시화운동에 들어갔다. 이어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비전 126 성시화 중보기도모임이 창립되어 활동하면서 춘천성시화가 활성화되었다.

4. 춘천성시화운동의 확산기(1997~200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한 이듬해에 1997년에 들어서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월에는 차세대 성시 요원 육성을 위한 영성 세미나(2월 27일~3월 1일)가 열렸고, 춘천기독의료인선교회, 만나선교회 등 영역별 선교회가 발족되었다. 강원도교역자선교회, 한국교육자선교회 37차 여름 연찬회를 춘천에 유치,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전국에서 6백여 명이 모여 연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6.25전쟁을 앞두고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초청하여 공지천 광장에서 민관군이 망라하여 1만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시국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족 1주년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춘천시민 초청 대성회에서는 기관장 및 목회자와 성도 1만여 명이 삼천동 야외음악당을 메웠다.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된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성시화운동이 활기를 띠어갔으며,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1997년 전용태 검사장이 청주 지검으로, 양인평 법원장이 대전법원장으로 전임해서 갔고, 다시 전용

태 장로가 인천, 대구로, 양인평 장로가 부산으로 부임해감에 따라 청주,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성시화운동본부가 생기고 홀리클럽이 창립되는 등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케 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 비하르 주의 파트나시(이영길 선교사)와 영적 자매결연을 맺고 비하르 주의 대표적인 10개 관문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 중보기도사역과 세미나 및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2000년 9월 9~16일)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은 성시기도운동과 해외선교를 추진하여 온 조은제 목사, 기정희 선교사 등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을 위해 인도 비하르에 두 번(2월 24~28일, 3월 24~30일)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압둘깔람 인도 대통령과 인도 비하르의 주(州) 수상 등을 만나 인도개발을 위한 한국의 가나안농군학교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이후 은사별 영역그룹이 활성화되고 춘천애증회(기독법조인회), (사)기독교세진회 춘천지회,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 기독교의료인회, 강원청소년선교회, 춘천만나선교회, 예수사람운동이 창립되었으며 이후로 기관장과 기도 모임과 각 직장신우회를 통한 기관 방문 예배로 활성화되었다. 11월에는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기윤실 대표인 손봉호 장로 초청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1999년에는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학교 운영, 기사선교회의 창립(5월 12일), 경찰가족을 위한 부흥성회(5월 30일~6월 2일), 6.25 상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등을 시민, 교회 연합으로 실행하였다.

2006년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 해에 세계선교의 영적 지도자 '루이스 부쉬' 목사가 성시화와 도시변혁선교의 긴밀한 협력과 연구를 위한 국제회의를 논의하기 위해 춘천을 방문했다(5월 26~31일). 루이스 부쉬 목사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로잔대회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지역인 10/40창 지역 개념을 소개하고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21세기 선교운동으로 2004년 세계변혁운동을 시작하였다. 루이스 부쉬 목사는 춘천성시화국제대회를 제안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보다 규모있는 영역선교로 발전하고, 동시에 국가적, 국제적 네트워크에 유기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였

다. 즉 춘천성시화운동이 21세기 기독교세계선교운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루이스 부쉬의 초청으로 두 번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2009년 4월 21~24일, 장소 : 미국 휴스톤, 2009년 9월 8~11일 미국 뉴욕)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소개하여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대표단의 미국방문이 계기가 되어 미국 한인 교회인 필그림교회 청년들이 춘천을 방문하여 'AWANA 영어 성경 캠프(2009년 8월 3~6일)'를 춘천지역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하였다. 필그림 청년들의 방문으로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긴밀하게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다.

5. 춘천성시화운동의 활성화기(2007~2016년)

1)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춘천

2007년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2007년 7월 24~28일, 장소 : 강원대학교, 주최 : 성서한국, 공동주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춘천기독교연합회·강원대기독교수회·기독청년포럼)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관심이 있는 기독 청년 학생을 초청하여 개최되었다. 1,00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과 북한 문제 전문가 수십 명이 통일 한국의 비전과 준비를 위한 실천 분야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대회로 춘천은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중심도시라고 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지속적인 기도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일을 위한 화요기도모임(주관 : 통일나눔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2)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성시화운동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시화운동을 확산시키고, 성시화운동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에게 성시화 정신을 전수하는가에 달려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 아카데미를 개강하였다. 강사로는 지역별 성시운동 지도자 및 통일과 북한 문제 전문가들을 초빙하였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선교, 교육, 문화탐방 프로그램인 청소년비

전캠프(2008년 8월 4~12일 장소 : 중국 대련, 단둥, 백두산)를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청소년 비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립운동 유적지 방문, 단둥 가나안농군학교 영성훈련, 조선족교회 방문, 조중 접경지역 경험, 백두산 등정 및 고구려유적지 방문을 통하여 다음 세대 성시화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중보기도 네트 워크 결성

성시화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성시화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춘천연합중보기도네트워크(CCPN)를 결성하여 성시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운동(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1시)을 전개하였다. 또한, 중보기도 가이드 책과 영적지도를 활용하여 춘천의 주요지역을 방문하여 기도를 전개하였다. 성시화 모델 도시로서 의미가 있는 십자가 나무인 산딸나무를 성시목으로 지정하여 희망의 나무 심기를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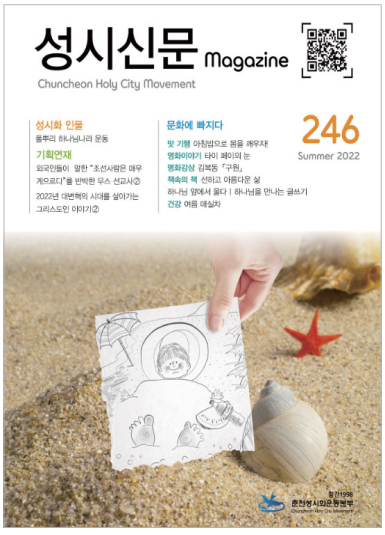
6. 춘천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시기(2019년~현재)

춘천성시화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사회 창립총회'(2010년 9월 8일 신성감리교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장으로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와 부이사장으로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를 추대하였다. 그후 이사장 김주환 목사, 원종국 목사, 김창환 목사, 박인관 목사 등 이사회를 중심으로 성시운동이 의미 있게 전개되었지만 실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총장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부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적으로 성시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임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이사회(이사장 박인관 목사)에서 전임 사역자를 구하던 중에 2019년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김훈 목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전임 사역자가 생김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성시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3절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주요활동

1. 성시신문 창간(1998년 9월 15일)과 주요 임원



춘천성시신문표지

춘천성시화운동은 운동본부 발족 첫해 성시주간 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가 성시운동을 위해 1천만 원의 큰돈을 기탁한 것으로 부터 각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성시헌금이 들어왔다. 성시운동본부 초대사무국장에 이상표 목사, 초대기획실장 차성도 교수, 초대간사 임성택 목사가 부임하였고, 2대 국장은 월드비전 춘천복지관장이었던 이경준 목사가 맡았다. 3대 국장은 조충환 목사가 맡았다. 1998년 9월 15일 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을 맞아 성시신문이 창간이 되었다. 성시신문을 통해 성시화운동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분들 즉, 조충환 목사(편집장), 문선재 목사, 김영명 장로 등의 각종 기록물이 대중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성시신문의 창간으로 성시화운동은 큰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현재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춘천기독교의 활동상과 성시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게 됨으로 성시화를 앞당기게 되었고, 또한 성시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구와 배움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 보다 성숙한 기독교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2004년도에는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 오승룡 목사)에서 성시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조영춘 목사를 새롭게 임명하였고, 춘천 성시신문 편집인으로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을 영입하여 춘천성시신문을 재창간,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 후 정재호 사무총장, 이병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성시화운동이 펼쳐졌다. 춘천성시신문은 매월 4,000부씩 발행하여 국내·외 선교지에 배부되어 문서선교로서뿐만 아니라 성시화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

였다. 편집위원으로는 최영조 목사(편집장), 이병철 목사(사무총장),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조영춘, 최상도, 김미경(사무국장), 이은정(사무국장), 정주향(간사)이 섬겼다. 현재는 최상도, 이관형 편집장을 중심으로 김훈(사무총장),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등이 일하고 있다.

2. 부활절 연합회와 십자가 행진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고난 행진을 하였다. 흰 가운에 붉은 색 천을 두른 목사, 장로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공지천 야외음악당을 출발하여 삼천리 동산까지 1.2km를 행진하였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춘천을 기독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고,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문화 행사를 기획,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디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성시화본부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걸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새로운 장을 열기도 하였다. 2007년도에는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이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약 2,000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3. 선교와 전도 활동의 활성

성시화운동은 영혼 구원을 근간으로 하는 총체적 선교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전도와 선교운동을 통한 복음화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는 성시화운동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총력전도운동을 계획 실행하기도 하였다. 해외선교사 활성화와 선교사 동원을 위해 춘천 1기 목회자, 선교단체 지도자 퍼스펙티브스(2002년 4월 29일~7월 2일)를 중앙감리교회에서 선교한국 주관으로 열려 많은 지도자가 참여하였다.

4. 춘천선교대회

해외 선교와 성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가 2003년 11월 2~11일까지 이동휘 목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동부교회에서 열렸다. 많은 분들의 동참과 호응이 있었다. 또한, 한일교회 지도자 교류 친선대회(2003년 9월 24일, 우두교회)를 조용상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가슴에 품고 성시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교회의 지도자들은 춘천의 성시화운동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목사 및 신도대표 22명이 방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2003년 10월 6일, 춘천베어스타운관광호텔).

5. 지역복음화를 위한 지역사랑운동

성시화운동은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지역사랑운동이라 할 수 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지역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랑의쌀나누기운동이라든지 연탄나누기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며, 특히 지역 내에 있는 개척교회나 아직 자립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 오고 있다.

6.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발대식

2010년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춘천 월드레저총회와 경기대회(2010년 8월 28일~9월 5일)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하였다.

이에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발대식(2010년 8월 25일 춘천중앙감리교회)을 갖고 총회와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성경책을(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제공하였다. 이로써 춘천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에서 적극적인 봉사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여 성공적인 월드레저총회와 경기가 이뤄지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7. 춘천성시화운동의 50주년과 앞으로 나가야 할 길(현재~미래)

2022년 50주년을 맞이하여 50주년 준비위원회와 50주년 희년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이사장인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와 부이사장인 이병철 목사(주향교회)를 중심으로 50주년 기획팀을 만들고 기획위원장으로 최상도 목사, 기획위원에 이병철 목사, 최영조 목사, 오의석 목사, 김훈 목사, 조용호 박사(춘천성시화운동연구소장)가 함께 모여 50주년 행사를 준비하였다. 또한, 조영춘 목사, 박은주 권사, 엄기증 박사, 홍순신 장로(본부 회계)가 함께 협력하였다.

기획위원회에서는 50주년 성시선교대회 정식 명칭을 "50주년 희년대성회"로 정하였으며,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시민에게"의 타이틀을 중심으로 매월 행사들을 준비하여 추진하였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 운동인 "청춘예찬"(청년춘천예수찬양모임), 춘천 기도단체 연합기도회인 "블레싱춘천",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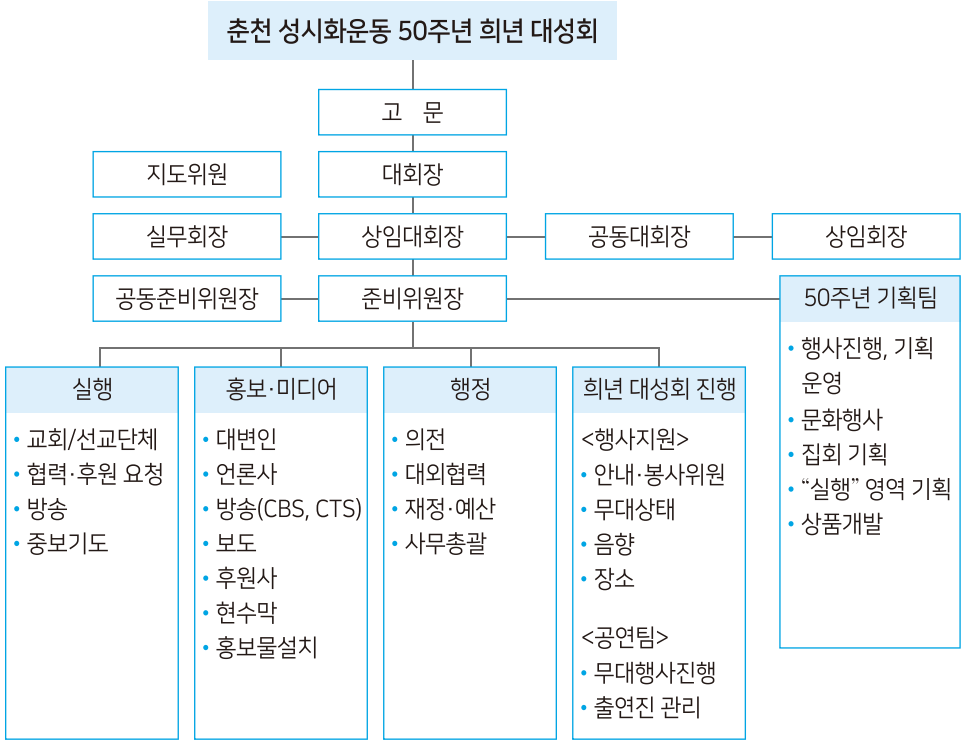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 대성회(2022년 8월 15일)

이후 급격하게 변하게 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시해 주었던 전도세미나, 2015년도에 진행되었던 홀리바이크 모임시작, 8월 50주년 희년 대성회를 목표로 춘천 목회자들이 서로 강단을 교류하였던 "성시화 헌신예배", 복음의 전함과 협력하여 춘천시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차량, 교회에 복음광고를 붙였던 "복음광고 운동", 8월에 있었던 "리조이스 힐링 페스티발"(문화행사),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50주년 희년 대성회", "성시지도자포럼", 9월 27일 춘천기독교 120년사 출간을 앞두고 진행된 "춘천기독교 학술세미나-강원도와 춘천의 기독교 전파와 그 사회적 역할", 9월 29일 있었던 "50주년기념 포럼C-성시화운동의 나가야 할 길" 등 많은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50주년 희년 대성회의 조직과 행사들은 아래와 같다.

●●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 대성회 조직표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 대성회 상세조직

고 문

김광국 목사(춘천성광장로교회), 엄대섭 목사(한빛장로교회), 임신영 목사(춘천동부장로교회),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유동선 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

대회장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지도위원

김성호 목사(덕두원중앙교회), 박상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 엄대섭 목사(한빛장로교회), 원종국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 장효근 목사(동성장로교회),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 교회)

상임대회장

이수형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공동대회장

김진수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회장), 김한호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박인관 목사(감리교 남지방감리사), 박종식 목사(그리스도교), 송제성 장로(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회장), 신현명 목사(감리교 북지방 감리사), 윤정호 목사(교경협의회 회장), 윤주석 사관(구세군), 윤태호 목사(JDM), 이영규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회장), 조경화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조은제 목사(베드로선교센터), 지태성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차성희 목사(침례교 지방회장), 최춘배 목사(춘천장로교연합회 회장),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허문영 대표(평화한국)

상임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 김종호 목사(효자감리교회), 김창환 목사(온누리장로교회), 손광호 목사(강변제일성결교회), 신성균 목사(순복음열린교회), 염윤호 목사(춘천평화성결교회),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 조영춘 목사(전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지용찬 목사(춘천은혜장로교회),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피종호 목사(나눔성결교회), 하기철 목사(순복음제일교회), 한균 목사(평화동산감리교회), 홍요셉 목사(예사랑침례교회)

- **실무회장**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김원중 목사(춘천우리장로교회), 손학균 목사(춘천석사감리교회), 엄기홍 목사(그말씀양문장로교회), 이병철 목사(주향장로교회), 장기동 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 정선문 목사(제자들침례교회),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 조용호 박사(CCC 전국 나사렛 회장),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최영조 목사(갈릴리감리교회)

- **준비위원장/50주년 기획위원장**
  김훈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 **공동준비위원장**
  김수일 목사(춘기연 사무총장), 김승구 장로(장로연합 총무), 윤순규 장로(홀리클럽 총무), 진상용 장로(장로연합 수석부회장), 한정호 장로(홀리클럽 수석부회장)

- **실무분과 위원장**
  김귀선 권사 김동규 PD, 김동정 장로, 김지현 권사, 김진선 권사, 박남신 목사, 박도준 목사, 박은주 권사, 백승환 목사, 신현천 목사, 엄기증 박사, 용석만 목사, 유영호 목사, 이관형 권사, 이기영 집사, 이상철 목사, 이연희 목사, 전순화 목사, 정기선 장로, 홍순신 장로, 선교단체, 각 단체대표

2022년 성시화운동본부 월별 행사 준비안

	일자	대회명	담당, 단체	비고
1	3~8월, 매월 초	연합기도-블레싱춘천	지용찬 목사, 단체 대표	
2	3~5월	청춘예찬	다음세대 영역팀	
3		청년대집회<5월 29일 (주일), 7:30>		석사교회, 김관성 목사(행신침례교회)
4		청춘예찬 찬양리더모임 <6월 11일(토), 오후>		장소 : 킴스카페(예정)
5	4~12월(격 월)	이단세미나(격월)	신현천 목사	4월 22일, 광염교회
6	5월 26일(예정)	전도세미나	EDI, 지저스페스티발	
7	5월 21일(예정)	홀리바이크	조용호 박사, 동호회	토요일, 오전 8시
8	5월 또는 6월(미정)	일일찻집	조용호 박사	
9	미정	순회설교	최상도 목사, 협력교회	홍보, 모금

	일자	대회명	담당, 단체	비고
10	미정	축구대회	지용찬 목사	상반기 또는 하반기
11	상반기, 하반기	직장인리더훈련	최영조 목사, 직장선교회	
12	5월, 6월(미정)	시장후보, 당선축하	오의석 목사	
13	7월 중 교회,지역	전도지,광고현수막	성시화, 지역교회	춘천 시민 모두 전도 7월 초 전도 결단집회
14	8월 13일	희년대성회		문화, 집회
	8월 14일	희년대성회		문화, 집회, 8.15광복절기념
	8월 15일	희년대성회		집회
		순례길	이병철 목사, 최상도 목사	
		성시화운동 보고대회	각 성시화운동 참여	
15	9월	포럼C	성시화	성시운동 비전제시
16	9월	기독교 120년사 출판	성시화	
17	9월 또는 10월(미정)	제3회 족구대회	춘천목회자족구회	
18	10월(미정)	성경의 맥 세미나	박인관 목사	
19	10월 또는 11월(미정)	일일찻집	조용호 박사	
20	11~12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성시화, 각 단체 대표	

제3장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1절 춘천목회자연합회의 창립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는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정의실현과 목회자 상호간의 친교를 목적으로 1959년도에 춘천교역자연합회로 시작되어 춘천 지역 목회자의 연합사업에 힘써 왔다. 회원은 춘천 지역 안에 있는 공인된 교단소속교회이며, 지방회나 노회의 추천을 받고 임원의 결의를 거쳐 가입하며, 회비가 아닌 회원교회와 개인 및 기관의 찬조비로 운영한다. 춘천교역자연합회는 목회자의 친목과 기독교 연합사업 및 대외적인 기독교 위상을 위해 일해오다 2016년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교단소속(성공회 포함)목회자부부 친목도모.(이단교단 제외) 둘째, 기독교 연합을 위한 예배·선교사업·구제활동·홍보활동. 셋째, 기독교 위상과 교회 보호를 위한 대내외적인 사업. 넷째, 기독교와 교회를 위협하는 기관·이단·미신대책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다.

2절 주요활동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김연희 초청 간증연합집회(KAL기폭파범, 1992년 12월 10일), 2) 최전방 철책근무장병위문(연1회 7사단), 3) 잼버리 제17차 세계대회(고성)성공기원예배 및 방문위문, 4) 춘천경찰서교경협의회 창립지원, 5) 춘천기독교연합회 창립(1996년 9월 12일) 창립지원, 6) 춘천홀리클럽창립 후원(1996년 6월 8일), 7) 기독교춘천방송국(1995년 5월 2일 개국)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지원, 8) 춘천직장선교회 창립지원(강원도청, 춘천시청, 한전, 법원, 강원대, 기사선교회), 9) 성탄트리 최초 춘천로타리 트리설치 점등(1985년 12월 1일), 10) 조용기 목사초청 춘천시기독교연합부흥회(춘천체육관), 11) 국민일보 주관 북한자전거보내기운동 자전거달리기(춘천~서울) 참여(150명 참석 자전거로 춘천에서 여의도광장까지), 12) 통일교 제품 불매운동전개(탁명환 이단연구소장 초청 강의), 13) 춘천성시화운동 재개를 위한 김준곤 목사(CCC총재) 초청 연합부흥회, 14) 매년 부활절 새벽 민·군 연합예배 2,000명 참석(2군단, 공병여단), 15) 매년 삼일절·광복절연합예배주최, 16) 고난주간 시가 행렬(목사 및 장로 십자가 메고 걷기, 전도지 돌리기), 17) 춘천 신·구교 성직자간담회(박토마주교 초청, 춘천주교관), 18) 강원도 도단위 기관장과 목회자대표 간담회(1995년), 19) 도단위 기관장 월1회 정례조찬기도회(공공기관 실국장 초청참석), 20) 기독교지도자 신년하례회(도단위 기



기독교연합회창립총회



김현희 초청 간증집회(1992년 12월 10일)

관장, 목회자, 장로, 세종호텔), 21) 헤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춘천지부 창립 지원, 22) 기사선교회 창립지원

3절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역대회장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역대 회장

대	연도	회 장 명	교회	대	연도	회 장 명	교회
1	1959	김규호 목사	중앙성결교회	32	1990	노정관 목사	서부감리교회
2	1960	김유찬 목사	동부장로교회	33	1991	김광국 목사	성광장로교회
3	1961	이병옥 목사	제일장로교회	34	1992	최운택 목사	성도장로교회
4	1962	이정엽 목사	중앙감리교회	35	1993	차관식 목사	제일감리교회
5	1963	한오권 목사	성광장로교회	36	1994	임신영 목사	동부장로교회
6	1964	한태경 목사	춘천침례교회	37	1995	신청웅 목사	남부감리교회
7	1965	강원하 목사	교동장로교회	38	1996 1997	이원호 목사	소양성결교회
8	1966	김연호 목사	중앙감리교회	39	1998 1999	정상교 목사	샘밭침례교회
9	1967	장인덕 목사	서부감리교회	40	2000	권오서 목사	중앙감리교회
10	1968	방효정 목사	효신장로교회	41	2001	사공정 목사	중앙장로교회
11	1969	신영희 목사	구세군춘천영문	42	2002	하기철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12	1970	이치백 목사	성광장로교회	43	2003	오승룡 목사	춘천성결교회

대	연도	회 장 명	교회	대	연도	회 장 명	교회
13	1971	임택창 목사	석사감리교회	44	2004	길동휘 목사	춘일감리교회
14	1972	김성묵 목사	제일장로교회	45	2005	김유식 목사	한신장로교회
15	1973	강원하 목사	교동장로교회	46	2006	최현묵 목사	남춘천침례교회
16	1974	김관수 목사	중앙성결교회	47	2007	한　균 목사	평화감리교회
17	1975	방지각 목사	효신장로교회	48	2008	피종호 목사	나눔성결교회
18	1976	장시정 목사	춘천침례교회	49	2009	지용찬 목사	춘천은혜장로교회
19	1977	이영호 목사	서부감리교회	50	2010	박인관 목사	광염감리교회
20	1978	허 걸 목사	샘밭침례교회	51	2011	권기호 목사	춘천시민장로교회
21	1979	윤철중 목사	중앙성결교회	52	2012	신재원 목사	새춘천성결교회
22	1980	송기창 목사	성암감리교회	53	2013	신성균 목사	열린순복음교회
23	1981	김은일 목사	신북장로교회	54	2014	김종호 목사	효자감리교회
24	1982	홍봉유 목사	춘천구세군	55	2015	김종익 목사	광명장로교회
25	1983	곽철영 목사	중앙감리교회	56	2016	박찬욱 목사	새순성결교회
26	1984	황태주 목사	동부장로교회	57	2017	손학균 목사	석사감리교회
27	1985	이정익 목사	소양성결교회	58	2018	홍요셉 목사	예사랑침례교회
28	1986	김창수 목사	신성감리교회	59	2019	조용아 목사	성광장로교회
29	1987	황영찬 목사	춘천침례교회	60	2020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30	1988	김주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61	2021	김선일 목사	소양성결교회
31	1989	이만선 목사	영락성결교회	62	2022	김한호 목사	동부장로교회

제4장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1절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의 창립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의 창립은 1973년 3월 18일 춘천시 옥천동 73번지 소재 춘천중앙감리교회(김연호 목사)에서 각 교회 장로 17명이 발기인으로 모여 회칙을 심의하고 일주일 후인 3월 25일 오후 3시 중앙감리교회 교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춘천의 최연소 장로인 김기태 장로가 춘천 시내권 소재 38개 교회 52명의 장로 명단을 파악하여 춘천감리교회 김병선 장로에게 초교파적으로 장로들이 모여 '친교와 선교'를 목적으로 활동할 연합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여, 임원과 회칙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당초에 임기 2년의 회장을 교단별 윤번제로 선출하였으나 1975년 이후 1990년까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노령층에 있어 활성화하지 못하고 2~4년씩 장기간 임기를 맡아 명맥만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1년도에 이학규 장로가 회장에 취임한 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장로회 활동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이후에 직장인들의 조기 퇴직으로 인하여 활동할 인적 자원도 넉넉해졌다. 1996년 이후 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교단별 윤번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합회의 회장직임 순서는 춘천시 소속 교단 중 "감리교→장로교→감리교→성결교→감리교→순복음→감리교→침례교→감리교→그리스도의교회→감리교→구세군" 순으로 수행하고 있다.

2절 역대 회장 및 주요 활동

역대	성 명	교 회	역대	성 명	교 회
1	김병선	중앙감리교회	2	김용화	제일장로교회
3	한석기	성광감리교회	4	이영일	석사감리교회
5	이관섭	중앙성결교회	6	구연창	동부장로교회
7	유일성	평강장로교회	8	백윤선	소양설결교회
9	지달건	순복음춘천교회	10	한석용	성광장로교회
11	이학교	석사감리교회	12	이창용	제일장로교회
13	유태희	제일감리교회	14	허종구	중앙성결교회
15	박승태	명성감리교회	16	황병호	제일장로교회
17	한주석	만천감리교회	18	임운식	순복음춘천교회
19	박한명	중앙성결교회	20	이무식	석사감리교회
21	마철규	제일장로교회	22	이영식	중앙감리교회
23	김주극	제일장로교회	24	김용헌	순복음춘천교회
25	강창기	중앙감리교회	26	전은풍	제일장로교회
27	김기기	석사감리교회	28	낭궁연	중앙성결교회
29	강철주	창대감리교회	30	남준섭	순복음춘천교회
31	감정호	제일장로교회	32	심의섭	중앙감리교회
33	김인수	중앙성결교회	34	김철수	석사감리교회
35	송제성	순복음춘천교회			

2. 주요활동

1) 비전교회 및 선교단체 후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교파별로 1곳씩 4곳의 미자립교회를 심의하여 분기별로 담임목사를 초청하거나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및 애찬을 나누며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도와 격려를 하고 있으며 구국기도회 시 CBS 어린이합창단 등의 선교단체와 보훈 가족에게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2) 6.25 구국 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 복음 통일, 지역 복음화를 위한 6.25 구국 평화통일

기도회는 6.25전쟁 당시 국군이 최초로 승리한 춘천대첩을 기념하고자, 2016년에 제29대 회장 강철주 장로가 제안하여 창대감리교회에서 제1회 6.25 구국기도회를 시작하였고, 매년 6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면서 2022년도에 제7회 6.25 구국평화통일 기도회로 계승 발전했다.

3) 춘천기독교연합회 및 선교단체와 연합 협력

비전교회 선교 후원 사업과 구국기도회를 통해 장로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춘천홀리클럽, CBS 등의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25 구국평화통일 기도회(2022년 6월 26일)

제5장
춘천홀리클럽

1절 춘천홀리클럽의 유래

춘천성시화운동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기독교 부흥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네바와 같은 거룩한 모범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되었다.

춘천홀리클럽은 같은 꿈을 갖고 1996년 6월 8일 창립한 평신도 선교단체이며, 전 교회(Whole Church)가 전 도시(Whole City)에 전 복음(Whole Gospel)을 전하는 도시 거룩 운동을 일컫는다. 춘천에서 탄생한 홀리클럽운동은 그 후 서울, 대구, 청주, 광주, 대전, 부산 등으로 확산하였고, 각 지역의 홀리클럽은 성시화운동의 평신도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 26주년의 춘천홀리클럽은 120여 명의 회원이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 평신도 영성 회복, 지역과 교회 섬김”을 목표로 정기 기도회와 창립 감사 특별 집회, 기독교 연합사업 참여, 소외된 이웃돕기,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무슬림 확산 방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절 춘천홀리클럽의 창립과 연혁

1. 창립

홀리클럽은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와 그 형제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재학 중 대학생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한 학생 조직의 명칭에서 기원한다.

한국에서의 홀리클럽은 1996년 춘천지방 검사장으로 부임한 전용태 장로가 자신이 전도한 지역 유지와 기관장 100여 명에게 매주 수요일 저녁식사 후 순복음춘천교회 수요 예배 전에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이 모임의 이름을 춘천홀리클럽으로 하였다. 이 모임의 참석자가 1996년 6월 8일 가평 유명산에서 춘천홀리클럽 창립예배를 드리고 초대 회장으로 조남진 장로(강원일보 사장)를 선출하였다.

춘천 홀리클럽 연혁

일자	내용
1996년 6월 8일	춘천홀리클럽 창립(초대회장 조남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2006년 2월	춘천성시화를 위한 제1회 기도회(평화감리교회)
2006년 6월	창립 10주년 성시화 선교대회(안디옥감리교회)
2007년 4월	춘천성시합창단 창단공연(춘천문화예술회관)
2007년 6월	창립 11주년 성시화선교대회(춘천석사감리교회)
2008년 6월	창립 12주년 성령대부흥회(순복음춘천교회)
2008년 7월	해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
2008년 9월	홀리회원 가족영성훈련 세미나(원주예수사관학교)
2009년 6월	창립 13주년 성령대부흥회(안디옥감리교회)
2009년12월	다문화 가족, 새터민 초청 성탄축하의 밤(춘천제일감리교회)
2010년 6월	성시무용단 창단 / 창립 14주년 성령대부흥회(춘천석사감리교회)
2010년10월	춘천 월드레저총회 "사랑의 봉사단" 운영
2011년 2월	춘천 중·고교 기독동아리 활동 우수학생 표창
2011년 5월	역사기록물『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출간
2011년 6월	창립 15주년 성령대부흥회(안디옥감리교회)
2012년 3월	성시합창단 오페라 "THE PASSION" 공연(춘천문화예술회관)

일자	내용
2012년 6월	창립 16주년 “예수님의 눈으로 본 한국경제”(강사-송하성 박사)/ (순복음춘천교회)
2012년 9월	기아체험 및 걷기대회(월드비전 강원지부와 공동주최)
2012년 12월	탈북교사 초청 간증집회(순복음춘천교회)
2013년 7월	창립 17주년 임마누엘 초청 찬양제/특강 이호 목사(중앙감리교회)
2013년 12월	2013 총회 및 특별강연-정운길 선교사(춘천석사교회)
2014년 6월	창립 18주년 “통일대박” 강연-신철민 교수(춘천석사교회)
2015년 6월	창립 19주년 “통일 한반도의 비전” 송원근 목사(춘천석사교회)
2015년 10월	홀리투어, 독립기념관, 유관순 기념관, 매봉교회
2016년 5월	창립 20주년기념 해외 연수(일본 대마도)
2016년 6월	창립 20주년 “크리스챤의 정체성” 특별강연-김기원 원로목사
2016년 6월	창립21주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성민 목사 (춘천석사교회)
2017년 9월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운동 - 강원도청 앞 광장
2018년 5월	창립22주년 “북한구원과 복음통일” 강사 김성욱 북한기도운동대표(순복음춘천교회)
2018년 9월	홀리투어(양화진선교묘역, 서초사랑의 교회방문)
2019년 6월	창립23주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강사 이호 목사(동부장로교회)
2019년 8월	춘천홀리클럽 제100회 기도회 감사특별집회, 강사 박한나 목사
2020년 6월	한국전쟁 70년 6.25 남북복음통일 기도성회 참가 및 철원지역 홀리투어.
2021년 4월	제109회 정기 기도회 개최(제109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연합)
2021년 6월	창립 25주년 “거룩한 모임”, 강사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2022년 6월	창립 26주년 감사예배 “날 대속하신 주를 위해”, 강사 이상권 목사(초대감리교회)
2022년 8월	제115회 교회순방 정기기도회, 강사 박진형 목사(춘천신성감리교회)
2022년 10월	홀리투어(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춘천홀리클럽 창립1주년 기념예배(1997년 6월 9일 춘천두산리조트)

2. 춘천홀리클럽의 발전

초대 홀리클럽 회장 조남진 장로, 2대 회장 허천 장로, 3대 회장 조은제 목사로 이어졌으나 조은제 목사가 장기(11년) 일본 선교사로 출국한 관계로 홀리클럽 활동이 주춤하였다가, 2005년 12월 홀리클럽 재건 총회를 개최, 4대 회장으로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가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홀리클럽은 친교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홀리클럽을 섬겨 왔던 역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역대 임원 명단

구분	연도	회 장	임 원	
1대	1996 ~ 2000	회 장 : 조남진 장로 (강원일보사 사장) 부회장 : 김경호(대광운수 사장) 부회장 : 조화숙(주) 강원홍업대표 이사	총무 : 장현덕 (현대상사 대표)	감사 : 박종인(광산전선 광산개발 광산전력 회장) 감사 : 양승관(한국전기공사강원지부장) 감사 : 전호철(주) 중앙개발 대표
2대	2000 ~ 2002	회 장 : 허 천 장로	총무 : 신종철 안수집사	감사
3대	2003 ~ 2005	회 장 : 조은제 목사 (2003~일본선교사역) 성시화본부 조영춘 목사 대행	총무 : 신종철 안수집사	감사
4대	2006 ~ 2010	회 장 : 이학규장로 수석부회장 : 김영명 장로	사 무 국 장 : 김영명 장로 사 무 국 장 : 김영관 장로 사무부국장 : 조정일 장로 한택수 장로 서 기 : 이한준 장로 부 서 기 : 최돈식 권사	회 계 : 이진배 장로 부회계 : 홍재기 권사 감 사 : 장준홍 장로 감 사 : 마철규 장로
5대	2011 ~ 2012	회 장 : 김영명장로 수석부회장 : 황병호 장로	사 무 국 장 : 조정일 장로 사무부국장 서 기 : 조돈교 장로	회 계 : 이한준 장로 감 사 감 사
6대	2013 ~ 2014	회 장 : 김용배 장로 수석부회장 : 황병호 장로	사 무 국 장 : 조정일 장로 사무부국장 민경욱 장로 서 기 : 조경화 장로	회 계 : 석기호 장로 감 사 : 이한준 장로 감 사 : 류주영 장로

구분	연도	회 장	임 원	
7대	2015 ~ 2016	회 장 : 황병호 장로 수석부회장 : 임운식 장로	사 무 국 장 : 석광훈 장로 사무부국장 : 한택수 장로 서 기 : 조경화 장로	회 계 : 남준섭 장로 감 사 : 석기호 장로 감 사 : 박병철 장로
8대	2017	회 장 : 김종열 장로 수석부회장 : 임운식 장로	사 무 국 장 : 김철수 장로 사무부국장 : 한택수 장로 서 기 : 백부열 장로	회 계 : 류주영 장로 감 사 : 석기호 장로 감 사 : 조경화 장로
9대	2018	회 장 : 임운식 장로 수석부회장 : 강철주 장로	사 무 국 장 : 석기호 장로 사무부국장 : 유영춘 장로 서 기 : 김지영 안수집사	회 계 : 한정호 장로 감 사 : 백부열 장로 감 사 : 류주영 장로
10대	2019	회 장 : 조정일 장로 수석부회장 : 석광훈 장로	사 무 국 장 : 백부열 장로 사무부국장 : 한택수 장로 서 기 : 이세형 장로	회 계 : 한정호 장로 감 사 : 류주영 장로 감 사 : 김지영 안집
11대	2020	회 장 : 석광훈 장로 수석부회장 : 남준섭 장로	사 무 국 장 : 조경화 장로 사무부국장 : 이세형 장로 서 기 : 한택수 장로	회 계 : 김경갑 장로 감 사 : 김지영 안집 감 사 : 김귀선 권사
13대	2021	회 장 : 남준섭 장로 수석부회장 : 조경화 장로	사 무 국 장 : 진상용 장로 사무부국장 : 김지영 안수집사 서 기 : 장명주 장로	회 계 : 홍순신 장로 감 사 : 김귀선 권사 감 사 : 김경갑 장로
14대	2022	회 장 : 조경화 장로 수석부회장 : 한정호 장로	사 무 국 장 : 윤순규 장로 사무부국장 : 함몽인 장로 서 기 : 강경구 안수집사	회 계 : 장명주 장로 감 사 : 김경갑 장로 감 사 : 홍순신 장로

3절 춘천홀리클럽의 주요활동

1. 춘천성시화를 위한 정기 기도회

춘천홀리클럽의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는 1970년대 평신도 성경 단체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회원 소속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오전 6시 30분 춘천지역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

여 나라와 민족, 춘천성시화, 가정과 직장,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조찬을 나눈다.

2. 창립 감사 특별집회 개최

창립 때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창립기념일에 특별집회를 개최하였다. 주로 복음 전파와 평신도의 영성회복을 주제로 국내의 저명인사와 목회자를 초청하여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심령부흥회(2006년~2011년)를 개최하다가 2012년부터는 당일 특별집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심령부흥회 개최 때에는 작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초청하기 어려운 조용기, 장경동, 김홍도, 김삼환, 오정현 목사 등을 초청하여 많은 성도가 함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3. 지역사회 섬김 활동

1)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2008년 이후)

회원들이 춘천 해비타트와 협조로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에 해마다 참석하여 망치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못을 박는 등 실제 집짓기 노력 봉사를 하였다.




춘천 해비타트 현장에서 춘천홀리클럽 1일 자원봉사(2009년 8월 9일)

2)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초청 성탄 축하의 밤 개최(2009년)

춘천시다문화센터의 협조로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춘천에 거주하는 새터민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후 다과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선물 증정을 하며, 이분들에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3) 춘천월드레저총회 “사랑의 봉사단” 운영(2010년)

제11회 춘천월드레저총회(국내 2,700명, 해외 450명 참가)에 춘천홀리클럽 부스를 만들어 통역 서비스, 참가자 안내 및 섬김 등의 봉사를 하였다.

4) 춘천 중고교 기독동아리 활동 우수학생 표창(2011년 이후)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하여 춘천 시내 중고교의 기독동아리 활동 우수학생에게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는 일을 22년째 하고 있다.

5) 기아체험 및 걷기 대회(월드비전 강원지부와 공동 주최)/2012년

홀리클럽 회원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를 위하여 걷기대회를 하고 모인 성금을 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6) 미자립교회와 인근 주민 섬김

춘천의 미자립교회 성도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술 봉사, 치과 진료, 이·미용 봉사, 영정 사진 제작, 노력 봉사 등을 하였다.

4. 홀리투어

신앙 선배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홀리투어를 매년 실시하였다.

홀리클럽 회원 명단(2022년 8월 현재)

◇ 분과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	위 원
예배위원회	김인수 장로	강철주 장로, 김규석 장로, 김규헌 장로, 김봉옥 장로, 김용헌 장로, 김준규 장로, 김지영 안수집사, 류현구 장로, 백승문 장로, 송제성 장로 이효진 장로, 임영일 장로, 전영목 권사, 최종인 장로, 한광호 장로, 허 천 장로, 허남헌 장로
선교위원회	백부열 장로	강창기 장로, 김석권 장로, 김종열 장로, 김철수 장로, 김현배 장로, 박한병 장로, 서종신 장로, 심의섭 장로, 이용규 장로, 이한준 장로, 임규현 장로, 임운식 장로, 정연기 장로, 정형만 장로, 최돈식 장로, 최승호 장로, 홍재기 권사
기획위원회	석기호 장로	김기기 장로, 김영관 장로, 김영식 장로, 김원호 권사, 김진선 권사, 김항기 장로, 박광운 장로, 이은균 장로, 박병철 장로, 서상훈 권사, 유영충 장로, 임승하 장로, 전은풍 장로, 최승기 장로, 한명수 장로, 한순수 장로, 허광운 장로
문화위원회	박은주 권사	김동한 장로, 김성옥 장로, 김영명 장로, 김춘화 권사, 박상운 장로, 박승택 장로, 박은서 장로, 윤창호 장로, 이기영 집사, 이창주 장로, 임창수 권사, 장준홍 장로, 정국환 장로, 조돈교 장로, 최 범 장로, 함몽인 장로
사회위원회	이봉수 장로	김규식 장로, 김부희 장로, 김승구 장로, 마철규 장로, 박경국 권사, 최봉현 집사, 이덕수 권사, 이준열 장로, 이판호 장로, 이희주 장로, 임춘조 안수집사, 정재인 장로 조은제 목사, 최상규 집사, 최성일 장로, 한택수 장로, 황병호 장로
교육위원회	진상용 장로	강홍구 장로, 고영헌 장로, 김용배 장로, 김용일 장로, 남궁연 장로, 남준섭 장로, 류재웅 권사, 류주영 장로, 민경욱 장로, 서대식 장로, 이세형 장로, 이영식 장로, 이종헌 장로, 장기영 장로, 조정일 장로, 최준호 장로
여성위원회	서은아 장로	기정희 선교사, 김경희 권사, 김귀선 권사, 김옥기 권사, 김옥름 권사, 김화숙 권사, 박복순 권사, 박정애 권사, 서지현 전도사, 유영란 권사, 이미자 집사, 이선형 전도사, 정은영 집사, 최선혜 권사, 최영희 권사
재정위원회	박명호 장로	김도영 장로, 김정호 장로, 김희철 집사, 석광훈 장로, 안태규 장로, 이경열 장로, 이영규 장로, 이재문 집사, 임희방 장로, 안치성 장로, 정수길 장로, 조돈산 장로, 허 봉 장로, 허민구 장로, 홍성운 장로, 홍세표 장로

제6장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1절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의 설립배경

초창기 경찰선교의 배경은 1957년도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전투경찰을 대상으로 몇 분의 목사들이 목사 자격으로 심방 형태로 경찰 전도 활동을 전개했으며, 경찰서 유치인들에게 전도하였다.

1957년 2월 경기도 부평(현재 인천시 부평)에 소재한 경찰대학(당시 경찰전문학교)에 당시 황성수 국회부의장(후에 목사 안수), 김치선 목사, 김상권 목사(당시 장로교총회 총무)가 방문 형식으로 교양 강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조신을 목사가 경찰대학에 일시 목회 활동을 하였고, 각 경찰서 유치인들을 방문 전도하였다. 그 후 5.16 이후 순수한 개인 자격과 소그룹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경찰 유치장을 중심한 유치인 비공식 전도사업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는 전국적인 조직은 없고 일선 경찰 책임자와 관계의 할애, 편의사항적 전도로서의 산발적이고,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다양한 방법이 전개되었다.

1965년 당시 내무부 차관 김득황 장로 등 경찰의 고위 간부와 일부 교계 인사들이 경찰 위촉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음 해 5월 21일 조동역·김창인·김형표·오승근·최중해·박창인·정인상·조향록·김영모·한재호·조기원·곽철영·윤성열·한기모·이재은·이문복·황대준·추병화 목사 등 18명이 당시 채언식 서울

특별시 경찰국장으로부터 경목으로 위촉을 받아 경목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양석봉 목사는 경북 경찰국에서, 기타 2명은 부평에서 활동하였다. 1966년 5월 26일 서울시 경목위원회가 창립, 사무실을 서울 충현교회에 두었고 1969년 6월 26일 내무부 장관 부령 경무 제130-11294호에 의하여 '경찰위촉 목사 운영 규정'이 발표되면서 경목실의 직제가 제정되었고, 경목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972년 3월 21일 국내 18개 교단 대표와 대한 경목 후원회 대표 1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경찰선교위원회 대표 1명, 서울시경 국장 등 21개 단체 대표가 모여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이하 교경협의회)가 조직되어 초대 회장에 이권찬 목사가 선출되었고, 이후로 교단의 후원을 받아 경찰선교가 본격화되었다.

4월부터 각 경찰서를 중심으로 교경협의회 지구회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7년부터는 교경협의회의 범위를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하여 전국 시도 경목실장회를 조직, 1978년 11월 3일 경찰 전도 위원을 위촉하여 경찰을 상대로 한 전도 활동을 추진하였다.

2절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의 주요활동



춘천교경협회의 정기총회 모습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는 1984년 5월, 초대 회장이던 송기창 목사(성암감리교회)와 2대 회장인 이만선 목사(영락성결교회)를 중심으로 차관식 목사(제일감리교회), 임택창 목사(석사감리교회), 정상교 목사(옥산포침례교회), 및 경목실장으로 20여 년간 헌신한 김



부활절 달걀 나누기 행사

유식 목사(한신장로교회)와 8명이 발기인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후 1984년 6월 6.25를 즈음해서 첫 군경 연합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원들과 춘천경찰서 임직원을 비롯하여 춘천에 소재한 2군단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춘천경찰서의 복음화와 춘천시의 치안을 위한 부흥회가 은혜롭게 개최되었다. 이후 매년 빠짐없이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끼쳤다.

당시까지는 교계 연합운동이 미미하던 차에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가 연합부흥회를 주도하여 춘천지역의 연합운동을 견인하였고, 시청 광장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는 일도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가 주도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경찰 복음화 사역이다. 부활절 달걀나누기 선교는 매년 부활주일 직전 수요일에 행하여지며 해마다 춘천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7장
기타 기관

1절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1. 개관

사단법인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3월 8일 창립되었으며 1968년 5월 8일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12월 2일 제53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를 드렸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지구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겨레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실현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의 복음화를 통한 정의와 진실의 정치, 사회를 구현
2. 기독선교봉사단체와 연대 및 협력으로 공동체 운동 전개를 통한 교회 갱신 및 일치 운동과 세계선교 활동 지원
3.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도회 및 실천
4. 해외 국가의 조찬기도회와의 협력 사역 및 재외 교포를 위한 선교 활동 지원

5.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와 섬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기도와 지원
6. 각호의 사역을 위한 홍보 (인터넷 포함) 및 출판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

2.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창립은 2003년 10월 6일에 춘천시 삼천동 소재한 베어스타운 관광호텔에서 8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회장에 허천 장로가 추대되었다.

- 역대 회장 : 허천, 이영규, 황병호
- 회　　장 : 석광훈
- 지역회장 :
  - 춘천시 : 남준섭 – 원주시 : 함선호 – 강릉시 : 김철중 – 속초시 : 김준곤
  - 동해시 : 오원일 – 삼척시 : 지한수 – 태백시 : 방문택 – 홍천군 : 양태호
  - 횡성군 : 정병무 – 영월군 : 김윤섭 – 평창군 : 민두식 – 정선군 : 이왕균
  - 철원군 : 전봉열 – 화천군 : 박순종 – 양구군 : 조인묵 – 인제군 : 장영호
  - 고성군 : 김상환 – 양양군 : 박상민
- 부 회 장 : 김광남(고성), 김경태(인제), 김명성(원주), 김인수(춘천), 김진광(동해), 김정호(춘천), 김철수(춘천), 박병철(춘천), 백승렬(평창), 백철기(강릉), 심의섭(춘천), 유왕재(속초), 윤병배(태백), 윤영기(화천), 이석준(영월), 이양로(횡성), 이철희(원주), 임세동(평창), 임정식(속초), 전성표(정선), 정상숙(횡성), 지영순(양구), 허선영(홍천), 홍성훈(동해), 황영호(강릉)
- 이　　사 : 강성문(횡성), 김경희(영월), 구자열(태백), 김희선(원주), 남근성(동해), 노원국(정선), 박재혁(홍천), 민관식(춘천), 심영권(속초), 심우섭(춘천), 안창윤(강릉), 이상갑(속초), 이진수(평창), 이수남(속초), 정인수(원주), 최준호(춘천), 허　봉(춘천)
- 자문위원 : 강창기(춘천), 강철주(춘천), 김용배(춘천), 김영명(춘천), 김종열(춘천), 임운식(춘천), 이영태(평창)

● 분과위원

분 과	위 원 장	차 장	분 과	위 원 장	차 장
총 무	이정희	이호익	사 업	최성일	석기호
조 직	김항기	류주영	친 교	이영구	조종훈
홍 보	조경화	홍재기	사회봉사	최승기	함몽인
대외협력	이석빈	박용옥	문 화	김승덕	김옥기
국내선교	한택수	백승문	여 성	김병희	박은주
학원선교	윤용규	이종헌	청 년	송제성	진두현
의료선교	허민구	이종빈	국 제	이재춘	연병익
해외선교	한정호	유영충	재 정	이판호	임탑재
군 선 교	한승남	김태훈			

● 사무국 : 국장–최돈식, 차장–이세형

● 감　사 : 서은아(춘천), 윤종희(원주)

3. 주요사역

1) 연 1회 강원도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 일시 : 매년 9월 중



국가조찬기도회 모습(2018년 9월 8일 석사감리교회)

– 장소 : 강원 18개 지역별 권역별

2) 국가와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나눔

–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2절 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 모임

1. 개관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통일 선교 운동이 점차 가열되던 2004년 1월에 시작된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모임은 부흥한국과 사랑의교회 대학부가 연합하여서 모인 민족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었다. 한국교회는 2007년을 맞이하면서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행사를 많이 가졌다. 그런 가운데 그해의 6월 6일과 10월 3일에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쥬빌리 코리아' 대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열렸다. '이 쥬빌리 코리아'를 계기로 쥬빌리(희년) 정신이 통일 선교의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 운동'은 2008년 사역 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명칭을 '쥬빌리연합기도운동'으로 변경하였다.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2022년 7월 11일 주향교회)

운동의 정신을 공유한 기도 모임을 국내외에서 여럿 탄생시켰다. 이런 기도의 모임의 흐름은 2021년 3월 3일부터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라는 이름의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

쥬빌리란 히브리어 '요벨'을 영어로 음역한 것으로, 우리 말 희년에 해당한다. 희년은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실천할 수 없다.춘천은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지역 확산을 꾀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당시 춘천의 통일 나눔터를 중심으로 정재호 목사와 기도하던 분들이 만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미 고양과 파주에서 지역 쥬빌리가 발족한 상태였기에 휴전선 접경지역이자 유일한 '분단도'의 수부 도시인 춘천에서 지역 모임을 소망하던 서울 쥬빌리 임원들이 재차 춘천을 방문하여 교제하면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에 대한 정신을 자세한 소개를 받았다. 춘천에는 이미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해 오던 모임이 있었고, 통일에 관한 관심도 높은 지역이었기에, 이 모임이 밑거름되어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춘천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를 2011년 12월 15일에 발족하게 되었다.

2. 임원 및 주요 활동

1) 임원

춘천 쥬빌리 대표는 이병철 목사가 섬기고 운영위원으로 김원중 목사(춘천우리교회), 최상도 목사(사암교회), 홍요셉 목사(예사랑교회), 이상철 목사(늘찬양교회), 백광일 목사(사우동교회)가 섬기고 있다.

2) 주요 활동

(1) 정기 기도 모임

매월 둘째 주 주일이 지나 월요일 저녁 7:30에 주향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 대표 기도는 홀리클럽 장로님들이 주로 돌아가면서 하고, 사회나 기도 인도를 지역의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2) 12시간 기도회

12월에 설립된 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매년 12월이 되면 매해 주년을 기념하면서 12시간 기도회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 왔다. 일반적으로 네 팀의 찬양팀과 4명의 강사가 섬기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3) 통일 콘퍼런스

비정기적으로 춘천 지역 교회 대상으로 통일 콘퍼런스를 감당해 왔다.

(4) 탈북민을 위한 잔치

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통일광장기도회와 함께 탈북민을 위한 성탄 잔치를 마련하기도 하고, 설이나 추석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다.

(5) 하나원 도시체험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들의 교육 중에서 도시체험을 하는 과정에 춘천에 교회들이 이를 후원한다. 이때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회원들도 함께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동행하며 섬기기도 하며 섬김의 시간을 갖는다.

3절 통일광장기도회 춘천 모임

1. 개관

통일광장기도회는 2011년 10월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정의연대, 서울 기독 청년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조이어스선교회, 통일소망선교회 등 5

개 기독·시민 단체가 '통일광장기도연합'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기도회는 사회자 없이 기도 위주로 진행되었다.

당시 광우병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와 성도가 광장과 거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광장 기도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통일광장기도회는 이 같은 김준곤 목사의 당부에 따라 2011년 10월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첫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이후 각 도시의 광장으로 퍼져나가,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통일광장기도회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48개 주요 도시, 그리고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일본, 이스라엘, 미국, 콜롬비아 등 7개국에서 열리고 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국민일보가 수여하는 '2021 국민미션 어워드'를 수상했다. 지난 10년간 매주 월요일 저녁에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기도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튜브 생방송으로 혹은 실내에서 진행 중이다. 이 기도회는 독일 통일 과정에 있었던 월요기도 모임을 모델로 하고 있다. 1981년 당시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된 평화를 기원하는 월요기도 모임은 9년간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초석이 됐다.

2.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는 2012년 겨울, 당시 거성침례교회를 담임하던 김수복 목사를 비롯하여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뜻을 같이하는 성도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8시에 남춘천역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쉬지 않고, 통일되는 그 날까지' 통일광장기도회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한 춘천통일광장기도회는 2014년부터는 공지천 석사교 공연장으로 장소를 바꾸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22년 7월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2020년 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광장에서 기도회를 못 하고 실내에서 하다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5월부터는 다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

후 7시 30분에 공지천 석사교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4부 합창의 찬양, 말씀, 기도로 이어가고 있다.

제 5 편

춘천기독교120년사

춘천의 선교단체 및 협의회 활동









제1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216

제2장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222

제3장 춘천운전기사선교회 227

제4장 베드로선교문화센터 231

제5장 청년 대학생 전도를 위한 선교회 236
1절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춘천지구 236
2절 예수제자운동(JDM) 춘천지부 244
3절 예수전도단(YWAM) 춘천지부 250
4절 한국기독학생회(IVF) 강원지방회 254
5절 기독대학인회(ESF) 춘천지구 261

제6장 한국 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264

제7장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268

제8장 청소년선교단체 예스컴 275

제9장 광염회 281

제10장 효신고등공민학교 286

제11장 기타 선교단체 및 문화예술체육 사역 289
1절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 289
2절 사랑의 메아리 295
3절 예수마을선교공동체 298
4절 백합공동체 300
5절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304
6절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307
7절 강원기독문인회 310
8절 CCF 목회자회 312
9절 한아름 선교회 316
10절 문화예술체육 선교단체 317
11절 춘천소년원 327

제1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1절 개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민족·인류 복음화를 목표로,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고후 6:16) 이끌자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한국교회 재부흥과 다음 세대 청년 전도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하고자 1972년 5월 29일 설립되었다(설립자 : 한경직 목사, 대표자 : 김삼환 목사).

지상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바른 신앙으로 강군과 모범 국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초교파 범교회 조직의 한국교회 군선교 전문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선교", 곧 생명력 있는 선교를 실천하는 '공익 사단 법인 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의 결실을 맺고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하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인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군인교회,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와 함께 군인교회당 건축, 장병전도 및 진중 세례 · 침례, 군인신자 결연 및 양육, 각종 교육 전도프로그램 등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뜻 깊은 후원과 기도 속에 소중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군선교 사역은 1970년대의 전군 신자화 운동(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성장의 밀알이 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제2차 진중세례운동을 통

해 한국교회 재도약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육·해·공군 본부교회를 건축하고, 육군훈련소 세례식 교단 후원 사업을 하는 등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2000년대부터는 민족복음화와 비전2030실천운동을 통해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주도하며, 한국교회 다 · 미 · 차를 향한 재부흥의 원천으로 자리하며, 한국교회 5대 연합사역 실천을 계속하고 있다.

2절 강원지회의 역사

강원지회는 2002년 3월 11일, 전국 16개 지회 중 11번째로 창립되었다(이사장 김창수 목사, 지회장 박상호 목사, 총무 박태원 목사). 역대 임원으로 이사장으로는 김창수 목사(2003~2005년), 김주환 목사(2006~2013년), 원종국 목사(2014~2015년), 이수형 목사(2016~2022년 현재), 지회장으로는 박상호 목사(2003~2005년), 박인관 목사(2006년), 원기배 목사(2007~2013년), 이수형 목사(2014~2015년), 박상칠 목사(2016~2021년), 총무로는 박태원 목사(2003~2013년), 박상칠 목사(2014~2015년), 박용배 목사(2016년, 2018~2019년), 조남원 목사(2017년), 윤기덕 목사(2020~2021년)가 헌신하였다.

2022년 현재는 이사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와 지회장 이용호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를 필두로 춘천·화천 지역 교회 내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군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가 비전2030 실천운동을 선포하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께” 이끌자는 비전2030실천운동을 선포한 가운데, MEAK 산하기관인 군선교연합회강원지회(군선교강원지회) 역시 이러한 비전에 호응하여 전도-세례/양육-결연으로 이어지는 선교적 선순환을 통한 실제적인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3절 주요 사역

1. 군부대 사역 관리 및 지원

강원지회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군부대들은 춘천, 화천에 자리한 2군단과 예하 사단인 7사단, 15사단, 27사단 내의 교회들로 총 75개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현역 군목들이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교회들을 다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선교 사역에 지원한 후 MEAK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42명의 '민간목회자'들이 "군선교사역자"로 위촉을 받아서 나머지 부대교회들을 맡는다. 부대 사정에 따라 1인 1교회로, 1인 2~3교회를 섬기는 "민간군선교사역자"들이 있으며, 군선교강원지회는 이런 군선교사역자들과 2군단 교회들의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2. 군선교 주요활동

1) 부활절계란 나누기 및 사랑의 온차 전달식

강원지회가 매해 마다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군부대지원 군선교 행사로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 부활절 계란 나누기"와 "사랑의 온차 전달"이 대표적이다. 부활절 계란나누기 행사는 매해 부활주일 직전 금요일에 행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1~2만여 개의 계란을 부대교회들에 전달해주고 있는데, 350판의 맥반석 구운계란을 준비해 2군단과



2016년 3월 25일 '부활절 계란 나눔'(신성교회)



2019년 12월 24일 '사랑의 온차' 전달식(신성교회)

각 사단 교회들에 전달한다. 이 전달 행사는 지회장 교회(이용호 목사,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실시하며, 춘천지역 및 화천, 홍천의 여러 교회와 기관에서 후원하고 있다. "사랑의 온차 전달" 행사 또한 매해 성탄절 전 주 금요일에 행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40~60박스를 준비해 전달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24일, 신성감리교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11개의 교회와 기관의 후원, 그리고 합동총회(27사단 후원)와 중부지회(15사단 후원)의 지원이 더해져 총 143박스가 전달되었다.

2) 진중 세례식

해마다 연무대교회 및 각 사단 교회들을 방문해 진중세례식을 거행한다. 연무대교회의 경우 2022년 3월 현재, 진중세례식이 500회차를 넘어 600회차를 향하고 있으며 매회 마다 2~3천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사장 이수형 목사와 민간 군선교사역자들이 한 회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2군단 예하 3개 사단(7·15·27사단)교회들에서도 매달 2회씩 교회 및 기관들의 도움으로 용사 4,000명 이상에게 진중 세례를 베풀었는데, 춘천지역 교회들만 아니라 각 교단의 대표 교회들이 참여하여 지원 및 세례식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이 진중세례식에는 동참을 원하는 교회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은 수 많은 장병들을 보며 청년들을 향한 선교적 열정과 영혼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여 그 열기를 느껴보라고 권하고 싶다.

3) 다양한 전도행사

군선교 강원지회 소속 민간 군선교사역자들은 2군단과 예하 사단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전도행사와 문화행사와 세미나나 강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짜장면 선교회와 협력하여 2군단 예하 사단들에게 짜장면을 매개로 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군선교강원지회 감사 최남식 목사, 화천명성교회), 군사령관과 협력하여 힐링캠프장을 만들거나, 사단별로 "힐링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한다.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시무)의 후원을 받아서 CGV 한 관을 대관하여 장병들에게 "루터"나 "부활"과 같은 기독교 영화 등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려는 전도행사의 일환이다.

4) 지역교회와의 자매결연

군부대 교회와 지역교회와의 자매결연 및 거점교회 확보를 통한 군선교 활성화를 추구하며, 강원지회는 오래전부터 2군단 예하 부대 교회들과 춘천, 화천 지역교회들과의 자매결연을 시도하여 진행 중에 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경제적 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들이 군부대 교회들과 교류를 통해 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있다. 지역교회들이 경제적 후원 개념으로 이해하고 부담을 느껴 자매결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득 및 이해가 동반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 비전2030 실천운동

비전2030 실천운동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6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표어를 들고 군인교회와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입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세례(침례), 양육, 파송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 청년선교와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하는 한국기독교 및 민 · 군 연합선교이자 청년 부흥 운동이다.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으로 매년 군인신자 10만 명의 결실을 맺는데, 이들을 일반 '군선교 결연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10만 명의 청년성도를 한국교회로 파송하여 군·민족·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모범 국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랑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다.

6) 향후 사역 방향

강원지회는 다양한 선교적 노력들을 통해 60만 장병들, 특히 춘천, 화천 지역 내의 군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지역과 2군단 지역 부대 교회들을 섬겨오고 있으며, 지역교회들의 동참과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군 선교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춘천의 많은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현재 춘천, 화천 지역 내 300~400여 교회 중에 실제적으로 군 선교사역에 동참하거나 협력하는 교회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정기 후원교회는 9교회가 전부이고, 여기에 주요 행사 때마다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을 합하면 총 15개 교회 정도가 이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기독교 세력인 무신론과 타락한 시대적 정신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청년 복음화를 위해 예비하신 60만 장병들이 모여 있는 이 황금 어장을 위해 함께 헌신하여 섬길 교회들의 동참이 시급한 시점이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의 심정으로 군선교 현장에 함께 설 협력교회와 귀한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100만 장병이 한국교회로 돌아가는 데에 군선교 강원지회가 충성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제2장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1절 개관

직장선교운동은 직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확고한 직업관을 가지고 저마다 일터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운동이다. 또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히 행함으로 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직장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1990년 조직되었으며, 산하에 40여 개의 선교회(신우회)를 두고 있다. 정오예배를 비롯해 선교대회, 찬양축제, 전도운동 등을 통해 춘천의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2절 주요 역사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상기 목표를 위하여 한국은행, 한국전력, 전화국 소속 직장인들이 주축이 되어 1989년 10월 10일 연합선교를 할 것을 기도하면서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몇 번의 모임과 기도, 노방전도를 거쳐 신일상호금고, 강



제1회 강원기독공직자 선교대회(2017년 2월 25일)

원은행, 농협도지회 등의 직장인들이 합류하여 1990년 4월 17일, 동부장로교회에서 설립되었다. 직장 내 선교활동과 소속 선교회(신우회) 회원들이 직장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신앙운동이 주를 이루며, 정오예배, 선교대회, 봉사활동 등의 정기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기념할만한 역사적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주요 창립기념 연도에 기념예배과 정기 총회가 진행되었고, 1996년 6월 27일에는 찬양경연대회를 열었으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결성에 동참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전국선교예술제에 춘천직장 연합성가대(지휘 김철수 장로)로 참여하여 3위를 수상했으며, 2001년 10월 18일에는 제1회 열린찬양축제를 개최하였다.

2017년 2월 25일에는 춘천직장선교연합회 공동으로 강원기독공직자 연합선교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7일에는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산하의 춘천직장선교대학을 열어 직장복음화에 헌신할 지도자와 사역자 육성에 힘쓰기도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에도 월 1회의 모임이 지속되었으나 10월부터는 정부의 방역강화조치 등으로 현재(2022년 3월)까지 정오예배가 중단되었다.

3절 주요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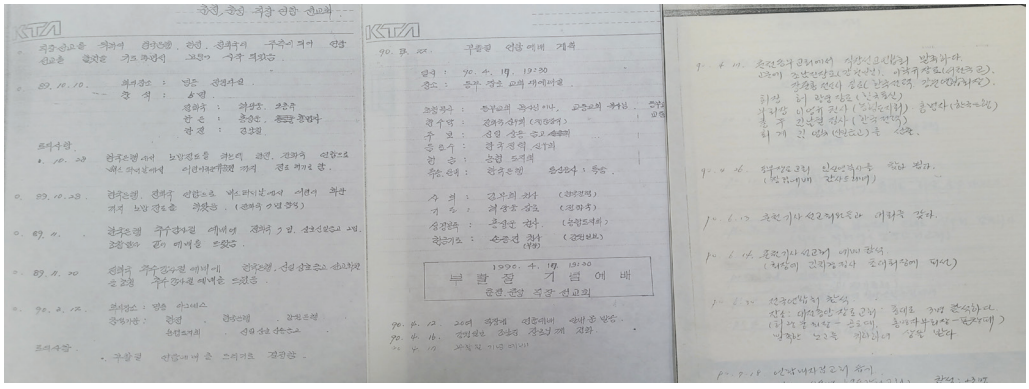
춘천직장선교연합회는 매월 1회 정오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또한 연 1회 이상 직장선교연합회 주관으로 후원기금모금, 연탄봉사, 김장행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의 연합으로 선교대회 및 찬양축제에도 참여하거나 직접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연 1회 이상 연합회 임원의 리더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에 소속되어 직장선교대학에 참여하기도 한다.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경건의 훈련, 사역기술의 훈련, 지도력개발 훈련 등을 통해 직장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전도와 양육을 통해 실제적인 직장 복음화를 생활화하도록 독려하며,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회원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다.

4절 역대 회장 및 회원 선교회

초대회장으로 허광웅 장로(1990~1991년), 2대 조충환 장로(1992~1993년), 3대 김남철 장로(1994~1995년), 4대 백기만 장로(1996년), 5대 조정일 장로(1997년), 6대 김영명 안수집사(1998년), 7대 이영규 장로(1999년), 8대 김용배 장로(2000년), 9대 민병업 장로(2001년), 10대 박상운 장로(2002년), 11대 민경욱 장로(2003년), 12대 김철수 장로(2004년), 13대 최형선 장로(2005년), 14대 김용일 장로(2006년), 15대 진상용 장로(2007년), 16대 양봉남 장로(2008년), 17대 김영래 장로(2009년), 18대 김동한 장로(2010~2011년), 19대 장기영 장로(2012년), 20대 김지현 권사(2013년), 21대 정학수 장로(2014년), 22대 박무영 장로(2015년), 23대 이인균 장로(2016년), 24대 윤창호 장로(2017년), 25대 김희두 권사(2018~2019년), 25대 정기선 장로(2020년~현)가 섬겨오고 있다.

소속 단위 선교회로는 한국통신선교회, 한국전력선교회, 강원도경찰청선교회, 강원대학교선교회, 강원도교육청선교회, 춘천우체국선교회, 한림대학교선교회, 운전기사선교회, 강원도청선교회, 춘천시청선교회, 강원일보선교회, 월드비전선교회, 강원농협선교회, 춘천Y신협선교회, 앤투어여행사선교회, 유니베라선교회, 살림에너지선교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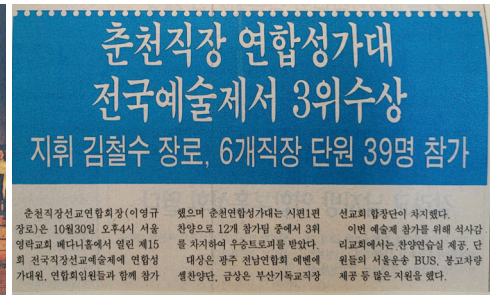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창립 일지(1989년 11월 10일~1990년 4월 17일)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보(제2호,1996년 9월 19일자)







춘천직장 연합성가대
전국예술제서 3위수상
지휘 김철수 장로, 6개직장 단원 39명 참가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이영규 장로)은 10월30일 오후4시 서울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직장선교예술제에 연합성가대원, 연합회임원들과 함께 참가했으며 춘천연합성가대는 시편1편 찬양으로 12개 참가팀 중에서 3위를 차지하여 우승트로피를 받았다.
대상은 광주 전남연합회 에벧에셀찬양단, 금상은 부산기독교직장선교회 합창단이 차지했다.
이번 예술제 참가를 위해 식사감리교회에서는 찬양연습실 제공, 단원들의 서울운송 BUS, 봉고차량 제공 등 많은 지원을 했다.

전국선교예술제 3위 수상(1999년 10월 3일, 지휘 : 김철수 장로)



봉사활동(연탄나눔, 2019년 12월 7일, 회장 : 김희두 권사)



춘천직장인 정오예배 모습(2020년 6월 30일, 살림에너지주관, 사회 : 정기선 장로)

제3장
춘천운전기사선교회



운교동 춘천순복음교회에서의 창립예배(1990년 2월 7일)

1절 개관

춘천운전기사선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각 지교회에서 파송된 택시선교사들의 신앙 공동체이다. '달리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자'는 표어를 가지고 뜻과 마음을 모아 1990년 2월 7일 춘천순복음교회에서 창립예배(초대회장 김치경 장로. 춘천중앙성결교회)를 드린 이래, 현재까지 달리는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는 물론, 교통봉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돕는 데에 힘쓰고 있다. 매월 2회(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는 월 1회) 휴조날에 회원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절 주요활동



신북 지내리 양지노인마을 어버이날 행사 모습
춘천댐 잔디구장(2011년 5월 4일)



장애인복지재단 추천 남이섬 관광(2008년 5월 16일)

춘천운전기사선교회의 회원들은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중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에서 30분까지도 손님을 만나게 된다. 좁은 공간에서 손님과 기사가 일대일로 만나는 동안 회원들이 준비한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끔 전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오랜 시간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만큼, 선교와 전도에 택시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택시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교통정리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장소의 교통정리를 도우며 기독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복지 시설의 계신 분들을 위해 목욕서비스, 시설 청소 등을 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은 야외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며 공연과 식사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휠체어를 밀며 말동무가 되어 주변을 산책하거나,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한다. 어버이날 행사에



신북 지내리 참사랑의 집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나들이 행사(2019년 10월 23일)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다시 만나기를 기다려주시고 반가워해 주신다. 버스를 대절하여 장애를 가진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관광도 하고, 일대일로 밀착하여 소통하고 하루를 보내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소소하게는 바깥 활동이 어려운 분들과 영화관에 함께 가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독거노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나누기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매월 한 번씩 개인이나 단체, 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중보하고, 후원도 나누고 있다. 매년 13가정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8가정과 연결되어 도움을 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후원금은 약 2억 원에 달한다. 이 모금은 "사랑의 손길"이라 칭하고, 회원들의 택시 앞쪽에 모금함(껌통)을 장착하여 손님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있으며, 회원들이 모금을 더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예전과 달리 줄어든 재정으로 인해 인원지원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운전기사선교회를 통한 사역에 항상 감사하며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절 임원 및 조직

(사)한국운전기사연합회는 전국 65개 선교회지부에 3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강원연합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로 되어있다. (사)춘천운전기사선교회는 40여 명의 회원에 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역대회장으로는 신승석 장로(북춘천장로교회. 4년), 박무영 장로(제일감리교회. 16년)가 섬겼고, 현재는 김학열 장로(중앙감리교회. 1년)가 선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지도 목사로는 제일감리교회 이용호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운전기사연합회는 구성원들 간의 멤버십 도모를 위해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전국연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하고, 강원연합 역시 1년 한 번 지역을 순회하며 연합예배와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제4장
베드로선교문화센터



베드로선교문화센터 모습

1절 개관

베드로선교문화센터는 기독교 선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류에게 참다운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인재)과 좋은 협력의 장을 이루어, 아름다운 지구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지역에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류, 그리고 교육과 지식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며 이런 일을 하는 단체나 개인과 협력한다.

특별히 협력의 장을 이루는 것을 주요한 특성으로 둔다. 어떤 활동을 직접 행하기보다는 각 분야의 인재와 그 활동을 연결, 동원하고 활성화하여 지역과 세계에 분배, 보급하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소개, 교통, 연결하면서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격려, 촉진하며 저해요소를 발굴, 제거하며 기도한다.

2절 주요 역사

1986년 3월, 조은제 집사가 춘천시 운교동에 베드로정형외과를 개원하면서 그의 부모(조진도 장로, 김정순 권사)가 십여 년간 해오던 20여 개 미자립교회 지원사업을 이어받아 대를 이어 병원의 수익금으로 선교사, 선교단체, 미자립교회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1987년 12월 조은제(베드로정형외과 원장)·기정희(춘천도립병원 신경정신의학과 과장) 부부 외 1명이 선교지·선교사 탐방(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에 자비 여행 및 선교헌금)을 하고 선교지 방문, 선교사 후원 및 구제 협력사업을 위해 Asia Mission Fund (AMF. 아시아선교기금)을 설립하였다. AMF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산하단체로 등록하여 선교사, 선교단체, 미자립교회 재정지원을 합법적으로 활발히 수행했다.

1988년 1월, 제2차 아시아선교여행(태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등)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3~4회 선교여행 기획, 참가 및 지원(황성주, 허기동, 정익모, 정은경 외 약 20명은 현재까지 선교사역 중이며, 선교계의 지도자들이 되었음)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조은제·기정희 부부가 각자 병원에서 진료 하면서 매년 3~5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등 선교지에 팀을 구성, 훈련하고 방문, 선교사와 협력하여 의료사역과 문화예술공연, 그리고 노방전도를 18년간 100여 회나 계속했다.

1991년 춘천시 효자동 312-1 현재 위치에 베드로선교센터를 건축하여 병원과 함께 운영하게 되었고, 1994년 3월 무료 유아교육기관인 베드로어린이선교원을 개원하여 교사 3~4명과 2013년 2월까지 만 19년간 약 1,500명의 어린이들을 매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운영했다.

2001년 9월에는 순회선교단의 도움을 받아 선교세계관학교를 시작했다. 청년

과 성인의 선교사역자 동원 교육 파송을 지향하는 학교로서 12주 과정으로 이후 매년 봄과 가을에 개강하여 춘천에서 약 1,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선교 헌신자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06년 9월에는 AMF일본사회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 8일, 마침내 사단법인 베드로선교문화센타가 창립되었다. 발기인 대표로는 조은제, 총무이사로 민경원, 일반이사로 김남현, 기정희, 이수란이 선출되었고 감사로 김기섭과 서병옥이 세워졌다. 기타 정회원으로 김화숙, 김애영, 김문숙, 이병연, 이미자, 엄경태, 한진희, 이강진이 회비를 출연하였고 일반회원 120여 명이 동참했으며 2007년 1월에 발기가 허가되어 법인으로 등록되었다.

3절 기본 사역의 방향

베드로선교문화센터는 3가지 기본 사역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재의 개발과 동원, 협력 파송 등을 위하여 유효한 장소를 국내외 주요 지역에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계기독교 공동체운동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을 도입 혹은 개발하고 운영 혹은 보급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기타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동원하여 교류, 배치, 파송,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방향을 가지고 베드로선교센터 빌딩과 베드로어린이선교원, 선교세



시니어선교훈련원 수료예배 모습

계관학교를 직접 운영하였다. 베드로선교센터 빌딩은 본부로서 목적에 맞추어 공연, 교육, 교제, 훈련 사역과 선교사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운용, 관리되고 있고, 베드로어린이선교원은 춘천시와 인근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교와 교육 등의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왔다. 1994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9년간 활발히 사역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다. 선교세계관학교는 시민을 세계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해왔다. 12주 과정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0기수를 배출했고, 이후에는 조은제 대표가 21세기시니어선교회의 시니어선교훈련원 훈련원장을 맡으면서 선교훈련원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베드로선교문화센터의 사역은 그 사역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독교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학술을 협력하고 지원하며 자조를 위해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등의 장소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및 학술활동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절 진행하는 사역들

2022년 현재, 베드로선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은 느헤미야국가기도회(매주 화요일 저녁), 통일광장기도회(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 저녁), 남북연합교회(탈북민 중심), 진료 봉사, 이스라엘기도회(매주 토요일 아침), 하이교회(청소년), 베드로병원 병동예배(매주일 오전 9시, 10시), 병동성경공부, 입원환자소그룹성경공부, 병원외래 아침기도회, 새해맞이 봉의산정상기도회, 선교사게스하우스 등이 있다. 또한, 함께 하는 단체들로 21세기시니어선교회 시니어선교훈련원, 에스더기도운동, 인터콥선교회, 어린이전도협회 등이 있다.

5절 향후 사역 방향 및 배출 인물

오랜 역사에 걸쳐 세계선교에 관여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부분이자,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돈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선교 목적으로 세워졌을지라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활동과 몸집이 확대되어 유지 비용이 커지는데 정작 복음 활동이 미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베드로선교문화센터는 그동안 해오던 선교사역에 목적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는 세계선교에 문화라는 옷을 입혀, 문화의 핵심인 선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베드로선교센터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교제와 교육,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의 산실이 되는 목적으로 운영됐다. 이런 장(소)의 개념은 이제 일본, 필리핀, 인도 등 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선교문화센터가 협력하여 배출한 주요인물은 태국의 허기동 가족 선교사(강원대학교 재학 중 선교여행 후 헌신), 인도의 정은경, 이영길, 남병진, 이영열 가족 선교사, 헝가리의 최동수, 조평세 학생선교사, 방글라데시의 정익모, 박금란, 송정희, 방명숙 선교사, 네팔의 박점남 선교사, 국내의 국제 사랑의 봉사단 황성주 박사 등이 있다.



주태 한인선교회 가족 수련회 및 정기총회 모습

제5장
청년 대학생 전도를 위한 선교회

1절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춘천지구

1. 개관

한국대학생선교회(CCC)는 Campus Crusade for Christ의 약자로 캠퍼스·민족·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화 할 수 있도록 파송하여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 단체이다. 영어 이름은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으로 번역된다.

한국CCC는 1958년 김준곤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대표는 박성민 목사이며 서울 부암동에 본부를 두고 춘천을 비롯해 전국 41개 도시, 300여 개 대학에 전임간사를 파송하여 전도와 제자화 사역을 하고 있다. 캠퍼스에는 전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약 6,000만 명의 대학생이 있으며 이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담당하게 될 가장 강력한 미래의 지도자로 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CCC는 1971년 '민족복음화운동'을 선언하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표어 아래 민족복음

화 운동을 시작하였고 1974년 EXPLO74,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1995년 세계선교대회를 열었으며 새생명훈련원(NLTC), 변혁적리더십세미나(TLGS)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표　　어 : 오늘의 학원복음화는 내일의 민족복음화, 오늘의 민족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 3중 목적 : 전도(Win), 육성(Build), 파송(Send)
- 3중 헌신 : 주님께 헌신, 민족의 입체적 구원에의 헌신, 형제들에의 헌신
- 4대 절대 : 절대신앙, 절대헌신, 절대훈련, 절대행동
- 5대 강령 : 말씀, 기도, 전도, 사랑, 협심

2. 춘천CCC 개척 과정과 역대 대표·전임간사

춘천CCC는 1969년 9월 개척이 시작되었다. 당시 홍정길 간사(현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가 한림대 자리에 있던 성심여대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하며 개척활동을 시작하였다. 홍 간사는 당시 서울 청량리역에서 총알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해 주 1회 금, 토요일에 춘천을 찾아 학생들을 만나며 캠퍼스 개척 활동을 하였다.

1970년 3월에는 윤수길 간사(전 태국선교사)가 초대 간사로 부임해 같은 해 9월 12일 춘천중앙감리교회 교육관(현 춘천미술관)에서 춘천CCC 창립예배를 드렸다. 창립예배 후 강원도청 앞 건물에 회관을 마련하였다. 1972년 7~8월 춘천성시화운동 대전도 집회는 CCC가 중심이었으며 윤 간사는 실무 책임을 맡았다. 1972년 10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HCCC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1973년 2월에는 캠퍼스에서 CCC 훈련을 받고 파송 받은 순장(졸업생)들로 구성된 나사렛 모임이 시작돼 민족의 구석구석에서 제자화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윤수길 간사 이후 이만호 간사가 1973년 후반기에 잠시 대표간사로 섬겼으며 1974년에는 이상규 간사(전 CCC본부 국장)가 부임하면서 춘천CCC는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았다. 이 간사는 윤수길 간사에 이어 주 1회 지속적으로 지역 인사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하며 성시화운동의 불씨를 이어갔다. 성경공부 모임에는 조

남진 전 강원일보사장, 문선재 전 강원대총장, 이학규 전 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후 춘천CCC 대표간사는 조영상, 이갑용, 정경호, 이갑용, 안장렬, 이병연 간사로 이어졌다. 2022년 현재 이병연 간사가 대표간사로 섬기고 있으며 안진태, 임주혜, 임예진, 김예은 간사가 전임간사로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에서 사역하고 있다. 춘천CCC는 창립 후 53년 동안 대표간사와 전임간사, 협동간사를 포함하면 모두 100명이 넘는 간사들이 제자 양육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참조. 춘천CCC 역대 대표간사

구분	성명	재임기간
개척	홍정길	1969년 9 ~ 12월
1 대	윤수길	1970 ~ 1973년(전반기)
2 대	이만호	1973년(후반기)
3 대	이상규	1974 ~ 1978년 9월
4 대	조영상	1978년 10월 ~ 1983년
5 대	이갑용	1984 ~ 1999년 3월
6 대	정경호	1999년 4월 ~ 2004년
7 대	이갑용	2005 ~ 2015년
8 대	안장렬	2016 ~ 2021년
9 대	이병연	2022년 ~ 현재

●● 참조.춘천CCC 역대 전임간사.시대순

지정희, 장경란, 김경란, 김혜원, 이영주, 박월동, 길호재, 배순옥, 방인환, 황덕용, 안삼선, 박남석, 구은진, 원준철, 윤부현, 김철호, 이경준, 위소이, 김현아, 표옥연, 송운기, 박선웅, 황은경, 박신철, 윤춘선, 양상훈, 공종선, 안정임, 이용진, 장소영, 박동인, 한미혜, 김세나, 서은덕, 안진태, 장미선, 김유진, 김다정, 위성운, 권세희, 박관수, 임예진, 임주혜, 김예은

3. 쉼 없이 달려온 53년의 약사

1) 개척과 기틀 다진 1960~1970년대

창립 이후 캠퍼스·민족·세계복음화를 위한 기틀을 다져나갔다. 강원도 기독화 요원 훈련을 비롯해 강원도 일원을 순회하며 기초신앙훈련, 춘천성시화운동 대전도집회(1972년), 빌리그래함 초청 춘천전도집회, 제1회 강원대 학장 조찬기도회, 제1회 강원CCC 지도자 수련회, 춘천CCC편지(후에 '디베랴', '춘천CCC행전'으로 개칭) 제1호 발간, 동계 성서대학, 통일교 비판강연회, 춘천 학생복음화대회, 국제CCC 합창단 내춘 공연 등 개척 후 활발한 사역을 펼쳤다.

2) 도약과 회관건축의 1980~1990년대

제1회 강원대 예수축제, 제1회 강원도연합순장수련회, 제1회 강원도연합겨울금식수련회, 한림대 CCC동아리 등록, 제1회 강변전도제, 제1회 성구암송수련회, 제1회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성탄축제의 밤, 순(筍)라이프 창단 등 선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회관 착공예배(1992년 1월), 남북통일을 위한 강원지구 설악산 기도두레, 요한복음 성서대학, 소년원 전도집회, 하박국 성서대학, 회관 준공예배(1999년 11월) 등 회관을 건축하면서도 제자화 사역에 매진하였다.

3) 폭발적 영적성장의 2000~2010년대

춘천CCC 어린이집 개원(2000년 3월), 제1회 부모 초청 전도집회, 춘천 성시화 도시전도, 제1차 나사렛 가정행복세미나, 춘천CCC운영이사회 창립예배(2002년 1월), 춘천나사렛 원단금식수련회, 창조과학 세미나, 로마서 성서대학, 춘천나사렛 스마트 비전세미나를 열었다. 사도행전 성서대학, 문화선교 세미나, 교사 나사렛 세미나, 제1회 통일채플, 아프리카 잠비아 캠퍼스 개척, EXPLO 제주선교대회, 춘천CCC 창립 50주년 감사예배(2019년 10월) 등 영정 성장을 거듭하였다.

4)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2020년대

코로나19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였다.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선교(2020년 1월), 온라인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 태국·인도네시아 온라인 단기

선교(2022년 1월) 등 SNS, 화상회의 앱(줌)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사역을 펼쳤다. 이외에도 춘천CCC에서 훈련받고 파송 받은 수많은 나사렛 순장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간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장로·권사·집사와 같은 교회의 일꾼으로, 평생순장으로 국내 · 외 곳곳에서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

4. 회관 건축과 세계선교훈련센터

춘천CCC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 갈 주의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센터를 만들기 위해 회관을 건축하였다. 하나님이 회관건축에 대한 비전으로 학개서 1장 8절(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춘천CCC에 주시고 형제·자매들과 나사렛의 믿음과 헌신으로 건축하도록 하였다. 춘천CCC는 그동안 11차례 회관을 이전하며 사역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1988년 춘천시 후평동22-1 일대에 회관부지를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27일 회관부지 구입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어 1992년 1월 착공예배를, 1999년 11월 준공예배를 드렸다. 회관은 부지 168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연면적 553평 규모이다. 회관 설계는 강원대 CCC 지도교수였던 황재국 교수의 소개로 당시 경희대 부총장이던 조창환 장로가 맡았다. 춘천CCC 회관의 이름은 '춘천 크리스찬아카데미하우스'로 명명되었으며 건물 명패 글씨는 황재국 지도교수가 재능기부하였다.


춘천CCC회관

회관 건축 당시 이갑용 간사(현재 미국 거주)를 중심으로 춘천에서 사역한 간사들과 대학부 형제자매들, 나사렛 순장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였다. 건축위원장은 조은제, 이준택 장로가 차례로 맡았으며

유영식 장로는 건축위원으로 함께 하였다. 회관이 위치한 곳은 당시 배나무밭이었으며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등 춘천지역 4개 대학의 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춘천시내와 소양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선교훈련센터로 최적지였다.

회관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장의 벽돌을 쌓아갑시다'라는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대학생들은 물론 나사렛 순장들, 주위 후원자들의 정성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모아졌다.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간사들과 형제 · 자매들이 직접 등짐을 지고 6층까지 벽돌과 모래를 날랐으며 서툴지만 철근작업, 방수작업을 직접하는 등 소중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이어져 완공할 수 있었다.

춘천CCC 회관은 현재 캠퍼스와 민족, 세계를 가슴에 안고 나아갈 주의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계로부터 캠퍼스 · 민족 · 세계복음화센터, 춘천성시화센터, 기독교문화의 진원지, 제2의 두란노서원, 북방선교의 교두보 등으로 불리고 있다. 춘천CCC 회관은 형제 · 자매들과 나사렛의 믿음과 헌신의 증표이며 춘천CCC는 이러한 믿음과 헌신의 기초위에서 흘러왔고 또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

5. 캠퍼스·민족·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역 현장

춘천CCC는 정기채플을 비롯해 캠퍼스 라이프, 캠퍼스 순모임, 캠퍼스 기도 · 전도모임 등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성서대학, 기초신앙훈련(LTC), 순여행, 찬양채플, 친구초청채플, 통일채플, 사랑방, 거지순례전도(광야전도훈련), 여름수련회, 금식수련회, 순장수련회, 단기선교,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신앙훈련을 받고 있다.

1) 정기채플

매주 금요일 회관에서 정기채플을 갖고 있으며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등 춘천지역 4개 대학의 CCC 학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찬양, 메시지, 기도, 순모임 등으로 이어지는 채플은 캠퍼스 사역의 핵이고 중심이다.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2019년 6월 24일~28일)

2) 여름수련회, 금식수련회

여름수련회는 매년 방학 때 전국의 CCC 간사와 형제·자매 등 1만여 명이 모인다. 그동안 심천 미루나무섬·송호리·몽산포에서 천막여름수련회를 가졌으며 2000년부터 홍천 대명리조트, 횡성 성우리조트,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가졌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연말에 원단금식수련회를 갖는다. CCC수련회는 성령의 용광로, 기도의 용광로, 비전의 용광로이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 단기선교

1990년부터 매년 방학 기간에 세계 곳곳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2년에는 온라인 선교를 하였다.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언어연수와 타문화 적응훈련 그리고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자비량 선교 프로그램인 '스틴트(STINT)'와 한국형 기초선교훈련 프로그램인 '커넥션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4) 아가페 모임

1983년 한림대 의대 황성주 교수를 중심으로 한림대 의대생을 의료선교사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는 아가페 모임이 강원대 의대로 확대되었다. 황 교수 퇴직 후 전임간사가 아가페를 지도하고 있다. 매년 방학 때마다 간사와 한림대 병원 의료진, 국내 각급 병원 전문의로 활동하는 졸업생, 형제·자매들로 단기의료선교팀을 구성해 동남아시아와 국내 오지를 찾아 의료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5) 나사렛 모임

졸업한 순장들은 나사렛 모임에서 평생순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접사역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운동, 직능별 선교운동, 성시화운동, 중보기도운동을 담당하며 간접사역으로 기도와 재정 등 캠퍼스 사역을 후원하고 있다. 그동안 나사렛 회장으로 서정오, 이효진, 이길호, 서승목, 김남균, 신성균, 성시열, 조용호, 장기영 순장이 섬겼으며 현재 황혁수 순장이 맡고 있다.

6. 그리스도의 계절을 향한 새로운 100년

춘천CCC는 2022년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수많은 간사와 나사렛 순장들,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제 새로운 5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캠퍼스 사역은 물론 P2C사역을 통해 사회 각 영역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이병연 대표간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꿈을 잃어버린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연결해 주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는 것"이라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CCC 창립50주년 감사예배(2019년 10월 26일)

2절 예수제자운동(JDM) 춘천지부

1. 시작 및 개관



초창기 소그룹 모습

예수제자운동(JDM, Jesus Disciple Movement)은 1977년 12월 6일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운동"으로 춘천에서 시작되었다. 2022년 10월 현재까지 45년 동안 세계 복음화와 만인 제자화의 비전을 갖고 국내 17개 지구와 해외 3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대표는 창립자이기도 한 윤태호 목사이며, 본부는 춘천에 있다.

모임 초창기 구성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 넓고, 자유롭게 지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졌다. 처음 사무실을 얻은 곳은 춘천여고(현 시청부속건물) 앞 상가 2층이었다(1979년). 이어 요선동, 낙원동, 후평동 등으로 회관을 이전하였으며 해외 선교사역이 확장되자 선교훈련생을 위한 전문훈련원의 필요 따라 지은 곳



만천리 국제선교훈련원(IMTI)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천리 국제선교훈련원(IMTI)이다(1998년).

또한 국제선교훈련원(IMTI) 옆에 세계제자훈련원(WDTI)을 이어 건축하면서 이곳에서 한국제자훈련원(KDTI)과 국제선교훈련원(IMTI), 한국복음주의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제자훈련원(KDTI)은 매년 9개월 일정의 훈련으로 합숙하며 신학과 제자도, 현장훈련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선교훈련원(IMTI)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선교사후보생을 위한 선교사훈련 코스를 진행하고 있다.

신혼 방에서 시작된 예수 공동체의 기쁨으로 모이던 젊은이들 모임이 춘천의 청년들에서 전국과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 모임으로 확산되었다.

2. JDM의 명칭과 의미



1996년 대학여름집회

예수제자운동(JDM, Jesus Disciple Movement)은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를 닮고 배우자'는 운동이다. 이것은 '예수 제자가 되자는 운동이며, 예수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자'는 운동이다. 또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변혁적 제자운동이다.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예수가 이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

'예수제자운동'이란 명칭을 택한 것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활력과 헌신의 힘, 그리고 역량 있는 운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이며, 역동적이며, 비전성취 지향적이며, 재생산적인 활동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수제자운동'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충성하며, 제자 사역 삼는 사역을 계속하는 운동이다.

3. 캠퍼스 사역

"예수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이가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땅과 도시와 이국의 캠퍼스로 떠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이러한 상상은 JDM의 중심에 있다.

1885년을 전후로 이십 대의 청년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선교사들이 낯선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었다. 이들은 대학시절에 해외선교에 헌신하였고, 마음을 다해 조선 땅에 들어왔다. JDM은 이러한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캠퍼스 선교이다.

캠퍼스를 통해 젊은 제자들이 세워지며 세계 속에서 비전을 품고 제자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교운동이다. 이것은 캠퍼스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세계의 주역이 될 젊은이에게 열정과 확신을 가진 사역자가 미래의 젊은 제자에게 전부를 거는 사역이다. 또한 캠퍼스에서 제자로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캠퍼스에서 캠퍼스로, 도시에서 도시로, 국가에서 국가로 재생산, 재 파송되는 선교의 분기점을 만들고 있다.

4. 춘천 JDM의 주요 활동

1984년 강원대학교에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면서 예수제자운동(JDM)은 대학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기 시작했다. 주요사역은 소그룹 운동과 제자훈련이다. 먼저, JDM은 소그룹으로 시작되었고, 도시와 캠퍼스를 개척하는 일도 소그룹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모임'이라는 통칭을 사용하며 소그룹으로 모여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했으며, 소그룹을 통해 재생산 사역을 펼쳐갔다.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은 소그룹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표를 위시한 모든 사역자와 리더들은 반드시 소그룹을 개척하고, 운영하는 일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소그룹 사역 외에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채플은 물론,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디모데훈련학교(TTS), 지도자 훈련인 리더훈련을 비롯하여 해외비전트립, 제자행전(무전[無錢] 전도여행), 계절집회, 밤샘집회, 선교모임 등이 캠퍼스에서 벌이는 주요 활동이다.

5. 캠퍼스 부흥을 일으킨 인물들

JDM에는 캠퍼스 사역을 이끄는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간사로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르신 사역지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 현재 200여 명의 간사들 모두가 자랑스럽지만, 아래 두 인물은 JDM 정신을 잘 드러내는 사역자이기에 짧게 소개한다.

1) 캠퍼스 간사, 세계선교의 길목을 열다 – 윤종대 선교사

1988년 당시 강원대학교 졸업반 복학생이었던 윤종대는 자원하여 혼자 춘천교육대학교에 들어가 믿음의 씨를 뿌렸다. 그는 춘천교육대학교 캠퍼스의 예비교사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돕고 평생 제자의 삶을 살도록 힘썼다. 이것은 캠퍼스 학생리더가 자신의 학교가 아닌 다른 캠퍼스를 개척한 최초의 시도이고, 영적인 계보를 시작하는 원점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다음 해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사로 지원하여 춘천지구 대표간사로 사역하며 JDM 캠퍼스 사역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 올렸다.

윤종대 선교사는 1994년 간사 출신(당시 평신도) 최초 파송 선교사로 우즈베크 선교에 자원하였다. 추방의 위협을 느끼고 서둘러 귀국하게 된 2006년까지 그는 중앙아시아 대학생 사역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우즈베크 선교에서 디모데훈련, 간사훈련을 통해 수많은 캠퍼스 리더와 간사들을 배출하였고, 다른 국가 개척까지 일구어내는 제자들을 배출했다. 또한 첫 번째 안식년에는 귀국하여 계획한 대로 인천에 거주지를 정하고 신학 수업을 하며 인천지역 개척에 나섰다. 단순히 모임 몇 개가 아닌 인하대, 인하공전, 인천대, 가천길대를 개척하여 인천지구를 설립하고 경기지역 개척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2006년 현지 사역자에게 우즈베크 사역을 위임하고 추방 직전 철수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필리핀 클락 개척의 여정에 나섰다. 개척 이후 12년 만에 선교사 4가정, 현지 전임간사 7명, 협동간사 2명과 함께 동역하며 캠퍼스 사역은 물론, 교회 개척에도 매진하여 현재는 하양소망교회, JCF-예수공동체 교회, 산아우구스틴 MH, 티나제로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목양 일념의 필리핀 목회도 감당하고 있다.

2) 캠퍼스 간사, 도시를 휩쓸다 – 서관옥·방미정 선교사 부부

춘천지구 소속이었던 아내 방미정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간사가 되었고, 남편 서관옥은 평생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직을 버리고 젊은이 사역에 인생을 바쳤다. 결혼한 둘은 서울 한양대와 신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중국의 박OO 선교사, 베트남의 최OO 선교사가 그들의 제자이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이 배출해낸 제자는 대학노트 한 장에도 다 담지 못할 것이다.

서울지구에서 사역하던 부부는 1994년, 대한민국의 중앙부인 대전을 개척하라는 모임의 소명을 따라 대전으로 사역지를 옮겼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만나 전도하고 그들을 훈련하여 헌신으로 이끄는 일을 시작했다. 침신대를 거점으로 충남대와 주변의 여러 대학을 개척하고, 대전 지역을 넘어 공주와 청주와 천안까지 사역자들을 보내 사역의 터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넓혔다(사 54:2). 이어 충청권 젊은이들의 훈련 중심지로 사용하기 위해 4층 건물의 비전센터를 세웠다.

그들은 2006년에 새로운 개척지, 인도로 떠났다. 이미 마흔이 넘었지만 개척자 부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전도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훈련하는 제자운동을 계속했다. 그중 인도 현지 간사인 파이콤바 간사를 캠퍼스 사역자로 세웠다.

2017년 결국 인도 정부의 손에 추방당했다. 그러나 소명을 따라 다시 스리랑카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인도와 한 시간 거리에 진지를 구축하고 제자들을 불러내 다시 훈련하는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어갔으며 초신자를 제자로,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2019년 건강 문제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지만, 돌아와서도 멈추지 않고 국제유학생팀 사역을 시작해 현재 국내 캠퍼스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만나 그들을 다시 재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6. 성과와 전망

지난 45년 동안 JDM은 '개척과 도전'이라는 명제를 품고 사역했다.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복음만이 제시할 수 있기에 좌절하거나 멈

추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JDM은 더욱 복음을 정립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1) 말씀과 기도, 격려와 돌봄의 모델이 되는 삶을 훈련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높은 비율이 놀랍게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라는 보고가 나왔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닌, 잡다한 논쟁적 설법은 듣기 싫다는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2)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낸다. 계속 도전하고 개척하는 선교 지향적인 캠퍼스 운동을 펼쳐야 한다.

1914년에만 미국과 캐나다의 약 7백여 개의 대학에서 4만 명의 학생이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WEC/캠브리지의 7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찰스 스터드가 세운 단체에서 약 70명의 선교사를 카메룬에 보냈으며 그들 중 68명이 그곳에서 죽었다. 사역지에서 그들의 생존 기간은 고작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그들은 선교지로 가면서 자신의 관을 준비해 간다고 했다. 캠퍼스 선교도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해낼 수 있고, 미친 듯이 일해야 제자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한국 내 대학교 수는 344개이며 대학생 수는 3백만 명이다. 국민 16명 중 1명이 대학생인 셈이다. 그중 예수님을 믿는 학생은 겨우 10% 남짓한 약 34만 명



미션22 JDM캠퍼스세계선교대회 모습(2022년 7월 4~9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이다. 매년 대학에 들어오는 새내기들은 약 60만 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돌볼 목회자는 1,5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와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캠퍼스이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청춘을 담보하고 학문을 닦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대학이다. JDM은 그들이 대학시절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을 소유한 자로 키우려 한다. 단 한 명의 젊은이를 위해 말씀사역과 제자사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역과 인생의 최대 가치는 단 한 명의 젊은이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단체의 미래가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여야 한다." (윌버트 노턴).

3절 예수전도단(YWAM) 춘천지부

1. 개관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Korea)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다. 예수전도단(YWAM)은 한 평범한 젊은이 로렌 커닝햄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의 대륙을 덮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비전은 실제적으로 현실화되어 1960년에 YWAM(Youth With A Mission)이 창설되었다. 그 이후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처의 서로 다른 문화와 교파에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파송 받은 데이비드 로스

(David E Ross, 한국명 오대원)목사 부부가 1961년에 입국한다. 그 이후 서울 연희동 오대원 선교사 자택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화요중보기도모임의 시초가 되었고 1972년에 예수전도단이 창설되었다.

서로 다른 단체였던 두 단체는 YWAM의 전도여행팀이 1973년경에 한국에 들어와 전국 각지에 전도여행을 하였고 이후 영적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로렌커닝햄 목사와 오대원목사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0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YWAM리더 컨퍼런스에서 YWAM과 예수전도단의 연합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한국 책임자로 오대원목사가 임명되었다. YWAM은 훈련, 전도, 구제의 세 가지 사역 형태를 기반으로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만여 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활동하며, 한국에서는 2021년 9월 기준 전국의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약 500여 명의 전임간사, 500여 명의 협력간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550여 명의 파송 선교사가 부르심을 좇아 사역하고 있다.

> 예수전도단의 표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2.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약사

1980년 성시화 청소년집회(구 어린이회관)를 예수전도단이 인도하였다. 단기전도여행팀과 YWAM 홍콩 FEET(댄싱, 뮤지컬 등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 등이 춘천에 들어와서 찬양과 전도를 통해 춘천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최철만(현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 조영춘(전 예광침례교회 담임목사) 등의 청년 그룹이 성시화의 비전을 품게 되고, 도시를 성시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공동체를 홍천군 내면에 선교농장(현 홍천 DTS)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되었다.

1980년부터 매주 한 번씩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간사들이 춘천으로 내려와 중보기도모임(YMCA 강당; 현 팔호광장 주변)을 인도하였으며, 조은제 의사(목사)가

연결되어 후원자로 예수전도단을 섬겼다. 1987년 한림대에서 조용정, 김성화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캠퍼스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춘천지부 대학사역의 시작점이다. 1989년(또는 1990년) 예수전도단 모빌팀(찬양과 전도, 워십댄스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순회사역팀)이 춘천에 정착하여 사역을 시작했다. 초대 팀장으로 이광임(현 원삼성결교회 사모)이 섬겼으며 1991년 화요중보기도모임(도시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모임)을 춘일감리교회에서 시작하였으며 월 1~2회 지역 목회자들이 설교하였다.(조영춘 목사, 길동휘 목사 등) 1995년 모빌팀이 해체되고 춘천지부 개척팀으로 이영훈 간사가 초대 개척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의 약사는 아래와 같다.

1996년 YWAM의 설립자인 로렌커닝햄 목사를 초청하여 평화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2000년 김봉욱 간사(현 목사)가 2대 개척팀장으로 부임하다.

2001년 11월에 춘천지부 개척팀에서 춘천지부로 승인되었고 심일한 간사(현 예수전도단 파송 일본 선교사)가 초대 지부장으로 임명되다.

2004년 1기 BEDTS(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 : 주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학교)가 열리다. 1기 UDTS(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가 열리다.

2005년 11월 2대 지부장으로 김준환간사가 임명되다.

2006년 홍천 DTS 사역과 선교실 사역 등을 감당했던 김진만·이보경 간사 가정이 인도 비하르(GMP, 춘천 광염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998년부터 대학사역을 감당했던 유은영 간사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렘으로 파송하다(예수전도단 파송). 심일한 선교사 가정을 일본 가고시마(현 도쿄)로 파송하다(예수전도단 파송).

2008년 찬양사역에서 사역하던 이헌영 간사가 소천하다. '춘천지역을 위한 기도정보(중보기도를 위한 영적인 도해)'를 발간하다(주관 : 춘천 기독교 연합회, 후원 : 홀리클럽, 조사 및 발췌기관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2009년 로렌커닝햄 목사를 초청하여 석사감리교회에서 집회를 개최하다.

2011년 UDTS(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를 2012년까지 2년 연속으로 C국 C도시에서 현지의 대학생들과 춘천의 대학생들이 함께 훈련을 받다.



2013년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회복 캠페인'을 명동, 지하상가 일대에서 진행하다.

2017년 8월에 3대 지부장으로 권혁준 간사가 임명되다.

2018년 맘터사역(주부사역)을 시작하다.

2019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중보기도모임을 여성화요모임으로 개편하다. 기존 저녁시간에서 마지막 주는 오전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진행하다. 7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주향교회에서 YWAM 코나 열방대학(UofN) 책임자인 폴 칠더스를 초청하여 'Word By Heart' 세미나를 개최하다. 9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거성교회에서 천태석 목사(전 예수전도단 포항지부 대표간사)를 초청하여 '지역교회와 예수전도단이 함께 하는 말씀사경회' 첫 번째 시리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최하다.

2020년 1월과 2월 5주 동안 거성교회와 공동주관으로 '지역교회와 예수전도단이 함께 하는 세미나' 두 번째 시리즈 '기도학교'를 개최하다(코로나로 인한 4~5주차 중단되다).

2021년 3월 1일에 광장감리교회의 도움으로 현 사무실에 입주하다.

2022년 6월 말 현재 4명의 전임간사와 3명의 협력간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대학사역, 맘터(주부)사역, 찬양사역으로 춘천을 섬기고 있다.

4절 한국기독학생회(IVF) 강원지방회

1. 개관

한국기독학생회 IVF는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약자로 187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초교파 복음주의 학생운동 단체이다. 한국에서는 1953년부터 시작되어 1956년 국제조직 IFES에 가입하였다. 춘천지역은 'IVF 강원(춘천)지방회'라는 이름으로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육대, 한림성심대, 폴리텍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다.

2. 주요 역사와 활동

1) 개척시기(1969~1970년대 초)

IVF가 춘천에 뿌리내린 것은 1969년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IVF는 2월 10일부터 14일에 걸쳐 은평 수양관에서 제1회 동기수련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날에 당시 춘천농대(현 강원대학교) 축산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일헌을 제1호 학생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것이 IVF 운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최초로 전래 된 시작이었다.



춘천IVF 창립예배(1970년 3월)

1970년 당시에는 지방마다 주말 수련회를 겸한 창립예배를 드리고 학생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춘천지역은 춘천농대를 비롯하여 교육대와 간호대 그리

고 성심여대 등에서 15명, 서울에서 5명 그리고 김영철 총무와 춘천제일교회 박광옥 전도사 등 모두 22명이 교육관에 모여서 역사적인 춘천IVF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때 이기운 목사를 고문으로, 황병호(춘천농대 농화4)를 학생회 대표로, 그리고 권일헌(춘천농대 축산3)을 학생 선교사로 세워 춘천지역 개척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학생 선교사였던 권일헌은 졸업 후 춘천IVF 전임간사가 되어 계속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여 춘천지역은 물론 강릉과 원주와 삼척지역에까지 학원 복음화의 불길을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후일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으며 지금은 터키 선교사로서 계속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지방화 운동은 춘천에서 제일 먼저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권일헌 학생 선교사의 기도와 헌신과 피나는 노력으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였고 그들이 함께 전도함으로 회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권일헌 학생 선교사는 자신감을 얻었고 힘을 모아서 강원지역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 조직을 갖추기로 하였다. 이렇게 학생 선교사 파송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학원 복음화의 기틀을 잡게 된 것이 춘천지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 중심의 IVF운동도 변화의 움직이기 일어나기 시작한다. 1969년 6월에는 춘천과 서울이 최초로 협동 수련회를 열게 되었다. 장소와 강사도 서울이 아닌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9년 6월 7일 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던 주말 수련회가 바로 그것이다. 장소는 춘천 의암댐이 내려다보이는 삼악산 기도원으로 정하였고 또한 강사로 춘천에서 이기훈 목사와 김연호 목사 두 분을 모시고, 서울에서는 오형재 교수와 김영철 총무를 모셔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시간마다 사회와 기도 순서를 춘천과 서울의 형제 · 자매들이 같이 분담하였으며, 성경공부 인도나 조편성, 그리고 식사 당번까지도 분담하여 좋은 협동과 친교의 기회가 되었다.

2) 춘천회관 임대(1974년)

처음에는 장소가 없어서 춘천제일장로교회 교육관에서 모임을 했다.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성묵 목사(후에 IVF 이사회 고문으로 협력)와 박광옥 전도사의 배려로 모임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활동은 1971년도에 병원 노래대를 발

족하여 환우들을 위로하는 일에 이어 같은 해, 회관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제7회 전국 동기 성경대학(1973년)에는 춘천에서만 무려 35명이 참석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는 지방회로 성장했다.

마침내 1974년 8월 27일에 2층 건물(춘천시 효자2동 150-1번지, 19평)을 2년 전세(25만원)로 계약하여 독자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춘천의 형제 · 자매들이 10만원을 모금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서울의 형제자매들이 15만원을 모아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결과였다. 이것이 춘천지방회의 최초 회관이었다.

드디어 1974년 8월 28일, 역사적인 회관 입주예배를 드렸다. 춘천의 형제·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영철 총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이 회관을 근거지로 하여 춘천지방회의 활동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1979년도에는 남진선 간사가 2대 간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후평동(후평동 아파트 31동 401호)에 있는 13평형 아파트를 사무실로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가 8년 후인 1987년 9월 12일에 건축된 강원지방회의 현 회관의 모체가 된 것이다.

3) 춘천지역 사역의 확장(1976년)

강원대에서는 1970년도에 학생 선교사로 파송 받은 권일헌 학사가 전임간사로 헌신하여 1976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해 가을 황성수 이사장(전 국회부의장, 법학교수, 목사)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 결과 강원대 안에 큰 돌풍이 일어났다. 이로 말미암아 모임이 수적으로도 놀랍게 증가하였고 춘천교대에도 학원 복음화의 불씨가 옮겨붙게 되었다. 그리고 성심여대는 김병선 간사가 기차에서 만난 학생을 통하여 기숙사 안에 기도회가 생겼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학교에도 학원 복음화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춘천지역의 학원 복음화 사역은 다른 지역의 캠퍼스에서도 동역자를 찾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마침내 삼척공전을 개척하였다.

4) 강원지방회 이사회 출범(1981년)

1981년에는 지금까지 서울 이사회에 포함되어 사역을 하던 춘천지역이 강원지

방회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학원 사역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강원지방회 이사회의 출발은 IVF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는 첫 시발점이었다. 실제로 강원지방회로부터 강릉지역과 원주지역 사역이 개척되었으며, 마침내 강릉과 원주지방회 이사회가 별도로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회에는 독자적인 간사회가 세워졌고, 지방회 이사회는 간사회의 활동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방에서도 학원 복음화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지방회는 1981년 12월에 강원지방회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창립 이사회를 선출하였다. 이사회 고문에는 김성묵 목사(춘천제일교회)와 이치백 목사(춘천성광교회)가 추대되었으며, 창립 이사로 송융남(이사장), 전상기, 최병기, 권일헌, 김창영 목사, 조인형, 황병호, 김진현, 박영근, 이광조, 김동구, 이인숙 교수, 조남진, 이학규 장로 그리고 남진선 간사와 김상배, 최준택 학사가 각각 선임되었다. 이는 당시까지 서울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던 춘천지역이 한국IVF 최초로 독자적인 지방 이사회를 설립한 것으로 훗날 IVF가 중앙회-지방회 개념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변모하는 첫 시발점이 되었다.

5) 강릉·원주지역 개척(1980년대)

춘천지역은 강원지방회로 발전하며 재정적으로 독립하였고, 강원도 전역에 있는 대학에 간사를 파송하여서 캠퍼스 개척 사역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2년도에는 김종호 간사를 중심으로 강릉지역 학원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정춘섭 간사를 중심으로 원주지역의 대학을 개척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강원지방 이사회 덕분에 강릉지방회와 원주지방회(1992년 2월 15일 창립)의 이사회가 각각 조직되어 학원 복음화 사역이 놀랍게 발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대학이 밀집한 충남 천안에 간사를 파송하여 충남지방회 창립에 기여하였다. 강원지방회 안에 세 개의 이사회가 조직되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춘천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의 명칭을 '춘천지방회'로 바꾸었다.

6) 강원지방회 회관 건축(1987년)

강원지방회 이사회의 독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었다. 그 중 하나는 강원


건축 중인 강원IVF회관(1987년)

지방회가 전국에서 독자적인 회관을 마련한 첫 번째 지방회라는 점이다. 그것도 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사, 학사, 간사들과 학생들의 헌금으로 힘을 모아 회관을 건축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당시 중앙회는 비좁은 아파트 사무실에서 공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방회는 현대적인 사무 공간과 집회실까지 갖춘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1974년에 시작된 춘천지방회의 사역은 서울의 박혜숙 이사가 10만원,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5만원, 춘천의 형제·자매들이 10만원을 헌금하여 2층 19평의 공간에 25만원 전세로 사무실을 얻어 시작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춘천지방회는 1979년부터 강원 IV-House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여 1986년에 건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듬해 1987년 9월 12일, 역사적인 회관 입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것이 후평3동 824-3번지(현 복골길21)에 자리한 '아시아선교원'이다.

1987년 9월 12일 오후 1시, 황병호(강원대 교수) 이사장의 사회로 입주예배를 드렸다. 먼저 찬송 460장을 부른 후 송융남 이사의 기도와 특별 찬양, 전상기 목사의 말씀과 김득룡 목사의 축사, 조은제 이사의 경과보고와 헌금순서로 진행되었고 김영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약 6,500여만 원의 공사비가 모여져 건축이 이루어진 춘천지방회 회관 건축 공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역사였다.

7) 학생생활공동체 "상기관"과 사역의 확장

2000년 이후 강원지방회 사역에 큰 기여를 한 것은 학생생활공동체였다. 강원지방회는 2000년 이후의 학생 사역을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기금 KID(Kangwon Inter-Varsity Development Fund)를 발족하였다(1996년 11월 16일). 당



상기관 개관예배

시 기금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상기 이사(당시 화천교회 담임)는 가장 앞장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12평 아파트(후평동448 후평아파트 22동 506호)를 학생훈련시 기숙사 사용의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약속대로 1999년 6월 9일 당시 16,830,480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기증하였다. 이곳이 바로 "상기관"이다. 상기관이라 이름함은 무엇보다 기부자인 전상기 이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항상 기도하는(常祈) 집'이 되라는 의미에서이다. 2008년 이후에는 강원대 2개소, 한림대 2개소로 재개관되면서 지금까지 학생생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강원(춘천)IVF는 복음 사역을 폭넓게 확장한다. 1996년 필리핀 타클로반 비전트립을 시작으로 AMP(Asia Mission Project)를 통해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선교를 감당하였고, 2010년대에는 해외 글로벌 리더십 훈련인 GMLT와 평화통일 리더 양성을 위한 중국통일기행을 시행하여 선교사역의 다양성을 모색하였다. 학생 훈련에 있어서는 PBS(귀납적성경연구)와 기독교세계관훈련, IVP를 통한 문서 운동에 집중하여 기독지성인을 양성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초신앙훈련, 제자훈련 및 소그룹 리더 훈련으로 캠퍼스를 비롯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제자 양육에 힘썼다. 근래에는 캠퍼스 현장 어느 곳에서 누구나 선교적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BLESS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최근 COVID-19중에는 언택트 상황에 걸맞는 각종 온라인 사역을 구축하여 다양한 학생사역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아시아선교원'인 회관을 '좋은동산'으로 새단장하여 IVF만을 위한 공간에서 지역교회와 청년들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강원(춘천)IVF는 캠퍼스를 넘어 춘천지역사회 및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 노력하였는데 특별히 이를 위한 리더를 다수 배출하였다. 강원(춘천)IVF 개척의 주역 황병호 장로(강원대 명예교수)와 박의범 장로(강원대 명예교수, GP선교사)는 강원대 교수선교회의 산파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은퇴 후에도 춘천 및 세계복음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지방회 개념을 설계한 김진현 교수(전 강원대교수, 현 IVJM대표), 최초의 전임간사 김병선 선교사(전 GP선교회 대표), 중앙회 총무로 IVF운동의 전국 확산에 힘쓴 남진선 선교사(전 인터서브 대표)를 비롯하여 유기남 선교사(알타이선교회 대표),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장근성 목사(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 등도 강원(춘천)IVF가 배출한 주요인물들이다. 이 외에도 강원(춘천)IVF 출신 130여 가정이 해외선교사는 물론 춘천 및 전국에서 지역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으며 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지역사회 및 세계복음화를 위해 활약 중이다.

3. 전임사역자들과 기여자들

강원(춘천)IVF가 52년간 지속되도록 헌신한 전임간사들은 다음과 같다. 권일헌, 김병선, 남진선, 유기남, 한철호, 김종호, 전상일, 윤병식, 엄기홍, 정춘섭, 김은희, 박천민, 장근성, 남귀식, 연주리, 김영화, 김신영, 박억수, 문선주, 김성한, 심훈, 유승태, 오재복, 김진호, 이용훈, 박용한, 사공은혜, 석혜원, 한제남, 양창모, 최인기, 권정희, 손준호, 나정수, 전예림이 있다. 이외에 활동학사와 사무간사, 협동간사로 활약한 58명의 헌신자들이 있다.

또한 김성묵 목사(전 제일교회 담임), 송융남 장로(전 강원대 교수), 안동규 교수(전 한림대부총장), 전상기 목사(전 화천장로교회 담임) 등도 강원(춘천)IVF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외 캠퍼스 복음화와 하나님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한 별과 같이 빛나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5절 기독대학인회(ESF) 춘천지구

1. 개관

ESF(Evanglical Student Fellowship)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1976년 서울과 전주 대학가에서 새로운 학생복음운동을 꿈꾸며 시작된 캠퍼스 사역은 1980년대 초, 중반에는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익산 등지로 확대되고 1980년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 수원, 군산, 울산, 진주, 청주, 순천, 목포 등의 도시까지 확장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인천과 제주 등에 개척자를 파송하여 현재 국내 23개 지구, 해외 18개 지구를 두고 '대학생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ESF는 귀납적 성경공부에 힘쓰고 있다. 인격적이고 체계적인 과목별 성경공부 모임을 무기로 사역을 감당한다. 일대일 성경공부, 그룹 성경공부, 성경학교, 리더훈련, 공동체훈련, QT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청년의 때에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ESF 춘천지구는 강원도 유일의 ESF 지구로서, 순천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던 김태경 간사(송나영)가 2005년 가을, 춘천에 자리를 잡고 강원도권 복음화 전략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기 시작한 데서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으며, 김태경 간사 부부는 매일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2. 주요 사역

캠퍼스 사역은 대학생들의 활동 기간이 4~6년으로 짧고, 입대나 휴학 등이 있어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멤버들이 휴학하여 한두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성경공부에 힘쓰는 기간도 있었다. 그러나 꾸준한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 학생들이 창세기 선생으로 성장하여 다른 학생들을 섬기게 되는 열매를 맺기도 했고, 모든 대학인들이 본문 중심의 일대일 성경공부와 공동체 신앙훈련을 통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고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F의 사역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한 기독 학사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성경의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여 성서한국을 이루게 하고, 국내외 캠퍼스 복음운동을 후원하도록 독려하며, 일부 졸업자들은 회관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학사로 헌신하여 함께 사역하기도 한다.

3. 주요 역사

2008년에는 이광훈 간사 가정이 김태경 간사를 돕기 위해 춘천 사역에 합류했다. 2008년에는 이광훈 간사가 실제적인 역할을 많이 감당했고 2009년부터는 김태경 간사를 대신하여 춘천ESF를 책임지게 된다. 2009년부터 학생리더가 세워지고 신입생들이 공동체에 적응하며 열매로 남았다. 2010년에는 강원대학교 선교단체 연합 개강예배에서 찬양팀을 맡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익산ESF에서 사역하던 조성우 간사가 춘천ESF의 3번째 간사로 사역하였다. 비슷한 시기 춘천ESF 공식적인 첫 학사진입예배가 있었다. 기존 1명의 학사와 더불어 2명의 학생이 졸업하여 회관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학사가 되었다. 2014년도 8월에는 '처음 사람들의 처음'이라는 주제로 춘천ESF 첫 학사수양회도 이루었다. 이후 서울과 춘천에서 꾸준하게 학사 모임을 이루었다. 조성우 간사는 2015년까지 사역을 감당했다.

2016년에는 최병진 간사가 전주ESF로부터 파송 받아 사역을 감당했다. 이후에도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병진 간사는 2021년까지의 사역을 끝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고 동대문ESF에서 사역하던 진용화 간사가 5번째 춘천ESF 간사가 되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춘천ESF를 섬긴 간사는 모두 다른 지구 출신이었다. 춘천ESF 출신 간사가 배출되어 춘천지역 5개 캠퍼스마다 선교공동체를 이루며, 더 나아가 강원도 전 지역의 캠퍼스를 개척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더불어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며 치열하게 말씀으로 고민하고 살아내는 기독 청년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

제6장
한국 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1절 개관

국제기드온협회는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인 기독교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전도·선교 단체이다. 1899년에 창립되어 현재 200개국 이상에 조직되어 있으며, 약 3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평신도로 구성되어 호텔, 모텔, 교도소, 병원, 학교 등에 성경을 배부하며 비치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드온협회는 각 지역교회 선교의 편 팔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두루 다니며 성경을 전하고 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9천만 부 이상의 성경을 배부하고 비치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25만 부 또는 1초마다 2~3권의 성경을 배부하는 셈이다.

2절 춘천캠프의 역사

1969년 5월 함인섭 춘천농대 학장, 김배선 장로, 김홍규 YMCA이사장, 김용해 성수고 교장, 한석기 장로, 김병선 장로 등 6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춘천캠프를 출범했다. 전국에서 7번째로 시작한 춘천캠프는 현재 5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함인섭 학장을 초대회장(동부교회)으로 창립한 이래 김병선 장로(중앙감리교회), 김용해 장로(제일장로교회), 한석기 장로(성광장로교회), 김용화 장로(제일장로교회), 김영일 장로(석사감리교회), 구연창 장로, 심재환 장로(중앙감리교회), 김홍규 장로(동부장로교회), 안민 장로(중앙감리교회), 유태희 장로(제일감리교회), 이초승 장로(우두감리교회), 노재찬 장로(중앙감리교회), 김태권 장로(동부장로교회), 마철규 장로(제일장로교회), 심인섭 장로(제일감리교회), 최종인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 황병호 장로(제일장로교회), 이용규 장로(석사감리교회),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 박명호 장로(제일장로교회) 등이 역대 회장으로 수고하였고, 현 회장직은 김종열 장로(신성감리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기드온들은 각계 처소에서 유능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천들로서, 장로연합회, 홀리클럽,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본부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부인회 활동은 7~8명으로 조직되어 수적으로는 다소 작지만, 기드온을 위한 무릎 꿇는 기도와 개인전도, 의료업무종사자용 성경기증 등 일당백의 각오로 협력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춘천캠프는 전국에서 인정받는 모범캠프로서 중부지역에 속하였으나, 2021년 본부차원에서 중부지역을 경인지역과 강원지역으로 분리 개편하게 되었다.



3절 주요 사역

1. 호텔성경 비치

기드온협회가 창설된 당시에 대부분의 회원은 출장이 잦은 기독 실업인이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호텔에서 어떻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각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 성경을 비치하여 투숙객들이 원할 경우 빌려 보게 하자! 성경이 호텔에 남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07년 10월 19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논의한 끝에 "미국에 있는 모든 호텔방에 성경을 비치하자"라고 결의하였다. 1908년, 켄터키 주 루이빌 전국대회에서 성경을 비치하는 것이 채택되어 기드온협회의 성경배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교회순방

1908년 가을에 아이오와주 씨더 래피즈시 목사연합회 모임에서 목사인 E.R.버크홀터 박사는 씨더 래피즈시의 모든 호텔 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드온들이 비치할 수 있도록 자금을 교회들이 마련해 주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교회와 기드온협회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어 전 세계에 성경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기드온들이 해마다 지역대회를 순방하여 교인들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교회들은 기드온 보고를 듣고 감동을 받아 자발적인 헌금을 하자는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지역교회들은 오랫동안 기드온협회의 성경배부 사역을 뒷받침하는 큰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3. 부인회 사역

기드온 사역은 부부사역이다. 부인회는 기드온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와 봉사를 위한 협조, 개인 간증과 전도, 그리고 의료업무종사자와 간호업무 및 여성보호소 등에서 종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부함으로써 기드온을 보좌하는 데 있다.

"무릎 꿇는 부인회는 기드온을 일어서게 한다."는 표어 아래 기도, 전도,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부인회는 국제기드온의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국제기드온협회의 헌장 및 세칙에 따라 운영되며, 그 자격은 국제기드온 이사회가 승인한 영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드온회원의 부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회원국을 통하여 약 10만 명의 부인회원이 기드온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매년 약 260만 부의 의료업무종사자용 성경과 약 130만 부의 개인 전도용 성경을 기증하고 있으며, 또한 "부인회의 5대 핵심 프로그램(기도 및 개인전도, 성경배부, 회원증모, 기념성서, 신앙기금)"을 통해 더욱 강화된 부인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4절 향후 사역 방향

한국국제기드온협회가 꿈꾸는 것처럼 모든 계층의 남녀노소, 곧 청소년, 경찰서, 소방서, 병원, 군인, 수감자들 모두와 호텔, 모텔,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 군부대 등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특정 지역에 성경이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춘천캠프 기드온 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증모 2명(목표 50% 달성), 교회순방 (15개 교회 100% 달성), 성경기증 4,301권(44% 달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춘천기드온 조찬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제7장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1절 어린이전도협회 소개

어린이전도협회는 그리스도 밖에 잃어져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도와 교사 훈련을 전문으로 한다. 사역 범위는 국제적이고 상호 협조적이며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이다.

국제어린이전도협회는 교회의 관심이 성인에게만 치중되었던 1920년경 미국의 오버홀쳐 목사가 미국 및 세계의 어린이들의 영적 기아 상태에 있음을 보고 10여 년간 어린이 전도와 지도자 양성에 힘쓰며 교계에 호소한 결과, 1937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에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은 세계 210여 개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여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of Korea)는 1957년 런시포드 여사에 의해 어린이 전도협회가 국내에 소개되었고, 1959년 구요한(John Cook) 목사 내외가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함으로 한국에도 어린이전도운동이 뿌리를 내렸으며, 1972년 어린이 전도 지도자 학원을 계기로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 전국 54개 지회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으며, 국내 사역뿐만 아니라 26개국 34가정 5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2절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개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는 1976년 9월 20일 구경평 전도사(총무)의 헌신으로 창립된 이래 운교동 167-6번지, 성문교회, 구 중앙감리교회 교육관 1층, 베드로병원 4층 등을 거쳐 지금은 효자로 105(강원부속2층)에 사무실을 두고 춘천지역 어린이들에게 활발히 복음을 전해왔다.

지난 46년간 역대 회장(추후 정관개정에 따라 이사장으로 변경)으로는 김정하, 박상만, 한천수, 유영식, 조은제, 조정일, 최명식, 이용규, 이학규, 임춘조 평신도가 담당하였으며, 사역자로는 이경애, 최동수, 서영석, 이무종, 방승현, 전영진에 이어 지금은 김마태 전도사가 어린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주요 연혁

1976년	9월 20일	춘천지회 창립(총무 : 구경평 전도사)
1985년	7월 5일	재조직을 위해 준비하다.(운교동 167-6번지)
1986년	3월 17일	사무실 이전(효자동 580번지)
	5월 19일	정기총회로 모이다.(회장 : 김정하 / 총무 : 이경애)
	11월 7일	사무실 이전(성문교회)
	11월 10일	정기총회로 모이다.(회장 : 박상만)
1987년	12월 28일	사무실 이전(옥천동 73-1번지 / 구 중앙감리교회 교육관 1층)
1988년	9월 17일	어린이 회관에서 정기총회로 모이다.(회장 : 한천수)
1990년	9월	이경애 총무가 사임하고 최동수 간사가 사역 시작하다.
1991년	12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회장 한천수, 회계 유영식 선출
		서영석 전도사를 총무로 청빙하기로 하다.
1992년	5월 23일	제1회 꽃대잔치를 춘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다.(6,000명 참석)
	9월 24일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및 춘천 성시화 어린이 전도보고대회를 갖고 마철규, 길희준, 김영숙, 정영희씨를 위원으로 추대하다.
	11월 29일	제6차 정기총회(회장 한천수, 부회장 유영식, 회계 김기선, 서기 조은제 위원을 선출하다.)
1993년	5월 6일	어린이 뮤지컬 셀라단 창단하다.(단장 : 조은제)
	5월 8일	제2회 꽃대잔치에서 셀라단이 뮤지컬 공연하다.
	7월 1일	어린이 성경캠프 장소 결정되다.(인제군 학생수련장)

1993년	11월 18일	제7차 정기총회(회장 유영식, 부회장 조은제 위원, 서기 김기선 위원, 회계 정영희 위원이 선출되다.)
1994년	1월 2일	전영진 자원 사역 시작하다.
	5월 14일	제3회 어린이꽃대잔치 개최. 어린이 1800명 참여(춘천 체육관)
	10월 31일	최동수 선교사 사임하다.(선교사 파송 - 인도)
	12월 10일	사무실 이전(베드로병원 4층)
	12월 15일	유영식 회장의 사임으로 조은제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다.
1995년	4월 3일	사택(세경2차 2동 404호)을 전도협 본부에 재산으로 등록하기로 하다.
1997년	11월	서영석 목사 청주지회로 전임, 이무종 전도사 춘천지회 총무 취임
1998년	3월	전영진 간사 사임(신학대학원 진학 - 99년 서산지회 창립 대표)
2000년	12월	총회에서 조정일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하다.
2001년	11월	이무종 대표 사임(선교사 파송), 방승현 목사 대표 취임
2002년	11월	방승현 목사 사임
2003년	2월	전영진 전도사 서산지회 대표에서 춘천지회 대표로 취임
		회장 최명식 장로 추대하다.
2005년	1월	김마태 자원 사역 시작하다.
2006년	1월	최명식 장로 이사장 사임으로 조정일 장로를 이사장으로 추대하다.
2007년	12월 20일	사무실 이전(운교동 169-13 운교프라자 5층)
2008년	1월	이사장으로 이용규 장로 추대하다.
	2월	김마태 전도사를 홍콩 단기 선교 파송하다.
2010년	1월	김마태 간사가 춘천지회 대표로 사역을 시작하다.
	2월	전영진 선교사 가정, 인도네시아로 파송하다.
2011년	1월	이사장으로 이학규 장로 추대하다.
	7월	연합 여름성경캠프 개최. 어린이 97명, 교사 38명 참여(간척 체험학습장)
2012년	7월	연합 여름 성경캠프 개최. 1,2차 총 어린이 75명, 교사 15명 참여(양구 청소년 야영장)
	9월 22일	제4회 어린이꽃잔치가 열리다. 어린이 1,200명 참석, 자원봉사자 120명(춘천 문화예술회관)
2013년	1월	이학규 장로 소천으로 조정일 장로 이사장으로 추대하다.
	7월	연합 여름 성경캠프를 하다. 어린이 184명, 교사 55명 참여(가평 상수리나무 펜션)
	9월 14일	제5회 어린이 꽃잔치 개최 어린이 800명, 자원봉사자 100명 참석(춘천 문화예술회관)
	11월	전도협회 사무실 이전(효자로 105 강원부속 2층)
2014년	8월	연합성경캠프 어린이 61명, 교사 33명 참여(화천 토고미학교)
	12월 27일	어린이 찬양축제 제1회 '다예찬' 개최. 어린이 220명, 교사89명 참여

2015년	7월	연합성경캠프 어린이 120명, 교사 44명 참여(화천 토고미학교)
	10월 9일	제6회 어린이꽃잔치 개최, 어린이 1,100명, 자원봉사자 100명 참석
2016년	7월	연합성경캠프 어린이 97명 교사 33명 참여(화천토고미학교)
2017년	7월	연합성경캠프 어린이(화천참빛기도원)
2018년	7월	연합성경캠프 어린이107명 교사48명 참여(화천 참빛기도원)
	10월 13일	제7회 어린이꽃잔치 개최 어린이800명, 자원봉사자 100명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12월	새학기 교사강습회 교사 120명 참여(춘천온누리교회)
2019년	1월	정기 총회에서 임춘조 안수집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다.
	7월	연합성경캠프 어린이 80명, 교사 20명 참여(화천 참빛기도원)
2020년	2월 22일	새학기 교사강습회 교사 120명 참여(춘천온누리교회)
	9월	코로나로 인하여 봄학기 새소식반은 휴강, 가을학기 새소식반 강습회와 전도는 실시하다.
2021년	연중	코로나로 새학기 교사강습회, 봄가을 새소식반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3월 5일	세경 2차의 전도협회 사택 6300만원 매도
2022년	2월	TCE 교사 대학(온라인)
	3월 15일	봄학기 새소식반 전도 교사 강습회
	4월 1일	전도협회 춘천지회 차량 구입(기아 스포티지)
	6월 18일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광염감리교회)
	9월 20일	가을학기 새소식반 교사 강습회

3절 주요 사역

1. 새소식반 전도 및 교사 강습회

봄·가을학기 마다 12주 동안 매주 1회, 이웃의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가정이나, 놀이터, 교회에 모아서 시각화된 성경 이야기와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켜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이다.



제7회 어린이 꽃잔치(2018년 강원대 백령아트센트)

2. 어린이 꽃 잔치

꽃과 같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뮤지컬 등의 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는 행사이다. 1회 때는 6천여 명, 그 후로도 천여 명의 어린이가 훈련된 수 십 명의 상담교사로 부터 1:1 구원상담을 받고 행사장에 입장한다. 코로나 전까지 총 7회의 꽃잔치를 개최하였다

3. 3일 클럽 전도 및 전도자 훈련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야외나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여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이다.

4. 여름성경캠프

어린이전도협회 성경학교 자료들을 통해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연합성경학교로서, 어린 영혼들이 영적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어린이가 다수 있다.



여름성경캠프(2016년 7월 화천 토고미학교)

5. TCE 1·2단계

교사가 어린이의 영적 필요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효과적인 어린이 전도 방법을 배우며 소그룹 성경반을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6.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의 여름성경학교 자료를 연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들 훈련 강습회이다.



여름성경학교 강습회(2014년 6월 안디옥감리교회)

7. 새 학기 교사 강습회

신년을 맞이하여 새로 임명된 교사들과 함께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습회이다.

4절 향후 사역 방향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 이상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 앞 전도와 야외전도, 새소식반 전도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상황 아래서, 새소식반 전도 및 성경학교 자료들을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훈련도 온라인을 겸할 계획이다. 더 많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되도록 도울 것이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이사 명단(2022년)

성명	소속교회	성명	소속교회
기정희 선교사	남북연합교회	이용규 장로	석사감리교회
김연경 집사	안디옥감리교회	조은제 목사	남북연합교회
변기린 장로	석사감리교회	주창열 권사	석사감리교회
박선영 권사	소양제일성결교회	한천수 장로	성광장로교회
배선수 집사	안디옥감리교회	류재웅 권사	석사감리교회
신현근 권사	소양제일성결교회	조정일 장로 / 감사	광장감리교회
손종배 권사	안디옥감리교회	배용옥 집사 / 부이사장	안디옥감리교회
송찬배 장로	신성감리교회	임춘조 안수집사 / 이사장	동신장로교회
총 16명			

제8장
청소년선교단체 예스컴(YES COME)

»

1절 개관

예스컴(YES COME)은 춘천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원복음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강렬한 열정을 동반하였고, 조직을 갖추어 청소년 선교단체로 급속히 일어나게 된다. 청소년들에 의해 시작된 이 소박한 청소년 선교단체는 급속히 춘천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기독동아리를 세워, 학생들에 의한 자발적 학원 복음화 운동을 이루어갔다.

그 초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춘천의 몇 중고등학교에서는 비공식적인 학생 기도모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여져 왔었다. 이 모임은 선배가 후배에게 소개하고, 같은 교회 학생들에게 서로 소개를 하여 공식적인 모집과 체계적인 운영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지만, 학교별로 1개 이상의 기도 모임이 있었다. 그 중 춘천여고에서도 학생들의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혹은 학교 옆 교회에서 석식 시간을 통해 기도 모임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길선희 학생(당시 춘천여고 1학년)이 방학 중 깊은 성령 체험을 했고 그 뜨거움을 학교에서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춘천여고에 있는 기도모임을 정식 기독동아리로 등록을 시키고 매일 기도모임을 이끌어나갔다. 후에 각 중고등학교마다 서로의 영향을 받아 기독동아리를 자발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1992

년 2월 16일에 길선희 학생을 중심으로 춘천시내 9개 중고등학교 기독동아리들이 연합하여 '춘천시중고교 찬양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찬양집회 강사를 박상철 목사(당시 춘천제일성결교회 담임)로 모시었다. 박상철 목사는 춘천시내 청소년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박상철 목사는 길선희(당시 연합집회 주관자로 20세)를 중심으로 청소년 선교단체 예스컴(YES COME)를 창립하였다.

2절 예스컴(YES COME)의 창립정신과 활동

1. 창립 목적과 비전

예스컴(YES COME)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soon" Amen. Come, Lord Jesus." 에서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목표로 두었다. 이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이라 믿고, 청소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학교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쓰임 받는 자로 세우고 파송하는 초교파 청소년선교단체로 1992년 2월 16일에 창립되었다.

예스컴의 사명선언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스컴은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도우며, 다음 세대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파송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스컴의 비전은 청소년들을 통한 학원복음화, 청소년들을 통한 가정복음화, 청소년들을 통한 교회의 부흥, 세계를 변화시킬 준비된 일꾼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스컴이 강조하는 영성은 긍휼, 섬김, 십자가이다. 예스컴은 예수님의 선교적 영성을 본받아 청소년들의 삶에 깊이 동참하는 긍휼과 가르치는 자가 아닌 돕는 자로서 낮아짐으로의 섬김과 생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영성으로 삼는 것이었다.

2. 주요 사역자, 활동가들

대표 목사에는 박상철(당시, 춘천제일성결교회 담임), 대표 간사에는 길선희, 간사에는 양재희, 박진용, 신유정, 김유신, 탁아람, 변성현, 오상재, 이성희, 유한나, 윤현락, 연응준, 조제연, 장주한, 한승연, 함지혜가 섬겼다.

핼퍼로는 김부영, 김성은, 김지윤, 김지은, 김해진, 김형근, 박건예, 박동민, 박시형, 박수인, 박정은, 박지훈, 이보미, 김상훈, 박새은, 양현기, 임재우, 정성대, 최승빈, 최영림, 홍윤기,허남형, 곽병우, 이신영, 박영권, 고선혜, 심경미, 남석진, 김충진, 염의섭, 장주한, 이미연, 박지나, 이청솔, 김혜경, 이선미, 홍윤기, 박건예, 김보미, 박산돌, 성예경, 김수연, 노영은, 김부영, 정태경, 이익현, 김태현, 최승빈이 사역하였다. 당시 각 학교에서 활동한 동아리는 다음과 같다.

학 교	기독동아리	학 교	기독동아리
유봉여고	나 실 인	춘천실고	작은밀알
성수여정	달리다굼	남춘천여중	브 니 엘
사대부고	로 뎀	춘천여중	에브라임
성 수 고	로 베 스	유봉여중	엘 르 욘
강 원 고	생명의소리	후평중	익 뒤 스
춘 천 고	엘 리 사	우석여중	코람데오
춘천여고	엘리에셀	봉의여중	햅 시 바

3. 예스컴(YES COME)의 사역목표 및 활동

1) 학원 복음화 사역

각 학교에 기독동아리를 세워 그들을 양육하여 양육된 학생들을 통하여 학원의 복음화를 이룬다(학교내 예배, 제자양육, 성경공부, 기도모임 등)

2) 청소년 찬양사역

정기적인 찬양 집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훈련한다.

3) 청소년 지도자 양성 사역

청소년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사역이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4) 청소년들을 통한 해외 선교 사역

매년 단기선교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교사로의 비전과 선교적 삶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단기선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선교지의 영적 부흥을 돕는다.

5) 청소년 장학 사역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다.

4. 회고하는 예스컴 사역

1)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원복음화 운동에 힘을 실어준 어른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학교를 복음화 하겠다고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어른들이 있었다. 당시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청소년들의 자발적 기도모임과 예배, 학교 내 전도 등의 일들을 귀히 여긴 어른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YES COME이 청소년 선교단체로 세워지기까지 기획과 행정과 인력지원 등의 과정을 통해 체계를 세워주고 선교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박상철 목사(당시 춘천제일성결교회 담임, YES COME 대표 목사, 현 모리아성결교회 담임), YES COME의 재정 및 사무실 무상 제공 등에 전반적인 일들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조은제 목사(당시 베드로정형외과 병원장), 청소년들의 복음전도활동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인도해준 춘천지역 내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이 있었다. 청소년들만의 열정과 노력으로는 단기간의 행사나 바람으로 사라졌을지 모르는 일들이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힘을 다해 청소년들의 학원 복음화 운동을 돕고 협력해준 덕에 선교단체의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인 중고교 복음화 운동이 이어질 수 있었다.

2)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원 복음화 운동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학교에 기독동아리를 정식 등록하여 활동을 해나갔다. YES COME에서는 영적으로 훈련된 핼퍼와 간사들을 학교마다 파송하여 학교 내 예배와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또한 학교별 환경과 특색에 따라 전도 활동의 내용들을 스스로 기획하여 전도 활동을 펼쳐나갔다.

또래집단에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중고교 내 예배 및 기도운동을 활성화하며 지속성이 있게 해주었다. 신앙생활을 개인이 아닌 친구와 함께 할 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자로서의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다. 예컨대 학교에서 예배장소를 제공해주지 않던 모 학교 학생들은 눈이 쌓인 옥상 위에서, 친구들의 조롱이 난무하는 운동장 한가운데서도 담대히 예배하며 기도하였다. 또한 등교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문 앞에서 찬양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활동을 하였다. 학교 내에 있는 기독동아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인도되는 일들이 학교마다 빈번하게 일어났다. 청소년들이 친구를 따라 학교 내에 있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일은 교회에 가는 것보다 청소년들에게는 훨씬 수월한 일이었다. 학교 내 예배 및 기도 모임이 자연스럽게 개 교회 청소년부의 부흥과 연결이 될 수 있었다.

3) 연합으로만 가능한 청소년 사역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신앙 활동과 복음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



〈학교 앞 등굣길 전도〉 우석여중(2009년 10월 15일)


〈학교 내 예배〉 강원고등학교 / 예배인도자 : 곽병우



봉의고등학교 한울 예배 / 예배 인도자 : 정성대 (2016년 3월 10일)



청소년 여름 수련회 YES COME SUMMER CAMP(2015년 8월 2~4일)

년들의 열정들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학교 내 기독교사의 도움으로 기독동아리 정식 등록 과정을 돕고, 장소 제공 및 모임을 지원했다. 또한 각 교회들은 예스컴(YES COME)과 협력하여 학교 전도를 돕고, 혹은 예배 인도자를 파송해주기도 하며, 청소년지도자 훈련 과정들을 연합하여 진행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예스컴(YES COME)의 모든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혹은 여러 모양의 봉사로 도왔다. 이러한 다각의 협력과 지원과 연합이 예스컴(YES COME)의 학원복음화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스컴(YES COME)은 더 이상 학교에 들어가 복음전도의 상황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21년간의 의미 있는 사역을 마치고, 2017년 4월 10일에 해단식을 하고 사역을 종료하게 된다.

제9장
광염회

1절 개요

국가적으로 4.19, 5.16 이후 혼란스런 시대를 맞선 춘천의 몇몇 기독청년들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가 되자”는 모토를 가지고, 시대적 비전을 키우기 위하여 광염회를 창립하였다.

2절 창립동기와 역사

대학생이었던 1세대 기독청년들이 혼란과 혼탁한 시대를 바라보며 기독청년으로서 한 사람의 개인영달과 안위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일깨우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기독인재를 양성하자는 목적을 가졌다. 마5:13~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1961년 11월 11일 11시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행동강령으로 “진실, 충실, 건실”을 생활화하자고 세웠고, 광염학원을 운영하여 깨어있는 기독청년을 모아 훈련을 통해 꿈을 갖게 하고자 했다.

광염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매일 자신의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고 행동강령을 지켰는지 반성과 함께 기독청년으로 새로운 삶을 위한 자세를 다져가는 훈련들을 지켜나갔다.

이를 위해 대학생이었던 이원직(강원중 교사), 윤종삼(건국대 수의학과)을 주축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 시대정신을 일으키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체의식을 다지며, 기독청년으로서 미래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교육, 자기성장의 철저한 훈련을 시킬 광염학원을 운영키로 하였다.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 중앙성결교회 김관수 목사, 강원대 홍순주 교수, 소찬영 목사, 고재국 장로 등이 수고해 주셨다.

3절 중심사역

1. 광염학원 운영과 배출자

춘천지역의 고교생 중에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시대정신을 일깨우며 기독청년으로서 지도자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 자기성찰과 성장, 세계관, 역사관, 문화관, 세계미래상을 일깨우고 자기계발과 교정 훈련, 영성훈련을 실시하는 16주 코스의 광염학원을 운영하였다. 훈련은 예배와 강의 그리고 특별 수련회와 주간생활수칙을 자체적으로 체크하며 실천하고 점검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광염학원은 1963년 시작하여 1975년까지 15기를 배출했으며 1992년 재개되어 1996년 21기까지 230여 명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훈련시켰다. 이후 이 학원운동은 수원으로 옮겨 강헌구 회원(장안대 교수)을 중심으로 비젼스쿨에서 인재양성을 지속하였다

이들 중 박사가 14명, 교수가 18명, 목사가 10명 그 외 이명재(법무사), 박재학(교사), 김동순(교사), 윤종삼(경춘가축병원장), 이동훈(목사, 육사교수부장), 황



제19기 광염학원 수료식(1995년 7월 15일)

병호(강원대 교수, 광염회 회장), 이칭찬(강원대 교수, YMCA이사장), 박광호(자영업), 고제홍(자유업), 송융남(강원대 교수), 사공정(중앙장로교회 목사), 양재의(강원대 교수, 세계토양학회 회장), 엄기영(전 MBC사장), 이종길(태평양화학), 김수연(상업은행), 이성만(교사, 사진작가), 강요한(동창기업 부사장), 신현철(교장), 허근영(교사, 자영업), 전상기(한전), 성정일(출판사), 오형근(조양산업), 강헌구(장안대 교수, 비전스쿨주강사), 박인관(광염교회 목사), 현덕순(목사, 계명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희수(교사, YWCA이사장, PLZ Festival 이사장)등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훈련받은 기독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이병훈 박사는 발효미생물분야에서 세적인 권위자로 성장했는데, 캐나다 밴쿠버 UBC를 졸업하고, 논문 103편 저서 5권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유명했다.

2. 민족의식 고취

광염회는 또한 춘천시민의 민족의식 고취와 자아계발을 위하여 춘천시민회관에서 무료특강을 수년간 실시했다. 연사로 함석헌 옹, 이원설 교수, 안병욱 교수, 김형석 교수, 선우 휘 교수, 허 웅 교수, 이태영 교수, 최태영 학장 등을 초청했다. 정기적으로는 광염학원을 통해 21기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3. 교회개척 사역

춘천지역의 광염회원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진행하던 중 빛과 소금의 삶을 모범적으로 구현할 모델교회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여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였다.

1991년 9월 2일, 광염회장 황병호를 중심으로 이원직, 허근영, 김태인, 이칭찬, 한응매, 허남순, 서울의 김태복, 윤종삼, 이명재, 이종길, 박광호, 이성만, 김수연 등이 중심이 되었다.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 창립을 발의, 교회창립을 위한 위원회 발족과 기금조성을 협의했다. 기금은 춘천지부가 3천만 원, 서울지부가 2천 5백만 원을 모금하였다. 후평2동 692-24번지 순흥상가 3층 건물 계약하고, 담임교역자 박인관 목사를 모셔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광염교회를 개척하였다.

광염교회 창립 이후 교회를 중심으로 정기모임을 부활하고 자부심을 크게 가지는 가운데 교회의 영적갱신운동, 사회 도덕성회복, 겨레의 민족의식 고취운동을 펼쳐나갔다. 한편 광염회 행동강령인 진실한 마음, 충실한 행동, 건실한 사상을 실천해 나가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여 중단되었던 광염학원을 재개하여 16~21기까지 운영하였다.

두 가정으로 시작한 광염교회가 6년 만인 1997년에 교회를 건축하고, 부흥할 뿐 아니라 교회의 헌금 30%를 선교와 구제, 나눔으로 사용하며 모델의 역할을 하였다. 2021년 12월 6일에는 거두리에 1,500평 대지에 600석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4. 30주년 기념예배

광염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광염회를 이끌었던 김관수 목사가 시무하는 청량리성결교회에서 드렸다. 서울회원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감격스러운 기념예배였다.

기념예배는 이동훈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하였고, 이병재 장로의 기도, 김관수 목사의 설교, 황병호 회장의 기념패 증정, 각 위원장 임명장 수여, 광염교회 박인



광염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1991년 11월 9일)

관 목사 인사, 가정법률상담소 현황보고(허남순 이사), 춘천광염학원 부활건(이칭찬 교수), 기념신문 앨범 제작건(이성만 이사), 김태복 목사의 축도의 순서였다.

1961년 광염회 창립에서 1991년까지는 1세대가 각계 기독교 엘리트를 양성하는 시기였다. 그 이후 2020년까지 제2세대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각자 삶의 현장, 각계 각층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현 성시화운동과 일맥상통하는 어울리는 운동이라 하겠다.

제10장
효신고등공민학교

1절 효신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효신고등공민학교는 1959년 4월 15일(소양로 4가 94번지) 효신교회의 시작과 함께 설립 된 효신여자고등공민학교(Mission school)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개원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중학교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각종학교인 고등공민학교(중학교 졸업인증 검정고시에 혜택)를 설립하였다. 설립자인 방효정 목사는 효도 효(孝)자'와 '믿을 신(信)'자를 따서 효신여자공민학교로 명칭(名稱)하였다. 방효정 목사는 춘천 최초 장로교회인 춘천제일장로교회를 설립했으며 일찍이 교육에도 힘을 써 당시 김용해 장로를 통해 춘천 성수학교를 세우도록 했다.[1)]

그 후 1961년 1월 10일 춘천시 조양동 67번지로 이전하였고 학생들의 증가로 교명을 효신고등공민학교(남여공학)로 개명하였다. 교사는 주로 봉사자였으며 학생들에게는 분필 값 정도의 수업료를 받았다.

1968년 2월 15일 제7회 졸업 후 온의동 14번지(현 효신교회)로 이전하였다. 1970년 6월 초대 교장이었던 방효정 목사를 이어 제2대 교장으로 방지각 목사가

1) 강원도민일보, 2009년 5월 19일 기사, 신화준 기자



효신중 3회 졸업식(조양동) 중앙 방효정 목사,
좌측 엄두영 장로 우측 방지각 목사(1964년 2월)

취임하였다. 효신고등공민학교의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여 교실을 증축하였으며 졸업생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 진학, 대학진학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효신고등공민학교는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가르쳤다. 매일 아침조회는 예배였으며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올 때는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실로 가도록 했다.

2절 효신상업전수학교

효신고등공민학교는 학급이 6학급까지 운영되었다. 방지각 목사는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여 때를 놓친 청소년을 위하여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야간 효신상업전수학교를 1969년 초 설립인가를 받아 신입생을 모집하였다.(야간) 야간 학교에 생각 이상으로 신입생들이 많이 모여 설립 2년이 지나면서 학생수가 3학급 120명 이상이 되었다. 당시 야간 학생들을 위하여 YMCA와 춘천 중요 기관과 연계하여 주간에는 직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었고 야간에는 공부를 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주산, 타자 등을 공부하여 졸업하고 특별 채용이 되기도 하였다. 주간에는 효신고등공민학교로 야간에는 효신상업전수학교로 운영되었는데 주 · 야간 합해서 학생이 약 700명가량 되었다. 교사들은 대학생, 은퇴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봉사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도 호국단 수업도 병행하였으며, 봉사활


효신상업전수학교 조회모습

동에도 열심히 참가하여 농촌 봉사와 농촌교회 여름성경학교 등의 활동이 있었다. 또한 특별활동으로 음악교육을 활발히 하여 김한호 교사(현 동부교회 담임목사)의 지도로 효신호산나합단창을 창단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1981년 4월 방지각 목사가 미국선교사로 파송되자 3대 교장으로 방지산 목사가 취임하여 효신고등공민학교 및 효신상업전수학교를 운영하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 많은 신앙인과 사회의 일꾼들을 배출했다. 이 후 학교는 점차 정규 중고로의 진학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중22회, 고15회 졸업을 끝으로 1987년 학교는 폐교되었다.

제11장
기타 선교단체 및 문화예술체육 사역

1절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

1. 개관

1984년 무렵, 강원대학교 기독교수 모임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었을 때였다. 물리학과에 새로 부임한 차성도 교수가 '신앙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전공 관점에서 신앙과 관계있는 주제를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모임을 갖자고 진지하게 제안하였다. 이에 많은 기독 교수들이 호응하여 의미 있는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 모임에는 물리학과 신승호 교수(후에 강원대 총장)와 차성도 교수, 경영학과 박의범 교수, 영어영문학과 신성균 교수, 역사교육학과 조인형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원로 교수인 가정교육과의 한옥수 교수와 교육학과 문선재 교수(후에 강원대 총장)가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1995년 기독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믿는 자는 물론 신앙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를 설립하였고, 초대 회장으로 경영대 문철한 교수가 선출되었다.

2. 선교회의 시작과 발전

1) 선교회의 시작

1984년, '신앙과 학문'이라는 기독교수 모임이 처음에는 일부 뜻있는 교수들이 먼저 삼삼오오 교제와 나눔으로 시작하면서 단과대학별 소그룹 모임으로 확산되었다. 소규모 단과대학별 그룹모임은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의 가까운 대학들이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모임을 시작하였다. 제1그룹이 사범대, 자연대, 공대 모임이었고, 제2그룹이 인문사회대와 법대 모임, 제3그룹이 농생대, 산림대, 동생대, 경영대 모임으로 각각 나누어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바탕으로 1995년에 기독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를 설립되었다. 초창기에는 모든 교수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기도에 힘입어 매 학기 초와 말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연합개강 및 종강 예배를 실시하였다. 1996년부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5월에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2) 음악과 강연의 밤

'음악과 강연의 밤'은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비신자 학생 전도행사이다. 본 행사는 춘천지역에 있는 4개 대학(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의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6년 3월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 초대회장 문철한 교수(경영대)가 제1회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 준비를 위해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신우회, 캠퍼스 선교단체연합회(IVF, CCC, JDM, UBF, YWAM, 네비게이토, 한마음, 한사랑)들과 함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춘천 시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강연 : 문선재 총장, 강원대학교 / 음악 : 박인수 교수, 서울대 음대)를 개최하여 기대 이상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1999년부터는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기존의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와 신우회 뿐 만 아니라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 춘천정보산업대(현 한림성심대) 기독 교수회와 신우회를 포함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본부,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단체와 연합하여 행사의 규모와 예산을 더욱 확대하였고,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책임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음악과 강연의 밤' 개최 일정은 5월 매주 두 번 째 화요일로 결정하였다.

4대 회장 김정후 교수(법대)가 중심이 되어 1999년 제4회 행사-주제 : 우주시대의 그리스도, 강연 : 강원룡 목사(경동교회 명예목사), 음악 : 이연화 교수(강원대 음대)와 2000년 제5회 행사-주제 : 크리스천의 파워와 비전, 강연 : 전병욱 목사, 음악 : 강명식(가스펠가수)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기존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장된 규모의 결과를 도출하여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의 핵심 행사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1년 제6회 행사(회장 : 황병호 교수, 산림대)는-주제 : 꿈, 사랑, 젊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강연 : 김동호 목사(동안교회), 음악 : 꿈이 있는 자유로 진행하였다.

2002년부터는 강원대학교 기독교수회를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로 개명하여 기독교수회의 비전을 선교에 더 가치를 부여하였다.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가 비신자 전도 집회로서 매우 가치 있는 행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2002년부터는 춘천시내에 있는 중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여 행사기금 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2~2003년(회장 : 신성균 교수, 인문대)에는 제7회 행사-주제 : 세상의 빛과 희망이신 예수그리스도, 강연 : 김진홍 목사(두레교회 담임목사), 음악 : 춘천교회 선교단체연합회와 제8회 행사-주제 : 사랑으로 하나되어, 강연 : 최일도 목사(다일교회 담임목사), 음악 : 소망의 바다를 각각 개최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교수선교회 임원(신성균 회장, 오덕환 총무)과 박의범 교수가 춘천 시내 중견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6개월간 선교한국에서 진행한 "Mission Perspective"과정을 이수하여 선교에 대한 도전과 사명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일부 교회 목사님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선교에 대한 사명으로 목회사역을 확장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오덕환 교수는 필리핀 오지에 교육과 의료선교를 2번이나 자비량 선교를 다녀와 선교에 대한 평신도 역

할의 중요성을 체험하였다.

한편 2004년(회장 : 김진현 교수, 법대)에는 제9회 행사-주제 : 예수 안에서 하나 됨, 강연 :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총장), 음악 : 송정미(찬양사역자)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회장 : 김상헌 교수, 농생대)에는 제10회 행사-강연 : 이명박 장로(당시 서울시장), 음악 : Disciples(총신대, 강원대학교 교직원합창단)를 개최하였다.

1996년 제1회부터 2005년 제10회 행사까지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는 음악보다는 말씀에 더 중점을 두어 가능한 국내에서 저명하고 대중에 인기가 많은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노력하였다. 매회 행사 때마다 참석한 초청 학생 인원은 초창기 약 400명 정도에서 1,20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매 행사 후 결산보고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분석해보니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에 대한 참가 학생들의 반응은 집행부의 기대와는 달랐다. 말씀보다는 음악 행사에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내어 제10회 행사 때부터는 말씀보다는 음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복음축제(Evangel Festival, EF)가 유행을 시작하면서 그 바람이 강원대학교까지 전파되었다. EF(복음전도집회)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비기독교인 친구, 선후배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축제란 의미이다. 2002년부터 시작한 EF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전국 8개 지역과 캠퍼스, 지역교회에서 50여 차례의 집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 따라서 EF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뮤지컬이나 연극, 음악 등을 통해 비신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국 대학에서 전도 집회로 많이 이용하였다.

2006~2007년(회장 : 김학성 교수, 법대)에는 제11회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를 EF 프로그램을 활용해 처음으로 행사(주제 : 청춘아 웃어라, 강연 : 김형국 목사, 뮤지컬배우 및 공연팀)를 개최하였으며, 학생들이 2,300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후 행사부터는 EF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과거에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를 준비했던 시스템을 임원진과 대학내 선교단체연합회가 중심이 되었다. 타 지역에서 하던 EF 프로그램 중 인기가 많았던 초청 뮤지컬 가수, 공연가 등을 선택하여 우리 행사에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2007년에는 제12회 행사-주제 :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리듬, 강연 : 이상민 목사(대구 서문교회), 음악 : B-Boy 공연(Original Flava Crew), 뮤지컬(더플레이, 떡볶이)를 개최하였으며 약 1,2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2008~2009년(회장 : 차성도 교수, 자연대)에는 제13회 행사-주제 : 두드리다, 강연 : 이찬수 목사(분당교회), 공연 및 뮤지컬과 제14회 행사-주제 : 마음, 웃다, 강연 : 신동열 소장(소명연구소), 공연 : 타악퍼포먼스 '예끼', 뮤지컬(아카펠라 A-seed)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약 900~1,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2010~2011년(회장 : 민경원 교수, 공대)에는 제15회 행사-주제 :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강연 : 박성민 목사(한국CCC대표), 뮤지컬 : Plan-B와 제16회 행사-주제 : Boxing-아무도 몰랐던 비밀, 강연 :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 뮤지컬 : Boxing을 추진하였으며, 약 1,000~1,1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2012~2013년(회장 : 남상욱 교수, 사범대)에는 제17회 행사-주제 : 피크를 던져라, 강연 : 강은도 목사(산울교회), 음악 : 유은성 전도사(CCM 가수), 뮤지컬 : 피크를 던져라)와 제18회 행사-주제 : It's wonderful day, 강연 : 신동열 목사(소명교육개발원대표), 공연 : D-Angel, 음악 : 박지연, 하니를 추진하였고 약 900~1,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2014~2015년(회장 : 이일세 교수, 법대)에는 제19회 행사-주제 : 우연히 행복해지다, 강연 : 신동열 목사(소명교육개발원대표), 뮤지컬 : 우연히 행복해지다와 제20회 행사-주제 :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강연 :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 뮤지컬 :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을 추진하였으며 약 900~1,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약 10년간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에 EF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명 뮤지컬배우나 공연 팀들을 초청하다 보니 약 1,200~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집행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수선교회 전임회장단들로부터 인수인계를 할 때마다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 준비에 큰 재정부담 때문에 서로 회장직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행사 운영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격년제로 한해는 콘서트 중심으로 다른 한해는 말씀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2016~2017년(회장 : 오덕환 교수, 농생대)에는 제21회 토크 콘서트-주제 : 강균성 토크 콘서트, 강연 및 공연 : 가수 강균성)로 참여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22회 행사-강연 : 성인경 목사(한국라브리공동체대표), 음악 : 선교단체연합회는 말씀 중심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성인경 목사를 초청하여 은혜로운 행사를 추진하였다. 음악은 선교단체연합회에서 성심껏 준비하여 오히려 아마추어의 순수함으로 더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약 12,000~15,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2018~2019년(회장 : 이종민교수, 경영대)에는 '음악과 강연의 밤'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소규모 행사인 '토크콘서트'-강연 : 신동열 목사(소망교육개발원대표), 사회 : 심에스더(성평등전문강사)로 대체하였다.

2020년~현재(회장 : 윤원병 교수, 농생대)까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이상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교수선교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인류가 현재 고통 속에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Invisible but existence'한 기생 생명체이다. 크기가 너무나 작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사람, 동물, 식물 등 모든 숙주에 기생하여 해악을 유발하는 나쁜 녀석들이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미생물의 존재를 잊고 살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인간에게 존재하여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선한 생명체이다. 그 핵심 증거가 바로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살아 역사하셔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매일 매일 체험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가 설립된 지 어느새 27년이 되었다. 과거 기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 덕분에 캠퍼스 내에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품안으로 인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꿋꿋하게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2절 사랑의 메아리

1. 개관 및 설립배경



강원학원의 설립자 허명구 이사장은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암울한 시대를 살던 집과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위해 광명보육원을 설립한다. 그는 "찢기고 거덜난 산하 화약냄새가 가시지 않은 수복지구 춘천의 참상은 지금도 내 머릿속 한구석에 빛바랜 음화로 남았다."라고 안타까워하며 광명보육원을 세웠다. 후에 강원학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보인원으로 승격시키며 단순히 보육원만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교육 재단으로 도약하는 데 토대를 마련한다. 이 교육재단은 도내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선교부의 기독교 각 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세계기독교선명회"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사업유지재단에 가맹하게 된다. 이후에 강원종합고등학교로 승격할 때 학생들이 기독교의 정신을 따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메아리 운동"의 싹을 틔우도록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된다.

2. 주요사역 및 건학정신

믿음, 소망, 사랑을 바탕으로 강원중 · 고등학교는 학교 내 기독서클인 SCA가 결성되어 활동하게 된다. 당시 교사들 안에도 예배와 함께 기도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은 YMCA, CCC, MRA, BSK, RCY 등 학생 자치 모임들이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단위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활발한 연합활동을 통해 고통받고 그늘진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역을 한다.

3. 운동의 시작 동기와 진행

당시에는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1972년 4월,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신현호 군이 빈곤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자퇴를 하고 결국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교사와 학생들이 전달받게 된다. 이에 1972년 9월 8일 추모 기도회 모임 및 학생자치 모임에서 한 학생의 제안으로 매주 금요일 중식 시간에 어려운 친구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금요일은 점심을 굶는 대신 쌀을 한 봉투씩 가져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의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금요집회에서 중식시간 금식과 기도회를 열고 여기서 모인 쌀은 한 달에 한 번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와 친구들에게 전달한다. 꾸준히 2년 6개월 정도 활동이 이어지던 1975년 6월 5일, 최충지 선생님과 이 활동에 동참했던 졸업생들은 쌀 모음 운동과 성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폭넓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사랑의 메아리' 금고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당시의 예금과 허명구 재단이사장의 희사금을 기반으로 발족된 '사랑의 메아리' 금고는 금요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효 증가와 독지가들로부터 성금 참여로 답지된다. 그리하여 1975년 4월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사랑의 메아리 운동의 확산

1976년 방송공사 춘천방송국 박방석 프로듀서가 '사랑의 메아리 운동'을 소재로 30분 분량 드라마를 만들어 전국 새마을 드라마 경연대회에 출품했다. 이 경연

대회에 출품된 많은 작품 가운데 라디오 부분 1위, 라디오 · TV 종합부분 2위라는 놀라운 결과로 드라마는 전국에 방송되고 해외교포들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도 방송되었다. 전교생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되면서 깊은 격려와 함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재를 제공했던 당시 강원일보에 근무하던 이덕림 기자 덕분에 강원일보, 중앙일보 등이 방송과 기사를 계속 내보내어 주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와 문의편지 그리고 자료를 송부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1977년 이 사랑의 메아리 운동의 소식을 접한 영화감독 최현민 감독이 본교를 방문하여 이 소재를 영화화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찬반에 대한 많은 고심 끝에 '사랑의 메아리 운동'을 우리 혼자 전개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마음이 모아졌다. 어려운 이웃에 무관심한 어른들과 사회 속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이 기회를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전 강원가족의 운동으로 심화할 때가 되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춘천여고 사랑의 모임 운동을 비롯하여 대구, 제주 등에서 유사한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힘입어 1982년 10월부터 사랑의 메아리 회보를 연 4회 발행하기 시작하며 정신의 심화와 확산 그리고 졸업생의 참여를 통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

5. 성과와 전망

사랑의 메아리 운동은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던 때 60년대 말 보인원에서부터 그 싹이 터왔다. 기독교의 정신을 통한 나눔과 사랑의 돌봄 사역이 청소년들을 통해 일어난 실제적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고 자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던 학우들이 생겨났고, 이를 바라보던 나눔에 동참했던 친구들의 뿌듯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운동은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다. 금요

집회를 통해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약한 사람의 마음을 나누며 승화 성숙시키는 모임을 통해 이웃과 사회인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가지게 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 모임인 SCA가 주도하였는데 이 모임에는 외부 목회자들이 초대되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당시 춘천을 통해 일어났던 성시화의 비전도 나누게 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한 사제 간에 연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돕는 일들을 통해 사제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 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약 일만 명 이상으로 직 · 간접적으로 동참하여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지도록 하는 확산적 성시화운동이 되었다. 과거 2,000여 명 이상의 졸업생이 혜택을 받아 현재 각계각층에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며, 사랑의 메아리 운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절 예수마을선교공동체

1. 개관

1972년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의 불꽃이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방면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가슴 속에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자는 민족 복음화와 성시화의 비전과 꿈은 들풀처럼 퍼져갔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은 학생과 1976년 강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유학을 떠난 4명의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 최철만, 조영춘, 김홍수, 이명규 등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성시화의 도시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마을운동이 전국과 열방으로 확산하기를 소망하면서 헌신을 다짐한다.

이를 위한 비전으로 1979년 중도에 “예수마을”을 건립하여 확산하자는 가시적

목표를 정하고, 이 비전의 리더 최철만은 결혼 후 중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중도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비전에 동참하던 청년들 약 30여 명과 함께 모임을 결성한다. 그 멤버 중엔 당시 성수고등학교와 성수여고 출신의 청년 10여 명(신현후, 한명숙, 김정희, 최성랑, 엄부영, 최유경, 박철환, 필리핀 선교사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2. 주요사역

이 예수마을선교공동체는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청소년집회를 위한 준비팀을 결성한다. 이 준비팀은 1980년 8월, 삼천동의 어린이회관에서 성시화를 위한 청소년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는 지역의 여러 선교단체들의 협조 속에 서울의 예수전도단과 함께하였다. 당시 예수전도단은 국제 예수전도단과 합하여 국제적 활동을 시작하던 때였고, 다양한 국제 협력 전도 팀들이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였다. 이 집회에 국내외 예수전도단의 전도 팀들이 춘천으로 총집결하였고, 다양성 있는 문화가 접목된 전도적 전략을 가지고, 춘천의 모든 마을들과 동네의 길거리, 시장, 윤락가, 터미널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연극과 춤, 인형극 등을 통한 복음의 제시는 당시 춘천시 전역에 새로운 성시화 열풍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

이 성시화 청소년집회의 파장은 후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첫째 집회에 참여하였던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홍콩에서 온 외국인 중심의 FEET팀은 판토마임과 연극, 그리고 인형극을 공연했다. 둘째 예수전도단은 이를 계기로 성시화의 전략에 동참하였다. 예수전도단은 춘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었지만 성시화의 전략에 매료되어 예수전도단 전체가 성시화의 전략을 지향하게 되었고, 중도에서 이루고자 했던 예수마을 선교비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세 번째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회의 리더들이 훈련을 위해 예수전도단의 DTS, SBS등의 교육과 함께 선교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에 예수전도단에 소속된 간사로 최철만, 조영춘, 최성랑이 활동하게 된다. 후에 예수 마을비전과 성시화 전략을 위해 1985년 3월 홍천군 내면 솔무치 마을에 농

장 15만평을 매입하여 예수전도단 선교농장을 설립하였다. 이 선교농장은 예수전도단의 훈련센터로 예수제자훈련학교와 다양한 선교사 훈련을 위한 교육센터와 훈련센터, 일터와 선교사들의 쉼터를 위한 농장이었다.

3. 파급효과

선교농장을 개척했던 팀원들 중 최철만 간사는 선교사로 파송된다. 인도의 성시운동 선교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 센터를 건립하여 성시화전략을 중심으로 인도, 중국,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활발히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영춘 목사는 선교농장 사역 후 춘천으로 돌아와 지역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시화 운동에 참여한다. 그는 기독교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춘천성시화 사무총장과 본부장 등 성시화 관련 임원으로 20여 년간을 활동하며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8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약 80여 개 도시로 확산된 세계성시화 운동에 동참하여 전도사관학교 총책임자를 거쳐 2021년 현재는 강원성시화 대외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4절 백합공동체

1. 개관

춘천을 기반으로 한 백합공동체는 1981년 9월, 최준호 대표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창립목적은 사회봉사 및 가난한 이웃돕기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창립 정신으로는 순결, 희생, 사랑(백합의 꽃말)이었다.

2. 백합공동체의 특징과 사역



1980년 춘천중학교 졸업 당시 백합회 설립을 꿈꾸다(좌로부터 최준호, 남궁창성, 이상덕)

백합회가 정식으로 창립되기 1년 전인 1980년에 남궁창성, 이상덕, 이순모, 최준호 등 4명이 개인당 월 300원, 매월 1,200원을 모아 당시 춘천시 중앙 로터리에 있었던 서울신탁은행에 적립식 목적신탁에 예치(3년 약정 60,000원)하며 공동체의 꿈을 꾸었다. 1981년 9월 백합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창립하였으며, 창립회원으로 이상덕, 이순모, 최호성, 최준호, 노영만, 김성래, 이상덕 등 7명이 참여하였다. 1983년, 강원대학교 동아리로 등록(등록명 : 백합공동체)하였고, 강원명진학교 학생들과 함께 합주단 봉사도 시작된다. 이어 춘천 소년원 원생들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야외 합동 수련회(전국 최초)를 시작하였고, 오순절보육원 유아들과 함께 하는 놀이 봉사활동도 시작되었다.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수익 활동으로 봉사활동비 마련하고, 두레마을공동체, 예수원 등 국내 공동체 현장 답사하기도 하였다. 세계 예수 공동체 연구활동, 공동체훈련 수련회(연 2회)도 개최하였다.

1987년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에 백합공동체의 지회를 설립하였으며(초대회장 유지향), 1990년에는 백합공동체 기업모델인 「백합종합기획」(인쇄, 기념품, 우유배달 등)을 창업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강원라이프」(생활정보신문사)를 창간한다.

3. 주요 활동가들

지금까지 이 운동에 참여한 분들로는 김숭희(강원대 영문과 교수), 김영규(덕촌교회 목사), 김진형(강원명진학교 교감), 신성균(강원대 영문과 교수), 최현섭(강

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허양욱(남춘천침례교회 목사)를 비롯하여, 강경필, 강성재, 공현숙, 김남혜, 김동수, 김명석, 김명수, 김명숙, 김명희, 김미경, 김백수, 김순복, 김순영, 김순화, 김연숙, 김영미, 김영선, 김영일, 김영호, 김용순, 김용아, 김은아, 김인수, 김인순, 김회준, 김흥억, 김창환, 김래성, 김세엽, 김영미, 강병로, 김치환, 김왕권, 김명숙, 김정기, 권은아, 김진구, 김향화, 김향수, 경효옥, 남미현, 노영마, 남원옥, 나종찬, 남궁창성, 남귀우, 라은혜, 류시균, 류해영, 민경양, 문석남, 박기황, 박동숙, 박미순, 박상철, 박용승, 박윤선, 박정남, 박혜영, 반은숙, 박정덕, 박군도, 박현택, 방혜성, 배교신, 백정현, 변대규, 배진원, 변명섭, 박시춘, 박순철, 박원규, 성현숙, 석근호, 송정원, 신동훈, 서수호, 사공병구, 서동철, 안영섭, 엄영순, 엄현덕, 유용식, 유정열, 유지향, 윤경숙, 윤기숙, 윤순덕, 윤인철, 이경선, 이경희, 이대승, 이상광, 이상덕, 이순모, 이순애, 이양순, 이용성, 이용진, 이은옥, 이재월, 이재종, 이정미, 이정옥, 이정우, 이재희, 이현재, 이원희, 이재관, 이일호, 이종탁, 이주공, 이찬옥, 이철근, 이희경, 임길승, 임보연, 이은숙, 이상준, 장덕범, 장영교, 장인수, 장형준, 전주병, 정경미, 정경숙, 정노선, 정동수, 정경순, 정만교, 정미경, 정수길, 정의동, 조형복, 차종구, 채경문, 최경옥, 최남용, 최만희, 최승규, 최준호(용호), 최은희, 최종천, 최호성, 하은실, 한창숙, 함연호, 허재순, 홍성호, 홍연경, 황경미, 황미경, 황선희 등 목사, 교사, 정치인, 공무원, 전문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159명이 참여하였다.



1981년 백합회 발기 준비모임(좌측 2번째 노영만, 최준호, 이순모, 김영일, 김성래)



1981년 9월 백합회 창립식(기도시간)



창립 정관 의결 및 초대회장
(최준호, 춘천고2학년) 선출



1989년 하계 공동체 수련회



1985년 정기모임(좌로부터 신성균 교수,
김진형 교감, 백정현, 김용순, 채경문, 정동수,
윤경숙, 정경숙, 박용승, 최준호, 조형복



1990년 6월 춘천십자가행진(좌로부터 최준호,
김명석, 이순애, 박상철, 정만교 등)



1992년 동계 공동체 수련회
(화천 아바공동체훈련원(원장 이윤식 목사))



[백합종합기획 및 강원라이프] 공동체기업 운영

5절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1. 개관

1985년경부터 허문영(당시 강원대 강사. 현 평화한국 대표), 김종호(당시 IVF 간사. 현 효자감리교회 담임), 이영길(당시 CCC. 현 가나안농군학교 사무총장), 조용호(당시 CCC. 현 춘천성시화운동연구소장)등 성경적 삶과 기독교공동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춘천의 기독교 학문연구 그룹이 있었다. 기독교 세계관 관련 영문서적을 공부하는 가운데 대학생선교회, 기독학생회, 예수제자운동 등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의 학생 지도자, 젊은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연구 모임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1988년 3월, 허문영을 중심으로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된다. 이 모임은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와 명칭은 유사하나 그 출발에 있어서 서울의 단체와 무관한 자생적 모임이었다. 성경적 세계관공부와 기독교 학문연구의 성격을 넘어서 친교와 나눔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2. 주요 역사

1) 3대 강령

1993년 1월 10일, 춘천 누가교회(현 나눔교회)에서와 동년 12월 19일 춘천 기독학생회관(IVF)에서 회원들이 채택한 3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 강령1) 『온전한 그리스도인』(Whole Christian)의 배출
- 강령2) 『성서적 대안 공동체』(聖書的 代案共同體)창출(1차 귀향:2000년)
- 강령3) 『춘천성시화』(1차 귀향:2000년, 2차 귀향:2010년)

이들은 강령3에 채택한 바와 같이 기독교학문연구와 함께 가시적 목표로 춘천

성시화운동에 적극 헌신하기로 결의한다. 그래서 2000년과 2010년이라는 귀향(歸鄕)연도를 정하고 1년에 두 차례씩 귀향 수련회를 전개하였다. 춘천이라는 토양이 너무나도 척박하기에 2010년까지 나름대로 국내외에서 충분히 배우고 돌아와 전문가가 되어 다시 만나자는 결의를 내포하고 있다. 2010년 귀향 이후에는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모델 도시 춘천을 기치로 포괄적인 기독교공동체 타운을 건설한다. 이를 가칭하여 '예수가족공동체'라 칭하였다.

2) 「복음과 춘천대회」 개최(1994년)

1994년 「복음과 춘천대회」는 명실상부한 2세대 성시화운동이라 칭할 수 있다. 1세대가 1972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면, 1994년 복음과 춘천대회는 1세대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허문영 박사(춘천기학연), 안동규 교수(한림대. 춘천기윤실), 차성도 교수(강원대. 춘천기윤실)를 중심으로 보다 젊은 2세대가 일으킨 운동이었다. 제일장로교회에서 김진홍 목사(두레마을)와 문선재 총장(강원대)이 기조강연을 하였고, 조남진 장로(월드비전 대표), 허문영 박사, 안동규 교수, 윤태호 목사(예수제자운동 대표), 한균 목사(평화감리교회. 담임), 장근성 목사(IVF대표간사)가 토론하였다.

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기여(1996년)

1996년 가을, 춘천기학연은 춘천기윤실과 함께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창립에 크게 일조하였다. 춘천기학연 출신의 임성택 간사(성시본부 초대간사), 신승일 간사(수습), 정재호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역임. 현 늘사랑교회), 최상도 목사(기독교연합회 총무역임. 현 사암교회)를 배출하였다. 이영길(현 인도선교사)을 성시화운동본부 창립 1호 선교사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행한 공식도서인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1997.신앙계)에도 기학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게 된다.

4) 주요활동 인물

1999년 여름, 국제적인 조직으로 재편, 「국제예수가족」 체제로 확대키로 하였다. 종신 총재에 허문영 박사, 한국이사장에 피종호(목사, 나눔교회), 국제 사무총

장에 정재호(목사, 늘사랑교회), 아시아본부장에 이영길(선교사, 인도), 한국대표에 최상도(목사, 사암교회), 사무국장 및 동역회장에 차문진(YMCA, 파주 사무총장 역임), 기획실장에 임성택(현 세뛰세 사무총장), 이사에 남기철(기업인), 허순영(한림대, 교수), 정광수(강원대 교수), 변춘자(전도사), 기획위원에 원호경(사업가), 윤명희(전도사), 정보통신실장에 이원기 대표(사업가), 간사로 이신혜를 선임하였다.

그후 성경적 세계관 과정과 여타의 과정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중요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는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이영길(선교사, 인도), 정은경(선교사, 인도), 신현순(교수, 미국), 김현진(독일), 김복기(메노나이트, 선교사), 김인국(외교관), 김진호(선교사, 중국), 김진구(선교사, 중국), 이순복(선교사, 세네갈), 남궁태석(미국, 목사) 등이다.

국내적으로는 허문영(평화한국 대표)을 비롯하여, 피종호(목사, 나눔교회), 조용호(법제처, 춘천성시화운동연구소장), 최상도(목사, 사암교회), 정재호(목사, 늘사랑교회), 한갑수(강릉대 교수), 주남호(목사), 엄기증(기후변화연구원, 박사), 박성미(사모), 김수정(사모), 박억수(목사, 강릉한마음교회), 김춘배(화가), 유나예(상담소장), 신승일(센터장), 김효진(강원대, 박사), 백종진(교육가), 전병국(기업인), 전병길(통일과 나눔재단 사무국장), 이원철(한림대 교수), 김진숙(목사), 박태석(목사), 박영규(교사, 장로), 박일수(목사), 김태범(목사), 송영채(목사), 김윤동(수산업, 대표), 신덕진(센터장), 유대형(목사), 김신혜(전도사)등이 있다.

주요 활동 정회원으로는 김신자, 이두상, 이지영, 정윤주, 이명순, 김수영, 김정



애, 김규학, 김은희, 김수진. 맹진녀, 박한숙, 신미라, 윤정녀, 위관숙, 함혜신, 조경환, 이지선, 황성현, 이송자, 박정미, 허금녕, 정재성, 장정락, 고재호, 최양순, 김미미, 김연근, 고영수, 오순실, 이금복, 오일남(사업가)등이 있다. 협력교회로는 오랫동안 장소를 제공하였던 동부교회를 비롯하여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사암교회, 효자감리교회 등이었다. 협력기업으로는 안디옥서점, 두란노학원, 드림헤어, 샤론의 꽃집, 샬롬패션, 피어라들꽃농장이다.

6절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1. 개관 및 시작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는 춘천 복음화의 비전으로 결성되었다. 1996년에 '춘천성시화운동'의 기독미술 영역인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로서 시작된다. 발기(發起)는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서예가 양인평 장로가 1960년대 초 함께 서예를 공부했던 친구 강원대학교 황재국 교수와 협력하여 여러 미술인들의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양인평 장로는 기도 중, 미술인들이 받은 달란트인 미술 장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춘천 고을에 복음이 전파되어 춘천시가 성시화 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임을 믿고 모임창립에 열정을 쏟았다.

처음 회원은 22명으로 결성되었다. 장르는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 공예, 조각, 전각 등이었다. 남자 12명, 여자 10명으로 춘천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비중 있는 작가들로 미술대학 교수, 원로교수, 미술 교사, 전업 작가, 미술대학 출신 주부 등이었다. 초대회장은 춘천교육대학교 미술과 원로교수인 서양화가 김정희 선생을 모셨다. 초창기 실무적인 일은 양인평 장로와 황재국 장로가 총무 역할을 담당했다.

2. 주요사역



창립전시회 도록(1997년)

첫 번째 가시적 행사로는 창립 다음 해인 1997년 부활절에 맞추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미술로 승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일간, 지금은 사라진 도청 앞 춘천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97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 창립전」을 개최했다. 회원 22명 전원과 찬조 작가 7명의 작품을 진열하고 창립전시회 도록을 발행하였으며, 기념예배를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를 모시고 여러 교회 목회자, 교인, 회원 가족, 각 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드렸다.

창립전의 찬조 작가는 춘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독 원로미술인들과 가톨릭 신자인 작가들도 초대했다. 많은 시민들이 창립전을 관람하여 전도의 한 몫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이 많이 참석하고 출품작들을 구매해 각 기관에 걸어 놓았으니 이를 통해 회원들은 더욱 전도의 보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구입비로 모임의 기금을 삼아 오랫동안 활동자금으로 사용하여 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 후 매년 정기적으로 작품전을 개최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데 힘썼다. 작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창조질서의 묘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춘천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는 데 힘써왔다.

2000년에 폭넓게 강원도 전체 기독교 미술인들의 연합과 참여를 위해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로 모임의 이름을 확대하고,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술인 외에 강원도를 연고로 한 출향작가들도 회원으로 영입하였다. 2019년부터는 사진과 도자기 장르도 추가하였다. 2022년 현재 회원은 원로작가, 중견작가, 신진작가를 골고루 포함하여 60여 명이며, 정통 교단에 속한 기독교 신자로서 국내외 미술계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수한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전시회는 춘천미술관과 춘천문화예술회관 외에 홍천 서면의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한 미술관이나 동부교회와 한울섬김교회 등 춘천의 여러 교회에서 초

대받아 전시하였으며, 한차례는 춘천가톨릭미술인회와 연합전시회를 하기도 하였다.

본회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독미술인 단체들의 연합전시회에도 참여하였다. 2006년 세계선교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크리스천아트페스티벌」(성남아트센터 미술관)과 2010년 대전기독미술인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동 페스티벌의 제4회 전시회(대전 연정국악원)에 전국 각 지역의 미술선교단체들과 함께 참여했다. 또한 2020년에는 서울 경기지역 미술선교회들을 중심으로 열린 「대한민국크리스천아트피스트(KCAF)」의 온라인전시회와 소품전시회에 참여하여 강원도 기독미술의 면모를 선보이고 미술선교의 사명을 고취하였다.

초대 김정희 회장을 시작으로 10명의 회장을 거쳐 본 회는 현재 한국화가 권영순 권사가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예가 황재국 총무, 서양화가 홍연화 서기가 임원진으로서 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권영순 회장은 [갤러리 아가]를 운영하고 있어, 본회 전시는 수년간 추수감사의 달 11월에 갤러리 아가에서 대관료 무료의 혜택을 받으며 전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절감 효과와 함께 춘천 시내를 벗어나 풍광 좋은 경춘국도에 전시장이 자리하여 많은 행인들이 자연스럽게 들려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다. 본 모임은 2022년으로 제25회 작품전을 맞게 된다. 그동안 이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리며, 강원도 전역에 미술을 통해 기독미술인의 저변 확대와 기독문화 발전과 춘천 성시화에 공헌하는 것이 본회의 설립 목적이며 사명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3. 아가갤러리

현재 아가갤러리로 사용되는 건물은 1999년도 휴게소로 건축되었다. 그러던 중 경춘 고속도로와 전철이 개통된 이후 차량통행이 감소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휴게소를 그만 두려고 작정기도를 하던 중 휴게소를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며 '새 이름을 주세요.'라고 기도 했다.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선 아가서의 이름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확신을 주셨



제23회 정기전시회 개막식 후 정기총회 풍경
(아가갤러리, 2020년 11월 2일)

고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대로 미술관을 운영해 오자는 마음을 먹고 아가라는 이름으로 갤러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가갤러리의 이름은 성경의 아가서에서 따왔으며 고상한 노래 중의 노래라는 의미로 지었다. 위치는 강원도 춘천 46번 국도 변에 위치하였으며 건축가 이종호가 설계하였고 2011년도에 개관하였다.

국도변과 강촌의 관광지에 위치한 특성상 갤러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하여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며 대중과 함께 공유하며 작품에 누구나 쉽게 다가서는 기독문화예술 공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가갤러리는 2개의 전시실과 아트숍, 카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카페는 지역 모임이나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을 가지기에도 적당한 규모와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7절 강원기독문인회

1. 강원기독문인회의 연혁

강원기독문인회는 김기태 장로의 발의와 권유로 강원도내 문학 작가로 활동 중인 기독작가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작품을 창작 발표하고 신앙의 글을 통하여 문서선교를 목적으로 2015년 창립되었다. 먼저 2015년 9월 10일 춘천시내 5개 교단을 대표하는 작가를 발기인으로 구성하였는데, 감리교단 김기태 장로, 성결교단 김용배 장로, 순복

음교단 김용헌 장로, 장로교단 김병택 집사, 침례교단 남현자 집사, 5명이었으며, 2015년 10월 27일 회원 30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강원기독문인회가 창립되었다. 강원기독문인회의 강원도 내 문학 활동을 하는 기독인을 어우러지게 하는 신앙공동체를 구성하여 문학으로 복음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자 한다. 그 창립 목적은 첫째 회원의 자아향상과 사랑 나눔, 둘째 기독 신앙에 기초한 작품 활동과 정보교환, 셋째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순수기독문학 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

일자	주요내용
2015년 9월 10일	창립총회개최, 초대회장 김기태 장로
2017년 9월 1일	동인지 강원기독문학 창간호 발행
2018년 11월 18일	정기총회 및 강원기독문학 2집 발행, 회장 허대영 장로
2019년 11월 16일	정기총회 및 강원기독문학 3집 발행
2020년 11월 14일	정기총회 및 강원기독문학 4집 발행, 회장 김용배 장로
2021년 11월 14일	정기총회 및 강원기독문학 5집 발행
2022년 11월 12일	정기총회 및 강원기독문학 6집 발행

2. 강원기독문인회 중점 사업

1) 기독문학지 발간 및 배포 사업

강원기독문학지는 국판 칼라인쇄로 900권 발간하고 교회, 도서관, 군부대, 병원, 복지관, 교도소, 북카페와 희망하는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회원대상 작품집 달력 제작하여 간접 강원기독문인회를 홍보하고 있다(2022년 제6호 문학지 발행).

2) 강원기독문학상 · 신인작품상 제정 시행

강원기독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기독문학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강원기독문학상을 제정하여 기독문학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강원기독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하여 기



강원기독문인



강원기독문인회 출판기념 및 정기총회 모습
(2020년 11월 14일)

독문학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신인작품상을 시행하고 있다(2022년 신인작품상 1명, 입상 4명 선정 시상).

3) 강원기독문학 작가 등단제도

기독문학의 새로운 문단(장르)을 개척하고 기독문학의 창작과 발표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작가에 한하여 강원기독문학 작가 등단증을 수여하고 있다. 강원기독문인회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강원기독문학의 창작과 저변확산에 힘쓰고 있다(강원기독문학 장르별 작가로 2021년 13명 2022년도 5명의 기독문학 작가 배출).

8절 CCF 목회자회

1. 개관

1997년, CCF(ChunCheon Churches Fellowship)는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몇몇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연합 독서토론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하던 박인관 목사(광염교회), 조영춘 목

사(예광교회), 피종호 목사(나눔교회) 등이 공동 발기인으로 하여 당시 광염교회 도서실(애막골. 빛소금작은도서관)에서 모임이 시작되었다.

얼마 후 취지에 공감한 김종호 목사(효자교회. 강원기독학생회 간사 출신), 고재만 목사(영락교회), 이주호 목사(소양제일교회),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정재호 목사(늘사랑교회), 최상도 목사(사암교회) 등이 합류하였다.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독서 토론, 교제와 선교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목회자모임이요, 작은 선교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기독교 연합활동과 지역성시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를 모아 협력하며 섬기게 된다. 현재까지 약 1,200여 권 이상의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인문학, 신학, 사회, 실천적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을 심도 있게 공부하며 계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관도 없고, 규칙도 없으며,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이 책을 읽고 나누는 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며, 함께 도전받는 모임체가 되었다.

그동안 여러 중요한 목회자들이 거쳐 갔으며, 2022년 현재는 회장 박인관 목사, 총무 고재만 목사를 중심으로 정회원으로 김수복 목사(거성침례교회),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 박재영 목사(소망성결교회), 김종호 목사(효자감리교회), 신성균 목사(순복음열린교회), 지용찬 목사(은혜장로교회), 염윤호 목사(평화성결교회), 윤대영 목사(춘천사랑의교회), 한근호 목사(가평성결교회), 조영춘 목사(성시선교사)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는 조기 은퇴 후 필리핀 선교사로 아이따 족을 섬기는 김수복 선교사가 있고, 성시 선교사로 조영춘 목사를 배출하였다. 출발부터 독서토론과 함께 공동선교를 지향하였다. 해외 선교를 위해 인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비롯하여 북인도 비하르 친베리아 지역 등에 연합 선교센터를 설립, 지역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역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2. CCF 목회자회의 특징

작은 독서모임으로 시작하여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춘천지역 선교공동체로 발전한 CCF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독서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7:00~9:30)에 광염교회에 모여 순번을 정해 관심을 가진 분야의 책을 읽고, 10~20쪽의 요약본을 준비하여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눈다. 이 독서 모임은 목회자로서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개인적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나눔으로서 균형이 있는 목회자로 서게 하였다. 때로는 인문학 도서를 집중적으로 읽기도 하였고, 신학의 각 분야를 정하여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책을 읽고 나누기도 했다. 또한 책의 저자를 직접 초청하여 심도 있은 독서 나눔을 하며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나눈 도서만 해도 1,200권이 넘는다.

2) 연합활동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그리스도 교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교회를 총망라하여 모임을 가져왔다. 지난 25년 동안 연합의 마인드를 매일 체감하며,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포용했다. 토론할 때면 각 교단의 신학이나 각자의 성향이 달라 때로는 오랜 시간 토론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 교단에 치우쳐 편협할 수 있는 단점들을 서로 보완해 가며 균형 잡힌 교회관을 정립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특히 CCF회원들 중에서 춘천을 대표하는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4명이나 배출하였고, 목회자연합회장 또한 5명을 배출하였다. 이와 함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강원 CBS이사장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임기시에는 서로 한 마음으로 내일같이 성도들을 보내고, 재정지원을 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교계연합활동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한 친교를 목적으로 월1회의 체육활동을 하며, 분기별 1회는 2박3일의 모임을 가져 취미를 위한 모임이나 여행을 하며 친밀감을 깊이 나누고 있다.

3) 공동목회

교회력에 따른 절기나 국가기념일, 또는 교회 기념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눔으로서 목회를 풍성하게 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매년 봄에 한 차례씩 연합부흥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들어온 헌금으로

해외선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합하여 임원(제직)훈련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연합수련회를 다년간 실시하고, 교사훈련도 연합으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 건축 등 큰 일이 있을 때면 열린 마음으로 재정을 모아 지원하였다. 자칫하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목회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서 목회적,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을 주기도 하였다.

4) 선교활동

CCF는 모임초기부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선교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그때그때 마다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긴급 지원하고 선교사역을 도와왔다. 무엇보다 인도지역을 주된 선교 목표로 삼아 「인도 비하르선교회」를 조직하여 춘천동부교회 출신인 이영길 선교사, 정은경 선교사를 통해 10개 도시 데가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각 마을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60여 개의 문맹퇴치학교를 세우고, 선교하였다.

이것이 발전하여 인도 비하르 주 자므이군 친베리아 마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Light & Salt Misson Shool을 건축하였다. 2022년 현재, 1~8학년 7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과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30여 명의 미래 있는 아동들을 발탁하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농업의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며, 농민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만 평의 농토를 30년 대여하여 시범농장화를 하고, 농민교육을 위한 교육센터도 건축하였다. 원주 가나안농군학교의 김범일 학교장을 인도



바하르 주 선교 사진(2010년)

로 초청하여 인도대통령 압둘깔람을 수차례 만나 인도의 농업교육의 발전을 논의하였다. 또한 자므이 군수를 만나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실천하기도 하였다. 5년 전에는 현지인 목회자 양성의 필요를 느껴 신학교를 세워 CCF 12명의 목회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순회하며 강사로 인도를 방문하여 훈련을 돕고 있다.

인도 현지에서는 지금까지 7명의 목사가 배출되었고, 1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현지 목회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성탄절에는 마을 중심의 행사가 열려 매년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10여 개의 주일학교를 운영, 매년 성경학교에 수 천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9절 한아름 선교회

1. 개관

2006년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목회적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의 없는 나눔을 통해 목회를 돕고 협력하는 모임으로 출발한다. 매주 수요일 9시 반에 모이는 목회자 셀로서 삶의 나눔과 함께 기도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모임은 지난 2016년 한아름선교회로 이름을 개칭하여 선교를 지원하는 모임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2. 모임의 특징과 발전

이 모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단적 다양성을 가진 목회자 셀이다. 건강한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목회적 고민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에 한 번씩의 편안한 마음의 대화를 하며 교제하는 교제 중심의 모임이다.

둘째, 각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서로 중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 있는 목회자들은 회원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며, 자기의

유익까지도 포기하였다.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대로 교회의 터를 내어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 실제적인 나눔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였다.

셋째, 2016년에 선교회로 명칭을 바꾸며 선교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회원들이 동의한 해외 선교지의 신학교를 돌아가며 각 과목을 맡아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선교에도 함께 헌신하며 선교공동체 사역에 힘쓰고 있다.

3. 주요 참여자들

2021년 현재 이사장(홍요셉 목사, 예사랑교회), 대표(조영춘 목사, 성시화운동본부), 총무(이상철 목사, 늘찬양교회), 김수복 목사(필리핀 선교사), 김은선 목사(고은교회), 노에녹 목사(하늘섬김교회), 정덕현 목사(푸른초장교회), 이병철 목사(주향교회), 이영규 목사(신북교회), 정선문 목사(제자들교회), 이성훈 목사(거성교회), 박찬규 목사(원주신흥교회)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춘천 교계의 발전과 춘천성시화를 위해 협력 지원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필리핀을 주요 선교지로 돕고 있다.

10절 문화예술체육 선교단체

1. 찬양사역단체

1) 엘리엘 찬양단

(1) 소개

찬양단 이름인 '엘리엘'이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레위지파 그핫자손으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인물이다. 엘리엘찬양단은 초교파적인 중·고·청 연합찬양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



엘리엘 초기멤버

는 젊은이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도전을 주고,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청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찬양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팀이다.

찬양단 구성은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구성되고, 단장, 팀장, 홍보팀, 음향팀, 싱어, 세션, PPT담당 등의 조직이 있다.

(2) 정기 찬양집회 'ENDTIME-MARANATHA'

엘리엘 정기 찬양집회 "END TIME - MARANA THA"는 2달에 1회씩 개최하며, 홀수 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강사 일정으로 인한 집회 일정 조정 가능)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 팬더믹이 확산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정기



춘천성시화 집회 찬양인도

집회를 진행해왔고 다양한 집회의 찬양 인도 및 노방전도 등에 참여하면서 젊은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나, 현재 전염병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대면집회 및 기타활동을 모두 보류하고 있다.

(3) 그 외 사역

엘리엘 찬양단 활동은 엘리엘 정기 찬양집회, 찬양팀이 없어서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의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에서 요청할 시 찬양인도를 통하여 예배를 돕는 사역, 그 외 춘천지역의 연합집회 찬양인도, 봉사와 전도 및 선교활동 등을 한다.

2022년 9월 직접 작사 작곡한 첫 앨범 '은혜의 해' 찬양을 유튜브와 음원사이트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엘리엘 찬양단 기타사역〉

일자	주요내용
2018년 5월	춘천 애민보육원 후원
2018년 10월	춘천순복음교회 춘천성시화집회 찬양인도
2019년 8월	춘천명동 버스킹예배 및 노방전도
2019년 8월	춘천신성감리교회, 주향교회 2019 춘천 청소년 부흥회 찬양인도
2019년 9월	춘천주향교회 춘천 24시간연합예배 찬양인도
2019년 10월	춘천순복음교회 춘천성시선교대회 찬양인도
2019년 11월	춘천우리교회 춘천청년연합집회의 찬양인도(정부흥목사)
2020년 1월	춘천샘물교회 주일예배 찬양인도(이영심목사)
2022년 9월	싱글 앨범 'The year of the Lord' 발매

(4) 앨범 발매

End time – Marana tha 엘리엘찬양단(이하 엘리엘찬양단, 단장 최용신)은 'The year of the Lord' 앨범으로 '은혜의 해'라는 곡을 9월 23일 발표했다.

'은혜의 해'는 누가복음 4장 16~21절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사야서 61장 1~2절)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곧바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시며, 구



엘범자켓

약시대 구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취되었다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포로 된 자들과 눌려있는 자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찬양을 부르는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모두가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는 싱글이다.

이번 앨범은 특별히 코로나 팬더믹으로 찬양단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 삶이 고통받고, 힘들게 되어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곡의 작곡부터 작사까지 찬양단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엘리엘 찬양단은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정기집회 및 기타 사역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2) 제이락

JLOC(제이락)이란 이름은 "Jesus Love On Chuncheon"의 약자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또한 “祭以樂”이란 뜻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란 의미를 지니고도 있다.

제이락은 2002년 8월 강수인 단장을 중심으로 춘천시 21개 교회와 단체들의 리더와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춘천성시화”를 이루는데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하나 됨과,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찬양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단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역했다. 또한 자신만의 교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확장해 나가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이락은 2002년 9월 첫 집회를 시작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2004년 12월 제이락 첫 앨범인 “회복”이 출시를 시점으로 2004년부터는 매월 월요일 저녁 7시, 정기 찬양예배를 석사감리교회, 중앙성결교회, 효자감리교회, 이루어가



춘천찬양축제(2009년)

는감리교회 등에서 드렸으며, 춘천시 연합예배의 찬양인도와 개교회 수련회 찬양인도를 맡아 사역해 왔으며, 2011년까지 활동하였다.

제이락의 멤버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제이락 멤버

Worship Leader
김병찬 [장로교회(인천)], 박유식 [신성감리교회], 이영규 [모전감리교회]

Session [팀장 : 신선우]
Drum 안정찬 [연수제일교회(인천)], Drum 최병관 [설악교회(가평)]
Bass 신선우 [안디옥감리교회] – 팀장, Electric Guitar 박상범 [New Sound Church(서울)], Acoustic Guitar 김욱수 [중앙성결교회]
1st keyboard 고진희 [중앙성결교회], 1st keyboard 장보람 [부름감리교회], 2nd keyboard 박자경 [신북장로교회]

Vocal [팀장 : 이향숙]
Soprano 김영희 [중앙성결교회] – 팀장, Soprano 김지예 [영광장로교회]
Soprano 이현정 [신성감리교회], Soprano 최유경 [제일장로교회]
Soprano 최영주 [신성감리교회], Alto 강현숙 [석사감리교회]
Alto 이향숙 [석사감리교회], Tenor 김진혁 [석사감리교회]
Tenor 서성철 [안디옥감리교회], Tenor 함동환 [신성감리교회]
Tenor 김용진 [세상을비추는교회],

Engineer
이동옥 [신성감리교회], 장현식 [중앙성결교회], 장미화 [부름감리교회]

영상 & 미디어
박경선 [순복음제일교회], 정승훈 [중앙성결교회

3) 하늘소리찬양선교단

2014년 창단된 하늘소리찬양선교단은 영혼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로 구성된 초교파모임 선교단체이다.

개척교회나 소규모교회에서 거리찬양전도를 원할 때 섬기고 있으며 연합모임이나 개교회 행사에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으로는 매주 목요일 저녁 단원들끼리 모여 기도와 그달 집회를 위해 찬양연습을 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정기적으로 옥산포교회에서 찬양집회를 하고 있다.

하늘소리찬양선교단 단원은 아래와 같다.

●● 단원소개

- 단장 : 이명자 목사(옥산포교회)
- 메인 : 안설희 • 쎄컨 : 정은진 • 드럼 : 김충만 • 베이스 : 김수진
- 어쿠스틱기타 : 김진석, 안재형 • 보컬 : 변복순 한유병 이소연 유재홍
- 영상자막 : 오은지 • 스텝 : 김영주



2. 선교야구단

1) 춘천의 선교야구단



경기 전 상대팀(춘천캐넌즈)과 선물을 나누고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

춘천의 야구 선교단은 크게 춘천 중앙교회의 지저스 아그너스 선교야구단, 강촌감리교회 중심의 마라나타 야구단, YMCA 야구단이 있다.

그 중 지저스 아그너스 야구단은 2011년 9월 11일 창단하여 2012년부터 춘천호반리그 및 도단위 전국단위 생활체육야구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은 물론 주의 사랑을 나누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성적으로 2020년 호반리그 토요후반기 춘천호부 우승을 비롯하여, 2022년 호반리그 토요 소양호리그 중간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2022년 9월 23일 현재) 아그너스 야구단은 매 경기 전 기도로 경기를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고, 경기 전 상대팀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전파하고 있다. 선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지저스아그너스 선교야구단 선수단

• 단장 : 김웅일 • 감독 : 이무헌 • 총무 : 유화성 • 선수 : 고정화, 김종현, 김진성, 김태영, 김한별, 김형주, 김효규, 김히스기야, 박동진, 박명환, 박시원, 박정욱, 배병열, 선우경수, 손정범, 원성용, 윤계성, 윤성주, 윤호진, 이민우, 이윤범 ,정희영, 조재부, 최현학, 함도균, 함왕식, 함종대, 홍성민, 홍성호, 홍세민

2) 춘천성시화 미션볼 사회인 야구대회

매년 10월 첫째 주에 야구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야구를 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아울러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가 바로 미션볼 사회인 야구대회다.

2022년 올해도 4회 대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춘천야구 선교단 뿐만 아니라 관내 사회인야구단과 감리교 동부연회, 남부연회 야구단도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향후 춘천성시화운동 본부와 함께 대회를 함께하고 많은 팀들이 참여하는 "미션야구토너먼트"대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참가팀 명단

• 제1회 대회 : 에클레시아, 아그너스, IMC선교야구단, 카우카우
• 제2회 대회 : 에클레시아, 아그너스, IMC선교야구단, 건우
• 제3회 대회 : 에클레시아OB, 에클레시아YB, INC선교야구단, 건우
• 제4차 대회 : 마라나타, IMC선교야구단, 아그너스, 남부아포슬스, 두나미스, 메디체크

3. 순복음춘천교회배 시민초청 탁구대회

2008년 제1회부터 2019년 제12회까지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김종열 장로의 기도와 섬김으로 12년간 2,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춘천의 대표적인 탁구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회는 지역 탁구 활성화와 스포츠 선교에 이바지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마당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의 교구전도대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제공하면서 전도의 장을 열었고, 총여선교회에서는 식사 봉사로 참석한 선수들을 섬기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탁구대회 모습

회차	날짜	참가선수(명)
제 1 회	2008. 2. 21	150
제 2 회	2009. 5. 9	130
제 3 회	2010. 10. 30	220
제 4 회	2011. 11. 5	280
제 5 회	2012. 11. 16 ~ 11. 17	160
제 6 회	2013. 11. 1 ~ 11. 2	210
제 7 회	2014. 10. 31 ~ 11. 1	180
제 8 회	2015. 10. 30 ~ 10. 31	200
제 9 회	2016. 10. 28 ~ 10. 29	200
제10회	2017. 10. 20 ~ 10. 21	180
제11회	2018. 10. 19 ~ 10. 20	200
제12회	2019. 10. 18 ~ 10. 19	200

4. 춘목족구단

춘목족구단은 2005년 8월 경 7·8명의 목회자들로 시작한 아침 족구가 점차 평신도들도 동참하여 오늘날 2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족구단 정식 명칭은 2013년 정회원(목사)과 준회원(평신도)로 구성하여 정식 창단하게 되면서 춘목족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창단 초기 목회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하였으나 족구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전도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개방하여 현재 9명의 정회원과 14명의 준회원이 활동하는 유일무이한 춘천의 족구 선교팀



전국대회에 참가한 춘목족구단

으로 발돋음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춘목족구단을 통해 족구를 접하고 실력이 향상되어 춘천의 유수의 족구팀에서 활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지역별 족구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현재 회장으로는 김유식 목사와 총무 김종우 장로가 애정을 갖고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해 동안 춘천지역 교회 팀과 클럽 팀을 초청하여 대회를 통해 교류해 오고 있으며, 올해 2022년 봄에 개최한 '제3회 춘천 성시화를 위한 교회 및 클럽 초청 족구대회'에도 많은 팀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쟁 속에 성대한 막을 내렸다. 또한 수익금 일부는 태풍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 돕기에 사용하였다.

●● 춘천성시족구대회 참가팀

- 제1회 대회 : 춘목청, 춘목홍, 알파청, 알파홍, 대룡, 애농
- 제2회 대회 : 춘목, 알파, 애농, 초대교회, 춘천교회, 푸른교회, 석사교회, 대흥교회
- 제3회 대회 : 춘목청, 춘목홍, 알파청, 알파홍, 대룡청, 대룡홍, 애농, 대동



제1회 춘천성시 족구대회 모습

11절 춘천소년원

1. 개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는 비행청소년이 지적·정서적으로 바른 품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전문' 소년보호기관이다. 인성교육은 교과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컴퓨터,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헤어디자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학생들이 '1인 1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종교활동 사역은 박양덕 전도사, 조덕진 목사(신북장로교회)가 사역을 했었으며 2000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는 윤선애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다. 윤선애 선교사는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속으로 서울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훈련(5년 과정)을 마치고 매주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봉사를 했었다. 박양덕 전도사가 사임 후 신북장로교회 조덕진 목사가 사역하였지만 갑작스런 소천으로 윤선애 선교사가 신촌정보통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

신촌정보통신학교의 사역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예배를 드린다. 매주 각 교회들 봉사자들이 음식과 예배진행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2월은 정보통신학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성탄절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남양주 온누리교회,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원 온누리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오륜교회, 소망교회, 주문진 소돌교회, 춘천성광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행복나무교회, 춘천순복음교회, 춘천예사랑교회, 춘천홀리클럽, 강원CBS합창단 등 많은 단체들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2월 18일 우수멘토로, 2022년 3월 23일은 범죄예방정책 발전과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위원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2.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

23년여 동안 윤선애 선교사가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진행한 일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게 된다.

1) 1단계 : 매주 토요일 예배, 여름·겨울 수련회, 크리스마스행사



2019년 12월 19일(목), 장소. 춘천신촌정보통신학교, 크리스마스 예수탄생 행사

매주의 정기예배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그러지고 상처 난 마음들을 올바로 형성되고 치유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 후 만남과 다과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 주려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만남을 가지 아이들은 출소 후에 바르게 살고 가정의 변화되는 일들을 보기도 한다.

2) 2단계 : 출소 후~출소 학생 – 정기적 방문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연령의 아이들이다. 이곳에서 출소한 아이들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도 하고 있다.

(1) **재범** : 재범으로 다시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을 방문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2) **가정** : 출소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방문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 가운데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일찍 자녀가 있는 출소자의 가정에서는 어린자들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지속적인 돌봄 후원을 주고 있다.

(3) **정착** : 직장생활, 사회적응에 부분을 돕고 있다. 이러한 사역으로 출소한 아이 중에는 현재 미용실 자격증을 수료하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도 있으며 앞으로 출소한 아이들이 함께 훈련받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힘쓰고 있다.

3) 3단계 : 지역교회와 연결

출소 후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고향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새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가 있는 지역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과 연결하여 좋을 관계를 가지고 돕도록 하는 사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연결된 교회에서 특별한 선물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쌀, 옷, 이불 등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개인 필요를 파악 후 선물을 돕고 있다.

제 6 편

춘천기독교120년사

춘천의 사회단체









제1장 춘천YMCA 332
1절 개관 332
2절 춘천 YMCA 335
3절 춘천YMCA의 주요사업 340
4절 춘천YMCA 회원활동 344

제2장 춘천YWCA 349
1절 개관 349
2절 춘천YWCA 352
3절 춘천YWCA 주요활동사항 356
4절 춘천YWCA 주요 프로그램 359

제3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61
1절 개관 361
2절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366
3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요활동사항 368
4절 자원봉사 373

제4장 기아대책 강원본부 375
1절 개관 375
2절 기아대책 강원본부 378

제5장 (사)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385
1절 개관 385
2절 춘천연탄은행·밥상공동체 주요활동사항 389

제6장 (사)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395
1절 개관 395
2절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398

제7장 홀트 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407
1절 개관 407
2절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410
3절 홀트아동복지회 춘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12

제8장 강원 CBS 417
1절 개관 417
2절 강원CBS 419
3절 강원CBS 주요활동(www.gwcbs.co.kr) 421

제9장 춘천와이신협(신용협동조합) 426
1절 개관 426
2절 춘천와이신협 429

제10장 두란노춘천아버지 · 어머니학교 436
1절 두란노아버지학교 436
2절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 438
3절 두란노어머니학교 442
4절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지부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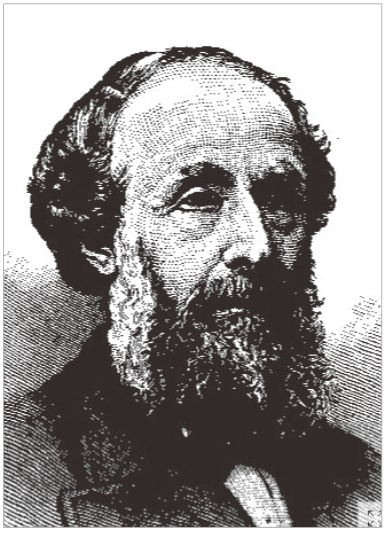
제11장 춘천기독교 사회복지기관 450
1절 춘천기독교 사회복지협회 450
2절 춘천의 기독교사회복지협회 기관 451

제1장
춘천 YMCA

1절 개관

1. 세계 YMCA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세계적인 기독교 평신도 운동 단체로서 1844년 6월 영국 런던의 히치콕로저스 상점 점원이던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가 12명의 청년과 함께 산업혁명 직후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의 정신적·영적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설립하였다.


YMCA창시자 조지윌리엄스
(George Williams)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가 시작한 YMCA 운동은 당시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사명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근간을 두고 젊은이들에게 종교적 영적 깨달음을 일깨워 구세주 왕국을 주변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북미로 이식된 YMCA운동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1851년 창립된 보스턴 YMCA는

미국정신사의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1855년 파리에서 열린 제1회 YMCA세계대회에서는 기독성, 청년성, 개방성을 근간으로 하는 파리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이 기준은 세계YMCA 운동의 통일적 기준으로 운동이념의 핵심정신이 되었다.

세계YMCA 운동의 분수령을 이루는 1878년 제네바대회에서는 연맹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연맹이사회가 세계YMCA 운동의 발전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YMCA운동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후진국에 대한 교육사업과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포로를 위한 사업과 난민구호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1955년 파리에서 개최된 100년제에서는 파리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1969년 제5회 노팅험대회에서 특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결국 1973년 우간다 캄팔라대회에서 파리기준을 재확인하고 캄팔라원칙이 제안되어 YMCA 운동의 새로운 지침이 되었다. 한편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1998년 독일의 프레헨에서 열린 제14회 YMCA세계대회에서는 「challenge 21」을 채택하여 선교적, 에큐매니칼적 운동체로서 YMCA의 사명을 다시금 선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YMCA 운동은 기독교 정신으로의 일치를 기본원칙으로 인종, 성별, 문화를 뛰어넘어 사회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계 각국으로 확장되어 현재 세계 12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천 8백여만 명의 세계시민들을 섬기고 있다.

2. 한국YMCA (기독교 청년연합회)

1) 한국 YMCA

YMCA란 기독교청년회(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영어 약자로 YMCA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03년 10월 황성기독교청년회와 배재 YMCA를 시작으로 1914년 4월에 경신학교, 광주숭일학교, 군산영명학교, 기청학관, 배재학당, 세브란스의전, 재일본 기독교청년회, 개성한영서원, 전주신흥학교의 학생 YMCA 등 45명이 모여 한국YMCA 연맹을 결성했다. 한국의 YMCA 운동은 각종





1903 황성 YMCA설립(황성기독교 청년회)

신문물과 운동 경기의 보급을 주도하고 일제의 압박 아래 신음하는 한민족의 계몽운동과 교육사업에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도 배출하는 등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초창기부터 한국YMCA의 멤버들은 근대적 사회의식개혁 운동에 중점을 두고 직업교육, 농촌 계몽운동, 기독교 민권운동에 정열을 쏟았다. YMCA는 1905년 우리나라에 야구를 처음으로 보급했고, 이어서 농구(1907년), 스케이트(1908년) 등 근대적 서구체육을 이 땅에 보급하였다. 1912년부터 일제가 '105인사건' 등으로 YMCA 등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919년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을 선도하였고, 1922년부터 물산 장려운동, 농촌강습소 개소운동 등으로 자립경제운동을 전개하였고, YWCA 및 보이스카우트, 신간회 등의 단체에도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해방과 전쟁을 거친 후에는 교육과 노동, 청년 운동을 펼쳐왔고 조국의 근대화와 민주주의 발전 및 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왔고, 1980년대에 이르러 고교 YMCA, 중학YMCA, 대학YMCA를 비롯하여 청년YMCA, 와이즈멘클럽 등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전국 67개 지역의 YMCA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절 춘천 YMCA

1. 춘천YMCA 연혁과 활동



YMCA 본관(장학리 83-1)

춘천 YMCA는 1949년 2월 21일 창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김영배 이사장이 취임한 후 현 30대 허대영 이사장까지 지난 70여 년 동안 파리기준(The Paris Basis)과 캄팔라원칙을 모체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로서 세계 기독교청년회와 한국기독교청년회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정의, 나눔과 평화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데 춘천지방의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춘천 YMCA는 1980년 중앙로 회관을 신축한 후 1985년 효자동회관, 1992년 후평동 회관으로 신축이전하면서 활발한 운동과 봉사영역을 확대해 왔다.

1997년에는 춘천YMCA 소양로회관을 신축하고, 2007년 춘천YMCA 장학리 회관 및 YMCA 푸름이 도서관을 개관 하였으며, 2009년에는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을 개관 하는 등 시설을 확충해 오면서 춘천지방의 중추적인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1) 광복과 재건의 시대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한국YMCA는 일제 말기의 극심한 탄압으로 지도력과 조직력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재건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던 중 1948년 이른 봄 강원도 춘천에서 김영배(춘천 도립병원장), 라사행(춘천형무소 교정실장, 목

사), 김우종(강원일보 사장, 목사), 방효정(효신교회 목사) 등 다수의 기독교인이 모여 춘천기독교청년회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였다. 당시 대한YMCA 연맹과 긴밀한 접촉 속에서 기증받은 건물(춘천시 중앙로 1가, 대지20평, 건물 40평)을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하여 1949년 2월 21일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초대 김영배 이사장과 라사행 총무를 선임하고 역사적인 춘천YMCA가 탄생하였다.

2) 6.25전쟁과 1950년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원주에서 피난하고 있던 춘천YMCA 회원들이 모여 김우종(강원일보 사장)을 2대 춘천YMCA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전쟁 구호 물품 지원 및 춘천 복구 사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2대 총무 박래철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라사행(육군 군목), 3대 총무 김형두 씨를 중심으로 미국,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 고아원과 병원에 대한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전쟁고아와 윤락여성에 대한 구호사업은 대한YMCA에서 개발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과거와 미래의 교량 구실을 했으며, YMCA의 시대적 대사회적 의미를 부각한 대담하고도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5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춘천YMCA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소명을 다하여 왔으나 한국전쟁 이후 1952~1962년까지 4명의 총무(2대 박래철, 3대 김형두, 4대 윤익석, 5대 김형두, 6대 신민현)가 짧은 임기를 반복한 것은 상근 실무자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1958년 회원으로 가입하고 1961년 이사로 선임된 김홍규는 1962년 11월 20일 춘천YMCA 7대 총무로 취임하여 1996년 6월 30일까지 34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였다.

3) 1960년대

춘천 YMCA에서는 1961년 4월 3일 YMCA 타이프학원을 개원하였고, 1963년 개교한 춘천YMCA 직업소년학교는 1966년 춘천방송국(춘천KBS)에서 기증받은 트레일러(14평)를 춘천시청 뒤뜰에 놓고 국제 와이즈멘 춘천 베타클럽의 후원 속에서 1975년까지 춘천 전쟁고아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1966년 외국인 Mr. Seneel 씨가 춘천시 교동의 대지 423평을 희사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

였다. 1964년 부활주일 연합예배 찬양을 준비하던 각 교회 성가대 지휘자들이 춘천 연합 합창단의 상시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국제 와이즈멘 춘천 알파클럽의 후원 속에서 춘천YMCA 은하수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1965년부터 YMCA·YWCA 연합예배를 시작하였고 1966년 춘천YWCA 창립을 지원하였으며, 1968년 춘천YMCA 아동부 수영 대표가 해군 참모총장 배 대회에서 100m 금상, 200m 은상을 받았다. 또한, 1969~1979년 춘천 주둔 미군 유도탄 사령부(캠프 페이지) 군인교회의 성가대 '조이스콰이어' 활동을 통하여 미군부대 지휘관들과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이후 국제와이즈멘 춘천 감마클럽의 후원 속에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68년에는 강릉YMCA(1968) 창립을 지원하였다.

4) 1970년대~2000년대

춘천YMCA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원주YMCA(1973) 창립지원, 춘천YMCA 중앙로 회관(1980), 효자동 회관(1985), 춘천YMCA 중등 교육자 교사협의회(1985), 후평동 회관(1992)을 신축이전하면서 운동과 사업을 확장하여왔다.

주요활동으로는 어린이 YMCA(1971), 하이-Y(1973), 청년 YMCA 연맹(1973), 회원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 카페 '뱃세다'(1971), 싱얼롱-Y 건전노래 부르기 대회(1974), 십대들의 광장(1974), 기독교 상조회(1980), YMCA 신용협동조합(1980), 청소년 상담실(1987), 청소년 어울 마당(1991), 속초YMCA(1991) 창립지원, 청소년 환경 감시단(1993), 청소년 토론의 광장(1993), 청소년가요제(1994), 춘천시민포럼(1995), 청소년자원봉사센터(1995), 춘천CBS 개국 지원(1995) 등이 있었다. 1997년 춘천YMCA 소양로 회관(1997) 프로그램센터 개소부터 재단법인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설립(2003)까지의 시기는 회원 참여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 관련 인프라의 확대를 통한 위탁 사업의 확장을 통하여 YMCA 세계관으로 함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회원과 직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심을 이루었고 97년 이후에는 청소년 녹색가게 '교복나눔 센터'(1998), 실업극복국민운동귀농학교(1998), 푸름이열린학교(1999) 등을 운영하였다.

5) 2000년대 이후

21세기를 맞으며 한국YMCA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응하여 춘천YMCA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2000년 9월에는 재단법인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였고, 청소년 공부방(2001), 녹색도시춘천만들기 시민운동(2001), 아동인권포럼(2001), 강원도 고등학교 회장단 리더십 워크숍(2002), 후평1동 주민자치 아카데미(2003), 기독포럼(2003)을 개최하였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로 시민운동, 청소년운동, 아동 및 사회복지 운동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운동 영역에서는 시민정치운동본부(2004), 인권영화제(2004), YMCA 부설 평생 교육원(2005),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본부(2006), 세계 십자가 전시회(2006), 강원 투명사회 네트워크 창립(2007), 춘천YMCA 장학리 회관(2007)개관, YMCA 푸름이 도서관 (2007)개관, 클린의회학교(2007), 강원도YMCA협의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2008), 아동 청소년 정책 강원지역 토론회(2008), 강원도 풀뿌리 기업 민관협의회(2012), 춘천YMCA 철원 생명 평화센터 개소(2013), 아르바이트 신고센터(2014), 자치분권과 시민주권 교육(2019), 강원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2019) 등을 운영해 왔다.

청소년운동 영역에서는 강원도 청소년쉼터(2006), 강원도 단기 여자청소년쉼터(2006), 철원 군 청소년수련관(2007), 춘천시 청소년수련관(2009), 강원여성생명평화의집(2008), 춘천시 청소년여행의집(2010), 홍천군 청소년수련관(2011), 춘천 오항리 청소년야영장(2011), 강원도 일시청소년쉼터(2013), 강원도 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2016), 강원도 이동형 일시청소년 쉼터(2019)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아동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강원 동요포럼(2006), 시간제육아센터 '아가야'(2006),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2007), 아동복지교사 강원지원센터(2008), 춘천시 아이돌보미사업(2009), 만천 지역아동센터 개소(2010), 춘천YMCA 어린이집(2010), 지역아동센터 강원 지원단(2011), 한국 산업인력공단 취업사관학교(2012), 퇴계동 꿈 더하기센터(2014), 홍천군 청소년 공부방(2014), 강원도 가정위탁 지원센터(2017), 장학리 꿈 더하기 센터(2016), 장학 지역아동센터(2018), 학대피해아동그룹홈(2019),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2019) 등을 운영

하였다.

이처럼 춘천YMCA는 1945년 해방 이후 강원도 지역사회에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히 주도해 왔으며 시민사회운동을 비롯한 청소년운동, 아동 및 사회복지 운동의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오면서 회원 주동성과 주체성, 기구운영의 항상성,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YMCA 세계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과 중심을 잡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2. 춘천YMCA 조직

1) 춘천YMCA이사회


제30대 허대영 이사장

춘천YMCA 이사회는 재단이사회와 실행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0대 허대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현재 재단이사는 등기 이사로 허대영, 전기헌, 허봉, 김희균, 양종천, 남궁제정 등 6인이 선임되어 있고 실행 이사로는 허대영, 전기헌, 허봉, 김희균, 양종천, 박종찬, 남궁제정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사로는 3년조이사 5인(남궁현, 박형일, 정재호, 오철환, 양종천), 2년조이사 10인(허대영, 백형기, 간진숙, 김희균, 지영숙, 송태규, 이창연, 유상운, 고윤순, 천성준), 1년조이사 6인(전기헌, 박종찬, 허봉, 홍윤숙, 김대현, 강윤모), 추천이사 4인(박재상, 탁창식, 전성, 김여진), 당연직 7인(와이즈맨 강원지방장, 와이즈멘 감마회장, 와이즈멘 오메가회장, 와이즈멘 청암회장, CBS강원방송 본부장, 춘천와이신협 이사장, 춘천YMCA 사무총장), 감사 2인(조한솔 2년조, 김보경 1년조)으로 구성하고 있다.

춘천 YMCA 역대 이사장 명부

일 자	대수	명단	일 자	대수	명단
1949년 2월 21일	제1대	김영배 이사장	1983년 2월 21일	제16대	한석기 이사장
1951년 2월 1일	제2대	김우중 이사장	1986년 2월 21일	제17대	강표원 이사장
1959년 2월 1일	제3대	함인섭 이사장	1989년 2월 21일	제18대	윤건배 이사장
1960년 3월 15일	제4대	김유찬 이사장	1992년 2월 21일	제19대	황형근 이사장
1961년 4월 1일	제5대	이정엽 이사장	1993년 2월 21일	제20대	한석웅 이사장
1963년 1월 20일	제6대	조봉일 이사장	1994년 2월 21일	제21대	이보우 이사장
1964년 2월 10일	제7대	김연호 이사장	1996년 2월 21일	제22대	천우석 이사장
1968년 3월 4일	제8대	김병선 이사장	1997년 2월 21일	제23대	장기호 이사장
1970년 2월 10일	제9대	김인원 이사장	2001년 2월 21일	제24대	최인혁 이사장
1972년 2월 12일	제10대	최병환 이사장	2005년 2월 21일	제25대	이칭찬 이사장
1974년 3월 24일	제11대	강표원 이사장	2009년 2월 21일	제26대	유영호 이사장
1975년 1월 21일	제12대	장석진 이사장	2012년 3월 22일	제27대	박형일 이사장
1977년 2월 1일	제13대	오성률 이사장	2015년 3월 27일	제28대	백형기 이사장
1979년 2월 21일	제14대	허명구 이사장	2018년 3월 29일	제29대	박종찬 이사장
1980년 9월 14일	제15대	여선동 이사장	2021년 3월 30일	제30대	허대영 이사장

2) 조직

춘천YMCA는 최고의결 기구로 총회를 두고 총회 산하에 재단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를 두고 있고 사무총장 아래의 후평동 본관, 동면센터 홍천군수련관 춘천시청소년수련관과 춘천시 청소년 여행의집 등 5개 기관에 35개 부서를 두고 있다.

3절 춘천YMCA의 주요사업

1.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

춘천YMCA는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YMCA이념과 정신을 토대로 새 문화를 창조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길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밝고 희망찬 우리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중학교, 고교, 대학생을 상대로 YMCA 클럽을 육성하고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력의 계발 및 여러 가지 교육 훈련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아동분야 사업으로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푸르미, 만천LH-YMCA,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춘천YMCA어린이집, 퇴계7단지 꿈+센터, 장학꿈+센터 등 3개소의 아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아동 프로그램으로 초록동요제와 YMCA어린이축구단, 캠프단과 꿈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의 사업으로 춘천시청소년수련관,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춘천시 청소년 여행의 집 등 수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시설로 춘천YMCA청소년공부방, 홍천군 청소년 공부방과, 생활시설(강원 도청 청소년쉼터-일시, 단기남자, 단기여자, 중장기여자)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유스오케스트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문화체험 캠프, 교육-활동프로그램 등도 활성화하고 있다.

2.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사업은 물질문명의 팽배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난무로 올바른 사회 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YMCA정신에 입각한 평생교육 및 사회교

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 생활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Y, 성인 교양강좌, 다양한 소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Y 주말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주말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울림 마당, 춘천YMCA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원봉사, 문화행사 등 청소년 주말 체험프로그램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과정, 바리스타 과정, 아이돌보미과정, 독서지도사 과정, 동화구연 과정 등 성인교양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가활용은 물론 건전한 자기계발을 통한 성인교양 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3. 시민사회 활동

YMCA는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970년대 사회개발단 운동, 1985년부터 현재까지 공명선거 실천운동, 지방자치시민운동, 유권자운동 등 다양한 시민자구 운동을 벌이며, 민주시민 의식개발과 올바른 시민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해오고 있다.

4. 회원을 통한 선교사업

YMCA는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회원 운동체로서 YMCA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YMCA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바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특히 기독교 사회운동으로서의 YMCA는 청소년들의 영적, 정신적 개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기독교 사회운동체로, 교파를 넘어 단결된 운동을 수행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춘천지역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함으로써 춘천지역의 성시화운동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5. 사회체육 활동

YMCA사회체육 운동은 건강과 신체적 성장증진, 각 개인의 품격 함양과 정서적 발달, 창의적 여가선용을 통한 자주능력 함양,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 양성과 지도력 육성, 기독교적 생활관 습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춘천YMCA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스포츠 신체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아동·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영·지·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통한 'Sports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해 YMCA사회체육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6. 국제사회 협력사업

지구촌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국제협력사업. YMCA는 세계의 모든 YMCA들의 모토인 "우리로 다 하나 되게 하소서(요한복음17:12)"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춘천 YMCA는 일찍부터 아시아 여러 YMCA와 자매결연을 하고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과 교류를 하고 6개국 9개 도시 YMCA와 교류 및 협력사업 진행 중이다.

4절 춘천YMCA 회원활동

1. 국제와이즈멘클럽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은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인 우호 단체로 YMCA 기본정신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계발육성 제공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해 더욱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에 국제와이즈멘클럽이 설립된 것은 1964년 11월 14일 23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후, 1965년 3월 27일 세종호텔에서 국제연맹가입헌장 전수식을 마침으로 국제클럽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춘천와이즈멘은 1966년 6월 10일 창립 1년 만에 춘천 베타클럽을 창립시켰고, 베타클럽은 1978년 3월 23일 감마클럽을 탄생시켰으며, 감마클럽은 1982년 12월 18일 청년 클럽이었던 청암클럽을 국제클럽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국제와이즈멘 한국중부지구강원지방총재이취임식 (2010년 5월 29일)



국제와이즈멘 강원지방 사랑의연탄나누기

춘천 Y's men 알파클럽은 은하수 합창단을 후원하고, 베타클럽은 직업소년학교를, 감마클럽은 시민논단을, 청암클럽은 체육사업(탁구, 산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 결과 1998년 IMF 전까지 춘천에만 8개 클럽(알파, 베타, 감마, 청암, 예맥, 오메가, 개나리, 중앙)이 활동하게 되었고, 도내 시·군에서도 원주에 2개 클럽을 비롯하여 속초, 태백에 각각 2개 클럽과 강릉, 동해, 영월, 홍천 등 모두 16개 클럽을 창립하게 하는 모태가 되었다.

춘천 와이즈멘 연혁

일자	주요내용
1978년 3월 26일	춘천감마클럽 창립
1982년 12월 18일	춘천청암클럽 창립
1986년 6월 26일	춘천오메가클럽 창립
2016~2017년	강원지방장
	춘천감마클럽 회장 최치은
	춘천청암클럽 회장 임훈재
	춘천오메가클럽 회장 김대기
2019년 7월~2020년 6월	강원지방장 김대식, 감마클럽회장 백형기 청암클럽회장 홍종대, 오메가클럽회장 곽도훈

2. YMCA 아기스포츠단

춘천YMCA 아기스포츠단 어린이집은 스포츠단 활동과 유아교육을 통하여 기초운동능력과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 밝고 명랑한 성격과 창의성을 기르고, 참신한 지혜와 사회성을 가진 어린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유아전문 교육 기관이다.

●● 주요 교육프로그램

- 체능교육(몸튼튼) : 수영, 유아체육, 인라인스케이트, 유아축구, 공동체놀이 등
- 영지교육(생각튼튼) : 누리교육과정(만3세-만5세), 표준보육과정(만1세-만2세),
- 사회성교육(마음튼튼) : 인성 및 전통예절, 생태교육, 공장 과자 안 먹기 등

3. YMCA야구단

한국야구는 1905년 황성YMCA에서 도입하고 조선 최초의 야구단을 일제 강점기에 창설하여 무패를 기록하는 등 일제 치하에서 탄압받던 국민에게 스포츠 그 이상의 기쁨을 제공하며 희망을 심어주었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전국에 4개 지역 YMCA 야구단이(춘천, 김천, 영주, 서울) 조선 최초의 야구단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운영 중이며. 각 지역 YMCA야구단은 야구라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YMCA의 이념인 영·지·체의 조화된 삶을 추구하고 생명·평화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4. 유스 오케스트라(YMCAYO)

1996년 6월부터 춘천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을 함양시키고, 회원들의 올바른 여가생활과 취미활동을 도모코자 운영해 오고 있다.

Young(청소년운동, 지도력훈련), Men's(평생교육, 시민사회, 복지, 평화운동), Christian(기독생명평화, 에큐메니컬, 평신도), Aaaociation(회원공동체운동), Youth(춘천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 Orchestra(바이올린, 플룻, 첼로) 오케스트라 단원 개개인의 실력향상과 합주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춘천지역에 문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5. YMCA 어린이축구단

춘천YMCA 평화축구단은 2007년 7월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유아·유소년 축구클럽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평화축구단은 신체 활동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즐길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기 건전한 야외활동과 성숙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단체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건강과 체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초체력 및 운동 체력의 기본이 되는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넓은 공간





을 이용할 수 있는 순간적 판단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자신감과 사회성을 고취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인성 교육까지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YMCA회원클럽(청소년동아리연합회)

청소년YMCA는 젊은 예수를 본받아 맑은 영과 넘치는 지혜와 건강한 몸을 가꾸는 공동체로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동아리”라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하고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또래 집단의 친목 도모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지향한다.

제2장
춘천 YWCA

1절 개관

1. 세계YWCA

YWCA 활동은 산업혁명 기간 영국에서 기독교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해온 젊은 여성들의 주거문제, 여가 활동, 영적 요구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마련하고 직업교육을 시작한 아더킨나드(Lady Arthur Kinnarrd) 여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 모임과 여성들의 안정과 상호



『세계YWCA 역사』 메인페이지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에마 로버츠 (EmmaRoberts)여사를 중심으로 한 독실한 기도단, 이 두 조직체가 1877년 기독교적 목적을 채택하면서 '여자기독교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라는 이름으로 통합 발족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독일 여성들은 기독교인들의 사귐을 위한 기회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YWCA를 발족하였고, 미국YWCA는 직장 여성들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도덕적, 영적, 또는 현실적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1894년 영국,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네 나라가 세계YWCA의 헌장을 수락하고 서명함으로써 세계YWCA가 국제적인 운동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YWCA활동을 확장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 세계YWCA는 본부를 런던에서 제네바로 이전하였고, 1930년대에는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도 YWCA가 설립되었으며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여성의제(The Women's World Agenda)가 탄생하였다.

세계YWCA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가진 국제적 단체로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 기능위원회인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 Commission of Status of Wowen)의 주요 단체로 여성 관련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교육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 세계 여성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제연합(UN) 고문 단체의 하나로 상주대표를 파견하고 있고 기독교단체로서 평신도 여성운동, 교회일치운동, 세계운동, 회원운동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2. 한국YWCA

한국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Korea)는 한국의 기독교 여성단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질서가 구현되는 세상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식 명칭은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이다. 창립 이래 애국계몽운동, 여성운동, 복지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을 전개하며 기독교 여성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22년 4월 20일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창립 발기대회
(1922년 6월 13일) 간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하령회
(서울충정로 협성여자 성경학원)

김활란(金活蘭), 김필례(金弼禮), 유각경(俞珏卿) 등이 조직한' 조선여자 기독교청년회(조선YWCA)'를 조직하고 1924년 8월 25일 세계YWCA에 가입했다.

1926년 8월 제4회 총회에서 김활란을 회장으로, 1927년에는 홍에스더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1924년 10월 김성실을 첫 해외파견 간사로 미국에 파견했다. 초기의 활동은 주로 계몽운동, 교육운동, 생활개선운동, 여권신장운동, 민족운동 등에 집중되었으며 당시 여성들을 괴롭히던 조혼 및 공창제도 폐지와 축첩제 반대 활동 등을 통해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더불어 애국정신을 기반으로 물산장려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나 '내선일체'를 내세운 일제의 군국주의적 탄압 속에 연합회는 일본YWCA동맹에 합병되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문을 닫아야 했다. 광복 후인 1946년 3월에 활동을 재개해 김활란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고, 1947년 9월에는 기관지인 『한국YWCA』를 창간했다.

한국전쟁기간에는 많은 지도자와 회원을 잃는 피해를 겪으면서도 당시 세계 각국의 YWCA 및 국제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쟁난민구호사업과 전쟁미망인을 위한 사업을 펼쳤다.

1950~1960년대에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민주적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 주력했고 1970년대에는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으며 노동문제에도 개입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조건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자립캠페인과 환경운동을 펼치면서 냉전 종식과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을 전개하였고, 1990년대에는 생명운동, 바른생활운동에 주력했고, 1995년에는 세계YWCA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2000년대에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생명사랑공동체운동, 호주제폐지 등 여성인권 신장운동에 주력하였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다문화 청소년학습지원,

북한어린이돕기, 생명포럼개최, 일본군 위안부합의, 여성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며 여성의 인권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에 기여하는 등 전국 52개 지역의 YWCA와 170여 개 전문기관을 통해, 그리고 전 세계 109개국 여성들과 함께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2절 춘천YWCA

1. 춘천YWCA 목적과 비전

춘천YWCA는 1966년 3월 17일 창립한 유서 깊은 기독교 NGO단체로서 춘천지역의 청소년과 여성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 고장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기도하는 기관,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고령자 인재은행을 비롯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여성 운동가로서 기독교 운동의 증인이 되고자 날마다 새로워지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483(칠전동)
- 전화 : 033)254-4878 / 팩스 : 033)255-7744
- 홈페이지 : www.chchywca.or.kr

1) YWCA의 목적



●● YMCA의 목적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정의·평화·창조질서를 이루어가는 생명사랑 공동체"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춘천 YWCA 비전과 미션

- 춘천YWCA 비전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로 여성지도력을 키우는 기독 공동체
- 춘천YWCA 미션
  예수그리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정의를 위해, 현재적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YWCA공동체 안에서, 회원활동에 참여하며 끊임없는 훈련 및 참여로 공동체의식과 지도력을 키운다.

2. 연혁

춘천YWCA는 1960년 3월 17일 창립하여 1970년 1월 7일에 대한YWCA연합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춘천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1980년대에는 무료직업안내소를 개설하여 여성의 직업 알선사업을 하였고 강원여학사를 운영하여 강원 도내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여성 인사를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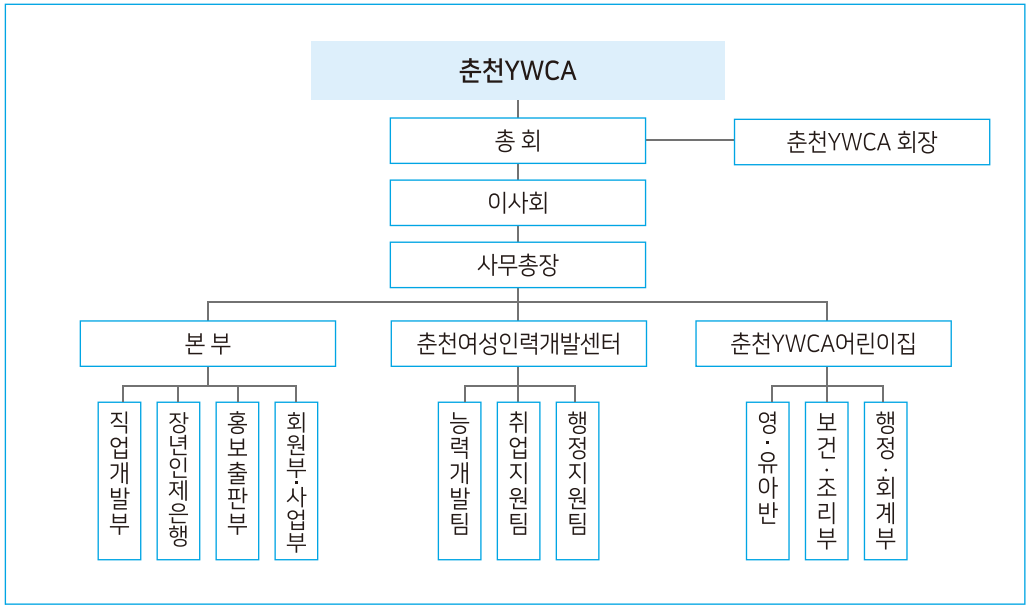
1990년대는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받아 만5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개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내실화를 기하였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많은 불우한 청소

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결혼이민 여성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여성의 권익 신장에 선봉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사랑으로 비롯된 춘천YWCA가 걸어온 길

연대	일자	주요내용
1960	1960년 3월 17일	춘천YWCA창립 (1970. 1. 7, 대한 YWCA연합회 정식 가입)
1970	1971년 5월 6일	법인설립인가
	1974년 6월	착한어린이집 개설
1980	1984년 6월	무료작업안내소 개설
	1986년 4월	강원도어린이회관 위탁 운영
	1989년 3월	강원여학사(여대생 기숙사)개설/어린이회관 위탁 종결
	1989년 4월	춘천YWCA 회관 준공
1990	1991년 3월	춘천YWCA 어린이집 개원
	1991년 11월	고령자인재은행 개설
	1997년 5월	춘천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
	1998년 12월	춘천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개원
2000	2000년 4월	일하는 여성의 집 내 고용평등 상담실 개설
	2001년 4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춘천시)
	2001년 5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개정
	2004년 11월	춘천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소
	2007년 10월	소양정보도서관 위탁 운영
2010	2010년 8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석사동 이전
	2011년 3월	창립45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2012년 4월	결혼이민여성 자녀 방과 후 교실(다래교실) 운영
	2013년 3월	에코락(EM사업-EM제조 및 배포)
	2016년 9월	창립50주년기념회 및 출판기념회(여성의 등대되어 길을 비추다)
	2017년 12월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종료
2020	2020년 12월 31일	강원학사 위탁 종료
		춘천YWCA본부 퇴계동 임시이전(요선동 회관 정리)
	2021년 12월 14일	춘천YWCA 칠전동 회관 준공식

3. 춘천YWCA 조직 및 기구



4. 춘천YWCA 부속기관

1) 춘천YWCA어린이집



춘천YWCA어린이집

1992년 3월 개원한 춘천YWCA어린이집은 유아들에게 필요한 발달과정에 따른 전문 과정을 통해 기본생활습관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돕고 있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회성 교육과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1960년대부터 춘천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자립을 위해 여성직업개발사업을 해 온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 전문기관으로서 여성의 잠재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주권적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성장을 이루는 곳이다. 춘천 YWCA여성 인력 개발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작업능력 개발훈련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여성의 고충상담 및 각종 여성관련 후생 복지,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실시,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생애주기별 직업상담,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창업지원 사업 서비스, 여성의 복지증진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까지 One-Stop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절 춘천YWCA 주요활동사항

1. 춘천YWCA중점운동

춘천YWCA가 추진하는 중점운동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 운동, 평화통일 운동, 성평등 운동, 돌봄정의운동 등 크게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 분야별 특성을 고려 체계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탈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부정의 문제들을 알고, 핵 의존적이며 공급중심인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역 탈핵운동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탈핵캠페인 추진, 춘천시 환경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EM사용법 교육 및 EM 발효액 무료배포,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모임 참여, 제로웨이스트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등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운동에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오랜 분단의 아픔과 분열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평화의 축이 될 한반도를 염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오기도. 한반도종전 평화캠페인을 위한 YWCA 피스챌린지 동참 WCA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홀로 걷는 평화순례'참여,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 등에 동참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세 번째로 성평등 운동은 특정 사업이나 활동이 아닌 여성 운동단체로서 YWCA 정체성으로서 사회적으로 고착된 성차별을 없애고 성차별이 없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꾸준히 전개하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리더십 개발과 참여 확대로 여성의 대표성 확대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실시,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참여 임금 격차 해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1인 시위 캠페인 진행, 한국YWCA연합회 주관 성평등 담당자 월간토론회 참여,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춘천지역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디지털 성착취 및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들을 강력처벌하라는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성평등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로 돌봄정의운동은 돌봄·가사 종사자의 고용제도 개선과 서비스 교육제공체계 정비를 통해 돌봄을 위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는 동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돌봄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무료직업안내 및 직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표준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서비스 보편성확대, 돌봄 회원 재교육 및 동아리 활성화, 자치회 등을 결성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구인 구직관계 형성을 위

해 매진하고 있으며,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받아 고령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사업을 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돌봄과 살림

돌봄과살림 Care & Help

●● 돌봄과 살림은?

YWCA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돌보미를 양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양질의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YWCA의 돌봄서비스 대표명칭입니다.

● 돌봄살림 이용 연락처 : 033)254-4878, 251-2238

YWCA는 1966년 12월 '가정 부업 장려'운동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 훈련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춘천YWCA에서 주관하는 돌봄과 살림 제도는 살림돌보미(가사도우미), 산모돌보미, 아기돌보미(베이비시터), 건강돌보미, 정리수납돌보미 등 돌봄 제도를 정착화 하여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살림 돌보미 제도는 가사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맞벌이 가정을 비롯하여 바쁜 일상생활에 쫓겨 가사 일에 부담을 느끼거나 주부 혼자 가사 일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림돌보미가 도와주고 있는 제도로서 살림돌보미(가사도우미)에 대하여 철저한 신원 보증과 연 1회 이상 정기검진으로 이용 회원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인관계 훈련, 여성의 직업관, 친절교육, 세탁법 및 전자제품 관리, 밑반찬 만들기 등 서비스 전문교육과 인성 교육을 병행 시행하며, 월 1회 월례회와 재교육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산모돌보미란 산모 관리 및 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친정어머니의 손길 같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관련 일을 우선하며, 출산예정일 1개월 전에 예약하면 출산일에 맞춰

산모돌보미를 가정으로 알선해 주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아기돌보미(베이비시티)란 아기 목욕 및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아기 젖병 및 그릇소독, 아기 방청소, 아기 옷장 정리, 세탁, 아기 발달에 맞춰 놀아주기 등 아기와 관련된 일을 우선 도와주는 사업이다.

네 번째로 건강돌보미(간병사)는 병원간병을 도와주는 제도로서 환자의 건강을 쾌속히 돕기 위한 건강보조 활동으로 일반 환자와 중증환자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수납돌보미란 수납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또는 수납전문가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거공간에 맞는 물건의 정리, 종류별 분류, 사용하기 편리한 수납까지 '주거공간은 넓게, 생활은 편리하게' 정리수납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4절 춘천YWCA 주요 프로그램

1. 직업훈련 프로그램

1) 살림돌보미 교육

가사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맞벌이 가정을 비롯하여 바른 일상생활에 쫓겨 가사일에 부담을 느끼거나, 주부 혼자 가사 일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 살림 돌보미 파견을 위한 전문 살림 돌보미를 양성하여 청소, 세탁, 다림질, 정리정돈, 창틀청소, 대청소, 이사·입주 전문청소, 냉장고청소, 세탁물 관리 등의 가사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 살림돌보미로 활동을 원할 시에는 수여받은 수료증과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 등의 개인서류를 제출하여 춘천YWCA 돌보미로 등록 후 살림돌보미로 가정에 알선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산모돌보미 교육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돌보미 교육을 실시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가정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3) 아기돌보미 교육

여성의 사회참여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출산과 육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적절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영·유아와 초등생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육아도우미를 교육하여 가정에 파견함으로 아동에게는 안전한 돌봄을, 맞벌이 가정 부모에게는 유아 부담을 줄여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사회문화프로그램

춘천YWCA에서는 사회문화프로그램으로 오늘의 반찬, 디저트와 함께 하는 커피 타임,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커피핸드드립과정, 사진반 등 5개 과정의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들의 여가활동과 기능 숙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명	일정	수강료
오늘의 반찬(반찬만들기반)	주1회 / 2시간*6회	6만원(재료비별도)
디저트와 함께하는 커피타임	주1회 / 2시간*5회	8만원(재료비별도)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주1회 / 3시간*12회	20만원(재료비별도)
커피핸드드립 과정	주1회 / 2시간*6회	12만원(재료비별도)
사진반	주1회 / 2시간*12회	12만원

제3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절 개관

1. 월드비전


밥피어스와 한경직 목사 통역모습

국제월드비전(World Vision International)은 한국전쟁으로 고통받는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선교사 겸 종군기자였던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가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와 함께 1950년 설립한 개신교 계열의 국제구호 개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개발기구 중 하나이다.

월드비전은 전후 한국에서 고아원과 모자원 등을 설립하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을 돕기 위해 사업을 확장해갔다. 어린이들의 음식

및 교육, 건강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던 월드비전의 구호사업은 1970년대에 이르러 지역사회의 발전 없이는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통해 대단위 지역개발사업(Area Development Program)을 통한 아동후원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월드비전은 70년 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1991년에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2006년 한국월드비전은 구호사업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WFP(유엔세계식량계획) 공식협력 기관이 되었고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4만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세계최대의 민간 국제기구인 국제월드비전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BBB, Charity Navigator, ECFA 등 비영리기구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단체들로부터 사업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글로벌 NGO로서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종교 인종·민족·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 월드비전은 가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긴급구호사업, 아동옹호사업 등 3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삶이 나아지려면, 지역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고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과 지역주민이 '변화의 주인공' 임을 경험하게 해, 가장 기초적인 식수와 건강에서부터 공동체의 일자리 창출까지 자립할 여건을 채워 주고 있고, 대규모 자연재해와 전쟁 앞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은 삶의 기반 전부가 무너지는 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소년병, 아동노동, 조혼 등 극단적인 아동인권 침해를 막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억압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옹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한국 월드비전

1) 한국월드비전 연혁

(1) 1950년대 – 시설지원



한국월드비전이 지원한 대구 애망원

한국 월드비전의 초기 사업은 한국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 영아원, 맹아원, 농아원 등의 시설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70년대까지 150개의 시설을 지원하였다. 지원 초기에는 의식주 중심의 지원을 하였으나 점차 시설 아동들의 교육, 신앙,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1954년부터는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1980년까지 약 54만 명의 시설 아동과 영세 가정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 1960년대 – 무료의료지원



월드비전 최초복지관인 성남사회복지관

1954년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1980년까지 약 54만 명의 시설 아동과 영세 가정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한 월드비전은, 1959년 서울 남대문 5가에 선명회 특수 피부진료소를 설립하였다. 선명회 특수 피부진료소는 이후 약 20년간 약 42만 명의 나병환자를 치료하며 대한민

국에서 나병을 퇴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1960년 선명회 합창단을 창단하여 시설 아동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였으며 활발한 모금 활동도 펼쳤다.

(3) 1970년대 - 복지관 설립

1971년 음성나환자정착촌 지원사업과 1972년 선명회 직업보도소를 개설하여 음성 나병환자와 시설 아동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했고 또한 1974년 선명회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성남사회복지관'을 개관, 도시 영세민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4) 1980년대 - 농어촌 개발

1981년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시작한 월드비전은 낙후된 농어촌을 대상으로 5년간의 장기적인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로 개관하여 총 3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주력했다.

(5) 1990년대 - 해외사업 시작

1991년 10월, 월드비전은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으며 모금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북한 지원사업도 타 복지기관보다 빠른 1994년부터 시작하였다. 전 세계월드비전 중에서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것은 한국월드비전이 유일하다. 1998년 10월부터는 '선명회'에서 '월드비전'으로 국제이사회 결정을 통해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김혜자 친선대사 소말리아 사업장 방문(1993년 1월)

(6) 2000년대 – 아동옹호사업


사랑의 빵 저금통을 들고 환호하는 아이들

월드비전은 21세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옹호사업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했다. 국내 사업은 아이들에게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 비중을 높였으며 또한, 한국이 지원하는 사업장은 몽골, 미얀마,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까지 총 43개국 283개 사업(2020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 사업은 씨감자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이 자체적으로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7) 2010년대 – 취약국지원 및 나눔 문화 확산


글로벌 식수켐페인 글로벌 6K참석 시민들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중과 후원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보다 여러 시민과 나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Global 6K for Water, Basic for girls, give a nice day)엽서쓰기 대회 등 대중참여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또한 '꿈꾸는 아이들' 사업단을 출범하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아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절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국제구호 개발 옹호기구로서 한국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월드비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과 기근,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고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NGO이다.

현재 전 세계 100여 나라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한국 월드비전은 1991년까지 해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오다 사랑의 빵, 기아 체험 24시간 등의 자체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아동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복지관과 꿈꾸는 아이들 사업단,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월드비전의 설립 이념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1976년 개관 이래 이주 화전민 지원 업, 지역개발사업, 가정개발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현재는 아동 및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복지를 증진하는 지역사회복지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비전헌장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 우리는 응답합니다.

2. 연 혁

일자	내용
1976년 6월 22일	오순절고아원 내 임시사무소 설치 이주화전민 등록접수실시
1976년 11월 5일	춘천 사회복지관 개관(도 여성회관내-죽림동)
1977년 10월	선명회유아원 개원(현재 월드비전춘천어린이집)
1978년 10월 1일	국내아동결연사업시작
1985년 10월 1일	도시영세민 가정개발사업(퇴계동, 온의동, 효자2동, 우두동, 사우동)
1987년 1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설인가
1987년 4월 17일	종합사회복지관 기공
1987년 10월 23일	강원도 춘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및 개관
1994년 5월	강원지부 개소
1992년 4월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나형"
1994년 9월	삼성복지재단지원 "지역별 자원복지활동단 조직 운영"
1995년 4월	종합사회복지관(가형)증축 공사 시작
1995년 11월 4일	종합사회복지관(가형)증축 준공식
1996년 1월	복지관 "가형" 승격 및 시설인가 어린이집 "바형"(180명)인가
1998년 9월	"한국선명회" 명칭을 "월드비전" 으로 법인명칭 변경
2002년 9월	가족지킴이센터 강원지역 본부 개소
2003년 11월	강원도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

일자	내용
2004년 11월	월드비전 지역아동센터 개소
2005년 5월	복지관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
2007년 10월 18일	복지관 30주년 기념행사
2008년 7월 1일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보호기관 지정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 개소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평가 최우수복지관 선정
2010년 12월 2일	월드비전 익스투스 여성 합창단 창단
2011년 12월 9일	로뎀 어린이도서관 개관
2013년 5월	보건복지부평가 최우수 복지관 선정, 비전디자이너 프로젝트 실시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복지관 선정, 복지관 외관 기능보강사업
2017년 5월	춘천시활성화지원사업 실시(효자1동복지위원회)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018년 4월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월드비전강원어린이합창단) 월드비전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 실시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 프로젝트 실시 (꿈날개클럽, 꿈디주니어)
2019년 3월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복지관 선정-전 영역 A등급, 월드비전 지역 위기아동 지원사업 실시
2020년 3월	복지관기능보강사업-1층 리모델링, 복지관 간판공사
2021년 4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효자1동, 동내면, 동산면) 실시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MVC 사업 연계 기관 협약 및 사업 실시 어르신 신규 복지사업 강화(시니어뚝뚝사업 및 시니어해피데이사업)
2021년 12월	복지관 45주년 기념행사

3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요활동사항

1. 사례관리

1) 사례관리 사업

사례관리는 아동과 가정이 처한 특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과정으로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가 춘천복지관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이다.

2) 위기아동 지원사업 – 꿈꾸는 아이들

위기아동 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이혼, 질병, 가정폭력, 재해, 가구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꿈을 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돕는 사업이다.

3) 꿈날개 클럽 – 꿈꾸는 아이들

특정 영역에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꿈에 대해 계획하고 실 천하며 전문직업인과의 맞춤 멘토링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 특정 영역 : 인문/어학, 사회/경제, 공학/기술, 예술/문화, 자연/의학



사례관리사업



위기아동지원사업



꿈날개클럽

2. 서비스 제공

1) 꿈디자이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성장단계에 따른 진로와 인성교육 그리고 꿈지원금을 통해 자신에 맞는 꿈을 탐색하고 도전하여 자신감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 강원어린이 합창단

월드비전 강원어린이합창단은 합창연습과 공연 등을 통해 음악적 기능과 사회

성을 향상 시켜 아동 청소년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3) 아침머꼬 : 학교 내 결식우려 아동–결식률감소, 학교적응력 향상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결식 우려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식 공간에서 아침을 제동,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4) 쿡 N 쑥쑥–아동영양교육사업

쿡 N쑥쑥–아동영양교육사업은 아동이 바른 먹거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섭취할 힘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요리 교육, 영양교육, 푸드탐험대(식문화 체험활동)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먹는 즐거움을 알려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5) 시니어 똑똑사업

시니어 똑똑사업은 건강과 여가에 관심이 많은 춘천시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문화 활동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해 연 1회 문화행사로 춘천 내·외 지역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6) 시니어 해피데이 사업

시니어 해피데이 사업은 춘천시의 저소득 어르신 중에서 고독감이 가장 높은 독거어르신을 발굴하여 생신 축하 행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지지 경험을 통하여 고독감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순 생신 축하 이벤트가 아닌, 지역사회 이웃(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사회인지를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7) 로뎀 어린이 도서관

로뎀 어린이 도서관은 아동들이 다양한 책을 대여하여 읽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상하반기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조직화

1) 지역사회 협력사업

해피트리(봉사단체 리더)는 지역 교회 및 봉사단체 리더들이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고 춘천연합찬양축제는 지역 교회와 후원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공연 및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 주민조직화사업

지역 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역량강화 교육, 지역문제 및 욕구파악을 통해 지역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아동권리사업

위기 아동 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이혼, 질병, 가정폭력, 재해, 가구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에 놓여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 꿈을 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돕는 사업이다.

4) 실습지도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전문 능력과 역할, 자세를 재인식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하고 응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지역주민 행사

한 해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활동 노고를 위로하고 수자원 봉사자 및 지속적인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어울림의 장을 갖는 행사다.

4. 기타사업

1) 경로식당



춘천 경노식당

복지관 인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스스로 중식 해결이 어렵거나 식사 조절이 힘든 경우 중식을 제공하여 결식의 피해를 예방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 결식노인식사배달사업

춘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식사 조절이 힘든 어르신에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매일 오전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배달 도시락을 통한 식사 제공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초1~6학년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이 꿈꾸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절 자원봉사

1. 경로식당

1) 방문 신청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춘천시 근화길 95)
2) 참여대상 :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청소년, 대학생, 성인
3) 활동 내용 : 경로식당 어르신 식사 배식, 조리, 청소 등(보건 증 재출 필수)

2. 도시락 배달

1) 방문신청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춘천시 근화길 95)
2) 참여대상 : 자차 운행이 가능한 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분
3) 활동 내용 : 도시락 배달(9:30~11:00) 및 안부 확인

3. 아침머꼬

1) 방문신청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춘천시 근화길 95)
2) 참여대상 : 정기적으로 오전 봉사활동이 가능한 대학생(사회복지학과 우대 선발)
3) 활동내용 : 아동 조식 배식, 정리 및 아동 정서 지원(8:30~9:30 봉사활동 가능)

4. 재능기부활동

1) 방문신청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춘천시 근화길 95)
2) 참여대상 : 재능을 나누고 싶은 지역주민 누구나
3) 활동내용 :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활동(예 : 풍선아트, 손뜨개, 만들기 등)

5. 기타단기 봉사활동

1) 방문신청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춘천시 근화길 95)
2) 참여대상 :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3) 활동내용 : 단기 프로그램 및 행사 관련 봉사활동 등
※ 봉사 가능 프로그램 및 행사의 유무에 따라 봉사활동이 가능.

6. 단체/기업 사회공헌 활동

1) 방문신청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춘천시 근화길 95)
2) 참여대상 :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기업
3) 활동내용 : 단기프로그램 참여 및 어르신 방문 봉사활동, 물품지원 등
※ 봉사 담당자와 상의 후 봉사활동 가능.

제4장
기아대책 강원본부

1절 개관

1. 희망친구 기아대책


최태섭 장로 취임(1989년 10월 24일)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989년 국내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누적 후원자 수 606,485명 (2020년 12월 기준)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자격으로 전 세계 54여 개국에 500여 명의 기대봉사단을 양성 파견하여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영적 육체적 자립을 돕는 단체로 교회·리더·가정의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있다.

기아대책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예수그리스도의 주인 됨을 고백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주권, 세상의 빛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실되고 합법적 사역을 통한 투명성,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전문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순수성, 변화된 새사람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창의와 혁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의 감동을 유지하고 전하는 감동을 주된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2. 기아대책 조직 및 기구

한국기아대책의 조직 및 기구는 사단법인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재단법인, 행복한 나눔 등 3개의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고, 각각 이사회와 회장 산하 기구로 조직되어 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회장 직속으로 전략기획실과 인재개발실, VP for Faith Culture, Chief Marketing Officer를 두고 있고 그 산하에 운영지원본부를 비롯하여 14개 본부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은 이사회와 대표 산하에 국내사업본부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사업장으로 전국 75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행복한 나눔은 이사회와 회장 산하에 행복한 나눔 4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12개소의 행복한 나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3. 기아대책의 역사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989년 10월 24일 국내 최초의 국제 구호개발 NGO로 출범하여 초대회장 최태섭 장로가 취임한 이래 1990년 7월에 보사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1990년대 초에 방글라데시, 케냐, 페루 등 7개국에 대한 해외 구호활동을 시작하였고, 1994년 1월 제2대 강성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르완다에 긴급의료구호팀 파견, 대북사업 시작, 필리핀, 몽골 등 5개국에 해외 결연사업을 시작하고, 대구,

대전, 성남 등 국내지회도 개설하였다.

2000년대를 맞으면서 노인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고 (1호/서초노인복지관) 태풍 루사 때에 강원도 삼척 및 경남 마산지역 등에 긴급구호팀을 파송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쓰나미 긴급 구호활동을 실시하였다.

2005년 미국 카트리나와 허리케인, 파키스탄 지진, 호남지역의 폭설, 필리핀 산사태, 인도네시아 지진, 강원도 및 북한 수해 등 재난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기아대책 국제연대(FHI Federation)를 출범시키는 등의 공로로 2006년 10월에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상(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해외조직을 개편하여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7월 손봉호 이사장이 취임하여 봉사단 명칭을 '기아봉사단'에서 '기대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아동복지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였고, 2019년에는 에클레시아클럽을 발족하고 봉사단 CI를 희망친구 기아대책으로 변경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NGO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4. 기아대책이 하는 일

1) 국내 복지사업

기아대책은 국내에서 복지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아동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동사업 가정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5가지 영역의 핵심 사업과 17개 분야, 50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국제구호 개발사업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대봉사단을 직접 파견하여 자립을 돕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시아 18개국과 유럽 4개국,

아프리카 17개국 아메리카 1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구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북한사업

북한 땅의 회복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의식하에 통일 세대가 될 아동을 위한 아동 개발사업 꿈나무(Dream Tree), 사막화되고 있는 통일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 생명나무(Life Tree),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연 결하는 통일준비사업 통일나무(Union Tree), 긴급구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행복한 나눔사업

행복한 나눔사업은 나눔을 원동력으로 이웃의 자립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으로 공동체의 자립을 우선적으로 돕는 재사용나눔가게, 행나맘프로젝트, 자립을 돕는 커피사업, 소셜상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절 기아대책 강원본부

1. 조직 및 기구

기아대책 강원본부는 2005년도 최충협 강원본부장이 초대 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기아 대책본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국내복지사업은 물론 국제구호개발 사업, 북한사업, 행복한 나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강원 도내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그동안 강원 도내 소외된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누기사업, 김장김치 지원사업, 독거어르신 가구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오고 있다. 기아대책 강원본부

에는 강원도 춘천후원이사회, 고성군 후원이사회, 횡성군 후원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기아대책 강원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과장급 2명과 간사 2명을 두고 강원지역의 기아대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에 강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에 노인여가시설 1개소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 속초지역에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 2개소와 횡성군에 행복한 홈스쿨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연도	성 명	재임기간
제1대	2005	최충협	2005~2009년
제2대	2010	김상순	2010~2011년
제3대	2012	김주환	2012~2013년
제4대	2014	지성택	2014~2018년
제5대	2019	정규상	2019년~현재

2. 기아대책 산하 강원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지역 캠퍼스	강원캠퍼스	원주시 향교길13(명륜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고성군노인복지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67번길 13
노인일자리기관	고성시니어클럽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67번길 13
지역아동센터	속초 행복한홈스쿨	속초시 청학로 37수광빌딩 301호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행복한홈스쿨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229
지역아동센터	횡성 행복한홈스쿨	횡성읍 북천서로 20 횡성감리교회

3. 기아대책 강원본부 춘천이사회

기아대책 강원본부 춘천이사회는 회장 1명(우두교회 안창원 목사)과 총무 1명(사암교회 최상도 목사), 회계 1명(백승문 장로)을 비롯하여 각 교회 목사 및 장로로 구성된 이사 25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4. 기아대책 강원본부의 주요 활동사항

1) 주요 활동사항

일자	주요내용
2013년 9월 17일	기아대책강원본부 평창지부 평창군에 1천만원상당 위문품 전달
2013년 9월 14일	자카르타 레인보우메이커스 필통콘서트 후원물품 전달
2014년 1월 20일	기아대책강원지역본부, 삼척시에 '사랑의 생필품' 전달
2014년 9월 11일	영월군 관내 저소득가정 대상 연탄나눔(9천장) 활동
2016년 11월 26일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가구 만들기(500만원상당)
2016년 12월 21일	영월연탄은행 3백만 원어치 전달
2017년 7월 14일	여름철 어르신 피부건강용 마스크팩 150만원 상당 기탁
2018년 11월 20일	소외이웃 김장김치 1천가구 지원(1150만원상당)
2019년 7월 8일	춘천신성감리교회 에클레시아클럽(Ecclesia Club) 가입
2020년 2월 25일	잇올의 사회공헌활동 기아대책강원본부에 후원금 전달 몽골학교 교육지원사업 후원금
2020년 8월 21일	기아대책 강원본부 횡성군에 1700만원 상품권 기탁
2021년 4월 27일	제80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서 후원금 전달식
2021년 10월 28일	희망친구 기아대책, AJC코스메틱과 위기가정 지원

2) 세부 활동내역

(1) 도내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후원



기아대책강원본부 평창군에 위문품 1000만원상당 전달
(2013년 9월 17일)

2013년 9월 17일 기아대책강원본부 평창지부(지역장 김귀선 진부교회 목사)는 평창군을 방문하여 관내 저 소득층과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100상자(천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고, 2014년 1월 20일에는 기아대책 강원 지역 본부가


기아대책 강원본부 자카르타레인보우 메이커스
필통콘서트 후원(2013년 9월 14일)

20일 강원 삼척시청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게 전해달라며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770박스를 유명호(가운데) 삼척시부시장에게 기탁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21일에는 기아대책 강원본부 정규상 본부장과 횡성군 기아대책 후원이사회 정윤희 회장이 함께 희망친구 1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성군에 기탁함으로써 강원도 내 어려운 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레인보우 필통콘서트 지원

기아대책 강원본부에서는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4박 6일)까지 춘천 순복음교회 김주환 목사(기아대책강원 본부장)외 11명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빈민학교에 레인보우 메이커스 필통콘서트 후원 물품을 마련하여 지역이사회 비전트립을 통해 자카르타 현장을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기아대책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다.

(3) 저소득가구 연탄나눔 행사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강원본부는 KB국민은행 경기강원지역본부(오관기 본부장)와 영월 연탄은행(안봉엽 대표)과 협력해 2014년 9월 11일 영월군 관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기아대책은 KB국민은행 경기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과 직접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해 9,000장의 연탄을 영월군 내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50여 가정에 전달하였다.

4)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지원행사

기아대책 강원본부에서는 2016년 11월 26일(토) 09:00~12:00까지 KB국민은행 강원 지역영업그룹과 함께 재가 어르신 20명을 위한 가구제작 및 가구 후원 행사를 실시하였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뚝딱뚝닥 행복한 가구 만들기 행사는 춘천 KB국민은행에서 500만 원 상당액을 후원해 주었고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손수 제작하여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5) 소외이웃 김장김치 1천 가구 지원 훈훈(1150만원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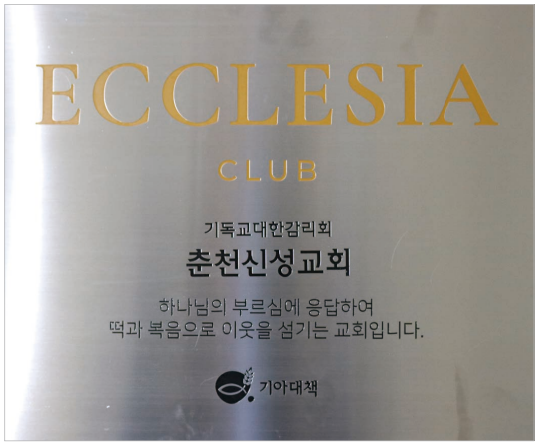
김장김치 1000가구 지원(2018년 11월 20일)

기아대책 강원본부(본부장 지성택)에서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포기 더 할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하여 온라인 모금 600만 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에서 기탁한 100만 원, 두산큐벡스 450만 원의 성금으로 노인들을 비롯한 노숙인, 장애인, 미혼모, 청소년, 탈북민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1,000명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6) 춘천신성감리교회 에클레시아 클럽(Ecclesia Club)가입

2019년 7월 8일 춘천신성감리교회는 춘천에서 최초로 기아대책 본부의 에클레시아클럽에 가입하였다.

에클레시아클럽(Ecclesia Club)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기아대책 후원교회로, 해외, 국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떡과 복음'으로 섬긴다.



에클레시아클럽 현판

에클레시아클럽의 비전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따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에클레시아클럽 참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아동결연사업은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특별예배로 후원에 참여하고 국내 아동 및 해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명 기준 월 3만 원을 후원한다.

사업후원은 국내 및 해외 북한의 '보건의료, 생계지원과 교육, 영성사업' 등 관심 분야에 후원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은 대개 교회건축(개보수), 학교건축, 우물개발, 장학금 지원, 목회자 훈련, 성경책 보급 등이다.

에클레시아클럽에 대한 예우는 ① 에클레시아클럽 현판 위촉식을 진행하고 ② 온라인 Donor Wall로, 교회 소식을 알리고 나눔의 손길을 기념하며 ③ 기아대책 본부의 오프라인 Donor Wall에 교회별 후원을 알리는 명판 부착과 ④ 필드트립과 기대선교예배 등을 통해 직접 국내·외 선교사역에 참여하며, ⑤ 에클레시아클럽 정기 행사참여로 후원교회 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 결과를 보고한다.


에클레시아클럽 위촉식(신성교회 본당, 박상칠 담임목사, 2019년 7월 8일)

신성감리교회는 에클레시아클럽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2015년 라오스 초등학교 선풍기 지원, 비전트립, 2016년 기대봉사단 후원, 2017년 키르키스스탄 교육물품 후원, 2018년 호프컵 후원 등을 실천해 오다가 2019년 에클레시아클럽에 가입하였다.

제5장
(사)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

1절 개관

1.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1) 작은 사랑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연탄은행 개소식(2004년 10월 1일)

춘천연탄은행은 추위에 떨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한 장의 작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으로 2004년 10월 1일 개원하여 매년 자원봉사자 4,000여 명과 함께 춘천 전 지역 에너지 빈곤층 1,000세대에 3~40만 장 정도의 연탄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탄뿐 아니라 나눔 은행을 통해서 반찬과 김장김치, 집수리, 쌀이나 생활 물품 등을 나누고 있고, 축제은행

에서 사랑의 바자회와 어르신 위로 잔치를 통해 지역사회 행복 축제를 벌이고 있고, 섬김의 리더십 학교를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 학습과 돌봄을 위한 파랑새 공부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봉사훈련 교육을 시키며 유능한 봉사 인재들에게 리더십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연탄은행은 작은 자를 섬기는 운동이다.


춘천연탄은행 섬김이 정해창 목사

삶의 희망을 내려놓고 변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작은 자들에게 연탄 한 장을 통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된다.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것은 없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고 작은 세포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 작은 것을 잃는 자는 작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자이다. 작은 것은 위대하고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모토(motto)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작은 불꽃하나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듯이 연탄 한 장의 사랑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3) 연탄은행은 생명운동이다.

연탄을 봉사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연탄이 밥보다 더 중해!"라는 말씀을 하신다. 연탄 한 장의 값은 비록 500백 원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를 따지면 연탄 한 장만큼 높은 것은 없다. 어르신들의 하룻밤 생명을 지켜드리는 사랑의 불꽃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연탄은 생명살림 운동이다. 육체의 생명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생명까지 따뜻하게 살리는 운동이다. 연탄은 타면 하얀 재만 남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4) 연탄은행은 행복나눔 운동이다.

연탄구멍 숫자는 22개인데 행복(幸福)을 한자로 쓰면 22획으로 연탄구멍 숫자와 똑같다. 연탄은행은 '행복을 저축하고 행복을 이자 붙여서 찾아가고 행복을 전하는' 행복은행이다. 처음 봉사하러 온 자원봉사자들은 왠지 쑥스럽고 낯설어한다. 하지만 함께 봉사하고 나면 놀랍게도 낯선 얼굴들이 환한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한 가족 같은 친밀한 정을 느끼게 된다. 나눔과 봉사의 행복이 연탄을 통해서 가슴에 전해지기 때문이다. 연탄은행은 이 땅에 연탄 한 장 의지하며 살아가는 작은 자들이 없어질 때까지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연탄처럼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5) 춘천연탄은행 설립

- 명　　칭 : 사단법인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제2018-6420000-008-0005호)
- 설 립 일 : 2004년 10월 1일(금)
- 설립목적 : 빈곤의 고착화와 고령화 등으로 에너지 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연탄나눔과 반찬서비스, 김장과 쌀, 집수리 등 물품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청소년들에게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훈련교육을 통해 봉사인재들을 육성, 나눔과 행복을 전하고자 한다.

2. 비전과 가치

항상 진실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편안한 웃음과 따뜻한 온기를 주며, 가까이 다가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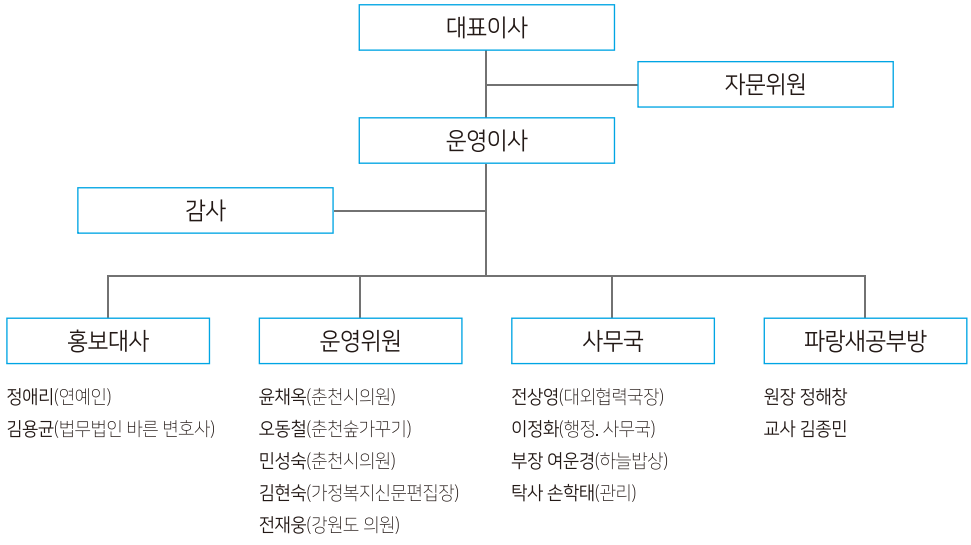
- 비전
  1. 작은 자를 섬기는 자세로 연탄은행과 나눔 은행을 통한 나눔운동 실천
  2. 지역사회 행복축제를 통한 사람 중심의 휴먼서비스 실천
  3. 봉사훈련 교육과 자원개발을 통한 봉사와 나눔의 리더 양성

● 가치

작은 자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이 땅에 작은 자들이 희망을 꿈꾸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함께 한다.

3. 조직 및 기구

1) 춘천연탄은행 조직도



2) 함께하는 사람들 자문위원

운영이사	윤태호(JDM 대표)	허 봉(매일관광대표)
	변지량(춘천비전21세기연구소)	윤병식(강남감리교회)
	이순만(방울적십자대표)	김종호(효자감리교회)
	최 용(인컴즈 대표)	정형만(참사랑내과원장)
감 사	정지복(대한권투연맹이사)	이순만(방울적십자대표)
운영위원	윤채옥(춘천시의원)	오동철(춘천숲가꾸기)
	민성숙(춘천시의원)	김현숙(가정복지신문편집장)
	정재웅(강원도의원)	심용섭(전 국토정보공사 지사장)
홍보대사	정애리(연예인)	김용균(법무법인바른 구성원 변호사)

3) 섬기는 사람들

대 표	대외협력국장	사무국장	하늘밥상	현장지원
정해창	전상영	이정화	여운경	손학태

4) 하늘밥상 무료급식소 봉사단체

- 제자감리교회
- 92정비대대
- CJ헬로비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강원도청산림 관리과
- 나눔봉사단
- 롯데손해보험
- 봉의고
- 예수소망교회
- 사랑의 교회
- 춘천고
- 춘천산악회
- 한샘고 총동창회
- 한제채플
- 한림성심대 간호학과

2절 춘천연탄은행·밥상공동체 주요활동사항

1. 나눔은행

1) 연탄나눔

① 사업내용 : 빈곤층을 위한 연탄무료 지원 사업

② 운영기간 : 10~5월(24시간 개방)

③ 봉사지원 : 월 1회 100장 무료배달(춘천전지역1인당 매일(5장)





2) 무료급식

① 사업내용 : 독거노인, 빈곤층 어르신 무료급식

② 운영기간 : 1~12월(공휴일 제외)

③ 봉사지원 : 주4회 무료급식(친구 맺기, 문화마당)




3) 반찬나눔

① 사업내용 : 독거할아버지 반찬무료 지원 사업

② 운영기간 : 5~9월

③ 봉사지원 : 주2회 사랑의 반찬지원





4) 김장나눔

① 사업내용 : 빈곤층을 위한 무료지원사업

② 운영기간 : 11월(연2회)






5) 물품나눔

① 사업내용 : 명절 떡과 만두 나눔행사

② 종　　류 : 물품 지원 사업(쌀, 라면), 내의 지원사업





6) 재능나눔

① 사업내용 : 연탄난로, 보일러 교체 및 수리 지원

② 봉사지원 : 도배 및 수도공사/난로 및 보일러수리 등

2. 축제은행

1) 사랑의 바자회

① 사업내용 : 연탄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연1회)

② 주요행사 : 연탄은행 개소식 행사 진행





2) 사랑의 위로잔치

① 사업내용 : 독거노인들을 위한 위로잔치 (연1회)

② 봉사내용 : 독거노인들을 위한 음식대접 및 선물증정

3) 사랑의 축제

① 사업내용독거노인들과 함께하는 발표회

② 봉사내용 : 쌀 나누기 행사 및 선물증정





3. 파랑새학교

(사)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서는 섬김과 리더십회복을 위한 파랑새학교를 개설하여 지도자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장학금을 매년 2회 지급하고 있고, 또한 자활 돕기 프로그램으로 자활대상자 취업알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춘천연탄은행 코칭하우스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파랑새 공부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리더십 장학금

① 사업내용 : 지도자 인재 양성사업

② 운영일시 : 연2회(2월, 8월)

2) 자활사업

① 사업내용 : 자활 돕기 프로그램

② 봉사내용 : 자활대상자 취업 알선 및 교육

3) 파랑새 공부방

① 사업내용 : 지역사회 공부방(문의 : 010-8796-3054)

② 봉사내용 : 학습멘토링(금 4~6시, 토 10~12시)





4. 소근소근 마을관리소

소근소근 마을관리소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세워졌으며 소근소근 마을관리소의 '소근소근'은 '소양동과 근화동'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정겹고 다정한 마을관리소 이미지를 상징한다. "소근소근" 마을관리소는 동네 문제(환경, 주거 등)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며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간단한 집수리(수도꼭지, 방풍비닐 설치, 형광등 및 전기콘센트 교체 등)와 공구 물품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아울러 생활에 유용한 건강, 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이 참여

하고 싶은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진행하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생활, 돌봄에 최우선을 두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브라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사업내용 : 동네문제고민 해결(문의 : 010-243-7383)

② 봉사내용 : 마을활동가교육, 주민편의 제공. 집수리후원물품전달

③ 장　　소 : 춘천시 소양정길 32-1



마을관리소 개소식(2020년 11월 25일)



지역주민을 위한 간단한 집수리, 후원물품 전달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장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1절 개관

1. 국제해비타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비영리단체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집'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한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다.


해비타트 창립자 밀라드풀러 부부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해비타트 운동은 현재 전 세계 78개국 이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해비타트의 사명은 각계각층 사람들의 힘을 모아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분마다 1채씩 해비타트의 안락한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1976년 미국의 변호사 밀라드 풀러(Millard

Fuller)부부에 의해 미국 조지아 주 아메리쿠스 코이노니아(Koinonia)농장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조직인 가정이 건실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번영할 수 있으며, 가정의 행복과 번영의 필수적 요소가 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된 운동이다.

각종 사회적 편견과 인종차별을 배제하여 운영되던 생활공동체인 코이노니아 농장의 설립자, 클라란스 조단(Clarence Jordan)과 협력하여 밀라드 풀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협동 주택건축(Partnership Hous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집이 없는 가정의 가족이 참여하는 주택건축 활동을 이어갔다.


지미카터(전 미국대통령)부부

이후 1984년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부인 로잘린 카터(Rosalynn Carter)와 함께 해비타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년 미국과 해외 지역을 번갈아 가며 1주간의 대규모 집짓기 행사를 주도하는 「지미카터특별건축사업(Jimmy Carter Work Project)」을 시작함으로써 해비타트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조직이 확장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 처음으로 한 채의 집이 지어진 후 1만 채가 지어지기까지는 15년이 걸렸지만, 1만 채가 1만 5천 채로 되는 데는 불과 14개월이 걸렸다. 2011년 현재 해비타트는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짓거나 고친 집의 숫자는 40만 채를 넘어섰다. 이 운동은 1984년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2. 한국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



한국해비타트 초대 이사장 정근모 박사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현 이사장

국제해비타트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해비타트 운동이 알려지고 조직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이듬해인 1995년 9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출발한 이래 1995년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라는 명칭으로 법인화 되었으며, 초대 이사장에 정근모 박사가 선임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2010년 인지도와 이미지 강화를 위해 법인명칭을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로 변경하였다.

1) 한국 해비타트의 조직 및 기구

한국해비타트는 중앙에 의결기구로서 총회가 있고 이사장 산하에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아래 경영지원본부, 자원개발본부와 사업관리본부 등 3개 본부를 두고 있고, 본부에는 이사장(윤형주) 산하에 부이사장 1인, 사무총장 1인과 감사 2인, 이사 8인과 협력이사 3인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6인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한국해비타트 전국지회

한국해비타트는 1995년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출발 한 이래 1997년 4월 태백지회, 같은 해 10월 경남 진주진회를 설립하였고 1999년 2월 대구경북지회 설립. 2000년 9월 천안아산지회, 2001년 3월 군산지회와 같은 해 6월 경기북부지회, 12월에는 서울지회를 설립하였다. 2002년 9월에는 전남 동부지회를 2003년 3월에는 춘천지회, 8월에는 강릉지회, 삼척지회를 각각 설립하였다, 2006년 3월 경기지회를 설립하고, 2007년 2월에는 울산지회와 대전지회를, 2009년 12월에는 청주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2021년 12월 말 일부지회를 통폐합하고 현재 전국지회는 군산, 대구, 서울, 울산, 전남동부, 충남세종, 춘천, 경기북부. 충북청주지회 등 총 9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2절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1.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춘천지회 배계섭 초대회장(前 춘천시장)

한국해비타트에서는 1997년 4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폐광지역인 태백지역에 해비타트 태백지회를 설치한 후 2001년 여름에 시행된「지미카터특별건축사업」과 함께 한국사회에 해비타트 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3년 3월 20일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를 설치하였다

초대 이사장에 전 춘천시장인 배계섭 장로가 추대되면서 한국해비타트의 비전인『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목표로『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 각계각층 사람들의 힘을 모아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일으킨다.』라

는 해비타트의 사명 하에 강원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60-80)

2005년 배계섭 이사장이 고령으로 퇴임하게 되면서 춘천신성감리교회 김창수 목사가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친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마을에 매년 2개 동 8세대의 주택을 헌정하였고, 총85세대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택이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2개 단지에 도담마을 12세대 48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수해 이재민에게 건물 보수 및 신축을 위한 자재공급과 산불 이재민에게 이동식 목조주택을 헌정하는가 하면 2019년에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키트 공급하는 등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는 봉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해비타트 춘천지회

- 설립일 : 2003-03-20
- 주 소 : 24204 강원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60-8 (천전리)
- 전 화 : 033-254-0009 박유식 사무국장 010-9636-9856
- 팩 스 : 033-254-8877
- 이메일 : chuncheon@habitat.or.kr

2. 연혁

일자	주요내용
1995년 9월	한국해비타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1997년 4월	태백지회 설립
2003년 3월 20일	춘천지회 설립
2003년 8월	강릉지회 설립, 삼척지회 설립
	한국해비타트 ' 태풍루사 피해주민 강릉, 삼척 각 20세대 헌정
2004년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 신축(초대회장 배계섭 전춘천시장)
2005년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 신축(초대회장 배계섭 전춘천시장)
2006년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 신축(2대회장 김창수 목사)
	정선군 수해가구 2세대(각15) 집수리
2007년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 신축(2대회장 김창수 목사)
2008년 3월 21일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 신축(2대회장 김창수 목사)
2009년 4월 2일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 신축(2대회장 김창수 목사)
2010년 4월 17일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 신축(2대회장 김창수 목사)
2010년 4월 17일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복지회관 건축(2억원. 춘천시·강원도 각1억원) 비품 7천만 원 지원
2010년 8월	정선·춘천·홍천 집고치기 13세대
2010년 12월 6일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망의 마을 2동 8세대(5억4천8백만원) 해비타트 본부후원 태양광 설치(2억3천5백만원)
2011년 7월	마을 복지회관에 나눔의 교회 창립
2011년 12월 9일	춘천시 신북읍 소망마을 2동 8세대(2대 회장 김창수 목사) 신북음 율문리 1동 신축 율문리.산천리 각 2세대(소망마을 16동 64세대) (2004~ 2011 총17동 68세대)
2013년 12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산천리 집고치기 4세대(45㎡) 대수선
2015년 3월	춘천 자원봉사센터 개소
2015년 12월 22일	춘천시 동면 지내리 1차 도담마을 6동 24세대
2016년 10월	춘천시 동면 지내리 2차 도담마을 6동 24세대
	강릉 이재민 신축지원을 위한 건축자재 지원사업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산불 이동식 목조주택 12채 지원(4억6천1백만원)
	고성군 빨강머리앤의 작은도서관 재건사업
2020년 3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키트 전달
8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비대면 러닝 '잘 될 거야, 대한민국! 2020 Virtual 815 Run'
2006~ 2021년 3월	집고치기 200여 세대(춘천·홍천·화천·정선)

3.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주요활동(2004~2021년)

1) 사랑의 집짓기 사업 추진

해비타트 춘천지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춘천시를 비롯한 인제군과 고성군 지역에 총 43세대 136세대를 신축하였다. 춘천시에는 신북읍 소망 마을에 2004년부터 8년간에 걸쳐 17개 동 116세대와, 2015년 동면 지내리 1차 도담마을에 6개 동 24세대, 2016년에 동면 지내리 2차 도담마을에 6개 동 24세대를 신축하여 총 29개 동 116세대를 헌정하였고, 2010년에는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사랑의 마을에 2개 동 8세대를 신축 헌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성군 산불피해 가구에 대한 이동식 목조주택 12개 동을 헌정하였다.

지역별 사랑의 집짓기 현황

건축년도	지역	건축년도	동수	세대수
2시군	4개 지역	총계	43	136
춘천시	계		29	116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마을	소계	17	68
		2004	2	8
		2005	2	8
		2006	2	8
		2007	2	8
		2008	2	8
		2009	2	8
		2010	2	8
		2011	3	12
	동면 지내리 1차 도담마을	2015	6	24
	동면 지내리 2차 도담마을	2016	6	24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망의 마을	2010	2	8
고성군	고성군	2019	12	12

2)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


해비타트 춘천지회
제2대 회장 김창수 목사

2004년부터 시작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 신축사업은 2년간 4개동 16가구를 신축하였다. 2005년 초대 이사장인 배계섭 이사장이 고령으로 퇴임한 후 춘천신성감리교회 김창수 목사가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마을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13개 동 52세대를 완공함으로써 소망마을에는 총 17개 동 총 68세대가 입주하게 되었다. 특히 2010년 4월에는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각각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소망 마을 복지회관을 신축하였고, 추가로 7천만 원의(강원도·춘천시 각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비품과 운동기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어른들께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복지회관에 나눔의 교회를 창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당이 되었다.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마을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정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당시 이사장인 신성감리교회 김창수 목사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먼저 이사회를 확립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집짓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무엇보다 재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사실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해비타트에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2006년 모금으로 두 동을 더 지었지만 빚이 생겨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게 되었다. 많은 기도 중에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당시 김진선 강원도지사였다.

나는 김진선 도지사를 찾아가서 해비타트사업을 설명하고 춘천의 기

업들이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후원해 주는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모금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력했다. 김진선 도지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요청해 보라고 했고 나는 다음날 대전에 가서 사장을 만났다.

나는 수자원공사가 소양댐 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춘천에서 행해지는 좋은 일에 후원을 하도록 권면하였고, 사장은 춘천이 수도권의 물을 공급하는 도시라서 소양강 수질문제로 회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고 하면서 춘천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춘천지부장(황병철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장)이 찾아와서 내게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를 물었다. 나는 3억 5천만 원을 후원해 주면 두 동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08년 3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단장 황병철)과 함께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마을에서 '해비타트 K-water 사랑의 집짓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당시 사무국장이었었던 김승무 국장은 이날 터파기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랑삼아 간증한다. 지금까지 신축했던 집은 20평형(실제 16.5평)으로 방이 2칸 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 누군가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25평형을 지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하고 있었지만,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였기에 묵묵히 기도만 할 뿐이었다. 이 당시에도 2개 동 8세대를 착공하는데 모두가 방 두 칸짜리 20평형이었



소망마을 사랑의 집 기공식(좌로부터 4번째 이광준 춘천시장, 5번째 김창수 이사장, 2008년 3월 21일)

다. 터파기를 할 때 자신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20평형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 이 집이 25평형으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하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5분도 채 안 되어 강원개발공사에서 연락이 왔다. 자원봉사자를 보내기 전에 3천만 원을 먼저 후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국장이었기에 기도가 끝나고 5분도 안 되어 응답되는 모습을 직접 겪으면서 이날의 일을 기적이라고 자랑하였던 것이다. 이 집들이 25평형으로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집이 25평으로 방3칸 거실, 다용도 1칸 등 비교적 널찍하게 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정성에 머리 숙여 감사할 뿐이다.

라고 회고록에서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1년에 2개 동 8세대를 신축하는데 평균 3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김창수 이사장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춘천시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17개동 68세대의 소망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춘천시 신북읍 천전지 소망의 마을 전경(2022년 7월 7일)

3) 춘천시 동면 지내리 도담마을

2015년에는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1차 도담마을 6개 동 24세대를 신축하였고 2016년도에도 동면 지내리에 2차 도담마을 6개 동 28가구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추진하여 어려운 가정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다.



춘천시 동면 지내리 2차 도담마을(6동 24세대. 2022년 7월 7일)



춘천시 동면 지내리 1차 도담마을(6동 24세대. 2022년 7월 7일)

4) 춘천해비타트 집고치기 사업 (2004~2021년)

일자	주요내용
2010년 8월	정선 춘천 홍천 집고치기 13가구
2013년 12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산천리 집고치기 4세대(45㎡) 대수선
2020년 3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키트 전달
8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비대면 러닝 '잘 될 거야'

2010년도에는 집짓기뿐 아니라 정선·춘천·홍천지역의 가정 13세대를 선정하여 노후주택 집고치기 사업을 함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산천리의 노후주택 4가구를 선정하여 집 고치기 대수선 공사를 해주었다.

또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K-Water,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력하여 200여 세대 이상의 집 고치기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아동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해왔다.

제7장
홀트 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1절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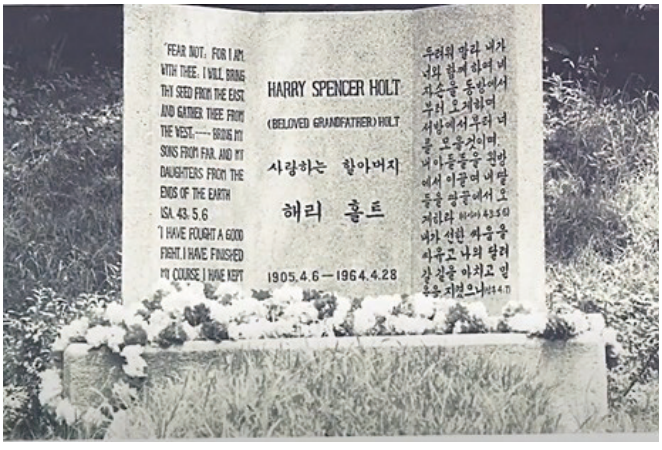
1. 홀트아동복지회


해리홀트와 버다홀트

홀트 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보여준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동·청소년, 미혼인 부모와 장애인,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 빈곤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홀트아동복지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1955년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국인 "해리홀트와 그의 부인 버다홀트"가 세운 아동복지기관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홀트는 가정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 주었으며, 일산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이끌어 왔고, 지역사회 복지관, 다문화센터, 어린이집, 아동치료센터 등 다양한 사업들로 어렵고 힘든 많은 분과 함께 해 왔다. 되돌아보면 우리 홀트의 역사 속에,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의 그림자가 그대로 녹아 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듯이, '도움을 받던 기관에서 캄보디아, 몽골, 네팔, 탄자니아의 아이들을 돕는 더 큰 기관'이 되었다. 이는 대를 이어 온 홀트 가(家)의 숭고한 사랑과 홀트회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신 수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변화의 시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발전과 변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찾고자 특별히 저소득가정아동, 의료문제아동, 시설퇴소청소년, 다문화가정아동,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중단, 가사, 생계유지, 아동 양육 등 준비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에 처한 미혼 부모를 위해, 그리고 해외 빈곤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리홀트의 묘비

2. 홀트아동복지회 주요활동 내용

1) 가정지원

아동이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빈곤가정, 미혼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2) 건강지원

질병이 의심되거나 이미 발병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입양대기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교육지원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4) 정서지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5) 자립지원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과 미혼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맞춤형 재활치료와 교육훈련, 자립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6) 인식개선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혼 한부모 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7) 해외사업

해외 빈곤가정과 아이들을 지원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아동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 기회가 제한된 해외아동에게도 마음껏 공부하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절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1. 강원사무소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는 1977년 2월 17일 춘천시립문화회관에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지부를 개소하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서 국내입양상담 및 미혼부모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미혼 한부모복지, 지역 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연혁

일자	주요내용
1977년 2월 17일	춘천시립문화회관에 지부 개소
1977년 3월 17일	3월 17일 김돈영 초대 소장 부임 활동 본격화
1981년 10월 24일	강원주부 후원회를 조직하여 홀트강원 후원회 설립
1982년 2월 1일	춘천시 중앙로 2가 58번지로 사무실 이전
1982년 3월	장학사업 시작
1982년 3월 24일	아동상담소인가
1984년 6월	원주연락지부 개소
1985년 3월	춘천시 낙원동 27-1번지로 사무실 다시 이전
1990년 2월	원주연락지부 폐소, 춘천으로 통합, 춘천시 효자동 708번지 홀트회관 1층으로 지부를 이전
2014년 10월 20일	춘천중앙교회에서 홀트아동·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한 "사랑의오찬" 행사
2015년 5월 12일	제10회 입양의날 기념식 "국립춘천박물관"
2015년 9월 3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행복나눔바자회' 개최
2015년 6월 19일	미혼한부모를 위한 사랑의집 입주예배
2016년 3월 11일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전통 장 담그기" 후원
2016년 5월 11일	제11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2016년 9월 1일	강원후원회 기금행사 "행복나눔바자회" 개최
2018년 10월 19일	2018년 강원입양가족캠프

3. 주요활동 사항

1) 미혼부모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생부모들에게 심리·정서지원, 양육지원, 입양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아동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혼부모 상담안내는 미혼부모, 이혼 및 기혼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자원을 연계하여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절차 안내해주고 있으며 상담은 전화, 내방,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하다.

2) 국내입양

홀트아동복지회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서 국내로 입양된 입양인, 입양가족, 친생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양인에게 입양서류 열람, 뿌리 이해하기, 친생가족 찾기, 위탁모 찾기, 친생가족·위탁가정 상봉 및 통역 등을 실시하고, 편지번역·교환 지원, 국적 취득·상실 관련 업무, 비자발급을 위한 입양확인서 제공, 서류 안내 등 입양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친생가족에게 입양인 소식 문의, 서신 번역 및 교환, 상봉 및 통역 지원 등 입양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친생가족 찾기는 친생가족 찾기 담당 사회복지사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입양인이 직접 작성한 입양정보공개 청구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제출하고 친생가족 인적정보 확인 시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권리 보장 원을 통한 친생부·모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고 파악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3차례 이상 발송한 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상봉 혹은 서신교환을 진행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거부의사가 명확할 경우 친생가족 찾기 절차는 종료된다.

홀트사랑회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가족이 된 입양가족들이 모여 함께 만나고, 공개입양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서로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개입양 가족 모임으로 홀트 공개입양가족이라면 누구나 홀트 한사랑회 카페 가입을 통

해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조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입양가족 중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인과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 간의 관계를 도모하며 지원자는 사회복지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정된다.

3) 위탁가정 모집

위탁가정은 아기들이 양부모에게 입양되기 전까지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양 후 입양부모와 애착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절 홀트아동복지회 춘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춘천시 공지로 305, 효자동708)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소속으로 2006년 12월 강원도로부터 결혼이민자센터로 지정을 받은 후 2008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육아정보나눔터로 지정을 받아 강원도지역의 결혼이민자 및 육아정보 나눔터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년 9

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0년 8월에는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 7거점센터로 지정을 받아 강원지역 14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하여 왔으며 2012년에는 강원도 제9거점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2012년 11월에는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2015년 1월에는 강원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2018년 11월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시 홀트아동복지회로 재위탁하여 현재까지 춘천시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하여 결혼 이민 여성과 가족에게 사회 문화교육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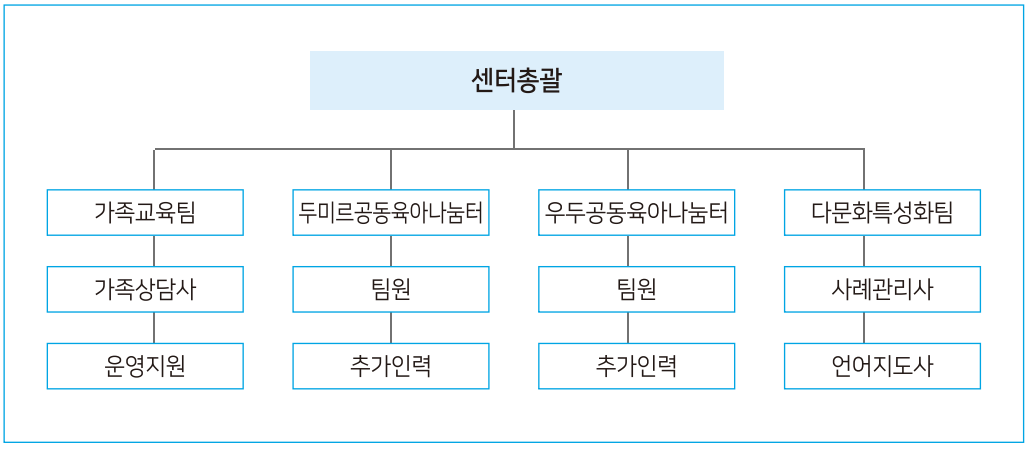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동안 다문화 북카페를 개설하여 이주여성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스토리텔링 북”과 “지구촌 엄마들의 이야기”를 제작하였으며, 엄마들이 수업하는 동안 함께 온 자녀들을 돌보는 육아정보나눔터와 자녀들이 언제라도 빌려볼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 운영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맞벌이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결혼 이민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엄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조직 및 업무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 산하에 다문화 특성화 팀과 가족교육팀, 이중다문화특성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특성화팀에는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를 두고 상담 및 사례관리, 자녀언어발달지원,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통번역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가족교육팀에는 가족상담사를 두고 두미르 공동육아나눔터, 우두동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 및 사무분장〉



3. 주요사업

1) 전체사업 안내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춘천시 위탁, 홀트아동복지회 단위기관으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춘천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기본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가족관계	부모역할지원, 다문화자녀성장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가족상담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등
가족생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취업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가족 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가족사랑의날, 결혼이민자정착 단계별지원 패키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등

(2) 특성화 사업

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③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④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
⑤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⑥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3) 다국어 게시판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 나라별 무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별	내용
러시아어	Переводческая служба
중국어	免费提供各个国家的翻译服务
캄보디아어	យើងខ្ញុំមានផ្តល់ជូនសេវាកម្មបកប្រែភាសាដោយឥតគិតថ្លៃទៅគ.
베트남어	Hỗ trợ miễn phí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các nước

2) 상담실 운영

(1) 다누리콜센터 운영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이다.

구분	내용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의료 법률 검찰 경찰 서비스 등 연계

구분	내용
종합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안내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안내 체류 국적 법률 노동 취업 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3자 통역 (경찰, 응급, 병원, 주민센터,교육기관,은행 등)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심리정서, 통역 지원
변호사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진행 매주 화요일 14:00~16:00(주1회), 사전예약

(2)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운영안내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운영 위탁받아 국제결혼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유형	피해구제 요구내용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	계약분쟁 해결, 손해배상
배우자 관련 피해	형사처벌
기타	혼인관계 해소

(3) 온라인 상담실

한국에 처음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체류, 국적 취득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한국생활에 궁금한 내용을 상담실을 통해 알려주는 제도로서 1:1 상담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제공센터 '다누리콜센터'에서 운영한다.

제8장
강원 CBS

1절 개관

1. CBS

1954년 최초의 민영방송 CBS의 첫 전파 발사는 이 땅에 민영방송 시대의 막을 여는 한국 방송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 탄생한 CBS는 포화에 지친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의 소리'로 정의와 자유 그리고 생명에 목마른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진실과 진리의 소리'였다

그동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정도언론'의 길을 오롯이 걸어온 CBS는 60년의 역사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의 진전,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CBS는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와 가장 주도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미디어 기반하에 대한민국 방송역사를 선도하는 글로벌 크리스천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흔들림 없이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정도언론'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약자를 감싸 안는 '따뜻한 방송', 미디어 발전에 앞장서며 사회적 소통을 이끄는

'스마트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금은 물론 다음 세대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국사회의 파수꾼이자 한국교회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2. CBS 매체현황

1). 라디오(표준FM/AM, 음악FM)

뉴스, 시사, 교양, 선교 콘텐츠로 차별화된 표준 FM, 고품격 음악전문채널 음악 FM 등 한국 기독교 방송계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전국 14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 TV(스카이라이프182, 케이블TV, IPTV)

크리스천 전문채널로 전국 1300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고,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북중미 지역의 위성, 지상파, 케이블, IPTV매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 및 중국, 일본 등 인근지역에 송출하고 있다.

3) 인터넷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전국 50여 개 주요일간지, 20개 인터넷포털에 뉴스콘텐츠를 공급하고 있고, 아울러 해외 9개 한인 신문에 노컷뉴스 공급하고 있다.

4) CBS홈페이지(www.cbs.co.kr)

CBS방송콘텐츠 AOD, VOD 서비스 제공하고, 크리스천포털 사이트 구현하고 있다

5) Nocut T.V(www.nocut.com)

풀 HD영상을 바탕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영역에서 텍스트, 오디오, 사진, 영상, 그래픽, 만화 등의 가능한 모든 미디어 수단을 통합 활용하여 뉴스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전달한다.

2절 강원CBS

1. 강원CBS



강원CBS 신사옥(춘천시 서면 박사로 892)

강원 CBS는 1985년 4월 기독교춘천방송 설립 기도운동을 시작으로 1986년 12월 5일 기독교춘천방송 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위원장 곽철영 목사를 추대한 후 춘천 기독교방송설립을 위한 청원서제출, 시민걷기대회를 비롯한 특별기도, 연합성회 및 서명운동 등 춘천지역 성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10여 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5년 5월 2일 춘천 CBS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다.

2014년 6월 10일 원주 FM방송 개국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6일 강원CBS로 지역방송 사명을 변경하고 2015년 4월 13일 강원CBS 원주방송국을 개국하였다.

2016년 1월 29일 강원CBS 사옥건축위원회가 발족하여 2019년 11월 12일 강원CBS 서면 사옥을 준공하여 강원지역의 복음전파와 지역선교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비전과 미션



3. 강원 CBS 역사

일자	주요내용
1985년 4월	기독교춘천방송 설립 기도운동
1986년12월 5일	기독교춘천방송 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초대위원장 곽철영 목사)
1988년 6월 29일	기독교춘천방송 설립추진위원회 제2대 위원장 윤철중 목사 취임
1989년 5월 11일	기독교춘천방송 설립추진위원회 제3대 위원장 임택창 목사 취임
1991년12월 9일	기독교춘천방송 설립허가를 위한 5만명 서명운동 발대식
1993년 6월 25일	기독교춘천방송 설립추진위원회 임시총회(회장 임택창 목사)
1994년 4월 1일	CBS개설본부 개소(CBS 본사 발령)
1994년 11월 16일	개설본부 사무실 → 연주소 건물로 이전
1994년 12월	송신소 건축 준공
1995년 4월 17일	송신소 준공식
1995년 5월 2일	기독교춘천방송 개국, 초대 안택균 본부장(FM93.7Mhz, HLDC)
2014년 9월 26일	춘천CBS, 강원CBS로 사명 변경
2015년 4월 13일	강원CBS 원주방송국 개국(FM94.9Mhz, HLDC)
2016년 1월 29일	강원CBS 사옥건축위원회 발족
2019년 11월 22일	강원CBS 춘천서면사옥 준공감사예배

4. 강원 CBS 운영이사회

강원CBS 운영이사회는 강원 CBS의 전파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이루며 강원도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교계의 일치와 연합운동을 통하여 기도와 협력으로 강원CBS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이사장 외 부이사장 5인, 총무 1인과 2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3절 강원CBS 주요활동(www.gwcbs.co.kr)

1. 강원CBS Here& Now

강원CBS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 정의. 공의로 바로 서는 언론이 되는 것을 지향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방송으로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방송임을 인식하면서 라디오, 방송설교, TV.노컷뉴스. 선교후원.ON Air방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라디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박윤경 아나운서가 매일 낮 12시 5분부터 오후1시 30분까지 진행하는 “찬양이 머무는 곳”과, 평일 오후1시 5분~1시 30분까지 서정암의 “시사줌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 찬양이 머무는 곳



제작/진행 : 박윤경 아나운서(월~주일), 김선일 목사(토) | 방송 : 매일 낮 12시 5분~ 1시(토요일 낮 12시5분 ~ 1시 30분)

매일 낮 12시 05분, 추억 속 찬양이 머무는 시간
매주 토요일은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로 12시 05분부터 1시 30분까지 하나님의 사람, 반가운 우리의 이웃을 만납니다

2) 서정암의 시사줌인



제작 : 강민주PD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방송 : 평일 오후1시5분~1시30분

3. 방송설교

1) 라디오 설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생명의 말씀	월~금	PM 1:35 ~ 2:00
달고 오묘한 말씀	월~금	PM 9:05 ~ 9:29
5분 메시지	월~금	PM 9:29 ~ 9:35
라디오 강단	월~금	PM 9:35 ~10:00
은혜의 강단	토	PM 1:30 ~ 2:0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	AM 5:00 ~ 5:30
윤호균목사와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	일	AM 5:30 ~ 6:00
새에덴의 시간	일	AM 6:00 ~ 6:30
믿음위에 서서	일	AM 6:30 ~ 7:00
다산 중앙의 시간	일	AM 7:00 ~ 7:30
평화동산 메시지	일	AM 7:30 ~ 8:00
라디오 교회	일	AM 10:30 ~11:00
안디옥의 시간	일	AM 11:05 ~11:40
은혜의 숲	일	AM 11:40 ~12:00
내영혼의 양식	일	AM 1:05 ~ 1:30
생명의 양식	일	PM 1:30 ~ 2:00
홍천 중앙의 시간	일	PM 8:35 ~ 9:00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일	PM 9:05 ~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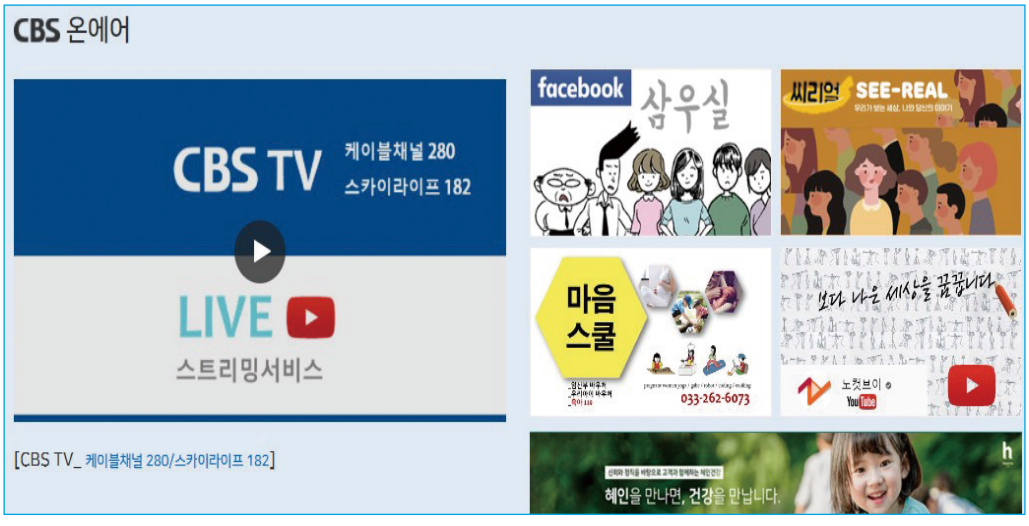
2) TV 설교 편성표

요일	방송시간	교회	설교자
월	PM 7:30~8:00	춘천광염교회	박인관 목사
화	AM 6:00~6:30	원주삼천교회	우광성 목사
수	AM 6:00~6:30	원주제일감리교회	최헌영 목사
	PM 3:30~4:00	춘천중앙감리교회	심성수 목사
금	AM 6:00~6:30	춘천중앙설결교회	장기동 목사
	PM 7:30~8:00	춘천소양교회	김선일 목사
토	AM 6:00~6:30	원주중부장로교회	김미열 목사

4. 노컷뉴스

CBS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채널로서 전체내용이 커트되지 않은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컷뉴스 강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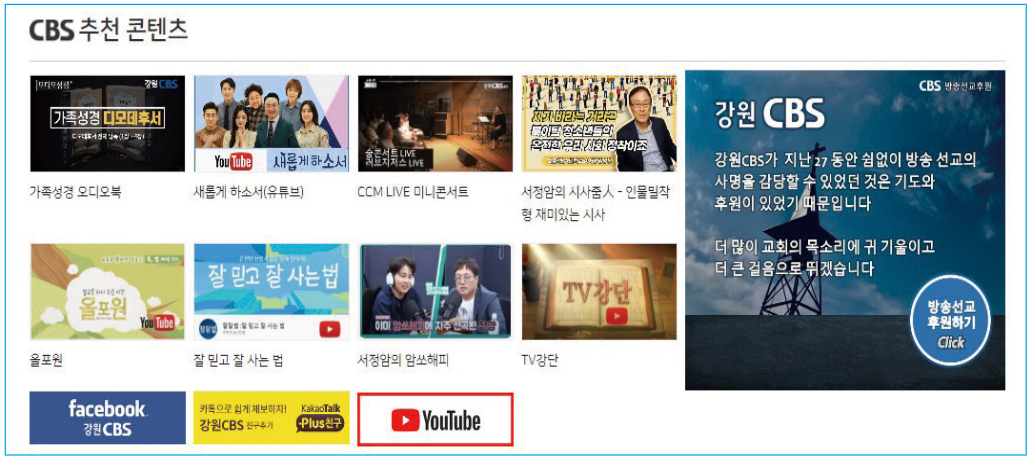
5. CBS 온에어

강원CBS는 실시간 ON AIR Live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CBS 유튜브, CBS음악 FM생명을 살리는 CBS TV, CBS JOY4U, 내 손안에 펼쳐진 CB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원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6. CBS 추천 콘텐츠

강원 CBS에서는 정규방송 외에도 복음전파를 위해 가족성경 오디오북, 유튜브 “새롭게 하소서”, CCM라이브 미니콘서트, 올 포원, 잘 믿고 잘 사는 법, 서정암의 암소해피 TV 강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제9장
춘천와이신협(신용협동조합)

1절 개관

1. 우리나라 신협의 태동



우리나라는 6.25전쟁 직후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하는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이 저축하거나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개인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좀 더 쉽고 안정적인 금융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1960년 5월 1일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는 우리나라 최초로 부산에서 메리놀 병원 직원과 천주교 교우 27명을 조합원으로 성가신협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6월, 장대익 신부는 서울에서 가톨릭 교인을 대상으로 가톨릭 중앙신협을 설립하여 한국신협의 확산에 기틀이

되었다.

신협은 한국의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표적인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지난 62년 이래 신협은 문턱 높은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 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음은 물론 서민·중산층의 따뜻한 이웃으로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한 신협은 2021년 기준 656만 조합원, 873개 조합, 1,680개 점포 수의 영업점 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조합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협은 믿음으로 걸어온 62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협동조합』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서민의 경제 동반자로서의 소명과 더불어 사는 신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의 역사

1) 1960~1971년대



성가신용조합 모습

1960년 서민들의 오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태동한다.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주도해 출범한 부산 성가신용조합과 장대익 신부가 주도한 서울의 가톨릭중앙신용조합은 한국신협운동의 뿌리로, 60년 신협운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2) 1972~1981년대

1972년 한국신협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신협법이 제정된다. 신협법 제정은 이전까지 순수 민간자율의 협동조합 운동이었던 신협이 법의 보호를 받은 제도 금융의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3) 1982~1990년대

신협은 1980년대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1983년 조합원 100만 명 돌파에 이어 1986년에는 총자산 1조 원 돌파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4) 1991~1997년대

1990년대는 신협 역사상 유일하게 조합-연합회-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체계가 운영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신협은 계통기구의 역할 분담과 업무 효율화,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전개해 나갔다.

5) 1997~2005년대

신협은 1998년 1월 신협법 개정에 따라 조합-중앙회의 이원화 체제로 전환하며 체제를 정비했다. 1999년 12월 이뤄진 신협법 4차 개정은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2003년 7월 이뤄진 신협법 5차 개정은 중앙회가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비조합원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6) 2006~2013년대

신협은 2006년 대전 시대를 열며 제2의 도약을 알렸다. 2010년 1월 총자산 40조 원을 돌파한 신협은 9월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워크숍 및 ACCU 포럼 개최와 함께 비전선포식 등을 개최하며 창립 50주년을 기념했다.

7) 2014~현재

2010년대 중반 이후 신협은 정체성 회복과 신협정신의 강화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또한 2014년 11월에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국내 최초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출범시켜 기부·나눔·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5월 1일, 27명의 조합원을 모아 한국 최초의 신협인 성가신협을 만들었다. 그 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2022년 현재 656만 조합원, 873개 조합, 124조 자산을 운영하는 서민의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2절 춘천와이신협

1. 춘천와이신협의 창립과 발전

1) 춘천와이신협의 창립



춘천YMCA 신협현판식(1983년 12월 5일)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은 춘천YMCA 주관 사업으로 사랑과 봉사 그리고 상호유대를 도모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도움과 저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선교사업과 청소년 선도 및 복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춘천교역자연합회와 뜻 있는 장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창립준비를 해오던 중 1980년 8월 18일 발기인 선임대회를 갖고 1981년 2월 말 조합원 80명과 859,000원의 출자금으로 같은 해 3월 5일 사무실을 개설하고 각종 예금업무와 신용 대부업무를 시작하였다.

1981년 6월 20일 발기인 회의를 갖고 같은 해 8월 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

대 이사장에 한석기 씨를 선출하고 여선동, 김용화, 윤건배, 최하길, 조남진, 최준집, 권영기 이사 등 7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김정하 신용희 박동해 감사를 선출하여 명실상부한 춘천신용협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

춘천 와이신협 역대이사장 명단

구분	성명	재임기간	시무교회	직책
1-7	한석기	1980.9-1998.1	성광장로교회	장로
8	윤건배	1998.1-1999.2	춘천중앙장로교회	장로
9	김홍규	1999.2-2000.2	동부장로교회	장로
10-11	최종인	2000.2-2006.2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12	심인섭	2006.2-2010.2	신성감리교회	장로
13-14	임운식	2010.2-2018.2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15-16	남준섭	2018.2-현재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2) 발전과정

1982년 2월 20일 춘천 YMCA강당에서 제1차 정기총회에 859,000원으로 시작한 출자금이 6개월 만에 4천7백만 원의 자산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조합원 수도 248명으로 증가하였다.

1983년 2월 19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는 451명의 회원과 총자산이 1억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 2월 17일 제9차 정기총회에서는 1,535명의 회원과 총자산 21억6백만 원으로 8년 만에 자산규모가 40여 배 증가하게 되었다.



YMCA 신축회관(1986년)

2000년 2월 23일 제19차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 수 5,867명, 총자산 213억 원으로 증가하여 1981년 춘천와이신협이 창립된 이래 18년 만에 2백억 원대의 자산규모를 확보함으로

써 춘천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20011년 2월 28일 정기총회시에는 총자산 789억 원, 회원수 7,000여 명으로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모든 조합원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만 41주년이 되는 2022년 2월 정기총회에서는 총1,695억 원의 자산으로 남준섭 이사장 외 모든 임직원과 함께 서민경제의 동반자로서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더불어 사는 신협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3) 와이신협 회관신축을 통한 발전



제14차정기총회,회관준공(1995년 2월 11일)

춘천와이신협은 1983년 12월 5일 춘천YMCA 회관 신축사업으로 운교동 182-18소재 건물 2층을 임시로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86년 1월 7일 YMCA 신축회관이 준공함에 따라 신축건물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987년 12월 29일 YMCA별관을 신축 확장하여 1층 25평, 2층 15평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2년 12월 23일 춘천시 운교동에 사무실 신축부지 132평을 매입하고 1993년 9월 25일 기공식을 거쳐 1995년 2월 11일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675평 규모의 독립청사를 준공하여 제14차 정기총회를 신축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3년 7월 30일 신협법의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되었으며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이 설치되었고 조합과 중앙회의 수익모델을 재구축하는가 하면 건전경영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세부연혁

춘천와이신협은 1980년 춘천YMCA 사업으로 회원 간 공동유대로 15인 발기인을 선임하고 1981년 8월 5일 창립하여 초대 한석기 이사장이 취임하였고, 1982년 2월 20일 제1차 정기총회에 회원 수 248명 총자산 47백만 원으로 같은 해 10월 9일 재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40여 년간 회원 모두와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22년 4월 현재 조합원 수 9,480여 명, 총자산 1,834억 원의 명실상부한 춘천지역의 중추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춘천와이신협 세부연혁

일자	주요내용
1980년 8월 8일	춘천YMCA사업으로 회원 간 공동유대로 15인 발기인 선임 창립협의
1981년 6월 20일	발기인회
8월 5일	춘천와이십협 창립, 초대 한석기 이사장 취임
1982년 2월 20일	제1차 정기총회(총자산 47백만 원)
1982년 12월 9일	설립인가(인가번호 4-73)
1986년 1월 7일	YMCA회관 1층으로 사무실이전 업무 개시
1988년 2월 24일	우수조합 표창패 수여(신협 강원도 연합회)
1991년 2월 9일	제10차정기총회(총자산 3236백만 원)
1992년 12월 21일	자산 60억 달성
12월 23일	신협사무실 신축부지매입(운교동 174-3. 132평)
1994년 12월 27일	신축회관 준공(지하2층 지상5층. 연건평 675평)
2001년 2월 20일	제20차 정기총회(총자산 226억 원)
2002년 2월 8일	제21차 정기총회(총자산 262억 원)
2003년 1월 24일	제22차 정기총회(총자산 299억 원)
2005년 2월 19일	강남지소 개소식
2009년 10월 27일	적십자회원 유공자 금장수상(대한적십자사 총재)
2010년 2월 4일	종합우수조합 중앙회장 표창(강원도 종합2위. 강원조합45개중 2위)
2010년 7월 1일	상반기 강원1위 최우수CS조합 수상(강원 45개 신협 중)
2011년 2월 9일	2010년 종합업적평가 우수조합 수상(강원 45개 신협 중)
2011년 2월	제30차 정기총회(총자산 789억)
2017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표창
2017년 3월 31일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경영부분대상수상

일자	주요내용
2019년 3월 27일	신협공제 전국4군 1위 수상
2021년 2월 5일	제40차 정기총회(총자산 1503억)
2022년 2월 5일	제41차 정기총회(총자산 1695억)

3. 주요 활동사항

1) 장학사업

춘천와이신협은 춘천지역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258명의 춘천지역 학생에게 총 145,3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연도	인원(명)	금액(천원)	수혜자
1999	20	2,000	20명
2000	20	2,000	유봉여고 최영미외 19명
2001	5	2,000	성수고등학교 김례중외 4명
2002	5	1,000	춘천기계공고 김지원외 4명
2003	5	1,600	유봉여중 이경진외 4명
2004	9	1,600	김명숙외 8명
2005	6	9,100	봉의여중 김진희외 5명
2006	7	6,800	이진희외 6명
2007	5	10,140	한림성심대학 박형빈외 4명
2008	6	17,000	춘천기계공고 황상덕외 5명
2009	8	9,600	춘천고 정서전외 7명
2010	12	12,900	12명
2011	12	12,000	춘천고 임현규외 11명
2012	10	2,700	춘천고 이준영외 9명
2013	12	6,500	강원대 이동인외 11명
2014	10	5,100	성수여고 김진주 외 9명
2015	9	4,400	춘천기공 김용화 외 8명

연도	인원(명)	금액(천원)	수혜자
2016	12	5,500	서울대 대학원 박상철 외 11명
2017	15	5,300	백석대 정하영외 14명
2018	17	6,000	강원대 권순용외 16명
2019	28	10,600	강원대 주성범 외 27명
2020	14	6,000	연세대 채아로 외 13명
2021	11	5,500	강원대 김성연 외 10명

2) 지역사회 후원사업

춘천와이신협은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소외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수재민돕기, 사랑의 집짓기 및 장애인 돕기 등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하여 2001년부터 2021년까지 1억4천여만 원을 후원함으로써 사랑과 협동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연도	금액(천원)	주요내용
2001	500	YMCA 어린이마라톤 후원
2002	100	월드비전 후원
2003	500	YMCA 통일어린이마라톤 후원
2004	5,200	YMCA. 사랑의 집짓기, 지암리나눔의집
2005	3,750	교회행사 나눔의집, 양양산불, YMCA
2006	5,440	나눔의집, 기독교연합회, 어린이전도협회, 월드비전, 연탄은행
2007	6,200	어린이전도협회 불우이웃돕기, 사랑의집짓기, 춘천마임축제 등
2008	10,920	기독교연합회군선교연합회, 어린이전도협회, 사랑의집짓기, 기아대책, 성시화운동본부 YMCA적십자회비(3000) 불우이웃
2009	13,700	기아대책, 성시화본부, 장애인돕기, 사랑의집짓기, 월드비전, 적십자,기독교학생회,어린이재단,태백물지원, YMCA, MBC사랑의쌀
2010	12,200	장애인부모(1300) 기아대책 적십자회비) 월드비전,기독교학생회, 사랑의집짓기,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본부, 춘천YMCA
2011	12,400	장애인부모회, IVF, 군선교연합회, 사랑의집짓기, 성시화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기아대책
2012	4,500	적십자회비, 장애인부모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집짓기, 연탄은행, 성시화운동본부, 월드비젼
2013	6,00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적십자회비, 성시화운동본부, 전국남선교회 연합회, 연탄은행, 춘천MBC사랑의 쌀나누기

연도	금액(천원)	주요내용
2014	3,52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군선교연합회, 대한적십자사회비, 세월호관련후원
2015	4,90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충효예강원본부, 춘천MBC사랑의 쌀, 춘천연탄은행, 적십자사회비
2016	4,30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충효예강원본부, 춘천MBC사랑의 쌀, 춘천연탄은행, 춘천호스피스, 월드비젼, 대한적십자사회비
2017	11,47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충효예강원본부, 강원CBS, 춘천보금자리후원, 늘푸른노인대학,
2018	8,845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충효예강원본부, 군선교연합회, 춘천홀리클럽, 운전기사선교회
2019	8,70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춘천MBC사랑의 쌀 나누기, 춘천연탄은행, 춘천호스피스, 대한적십자사회비, 강원도산불피해돕기, 한국폴리텍대학
2020	7,95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기아대책춘천지회,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연탄은행
2021	9,090	춘천YMCA,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집짓기, 기아대책춘천지회,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연탄은행

제10장
두란노춘천아버지·어머니학교

1절 두란노아버지학교

1. 개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 가정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으로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었다.

아버지학교는 순수한 가정회복 운동으로 초창기 교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를 초월한 아버지, 남편이라면 모두가 거쳐야 할 필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74여개 298여 도시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아버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2021년 7월 기준 74개국 298개 도시에 416,584명이 수료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더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아버지가 변화하여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킴으로써 인류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에 서는 아버지학교를 지속적으로 확

대 운영하고 있다.

2. 아버지 학교 커리큘럼

1) 아버지의 영향력

우리는 태어나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고 자라는데, 특히 아버지의 영향력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고, 지대함을 알아본다.

2) 아버지의 남성

내 삶의 모습 중 사회 질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과 그렇지 못한 요인을 알아보고, 내가 나답도록 변화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본다.

3)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역할을 혼동하면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함을 알아본다.

4)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자녀들은 아버지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알아본다.

5) 아버지와 가정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많다는 것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가정임을 알아본다.

2절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

1. 춘천아버지학교

두란노아버지학교춘천지부는 초대지부장 채병조와 아버지학교를 사모하는 분들이 동해 3기와 원주 3기를 수료하고 춘천에도 지부를 만들어 두란노아버지학교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11월 6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춘천지부 제1기 아버지학교를 개설한 이래 2019년까지 총 60기의 아버지학교 과정을 운영해 왔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는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지역의 수료자 형제들이 함께 동역하는 곳으로서 토요아버지 학교는 5주간 주말 오후 시간을, 열린아버지 학교는 4주간을 봉사하는 아버지들과 함께 진행하며 진정한 아버지들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1) 두란노 아버지 학교란



두란노아버지학교란?
DURANNO Father School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위에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개설이 되어 참석자도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IMF이후 아버지학교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기독교인(일반인)의 참석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설 요청으로 2004년부터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열린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FamilyBuilders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입니다. 가정의 수준은 아버지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며, 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아버지학교는 이 사회를 바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남성들의 회복운동입니다.

3) 아버지 학교는 어떤 곳인가

●● 아버지학교는 어떤곳인가요?

아버지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10시반까지 정해진 날짜에서 5주간 이어서 진행되는 세미나로 아버지학교는 주제강의가 총 4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이라는 주제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각 조별 조원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마다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쓰는 편지 숙제를 내어 드리며 다양한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주차 수료식 때는 아내와 함께 참여해서 수료식을 하게 되며, 이것으로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게 됩니다. 수료후에는 개인 의사에 따라 토요아버지강좌, 비전나이트, 가족한마당, 헌신자스쿨 등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도 있으며, 스텝으로 지원하시면 관리, 찬양, 조장 등 자원봉사로 아버지학교를 섬길 수 있습니다.

2. 춘천 아버지학교 개설 운영 현황

두란노 아버지학교 춘천지부에서는 2004.11월 6일부터 12월4일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제1기 과정을 개설하고 김봉하 진행자와 함께 총 140명의 아버지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9년까지 아버지학교 총 60기, 다문화가정 및 군 장병 부부학교 등 총 12기의 과정을 운영하였다.

일반 아버지학교 운영현황 2004~2019년, 총 60기

기수	개설 장소	개설 기간	진 행 자	수료 인원
1기	순복음춘천교회	2004년 11월 6일~12월 4일	김봉하	김용일 외 139명
2기	순복음춘천교회	2005년 4월 2일~ 4월 30일	정재풍	김주철 외 149명
3기	중앙성결교회	2005년 6월 11일~ 7월 9일	채병조	주윤 외 94명
4기	춘천중앙감리교회	2005년 10월 22일~11월 19일	조찬후	권순길 외 86명
5기	석사감리교회	2006년 2월 25일~ 3월 25일	김승구	최영일 외 125명
6기(홍천1기)	희망장로교회	2006년 6월 10일~ 7월 8일	석광훈	송태규 외 99명
7기	춘천제일장로교회	2006년 8월 26일~ 9월 23일	최기용	허종태 외 119명
8기	춘천동부교회	2006년 11월 11일~12월 9일	김 헌	송병조 외 113명
9기	춘일감리교회	2007년 3월 3~31일	이재문	김홍기 외 110명
10기(목회자)	가산감리교회	2007년 2월 26일~ 3월 26일	정선경	엄기홍 외 35명
11기(춘천성1기)	춘천교도소	2007년 4월 7일~ 4월 28일	김승구	46명
12기	화천제일감리교회	2007년 5월 12일~ 6월 9일	최기용	한상우 외 72명
13기	명성감리교회	2007년 8월 18일~ 9월 15일	최정용	김만수 외 83명
14기(양구1기)	양구사랑의교회	2007년 9월 29일~10월 27일	석광훈	박종원 외 82명
15기(춘천성2기)	춘천교도소	2008년 2월 16일~ 3월 8일	한택수	50명
16기	신성감리교회	2008년 3월 8일~ 4월 5일	윤용헌	김창수 외 79명
17기(인제1기)	인제장로교회	2008년 5월 17일~ 6월 14일	고성기	고경훈 외 23명
18기	소양제일교회	2008년 7월 19일~ 8월 16일	염노섭	이존택 외 93명
19기(홍천2기)	아름다운빌립보교회	2008년 8월 23일~ 9월 27일	윤용헌	민현배 외 62명
20기(인제2기)	인제장로교회	2008년 11월 8일~12월 6일	이성수	김기병 외 47명
21기(춘천성3기)	춘천교도소	2009년 1월 31일~ 2월 21일	유지대	42명
22기	순복음춘천교회	2009년 3월 28일~ 4월 25일	채병조	임병대 외 59기
23기	강촌감리교회	2009년 6월 13일~ 7월 11일	최기용	박병철 외 37명
24기	동부장로교회	2009년 10월 17일~11월 14일	한택수	이종진 외 71명
25기(인제3기)	원통장로교회	2010년 3월 6일~ 4월 3일	윤용헌	홍운화 외 82명
26기	광염감리교회	2010년 5월 29일~ 6월 26일	전향수	강문모 외 58명
27기(춘천성4기)	춘천교도소	2010년 8월 7일~ 8월 28일	유창식	43명
28기	은빛유치원	2010년 10월 23일~11월 13일	김 헌	경규환 외 35명
29기	개설되지 않음			
30기(다문화2기)	순복음춘천교회	2010년 11월 20일~12월 11일	유지대	36명
31기(춘천성5기)	춘천교도소	2011년 1월 22일~2월 19일	김승구	50명
32기(홍천3기)	가람밸리리조트	2011년 2월 26일~3월 19일	전향수	곽근영 외 49명
33기	성광장로교회	2011년 5월 28일~6월 25일	최기용	강명수 외 43명

기수	개설 장소	개설 기간	진 행 자	수료 인원
34기	홍천성결교회	2011년 10월 29일~11월 26일	이경수	나평수 외 45명
35기(춘천성6기)	춘천교도소	2012년 1월 28일~2월 28일	최정용	42명
36기	소양성결교회	2012년 3월 31일~4월 28일	석광훈	유영충 외 55명
37기	중앙성결교회	2012년 8월 25일~9월 22일	현두호	전용승 외 70명
38기	인제문화원	2012년 10월 6~27일	염노섭	임용우형제외14명
39기(다문화3기)	다문화센터 6층	2012년 11월 3~24일	이재문	28명
40기	춘천교도소	2013년 2월 16일~ 3월 9일	한택수	50명
41기	성도장로교회	2013년 3월 30일~ 4월 27일	이경수	26명
42기	동부교회	2013년 9월 28일~10월 26일	한택수	60명
43기	홍천군청(관공서)	2013년 8월 31일~ 9월 7일	최정용	38명
44기(춘천성8기)	춘천교도소	2014년 2월 8일~ 3월 1일	윤용헌	37명
45기	순복음춘천교회	2014년 5월 10일~ 6월 7일	김승구	46명
46기	신성감리교회	2014년 9월 27일~10월 25일	채병조	62명
47기(다문화4기)	다문화센터	2014년 11월 15일~12월 6일	김승구	18명
48기(춘천성9기)	춘천교도소	2015년 1월 24일~ 2월 24일	한택수	
49기	온누리교회	2015년 4월 11일~ 5월 9일	이경수	
50기(춘천성10기)	춘천교도소	2016년 1월 23일~ 2월 20일	한택수	
51기	춘천석사감리교회	2016년 5월 28일~ 6월 25일	전석만	
52기	춘천온누리교회	2016년 10월 22일~11월 19일	이경수	
53기(춘천성11기)	춘천교도소	2017년 2월 4~25일	김승구	
54기(토요일반)	창대교회	2017년 4월 22일~ 5월 13일	이경수	주영훈 외 29명
55기(토요일반)	주향교회	2017년 10월 14일~11월 11일	염노섭	홍성훈 외 21명
56기(관공서열린)	홍천종합사회복지관	2017년 11월 25일~12월 16일	전향수	안태수 외 18명
57기(토요일반)	초대교회	2018년 3월 3~31일	김영관	신금영외 36명
58기(교정)	원주교도소	2018년 11월 5~29일	최정용	
59기(토요일반)	순복음춘천교회	2019년 6월 1~29일	염노섭	조성우 외 39명
60기(토요일반)	소양제일교회	2019년 11월 2~30일	최정용	최기춘 외 24명

다문화가정 및 국군, 부부학교 개설운영 현황

기수	개설 장소	개설 기간	진 행 자	수료 인원
(다문화1기)	청소년수련관	2008년 11월 1~22일	김승구	50명
30기(다문화2기)	순복음춘천교회	2010년 11월 20일~12월 11일	유지대	36명
부부학교 춘천4기	신남감리교회	2011년 1월 29일~ 2월 19일	염노섭, 문신자	28명(14쌍)

기수	개설 장소	개설 기간	진 행 자	수료 인원
39기(다문화3기)	다문화센터 6층	2012년 11월 3~24일	이재문	28명
47기(다문화4기)	다문화센터	2014년 11월 15일~12월 6일	김승구	18명
국군열린 45기	인제 기린대교회	2009년 8월 29일~ 9월 19일	염노섭	52명
국군열린 54기	홍천 화랑교회	2011년 9월 1~3일	권영술	
국군열린 55기	홍천 화랑교회	2011년 9월 22~24일	한택수	
국군예비201기	13여단 129대대	2013년 1월 17~19일	전향수	103명
국군예비202기	13여단 112대대	2013년 1월 31일~ 2월 2일	전석만	65명
부부학교 춘천6기	소양제일교회	2013년 5월 25일~ 6월 15일	전향수, 노하은	34명(17쌍)
부부학교 춘천7기	홍천서석감리교회	2014년 3월 8~15일	전향수, 노하은	46명
부부학교 춘천8기	홍천복지관	2014년 10월 17일~11월 7일	엄재희, 임봉선	24명(12쌍)

3절 두란노어머니학교

1. 어머니학교 개관



●● 어머니학교란?

두란노어머니학교는 21세기 한국의 위기는 가정안의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이 땅의 가정에서 성경적인 어머니상을 제시하고, 올바른 여성성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회복 없이는 아버지의 회복도 없고, 자녀들의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학교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여성상을 성경적으로 적립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학교를 통해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어머니학교 비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여성상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로 깨진 자아상을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행복한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 행복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세워주고 신뢰하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속에서 사랑받고 행복한 아내가 되기를 돕습니다.



따뜻한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가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길러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 시대의 일꾼들로 길러내는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고향과 같은 따뜻한 품을 가진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사랑의 태도와 그릇된 문화로 비롯된 욕심들을 버리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돕습니다.



열방의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내 가정만 잘 된다고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주변의 아이들도, 나아가 전 세계의 가정들을 마음에 품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신의 머리위의 하늘만 보는 법입니다. 손을 내밀어 먼저 나아가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기를 돕습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나이와 지역, 환경과 종교를 넘어 세계의 어머니들이 행복한 여성으로, 가치있는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4절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지부

1. 두란노춘천어머니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21세기 한국의 위기는 가정 안의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가정에서 성경적인 어머니상을 제시하고 올바른 여성상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출발했다.

어머니의 진정한 회복 없이는 아버지의 회복도 없고 자녀들의 회복도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어머니학교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여성상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한 여성이 어머니학교를 통해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다.

1) 춘천열린어머니학교 개설 목적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땅의 어머니들을 향해 기독교의 정신이 담긴 열린 어머니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여성으로 건강한 아내로 건강한 어머니로 회복시켜 각종 역기능과 혼란으로 흔들리는 가정들을 바로 세우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많은 깨어진 영혼과 가정의 주인공들이 쉴 곳이 없다. 그들 중에는 상담을 통해 회복해 보려 하지만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한다. 특히 30대에서 40대에는 신체적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회참여의 열정이 왕성한 시기임으로 이혼율이 다른 세대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의 홀로된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클릭! 러브터치”의 시작과 함께 “열린 어머니학교”가 열리게 되었다.

여성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가정들에 대하여 시청과 군청 등 관공서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어머니학교 프로그램의 협력으로 춘천지역의 어머니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3) 방향

첫째, 어머니학교의 정체성은 전도가 아니고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통로임을 잊지 말고 교회에서 사회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깊은 영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하며 또한 경건의 생활을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모든 스텝은 스텝 간의 축제 분위기에 젖어 기뻐하기보다는 예비 신자들인 지원자 어머니들의 표정과 그들이 느끼는 분위기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지원자들의 말 한마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열정보다는 순종이 앞서도록 자기의 감정 순위를 잘 조절해야 하며 지원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열린어머니학교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일반인에서 소외계층으로 각 계층을 초월한 어머니 학교를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연혁

1999년 시작된 두란노어머니학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머니 훈련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춘천지역의 경우 2005년 9월 12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제1기 두란노춘천어머니학교를 개설한 이후 2019년까지 총 14기에 걸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 나오미학교 등을 개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중고등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릭터치 한부모자녀 교육을 실시한 후 1919년 이후 코로나19 관계로 정기교육은 일시 휴강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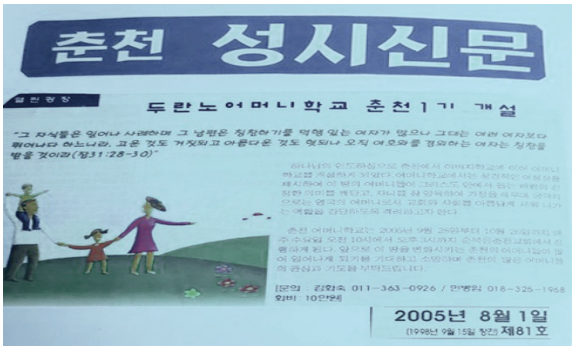
춘천 어머니학교 연혁

일자	주요내용
2005년 9월 12일	제1기 두란노 춘천 어머니학교(순복음 춘천교회 150 명 수료)
2006년 3월 9일	제2기 두란노 춘천 어머니학교
2006년 8월 30일	제3기 두란노 춘천 어머니학교(8.30~9.27, 석사감리교회 105명)
2006년 10월 14일	제4기 춘천 두란노 부부학교(부부1기)
2007년 10월 10일	제5기 두란노 춘천 어머니학교 개설
2008년 4월 2일	제6기 두란노 춘천 어머니학교
2010년 10월 6일	제7기 춘천 나오미 학교(10.6~10.23 4회, 순복음춘천교회)
2011년 10월 8일	제8기 춘천 열린학교(열린4기)
2012년 10월 6일	제9기 춘천 열린학교(열린5기, 60명)
2014년 9월 20일	제10기 두란노 춘천 어머니학교(9.20~10, 순복음교회 80명)
2015년 10월 11일	제11기 두란노 춘천어머니학교
2017년 4월 4일	제12기 두란노 춘천어머니학교(4.4~4.25, 4주. 순복음춘천교회)
2017년 10월 28일	제13기 두란노 춘천어머니학교(10.28~11.25, 4주. 초대교회)
2018년 7월 7일	제14기 두란노 춘천어머니학교(7.7~8.4, 4주. 안디옥교회)
2019년 1월 24일	클린터치 한부모자녀 (2019.1.24~1.26)
	2019이후 코로나 관계로 미실시

3. 교육과정

1) 두란노어머니학교

(1) 제1기 두란노춘천어머니학교 개강


춘천 성시신문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1기 개설

2005년 8월 1일

2005년 9월 12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수강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서 한은경 두란노어머니학교 운동본부장이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을 주제로 강의와 나눔의 시간 등을 가졌다.

한은경본부장은 “여성은 인류사적으로 부당한 억압과 상처를 받아왔지만 성경 속의 여성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는 귀한 존재였다”며 “21세기는 양성 평등의 세기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2005년 9월 29일 어머니학교 춘천1기 고문인 김주환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는 수료식 환영사에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며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맡도록 격려한다”고 했다.

(2) 제10기 두란노춘천어머니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2014년 9월 20일)

두란노 어머니학교 춘천지부(지부장 김단옥 권사)는 제10기 어머니학교를 2014년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어머니학교는 4주간에 걸쳐 매주 강의와 찬양, 조별 나눔, 예식 등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적 역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 학교에 참석한 80여 명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어머니로서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 그리고 성경적 가치에 입각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주 제1강은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둘째 주에 진행된 제2강은 「아내로서의 사명」을 셋째 주 제3강은 「어머니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넷째 주 제4강에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마지막 주 제5강에서는 「십자가와 사명」이란 주제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된 자아가 어머니란 이름으로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인지 그 감격과 사명을 나누는 시간으로 편성하여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다.

김단옥 지부장(순복음춘천교회 권사)은 "어머니학교의 주된 사역은 바로 여성에

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 있으며, 여성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돕고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3) 제12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지역 12기가 2017년 4월 4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개강하였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4주차 과정으로 진행되며 종교와 연령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유익한 과정으로 여성 자신의 정신건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 결혼과 아내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했다.

2) 아름다운동행 나오미학교


나오미학교(2010년 10월 23일)

어머니학교 춘천지부(지부장 김단옥)에서는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4회 걸쳐 아름다운 동행 나오미 학교를 개강했다. "나오미학교" 란 50대 이상의 예비 시어머니와 장모, 또는 현재 시어머니와 장모를 대상으로 잠언 17장 6절의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즉,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 앞에서 길러내기 위하여 "할머니가 믿는 믿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고백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미 학교의 문을 열었다.

첫째 주에는 아름다운 동행과 언약에 대하여, 둘째 주에는 용서하기와 은혜란 주제로, 셋째 주에는 섬기는 사랑과 능력부여에 관하여, 마지막 주에는 사랑하고 사랑받기와 친밀감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어머니와 장모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다.

3) 클릭터치 청소년 캠프운영 (2019년 1월 24~26일)

나 자신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더 큰 세상과 소통한다는 뜻의 클릭터치는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으로 2019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2박 3일간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실시하였다.

제11장
춘천기독교 사회복지기관

1절 춘천기독교사회복지협회

춘천기독교사회복지협회는 2019년 4월 12일 지역과 교회가 더 깊이 소통하며 섬기기 위하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춘천지역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발족했다.

2019년 4월 12일 강원재활원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가칭 "춘천시기독교사회복지협회"는 초대회장으로 홍기종 사회복지법인 남강재단 이사장을 추대했다. 춘천시기독교사회복지협회 기관 및 회원들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최중범 관장), 춘천북부노인복지관(박재호 관장), 춘천남부노인복지관(박란이 관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최창일 관장), 효자종합사회복지관(변영혜 관장), 광림노인전문요양원(홍종환 원장), 애민보육원(김혜순 원장),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재송 센터장), 봄내노인복지센터(이영미 센터장), 강원재활원(홍기종 원장), 홈에버그린(박진숙 원장), 참사랑의 집(이은영 원장), 춘천시 사회복지협회(신두진 회장) 등이다.

2절 춘천의 기독교사회복지협회 기관

1.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춘천시 사우로 27)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9년 2월 28일 개관하여 지난 30여 년간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소통, 협력,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도약하는 기관이 되고자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가족,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지역 사회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우리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좋은 서비스를 개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간, 비용, 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를 이끄는 선도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다.

2) 주요 활동사항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춘천 본관 추진사업과 부설기관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1) 본관추진사업

춘천 본관 추진사업은 희망하는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고 실천해 나가며 장애인의 미래의 꿈과 일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각 연령별 발달에 필요한 과업을 원활하게 함으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






업을 생애주기지원 1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생애주기지원 2팀은 꿈이 있는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문화 여가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과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더 많은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해냄평생대학, 문화여가행사를 진행하며, 생애주기지원 3팀을 통해서는 개별, 그룹, 통합치료 등 차별화된 형태로 다양한 치료지원을 통하여 원만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정기적 평가를 진행하며 장애인 및 가족과 함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있다.

(2) 부설기관 사업

부설기관 사업은 새라주간보호소, 공동생화가정(이레의집, 아셀의집), 하나어린이집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강원재활원

1) 강원재활원



강원재활원 전경

강원재활원은 1984년 4월 20일 개원하여 장애어린이들에게 전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어 그릇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갈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주요 활동사항

(1) 기초생활서비스

●● 기초생활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기초생활교육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생활예절교육
- 거주인금전관리
  - 거주인의 소비생활욕구 존중 및 투명한 관리
- 피복구입
  -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한 의류 구입
- 성교육
  -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성문제 행동의 예방 및 치료

사회재활서비스





- 개별사례관리
  - 거주인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 서비스진행
- 심리정서지원
  - 신앙생활을 통한 정서지원, 미술치료 등 프로그램실시
- 요보호프로그램
  - 중증거주인을 위한 체력증진, 심리안정프로그램 실시
- 내부자원강화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역할 재정립
- 지역사회적응
  -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적응 기회 제공
- 기금사업실시
  - 공공시설 및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사회복귀 기회제공

의료재활서비스





- 질병치료지원
  - 촉탁의, 전문의를 통한 정기진료
  - 비상약 및 의료용품구비
- 체력단련지원
  - 물리치료 및 체중조절 프로그램, 정기적 체성분측정
- 질병예방지원
  -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 방역, 소독의 정기적 실시 및 위생관리교육
- 지역사회개방
  - 물리치료실의 지역사회개방

교육·직업서비스



- 지역내 특수학교 연계 교육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실시–언어치료, 미술치료
- 지역내 직업재활시설 연계
- 장애인지원고용 프로그램 지원

●● 여가생활서비스





- 여가형 레저프로그램
  - 여름휴가, 주말 외출 등 다양한 여행기회
- 소단위 나들이
  - 봄, 가을 거주실 별 나들이를 통한 유대감 형성
- 개별여가활동
  -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및 개인생일프로그램실시
- 여가체육활동
  - 탁구, 축구 등의 체육활동

3. 춘천북부노인복지관

1)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순복음춘천교회를 모체로 한 사랑나눔(대표이사 이수형)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춘천지역 어르신의 행복한 삶과 평안을 위해 2017년 11월 27일 개관하였으며, 사랑이 가득한 복지관·소망이 있는 복지관·기쁨이 넘치는 복지관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북부나눔재가노인센터 위탁 및 인지지원시범사업 운영,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지역 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탐방, 스토리텔링, 숲 체험 등을 통해 1세대(노인)이 3세대(아동)과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세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개관 이후 매년 진행하는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은 춘천시 25개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1·3세대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복지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활동사항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사업영역		사업내용
상담사업		1)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 - 신입회원 이용 상담, 신규회원 교육, 전문상담 2)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 -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 3) 이용자 관리 및 이용자 권리 증진사업 - 회원관리, 복지관 특별행사, 이용자 고충 처리 - 이용자 간담회 및 대표회의체 구성·운영
노년 사회화 교육		1) 평생교육지원사업 - 홍보, 강사모집 및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설문조사, 발표회 2) 취미여가지원 - 취미건강증진프로그램, 체육대회 3) 대상자 맞춤형 여가지원 - 농촌지역 특별프로그램(농한기/농번기 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노인 사회 참여		1) 사회참여지원사업 - 선배시민 봉사단 -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강원교육지원센터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노케어, 환경지킴이1~2, 실버카페 운영 등 - 전담인력 관리 및 처우개선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1)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 - 통합사례회의, 사례관리, 외부자문, 지역사회 자원연계, 특별행사, 주거환경개선, 긴급사례지원 2) 도시락배달 :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식사배달) 3) 위기가정 사례 지원사업 - 위기가정 사례지원 4)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온정 나눔 세탁소

사업영역		사업내용
지역사회 관계증진		1) 지역인적자원개발(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모집, 교육, 활동, 간담회, 설문조사) 2) 지역물적자원개발(후원관리) - 후원자(개발 및 모집, 관리, 보상프로그램) - 후원이사회 관리(조직 및 운영, 특별행사)
건강 생활 지원		1) 건강증진지원사업 -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 운영, 촉탁의 진료, 건강관리 등 2) 급식지원사업 및 식생활지원사업(춘천시) - 영양강좌, 위생 및 안전보건교육,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특화사업		1) 1·3세대 교육지원사업 - 스토리텔링 /역사문화탐방 /할미의 숲과 전통놀이 2) 1·3세대 세대통합지원사업 -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사진공모전, 나눔릴레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사회참여지원사업, 생활교육사업, 일상생활지원 안전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사례관리사업, 교육사업, 수행인력 관리 ※ 제 3권역 (신사우동, 신북읍, 서면, 근화동, 소양로, 사북면)
북부나눔 재가노인 센터		1)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욕구기반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경제적 위기관리 - 정신적 위기관리(정서지원프로그램) - 사회적 위기관리(나들이, 재가노인교육지원) 3)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 긴급지원(위기지원서비스)

4. 광림노인전문요양원

1)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노인전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광림노인전문요양원	연 락 처	033)263-3994~3995 Fax 033)263-3998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서면 경춘로 771-79		
	홈페이지	klsilver.or.kr	기관장	홍종환





기관 소개	**"키워주신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치매·중풍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최우수 기관 및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획득한 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이 잔존기능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고 가족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보완하여 휴머니튜드 케어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편

● 전철 이용 시
강촌에서 하차→택시로 7분소요

● 시내버스 이용 시
가. 마을버스서면1리(중앙시장환승센터←(신매대교)→안보2리종점(당림리하차), 도보 17분소요
나. 마을버스서면1리(중앙시장환승센터)←(의암교)→안보2리종점(당림리하차), 도보17분소요

시설개요				
설립일	2002년 3월 4일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시설면적	5,990㎡			
시설구성	생활관(생활관, 휴게실, 화장실, 배회로), 의료/재활(물리치료실, 특별침실), 야외시설(잔디밭, 중앙정원), 기타시설(면회실, 자원봉사자실, 교육실, 상담실, 이미용실, 강촌광림교회, 영안실)			
직원구성	총 54명(시설장 1명, 국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요양보호사 32명, 사무원 2명, 조리원 5명, 위생원 2명, 관리인 2명)			

광림노인전문요양원		
● 자가용 이용 시(서울춘천간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이용시] 강촌IC→강촌대교에서서울·가평방면 좌회전·4km 직진 후 우측 진입로 이용 [46번 국도 이용시] • 서울방면에서 오실 때 가평오거리→춘성대교→강촌방면으로 8km 이동 후 당림1리방향 우회도로 진입 직후 좌회전→서울방면으로 30m 직진 후 우측 진입로 이용 • 춘천방면에서 오실 때 강촌삼거리→서울방면으로 4km 이동 후 우측 진입로 이용	**이용안내**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이용비용	시설급여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식사)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전염서질환여부확인용), 질병진단서(노인성질환여부확인용), 보호자명의 또는 어르신명의 통장 및 도장(비급여사용에따른통장)
	이용정원	어르신 100명
	서비스 내용	
약도(오시는 길) 	**프로그램**	프로그램(인지·여가), 의료서비스(병원진료지원,간호, 물리치료), 명절행사, 생신잔치, 외식·외출프로그램, 외부자원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	*휴머니튜드케어서비스-인간적인 존중 바탕으로 한 케어 *광림인권지킴이단-어르신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보유기기	TENS, ICT, Tilting Table, 적외선 치료기, Suction 기기, 산소발생기, 파라핀치료기, 공기압마사지기

5. 봄내노인복지센터

1) 봄내노인복지센터

봄내노인복지센터는 2011년 1월 29일 개관이래 소외되고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 지



봄내노인복지센터

역사회 내에서 농촌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2) 주요사업안내

– 재가노인지원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사례관리를 통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 인식개선교육, 여가활동, 상담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설 명절' 나눔 행사	**'효' 나눔행사**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재가 어르신 가정에 설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	5월8일 어버이날 –카이네션 및 기초의약품 키트를 전달
'감염병 예방 용품 나눔' 행사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 진행'- 연중**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추세에 따른 재가어르신들의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방용품 나눔 행사를 진행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의심증상이 있는 재가어르신들에게 가정방문하여 자가키트 검사를 진행
'초복 맞이 나눔' 행사	**'한가위 나눔' 행사**
	
초복을 맞아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가어르신들의 덥고 습한 여름폭염에 대비해 인견 상.하복 세트를 전달	추석 맞이- '한가위 나눔"행사를 진행하여, 재가어르신 가정 방문하여 쌀 20kg 1포를 전달

정서지원프로그램 '힐링 베타키우기 및 테라리움꾸미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지원 및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베타키우기 및 테라리움꾸미기를 진행

사례관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춘천시 새마을작은도서관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독거어르신 가정의 실내.외 주거환경을 개선

사랑의 난방유 전달식



11월 27일 추운 겨울 홀로 외로이 지내실 어르신들에게 난방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연탄나눔행사



10월28일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겨울을 맞이한 재가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지원

성탄 나눔 행사



성탄과 연말을 맞아 혼자 지내시는 재가어르신들에게 안부 및 성탄선물을 지원하여 홀로 지내면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김치 나눔 행사



겨울을 맞이하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재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

인식개선사업 / 오지마을 반찬 지원 사업



혹한기/혹서기 감염병교육(인식개선사업)



이불세탁 청결서비스(물부족 취약지구 이불 세탁지원)



도시락 반찬 배달 서비스(건강한 영양식 반찬)

후원품지급(지역의 단체 및 개인들이 기부한 후원품을 재가어르신들에게 나눔)		
		
좋은이웃들	명동BYC	현지사

– 방문요양사업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사업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일자리사업)
• 거리환경지킴이(공익형) - 거리환경 정화활동과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진행 (매년 12월 모집) • 노노케어(참살이어울림터) - 독거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를 제공 (매년 12월 모집)

1. 일자리사업시행 전 자가진단 검체	2. 직무안전교육
	
3. 노인일자리 팀장 간담회	**4.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
	

5. 혹한기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6. 꽃길 가꾸기(환경지킴이)
	
7. 꽃길 가꾸기(환경지킴이)	**8. 노노케어**
	

봄내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요양시설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노인건강율동 (매주 월요일)	 
미술놀이 (매주 화요일)	 
화투놀이 (매주 수요일)	 

미술/활동놀이 (매주 목요일)		
산책놀이 (매주 금요일)		

6. 홈에버그린

1) 홈에버그린



홈에버그린 전경

홈에버그린은 2008년 4월 25일 개원하여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건강지원, 평생교육 등을 통하여 손상된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시설이다.

2) 주요 활동사항

(1) 서비스지원부







① 개별화지원서비스

이용인 당사자의 욕구, 강점, 능력, 선호도의 변화를 파악하여 개별서비스 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② 자기결정권리지원

이용인 자신이 삶을 주체적으로 발휘 하도록 돕고 이용인 자신의 의지대로 일상생활의 자기결정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립생활 지원

이용인 스스로 자립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일상생활훈련을 하여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높이고 자립생활의 주체적 의식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④ 인권권익 옹호지원

이용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누고 인정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⑤ 낮활동 프로그램

여행, 토탈공예, 도예활동, 숲체험활동, 평생교육, 산책, 드라이브, 영화감상 등 이용인들에게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⑥ 이용인 교육

금전관리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소방교육, 의료교육 등 이용인당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⑦ 지역사회활동

지역 축제, 미술관 관람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2) 건강지원부







① 의료지원서비스

의료실을 운영,상비약 및 의료물품을 비치하여 발생되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처치하며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통하여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② 촉탁진료

촉탁의의 방문을 통해 발생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건강검진결과 상담을 통해 이용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고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물리치료

신체의 장애로 발생된 결손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잔여기능을 훈련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스누젤렌

편안한 느낌(행복감)을 위한 제공으로 도구나

방의 설비를 통해 감각적인 느낌들을 깨우거나 일어나게 하여 다양한 지각영역을 활성화하고 기본적인 신체적 자극으로 감각활성화와 주의력 및 집중력 향상, 신체 발달을 촉진한다.

⑤ 급식지원 서비스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식단을 작성함으로써 피급식자들이 식생활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한다.

7. 춘천남부노인복지관

1) 춘천남부노인복지관





(1) 개 요

설립목적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운영법인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법인대표	대표이사 김 한 호
설립년월	2013년 1월 3일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86(온의동 6-33)
기 관 장	김 소 영

시설규모	대지 1,814㎡, 연면적 4,544㎡
전화/팩스	033-241-5600 / 033-241-5608
홈페이지	www.ccnoin.or.kr
직원현황	70명
시설 이용자 수	등록회원수 13,568명 / 1일 1,200명 이용

(2) 사업소개

사업영역	사업 세부 내용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사업 1. 사례관리 : 어르신들의 욕구와 문제해결, 서비스 연계 2. 식생활지원 : 식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 예방 3. 정서적·일상생활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부설)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 1. 식생활지원 : 건강관리 및 영양증진 2. 정서적지원 : 긍정적 정서 함양 3. 생활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물품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7개권역(강남동, 퇴계동, 약사명동, 조운동, 남면, 남산면, 신동면) - 생활지원사 방문 안전, 안부확인, 정서지기, 일상생활지원 등 2. 특화서비스(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3. ICT 기기 활용 스마트 토이 돌봄사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노인전문자원봉사 1. 노인전문자원봉사단(섬김,예술,학습 분야 3개/50명) 2.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지원사업(3개 봉사단/50명) 3. 생애전환기 경험 프로그램(1개 봉사단/10명) ● 노인일자리 1. 6개 사업단 / 총 869명(환경지킴이, 학교급식도우미, 아동스쿨도우미, 노노케어, 복지시설도우미, 카페방송길86)
지역자원 및 조직화	● 자원봉사 1.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발굴 : 자원봉사자 발굴 및 연계 2. 활동관리, 자원봉사 활동 입력, 감사피드백 등 ● 후원 1. 후원개발 및 관리 : 정기후원자, 춘천호반디딤돌 발굴, 감사피드백 2. 모금활동(외부공모사업 발굴, 테마별 후원제안서, 온라인모금)

사업영역	사업 세부 내용
노년 사회화교육	● 평생교육 1. 건강증진 : 13개반(라인댄스, 요가, 댄스스포츠 등) 2. 교양교육 : 10개반(일본어, 중국어, 영어회화, 한글기초 등) 3. 취미여가 : 19개반(종이접기, 한자서예, 문인화, 통기타 등) 4. 정보화교육사업 10개반(컴퓨터기초, 컴퓨터활용, 동영상제작 등)
건강생활지원	● 건강생활지원사업 1. 건강관리실 운영 2.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건강강좌, 치매예방교실,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밸런스 워킹 PT 운동법 지도) 3. 무료진료(치매검진, 청력검사, 시력검사 및 안경·돋보기 지급, 건강 캠페인,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이동검진) 4. 방문 건강관리 상담, 체력증진 서비스 운영
상담 및 권익증진	● 상담 1. 전문상담 : 법률 및 재무, 세무 상담, 금융상담 등 ● 권익증진 1. 신입회원 이용 상담 및 교육, 회원관리 등 2. 전문상담 : 코로나블루 정신건강 상담, 법률상담, 세무상담, 주택연금 상담 3. 전문교육 : 노인 인권교육, 생활금융교육, 성 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등
기획사업	● 특화사업 지역적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차별적 프로그램 진행 1. 행복한 나이듦 지원사업 : 건빵레시피(어르신 제빵 지원) 2. 생애전환기 사업 : 스마트폰 봉사단 3.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취미 여가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4. 정보화 동아리 지원사업 5. 맡겨놓은 카페 프로젝트(커피로 청소년과 시민을 잇는) 6. 평생학습센터 : 굿볼클래스, 스마트폰, 수채화 프로그램

8.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1)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춘천 최초로 설립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1991년 5월 개관하여 31년간 지역사회 사회복지 발전을 주도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행

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주요 활동사항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3대기능사업과 부설센터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① 복지관 주요사업

사례관리기능사업	
	1. 사례관리 - 문제 및 욕구가 있는 복지당사자를 개별화하여 맞춤형 지원 2. 위기사례개입 활동지원서비스 - 위기상황 및 긴급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심리·경제적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 - 마음건강, 정신장애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회복지원 4. 춘천지역 사회복지사례기관 협의회 통합사례회의 - 위기가정의 전문적 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서비스제공사업	
	1. 가족기능강화사업 - 상담실운영, 부모교육, 청소년프로그램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후원금, 물품지원, 장학금지원사업, 이유식지원사업, 무료진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등 3. 교육문화사업 - 그린도서관운영, 영화관프로그램, 평생학습센터, 운동프로그램 등
지역조직화사업	
	1. 주민조직화 및 교육 - 주민조직, 교육, 지역주민공청회, 주민공동협의체구성 및 회의 2.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네트워크활동, 지역주민욕구조사,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운영위원회조직운영 3.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주민축제, 절기행사, 지역주민 나눔잔치 등 4.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 5. 후원자개발 및 관리 6.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7. 춘천시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선한이웃마을돌봄사업

특화사업	
	1. 노인맞춤돌봄사업 춘천시 4권역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나, 차상위계층, 노인부부세대 등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안전지원,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② 부설센터 주요사업

부설기관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진행하여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등 변화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부록 1

참고문헌

[춘천기독교120년사 참고문헌]

● 단행본

- 강원도, 『국역 강원도지』, 도서출판 산책, 2005.
- 강원도, 『도세일람』, 1954 · 1955 · 1956 · 1958 · 1959년.
- 강원도, 『江原道史』(역사편), 1995.
- 강원도기획관리실, 『강원총람』, 1975.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8(일제강점기), 2013.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9(광복과 분단), 2013.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19(교육, 종교), 2013.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21(전란), 2017.
- 최승순 외 7인, 『강원도 비사』(강원문화총서)6, 강원일보사, 2007.
- 강치원, 『춘천동부교회 70년사』, 태학사, 201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6.25전쟁 통계』.
- 고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고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17.
- 김우중, 『파도를 디디고』, 『격랑 반세기』2, 강원일보사, 1988.
- 김준곤, 『성시화운동 편람』, 순출판사, 2005.
- 기독교대한감리회, 『2019년 감리교회통계자료집』.
- 김해연, 『한국교회사』, 성광문화사, 2004.
-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서부남부 연회록』(1955).
-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중부연합연회록』(1954).
-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및 동부중부연합연회 회의록』(1953),
- 기독교대한감리회, 『1958 · 1988 · 2008 · 2018년 연회록』.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2019년도 동부연회 춘천동 · 서 · 남 · 북지방 통계표』.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동부연회 사진총감』(동부연회 75년사), 전단, 2006.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모나운동과 함께 한 2년』(2008~2010), 2010.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제81 동부연회자료』, 2022.
- 기독교조선감리회, 『기독교조선감리회동부중부연회회의록』(1946.4.5~17).
- 기독교조선감리회, 『기독교조선감리회 제9회 중부 · 동부연회회록 · 기독교조선감리회 특별총회 회록(복흥파)』(1946).
- 기독교조선감리회, 『조선감리회보』(1948.1.15), 『춘천지방회소식』.
-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한국침례회제2015년(제105차) 주소록』.
- 김성호, 『하늘바라기 바보목사』, 밀알라이프, 2021.

- 김연호,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이 아니면』, 밀알라이프, 2021.
- 김진선, 『평창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 도서출판 이새, 2018.
- 김진형, 『우두교회80년사』, 디자인 나무, 2011.
- 김창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성역 40년』, 강원도민일보, 2012.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사, 1993.
- 박흥일, 『직장선교와 삶의 현장』, 서울 크리스챤서적, 2000.
- 백수복, 『춘천중앙성결교회 60년사』, 1995.
- 춘천성광장로교회, 『성광교회 35년사』, 성지출판사, 1989.
- 춘천소양성결교회, 『소양성결교회60년사』, 2014.
-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춘천교회40년사』, 강원일보사, 2012.
-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춘천교회50년사』, 강원일보사, 2022.
- 왕현종 외 역주, 『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 유재인, 『강원도 비사』, 강원일보사, 1974.
- 윤경로, 『새문안교회 100년사』, 새문안교회창립 100주년기념사업회, 1995.
- 이덕수, 『춘천중앙교회사』(1898~2006), 한들출판사, 2007.
- 이상용, 『기독교연감』, 배합출판사, 1969.
-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강원학학술총서 13, 강원연구원, 2019.
- 이민희, 『금강산과 강원도, 근대로의 초대』, 강원학학술총서 19, 강원연구원, 2021.
- 이학규, 『나는 부족하여도』, 도사출판 진흥, 2007.
-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대한본영, 1975.
- 정영균, 『웨슬리 교회론에서 본 이머징 셀 그룹운동 분석 및 한국감리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유현옥, 『춘천YWCA50년 여성의 등대되어 빛을 비추자』, 문예당, 2016.
- 『직장선교40년사』
- 전성성, 『춘천안디옥교회 100년사』, 도서출판 멘토, 2019.
- 전성원 · 차현숙, 『춘천YMCA 70년사』, 고려출판사, 2019.
- 조이제, 『석사교회 80년사』, 밀알기획, 2004.
- 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 편, 『차상찬전집』 1, 2018.
- 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 편, 『차상찬전집』 5, 2021.
- 춘천YWCA, 『사진으로 보는 춘천YWCA 30년』, 강원일보사, 1996.
- 춘천석사감리교회, 『믿음의 땅, 기적의 사역 100년』, 문예당, 2022.
- 춘천석사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1992.9.20., 3쪽.

- 춘천명성감리교회, 『사진으로 본 춘천명성감리교회55년사』, 도서출판 에듀북스, 2012.
- 춘천시 · 춘성군, 『춘주지』, 강원일보사, 1984.
- 춘천신성감리교회, 『신성감리교회70년사』, 강원도민일보사, 2002.
- 춘천와이신협, 『춘천와이신협 30년사』, 2011.
-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중앙교회 화보집』(1989~2007), 2008.
-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도서출판 진흥, 2010.

● 논문

- 김문수,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 김병희, 「한국전쟁 당시 대구 · 경북지역 교회의 피해와 활동」, 「영산신학저널」54, 2020.
- 김진영,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교육과정으로서의 영성 연구」, 「신학과 실천」제73호, 2021.
-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외국인 선교사」, 한국감리교회사 학회, 1980.
- 이원희, 「6 · 25전쟁시 피난민 보호활동에 대한 연구—노근리사건과 흥남철수작전을 중심으로—」, 「군사연구」144집, 2017.
- 임성택, 「성시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전망」,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의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학교종교교육 모형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정진석, 「피살 · 납북된 목사 · 신부 등 358명 명단 발굴」, 「월간조선」2003-10.
- 천영섭,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6,
- 허기만, 「한국교회 구역예배 갱생을 위한 연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3

● 영상

- 『유튜브』 영상(춘천중앙감리교회,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이덕수 전도사)』, 2022.4.5

● 데이터베이스

- 『조선총독부관보』
- 『한국감리교인물사전DB』

● 언론 및 잡지류

- 『가스펠투데이』, 『감리회보』, 『강원경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강원종합복지신

문』, 『개벽』, 『교회연합신문』, 『국민일보』, 『기독교공보』, 『기독교세계』, 『기독신문』, 『기독교신문』, 『뉴스파워』, 『노컷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굿뉴스』, 『동아일보』, 『대한감리회보』, 『미래한국』, 『보령뉴스』, 『성시신문』, 『아멘넷』, 『우리 동네 성공회』(월간), 『월드미션신문』, 『의협신문』, 『자유신문』, 『지저스타임즈』, 『천지일보』, 『춘천사람들』, 『침례신문』, 『크로스로드』, 『크리스찬연합신문』, 『크리스쳔투데이』, 『풀가스펠뉴스』, 『한겨레21』, 『한국기독공보』, 『한국성결신문』, 『행복한 사람들』(춘천성광교회), 『CBS노컷뉴스』.

홈페이지

- 강원CBS 기독교방송
-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 국사편찬위원회
- 굿네이버스
-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각 교단
- 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 기아대책
- 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위키백과
- 장미회 홈페이지
- 춘천 연탄은행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
-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 춘천지역 각 교회 홈페이지
- 코로나공식홈페이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한국YMCA
- 한국YWCA
-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홈페이지
-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 한국해비타트



부록 2

춘천 교단별 교회 현황

1. 감리교단

춘천중앙교회



교회설립일	1898년 4월
담 임 목 사	심성수
주 소	춘천시 영서로 2151번길 30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천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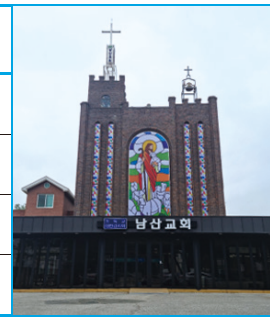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15년 4월 7일
담 임 목 사	강희찬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율문3길 49
교 단	감리교 북지방



남산교회



교회설립일	1917년 4월 10일
담 임 목 사	신성환
주 소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94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춘천안디옥교회



교회설립일	1919년 8월 2일
담 임 목 사	이준복
주 소	춘천시 퇴계농공로 4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신성감리교회



교회설립일	1920년
담 임 목 사	박진형
주 소	춘천시 후석로 381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춘천석사교회



교회설립일	1922년 4월 5일
담 임 목 사	손학균
주 소	춘천시 우석로 4번길 28
교 단	감리교 남지방



행복한교회



교회설립일	1929년
담 임 목 사	김윤정
주 소	춘천시 남면 소주고개로 153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우두교회



교회설립일	1931년 4월 5일
담 임 목 사	안창원
주 소	춘천시 사우로 154번길 13
교 단	감리교 북지방



혈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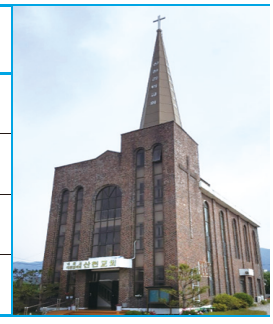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46년 12월 1일
담 임 목 사	문충기
주 소	춘천시 신동면 혈동고개길 180-12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산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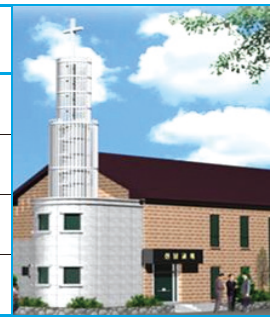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48년 3월
담 임 목 사	조병권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샘뜨락길 46-88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신남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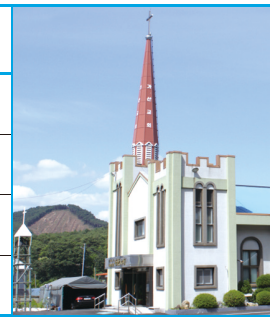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2년 10월 10일
담 임 목 사	양기태
주 소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0
교 단	감리교 남지방



가산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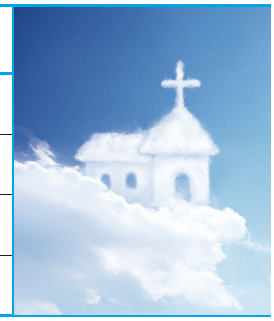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3년 6월 10일
담 임 목 사	윤영호
주 소	춘천시 가산로 58-9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지내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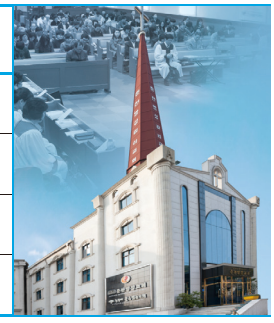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3년 11월 1일
담 임 목 사	한종동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성문 1길 41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춘천명성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담 임 목 사	임용웅
주 소	춘천시 기와집길 9번길 3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성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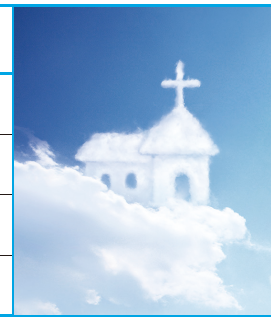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9년 3월 15일
담 임 목 사	허태수
주 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2길 25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북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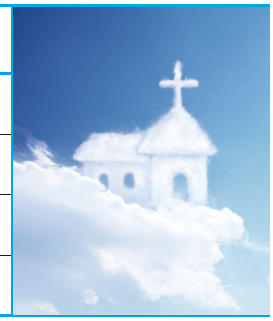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62년 12월 20일
담 임 목 사	김성권
주 소	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443
교 단	감리교 북지방



덕두원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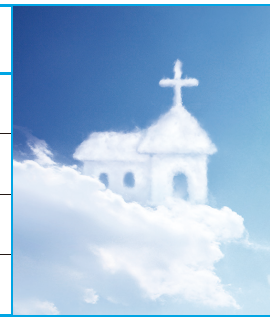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65년 2월 15일
담 임 목 사	전기환
주 소	춘천시 서면 덕두원길 44-6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사북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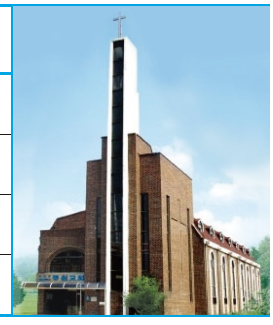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66년 4월 1일
담 임 목 사	한주희
주 소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63-12
교 단	감리교 북지방



동원교회



교회설립일	1969년 4월 10일
담 임 목 사	이주헌
주 소	춘천시 효자로 124번길 15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신매교회



교회설립일	1971년 11월 29일
담 임 목 사	이종석
주 소	춘천시 서면 박사로 1247-14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남부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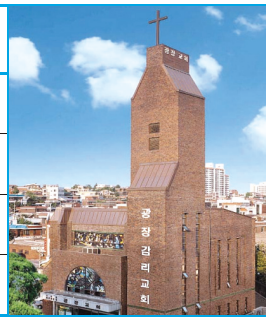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3년 5월 6일
담 임 목 사	장동식
주 소	춘천시 효명길 26-4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춘천광장교회



교회설립일	1973년 12월 2일
담 임 목 사	황종윤
주 소	춘천시 효자로 150번길 8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춘천벧엘교회



교회설립일	1974년 7월 17일
담 임 목 사	김규수
주 소	춘천시 충열로 16번길 13
교 단	감리교 북지방



강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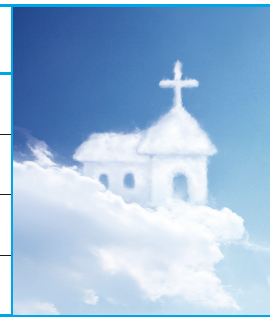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5년 11월 10일
담 임 목 사	이 석
주 소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55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원평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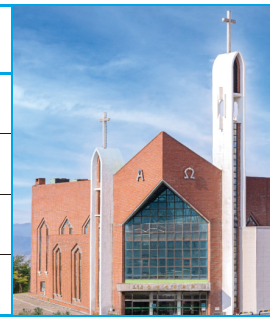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5년 12월 8일
담 임 목 사	신창윤
주 소	춘천시 사북면 원평길 45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춘천제일감리교회



교회설립일	1976년 3월 13일
담 임 목 사	이용호
주 소	춘천로 223번길 13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춘일교회



교회설립일	1977년 6월 12일
담 임 목 사	서재동
주 소	춘천시 안마산로 338
교 단	감리교 북지방



평화동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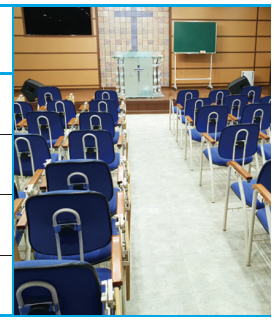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8년 4월 23일
담 임 목 사	한 균
주 소	춘천시 동면 노루목길 8-43
교 단	감리교 북지방



금성중앙교회



교회설립일	1978년 6월 1일
담 임 목 사	마태일
주 소	춘천시 신북읍 맥국7길 25-31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지암교회



교회설립일	1978년 11월 20일
담 임 목 사	김재신
주 소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2길 43-27
교 단	감리교 북지방



거두리교회



교회설립일	1979년 4월 8일
담 임 목 사	남궁만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241-4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만천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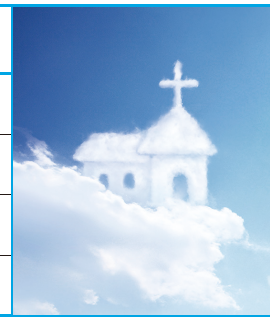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9년 12월 5일
담 임 목 사	유대식
주 소	춘천시 만군길 21
교 단	감리교 동지방



희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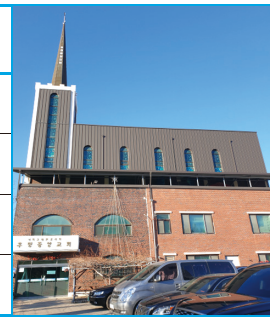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0년 3월 10일
담 임 목 사	유호선
주 소	춘천시 우석로 85번길 9-13
교 단	감리교 남지방



후평중앙교회



교회설립일	1981년 10월 5일
담 임 목 사	이학상
주 소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29
교 단	감리교 동지방



강북교회



교회설립일	1982년 1월 17일
담 임 목 사	임점길
주 소	춘천시 충열로 67번길 18-4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춘천세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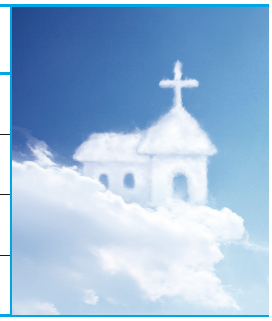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2년 2월 28일
담 임 목 사	정택은
주 소	춘천시 효자로 57, 2층 203호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원창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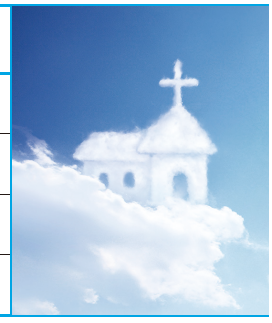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2년 3월 26일
담 임 목 사	유낙환
주 소	춘천시 동산면 원창안말길 40
교 단	감리교 남지방



하일교회



교회설립일	1983년 8월 15일
담 임 목 사	이득영
주 소	춘천시 동면 공단로 70번길 202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의암교회



교회설립일	1982년 11월 17일
담 임 목 사	이신선
주 소	춘천시 신동면 의암1길 19-18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시온교회



교회설립일	1984년 5월 20일
담 임 목 사	안정희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51-12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춘천강남교회



교회설립일	1984년 9월 30일
담 임 목 사	윤병식
주 소	춘천시 칠전서길 5-13
교 단	감리교 서지방



한길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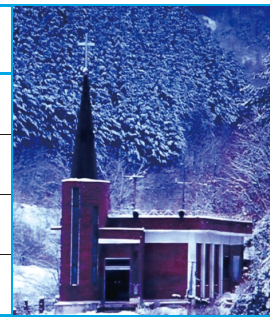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5년 1월 22일
담 임 목 사	최정식
주 소	춘천시 복골길 29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상걸리감리교회



교회설립일	1985년 8월 11일
담 임 목 사	김영명
주 소	춘천시 거은골길 24
교 단	감리교 동지방



등불감리교회



교회설립일	1986년 10월 9일
담 임 목 사	김종태
주 소	춘천시 춘천로 380 5층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창신교회



교회설립일	1987년 3월 7일
담 임 목 사	한희준
주 소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670
교 단	감리교 서지방



푸른하늘교회



교회설립일	1987년 5월 31일
담 임 목 사	김석상
주 소	춘천시 서면 노동길 18-20
교 단	감리교 서지방



팔미교회



교회설립일	1988년 8월 11일
담 임 목 사	정명성
주 소	춘천시 신동면 팔미길 5
교 단	감리교 서지방



효자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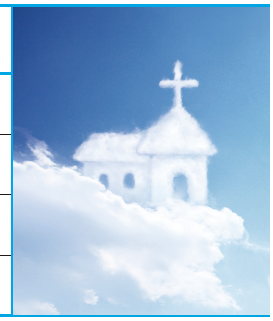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8년 8월 30일
담 임 목 사	김종호
주 소	춘천시 두하길 14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참사랑감리교회



교회설립일	1989년 8월 29일
담 임 목 사	김희경
주 소	춘천시 서부대성로 327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제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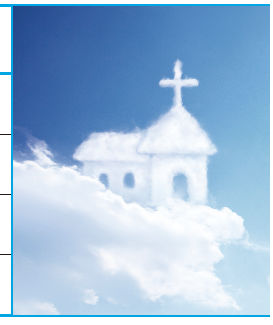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9년 11월 19일
담 임 목 사	정해창
주 소	춘천시 동면 하일길 186-3
교 단	감리교 북지방



군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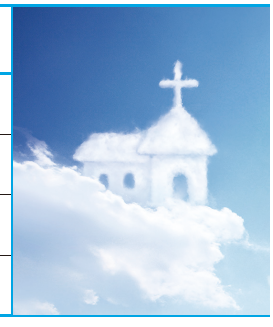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0년 2월 13일
담 임 목 사	박진성
주 소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95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대은교회



교회설립일	1990년 9월 15일
담 임 목 사	홍성두
주 소	춘천시 효석로 89번길 25, 1층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창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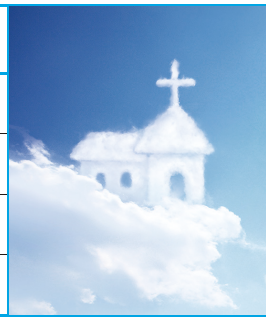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1년 1월 15일
담 임 목 사	이성신
주 소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48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임마누엘교회



교회설립일	1991년 5월 22일
담 임 목 사	이종백
주 소	춘천시 공지로 317번길 19
교 단	감리교 남지방



강촌광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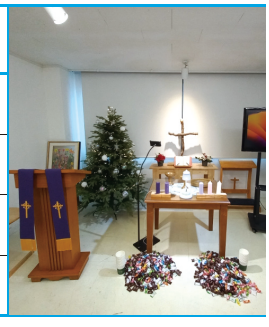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1년 6월 23일
담 임 목 사	전선옥
주 소	춘천시 서면 경춘로771-79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생명수교회



교회설립일	1991년 10월 12일
담 임 목 사	민경진
주 소	춘천시 벌말길 34-8 2층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춘천광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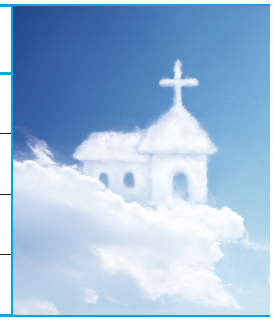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1년 10월 22일
담 임 목 사	박인관
주 소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60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소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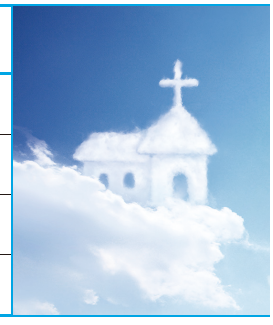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2년 2월 19일
담 임 목 사	손영대
주 소	춘천시 공지로 442-15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서춘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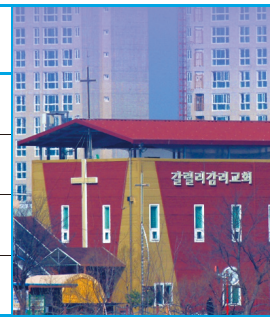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2년 3월 2일
담 임 목 사	이창희
주 소	춘천시 우석로 38번길 85
교 단	감리교 남지방



갈릴리교회



교회설립일	1992년 9월 20일
담 임 목 사	최영조
주 소	춘천시 우두강둑길 163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사랑교회



교회설립일	1993년 3월 29일
담 임 목 사	염명동
주 소	춘천시 우석로 38번길 15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복지교회



교회설립일	1994년 1월 31일
담 임 목 사	엄현수 전도사
주 소	춘천시 공지로 234-16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B1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부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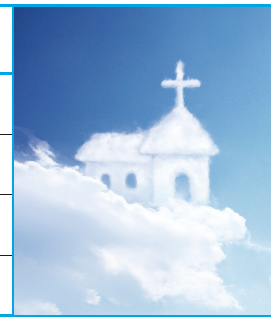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4년
담 임 목 사	조형연
주 소	춘천시 삭주로108번길 25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서광교회



교회설립일	1995년 10월 3일
담 임 목 사	김희산
주 소	춘천시 공원2길 15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주님의감리교회



교회설립일	1996년 9월 9일
담 임 목 사	조성연 전도사
주 소	춘천시 춘천로 438 3층
교 단	감리교 동지방



들꽃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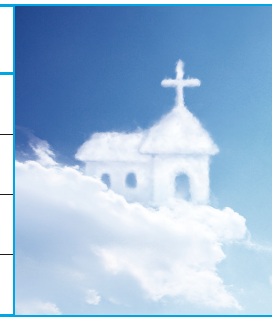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7년 10월 22일
담 임 목 사	정종태
주 소	춘천시 금옥길 7, 101호
교 단	감리교 동지방



금산시온교회



교회설립일	1997년
담 임 목 사	김지현
주 소	춘천시 서면 금산2길 42-1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선한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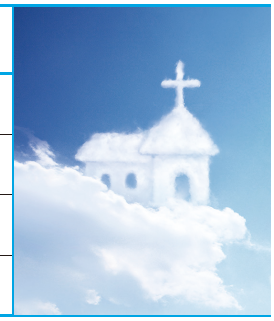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8년 9월 3일
담 임 목 사	박태균
주 소	춘천시 춘천로 256번길 2
교 단	감리교 동지방



푸른언덕교회



교회설립일	1999년 2월 12일
담 임 목 사	박영주
주 소	춘천시 스무숲4길 42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온의감리교회



교회설립일	1999년 2월 18일
담 임 목 사	이용욱
주 소	춘천시 효평길 30
교 단	감리교 동지방



현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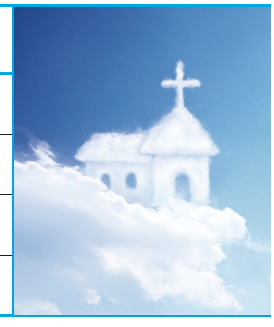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0년 1월 24일
담 임 목 사	박현종
주 소	춘천시 동내면 향군길23, 산수빌A상가 203호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로뎀나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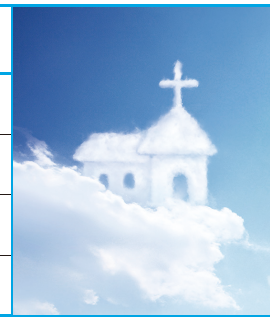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0년 4월 16일
담 임 목 사	김수영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금촌로 93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봄내교회



교회설립일	2000년 10월 15일
담 임 목 사	최종수
주 소	춘천시 후석로 66번길 18-1
교 단	감리교 남지방



햇빛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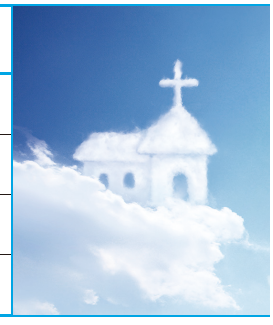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2년 1월 5일
담 임 목 사	임인택
주 소	춘천시 춘천로 381-2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은혜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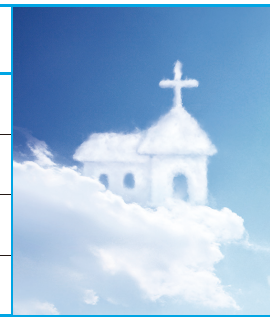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2년 2월 4일
담 임 목 사	성낙환
주 소	춘천시 서부대성로 175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참빛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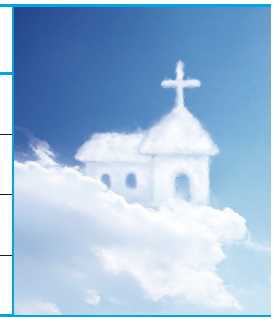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2년 5월 30일
담 임 목 사	고종수
주 소	춘천시 백석골길 22번길 47
교 단	감리교 서지방



가일교회



교회설립일	2003년 4월 1일
담 임 목 사	전동훈
주 소	춘천시 사북면 가일길 394-5
교 단	감리교 북지방



동부중앙교회



교회설립일	2003년 11월 2일
담 임 목 사	신현명
주 소	춘천시 사북면 토둔길 44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시냇가의심은 나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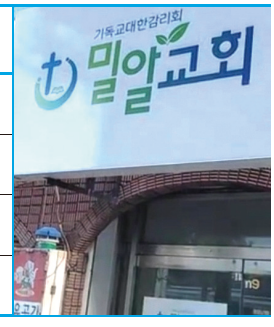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3년 4월 6일
담 임 목 사	전유미 전도사
주 소	춘천시 충혼길 18번길 10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밀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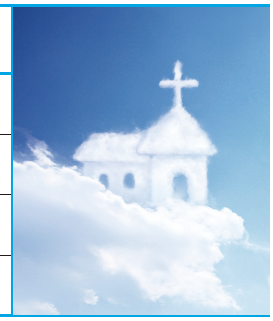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4년 9월 16일
담 임 목 사	오세혁
주 소	춘천시 삭주로 134, 3층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창솔교회



교회설립일	2005년 3월 7일
담 임 목 사	정득
주 소	춘천시 새롬공원길 4번길 3-16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샘솟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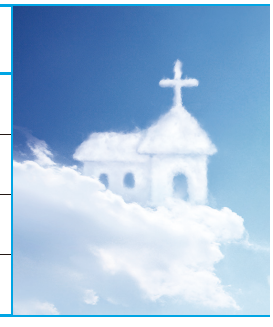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5년 4월 30일
담 임 목 사	김동윤
주 소	춘천시 영서로 2924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예수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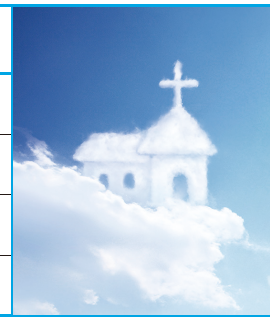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5년 10월 31일
담 임 목 사	최영길
주 소	춘천시 소전길 40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칠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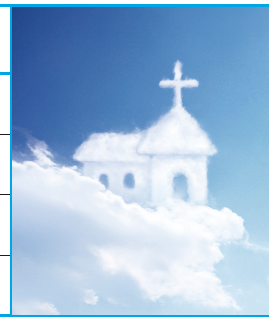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6년
담 임 목 사	김시윤
주 소	춘천시 칠전서1길 6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세광교회



교회설립일	2007년 3월 24일
담임목사	정일석
주　　소	춘천시 효석로 141, 2층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오탄생명교회



교회설립일	2007년 4월 5일
담임목사	이현구
주　　소	춘천시 사북면 우레골길 164-16
교　　단	감리교 북지방



꿈의교회



교회설립일	2007년 12월 3일
담임목사	홍순석
주　　소	춘천시 안마산로 214 퇴계주공 상가 3층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사도행전교회



교회설립일	2008년 2월 21일
담임목사	박재영
주　　소	춘천시 애막골길 3번길 35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예현교회



교회설립일	2008년 3월 19일
담 임 목 사	김력
주 소	춘천시 효석로 37 401호 비전센터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창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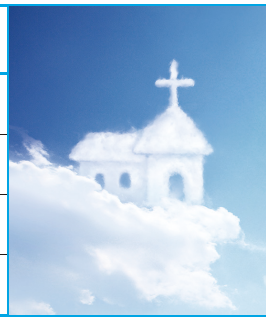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8년 3월 24일
담 임 목 사	조춘실
주 소	춘천시 춘천로 151번길 2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바나바교회



교회설립일	2008년 3월 27일
담 임 목 사	유병준
주 소	춘천시 공지로 258, 2층
교 단	감리교 남지방



글로리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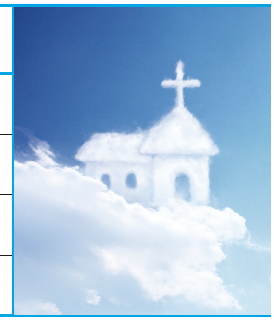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9년 6월 5일
담 임 목 사	김민우 전도사
주 소	춘천시 후만로 95, 2층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엠마오교회



교회설립일	2010년 11월 16일
담 임 목 사	김효승
주 소	춘천시 퇴계로 245, 3층
교 단	감리교 남지방



나무아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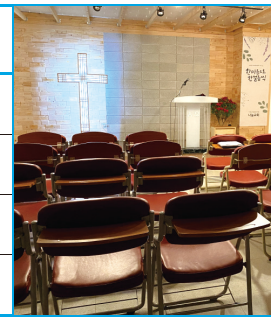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0년
담 임 목 사	이덕균
주 소	춘천시 공지로 338 상가2층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나눔감리교회



교회설립일	2011년 2월 13일
담 임 목 사	박유식
주 소	춘천시 삭주로 128
교 단	감리교 동지방



감사하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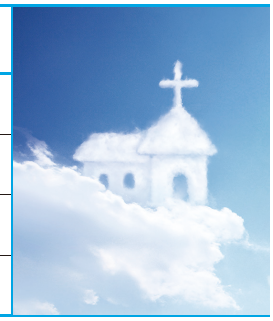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1년 3월 19일
담 임 목 사	이민규
주 소	춘천시 대룡산1길 129-9
교 단	감리교 남지방



소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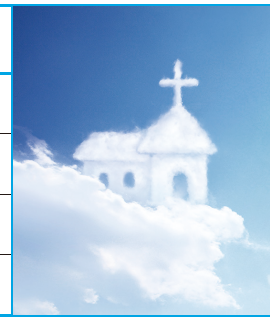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2년 1월 20일
담 임 목 사	고덕필
주 소	춘천시 안마산로 213, 퇴계타운상가 202호
교 단	감리교 남지방



하늘소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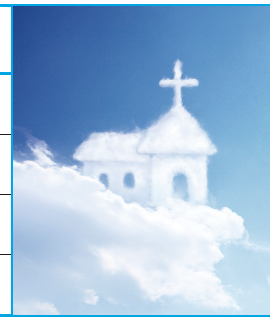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2년 3월 18일
담 임 목 사	류해운
주 소	춘천시 시청길 8 오성빌딩 4층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민들레교회



교회설립일	2012년 4월 28일
담 임 목 사	안세현
주 소	춘천시 영서로 2800
교 단	감리교 북지방



이음교회



교회설립일	2012년 9월 2일
담 임 목 사	김푸른
주 소	춘천시 벌말길47번길 4
교 단	감리교 서지방



하늘문감리교회



교회설립일	2013년 2월 16일
담임목사	민충기
주 소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13
교 단	감리교 동지방



화평감리교회



교회설립일	2013년 5월 25일
담임목사	옥재명
주 소	춘천시 세실로 196-1
교 단	감리교 동지방



푸른샘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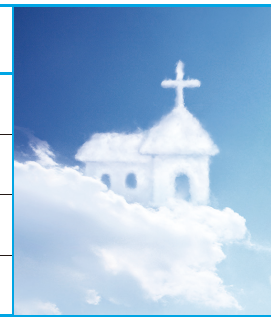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3년 10월 19일
담임목사	김용기
주 소	춘천시 후만로 11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연리지교회



교회설립일	2013년
담임목사	박용한
주 소	춘천시 영서로 2315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더사랑교회



교회설립일	2013년
담 임 목 사	박대성
주 소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1길 63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두드림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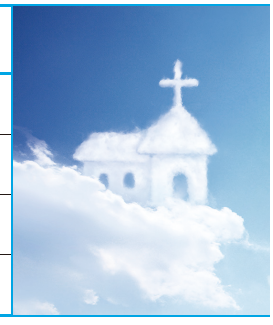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6년 4월 23일
담 임 목 사	서진석
주 소	춘천시 후만로 63-1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춘천반석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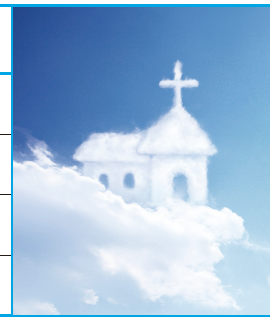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6년 6월 10일
담 임 목 사	홍혁수
주 소	춘천시 후석로 459 202호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춘천우리감리교회



교회설립일	2017년 4월 15일
담 임 목 사	김은택
주 소	춘천시 만천로 145-1 2층
교 단	감리교 동지방



초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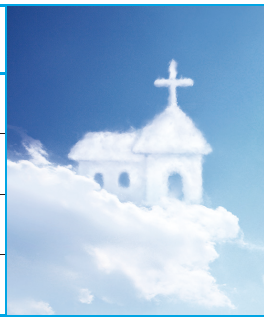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7년 3월 1일
담 임 목 사	이상권
주 소	춘천시 남춘로5번길 27-8
교 단	감리교 서지방



부활의교회



교회설립일	2018년
담 임 목 사	곽승연
주 소	춘천시 행촌로 30
교 단	감리교 서지방



세움교회



교회설립일	2019년 9월 29일
담 임 목 사	한현성
주 소	춘천시 소양로163번길 10
교 단	감리교 서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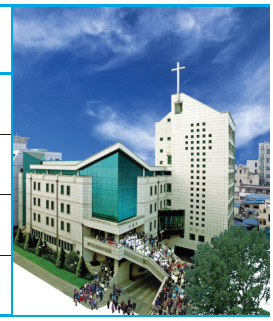


2. 장로교단

춘천동부교회



교회설립일	1939년 5월 7일
담 임 목 사	김한호
주 소	춘천시 금강로 68-6
교 단	예장 통합



서상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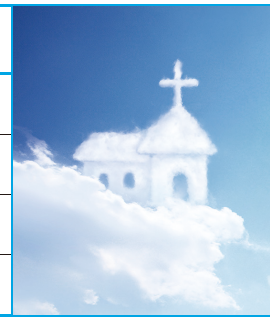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47년 3월 2일
담 임 목 사	나순형
주 소	춘천시 서면 골미길 54
교 단	예장 통합



영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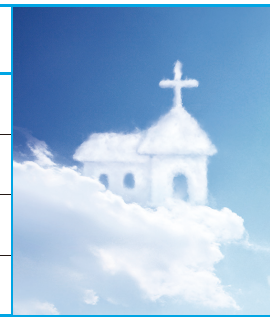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47년 5월 10일
담 임 목 사	전진구
주 소	춘천시 충열로 1-10
교 단	예장 통합



가정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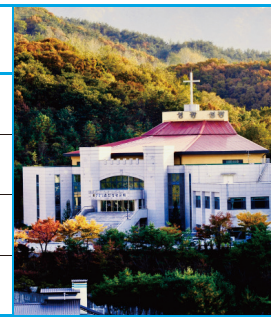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0년 3월 1일
담 임 목 사	이영기
주 소	춘천시 남면 충효로 1492-13
교 단	예장 통합



춘천성광교회



교회설립일	1953년 2월 23일
담임목사	조용아
주　　소	춘천시 안마산로 298-16
교　　단	예장 통합



천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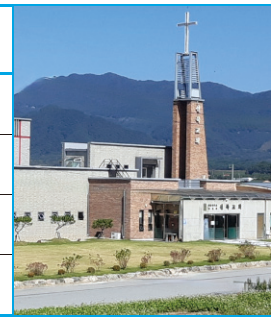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3년 7월 10일
담임목사	손형일
주　　소	춘천시 신북면 신샘밭로 667
교　　단	예장 통합



신북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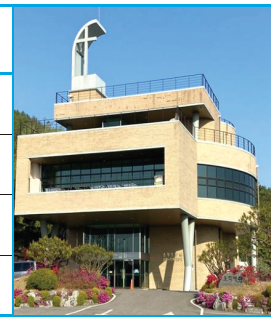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3년 10월 7일
담임목사	이창봉
주　　소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6
교　　단	예장 통합



금산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2월 21일
담임목사	한철인
주　　소	춘천시 서면 금산길 17-8
교　　단	예장 통합



한빛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4월 10일
담 임 목 사	여성우
주 소	춘천시 공지로264번길 23
교 단	예장 통합



월송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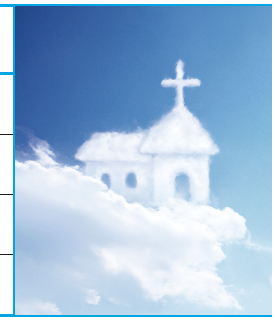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5년 4월 15일
담 임 목 사	장기채
주 소	춘천시 서면 월송길 505-11
교 단	예장 통합



춘천동산교회



교회설립일	1958년 10월 10일
담 임 목 사	김창부
주 소	춘천시 동산면 조양길 266
교 단	예장 통합



신촌교회



교회설립일	1964년 2월 2일
담 임 목 사	이광우
주 소	춘천시 동내면 향군1길 6
교 단	예장 통합



성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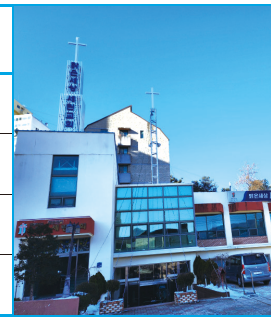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5년 9월 27일
담 임 목 사	김성덕
주 소	춘천시 공지로 163-1 3층
교 단	예장 통합



맑은세상세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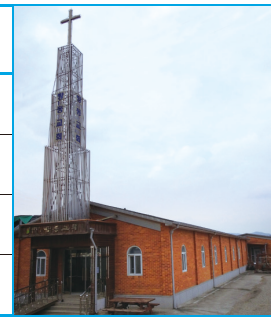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7년 5월 28일
담 임 목 사	정희성
주 소	춘천시 부평길 11-2
교 단	예장 통합



방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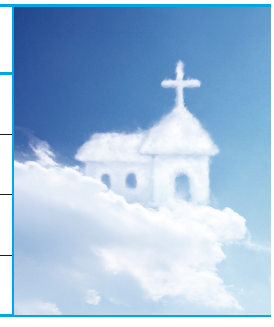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0년 5월 26일
담 임 목 사	서성복
주 소	춘천시 서면 방동리 425-1
교 단	예장 통합



함께하는교회



교회설립일	1996년 2월 26일
담 임 목 사	김호경
주 소	춘천시 우두벌1길 79
교 단	예장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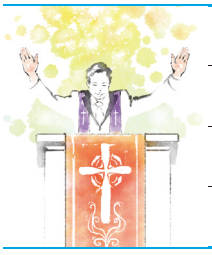
광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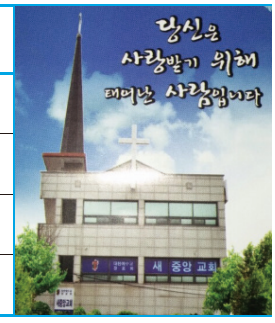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7년 12월 3일
담 임 목 사	박정민
주 소	춘천시 세실로 173 (세경4차아파트상가)
교 단	예장 통합



새중앙교회



교회설립일	2002년 9월 29일
담 임 목 사	이영규
주 소	춘천시 사우로 31-6
교 단	예장 통합



마평교회



교회설립일	2002년 11월 8일
담 임 목 사	임승호
주 소	춘천시 사북면 말고개길 82-11
교 단	예장 통합



강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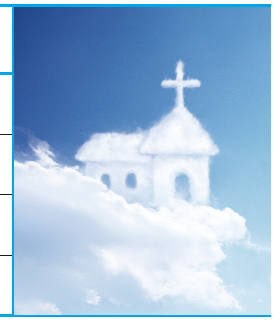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6년 10월 28일
담 임 목 사	박우진
주 소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92
교 단	예장 통합



예사랑제일교회



교회설립일	2007년 6월 17일
담임목사	노승환
주 소	
교 단	예장 통합



대광교회



교회설립일	2007년 12월 1일
담임목사	홍명표
주 소	춘천시 칠전동길 32
교 단	예장 통합



춘천벧엘교회



교회설립일	2007년 12월 8일
담임목사	김성태
주 소	춘천시 거두택지길 26번길 9
교 단	예장 통합



예광교회



교회설립일	2009년 3월 12일
담임목사	김시온
주 소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65-27
교 단	예장 통합



춘천상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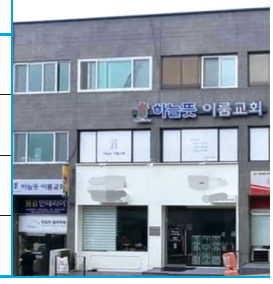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5년 2월 8일
담 임 목 사	박대광 목사
주 소	춘천시 공지로 125
교 단	예장 통합



하늘뜻이룸교회



교회설립일	2022년 6월 5일
담 임 목 사	박도준
주 소	춘천시 보안길 42, 202
교 단	예장 통합



춘천제일교회



교회설립일	1939년 5월 7일
담 임 목 사	김창성
주 소	춘천시 중앙로68번길 15-1
교 단	예장 합동



효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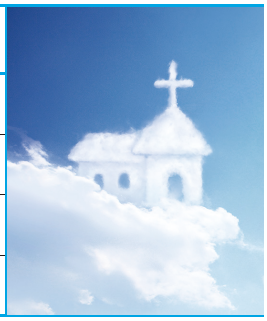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4년 4월 15일
담 임 목 사	이경욱
주 소	춘천시 방송길 102
교 단	예장 합동



춘천성도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11월 30일
담 임 목 사	이정화
주 소	춘천시 효자상길 36
교 단	예장 합동



북춘천교회



교회설립일	1955년 6월 5일
담 임 목 사	이정훈
주 소	춘천시 옥산포길 14
교 단	예장 합동



광판교회



교회설립일	1955년 6월 21일
담 임 목 사	강한돌
주 소	춘천시 남산면 김유정로 165
교 단	예장 합동



춘남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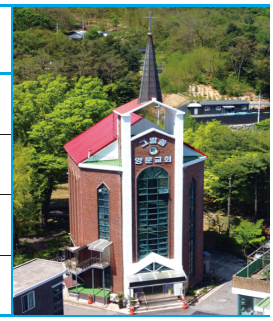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6년 1월 16일
담 임 목 사	한상민
주 소	춘천시 영서로2269번길 13
교 단	예장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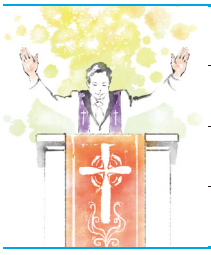
그말씀양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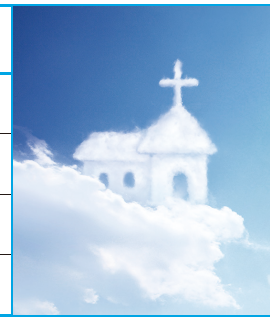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2년 8월 26일
담 임 목 사	엄기홍
주 소	춘천시 칠전서길 46-37
교 단	예장 합동



장본교회



교회설립일	1981년 8월 16일
담 임 목 사	김광철
주 소	춘천시 신북면 장본2길 40
교 단	예장 합동



춘천중부교회



교회설립일	1983년 4월 23일
담 임 목 사	현흥만
주 소	춘천시 공단로 10-4
교 단	예장 합동



성은교회



교회설립일	1984년 8월 14일
담 임 목 사	김달억
주 소	춘천시 소양로163번길 49-8
교 단	예장 합동



신동교회



교회설립일	1985년 5월 3일
담임목사	이선행
주　　소	춘천시 동포1길 6-18
교　　단	예장 합동



사우동교회



교회설립일	1985년 5월 27일
담임목사	백광일
주　　소	춘천시 윗가래목길 9
교　　단	예장 합동



화목교회



교회설립일	1986년 8월 15일
담임목사	문충식
주　　소	춘천시 동면 건일길 34-7
교　　단	예장 합동



수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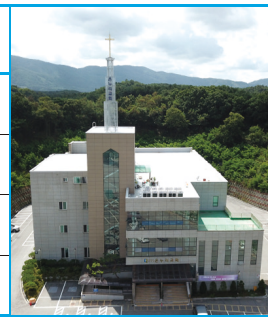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9년 3월 26일
담임목사	유병욱
주　　소	춘천시 서면 수정2길 245-18
교　　단	예장 합동



온누리교회



교회설립일	1990년 5월 5일
담 임 목 사	김창환
주 소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100-51
교 단	예장 합동



예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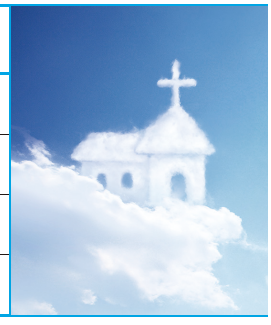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5년 5월 25일
담 임 목 사	정명훈
주 소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94번길 10
교 단	예장 합동



세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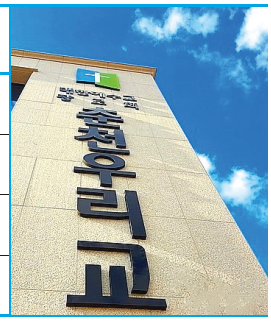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0년 3월 4일
담 임 목 사	양성찬
주 소	춘천시 공지로 61-5, 3층
교 단	예장 합동



춘천우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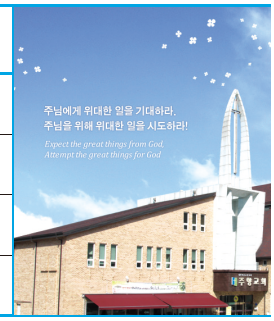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0년 5월 6일
담 임 목 사	김원중
주 소	춘천시 안마산로 114 5층
교 단	예장 합동



주향교회



교회설립일	2001년 7월 9일
담임목사	이병철
주　　소	춘천시 새청말길 5
교　　단	예장 합동



예담교회



교회설립일	2002년 3월 31일
담임목사	권기찬
주　　소	춘천시 후석로186번길 9
교　　단	예장 합동



행복을전하는교회



교회설립일	2006년 4월 4일
담임목사	최도윤
주　　소	춘천시 후석로 287-1, 3층
교　　단	예장 합동



춘천축복교회



교회설립일	2012년 6월 30일
담임목사	윤종찬
주　　소	춘천시 승지골길 53
교　　단	예장 합동



감사교회



교회설립일	2013년 3월 17일
담 임 목 사	김수일
주 소	춘천시 공지로 218, 2층
교 단	예장 합동



하늘시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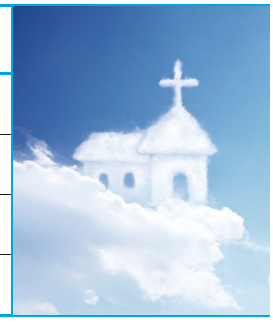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5년 12월 6일
담 임 목 사	유경수
주 소	춘천시 후석로 421, 2층
교 단	예장 합동



사랑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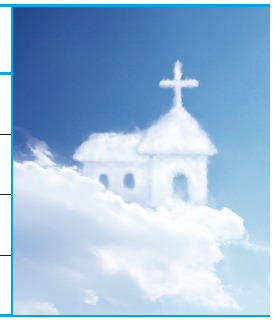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담 임 목 사	심승남
주 소	춘천시 효석로 67번길 25
교 단	예장 합동



세나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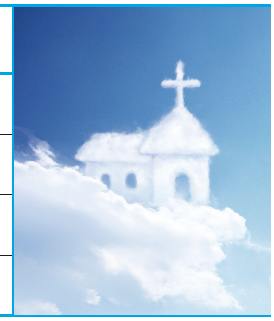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담 임 목 사	우영태
주 소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9
교 단	예장 합동



하늘샘교회



교회설립일	
담 임 목 사	한재웅
주 소	춘천시 후석로 66번길 25, 3층
교 단	예장 합동



후평장로교회



교회설립일	1981년 1월 14일
담 임 목 사	조만식
주 소	춘천시 후만로 126번길 32
교 단	예장 합동



춘천은혜교회



교회설립일	1994년 1월 23일
담 임 목 사	지용찬
주 소	춘천시 영서로2434번길 9-11
교 단	예장(백석)



대흥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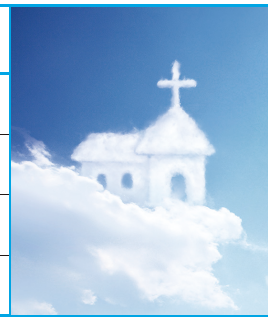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4년 7월 24일
담 임 목 사	박성균
주 소	춘천시 칠전서2길 6
교 단	예장(백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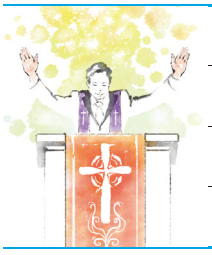
한영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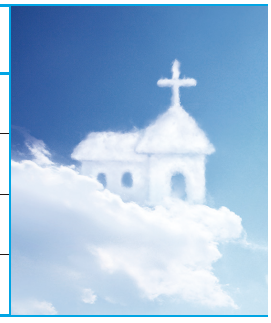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4년 9월 4일
담 임 목 사	박윤영
주 소	춘천시 백석골길22번길 19
교 단	예장(백석)



다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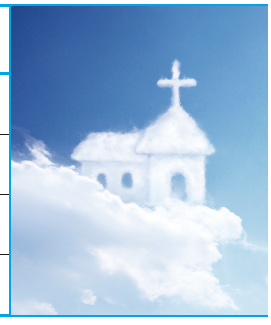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4년 12월 8일
담 임 목 사	정순규
주 소	춘천시 영서로 2347
교 단	예장(백석)



예닮교회



교회설립일	1997년 1월 16일
담 임 목 사	최윤식
주 소	춘천시 춘천로 213번길 7-1
교 단	예장(백석)



고은교회



교회설립일	1999년 3월 1일
담 임 목 사	김은선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84-21
교 단	예장(백석)



기쁜교회



교회설립일	2000년 5월 11일
담 임 목 사	함영도
주 소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15
교 단	예장(백석)



춘천은평교회



교회설립일	2000년 9월 21일
담 임 목 사	최승호
주 소	춘천시 스포츠타운길529-7
교 단	예장(백석)



주님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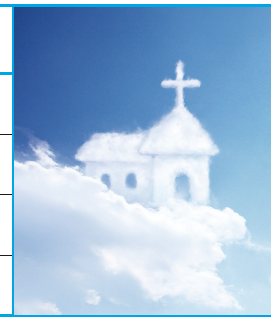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2년 11월 22일
담 임 목 사	박상윤
주 소	춘천시 후만로 98번길 22
교 단	예장(백석)



임마누엘교회



교회설립일	2004년 9월 18일
담 임 목 사	노영길
주 소	춘천시 대룡산길 46-6
교 단	예장(백석)



춘천사랑의교회



교회설립일	2005년 4월
담 임 목 사	윤대영
주 소	춘천시 효자로 14번길 12-28
교 단	예장(백석)



갈릴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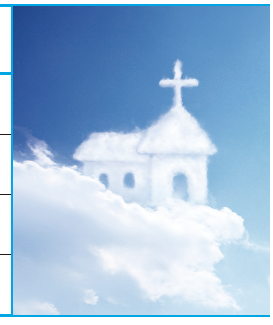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5년 6월 10일
담 임 목 사	임인혁
주 소	춘천시 중앙로146.3층
교 단	예장(백석)



새비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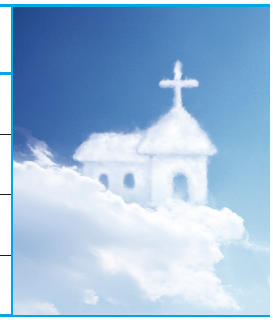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2년 3월 1일
담 임 목 사	임해경
주 소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21
교 단	예장(백석)



은혜비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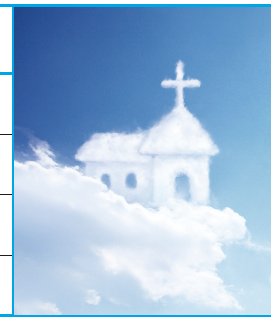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2년 10월 7일
담 임 목 사	이명옥
주 소	춘천시 칠전서1길 21
교 단	예장(백석)



강북중앙교회



교회설립일	
담임목사	남궁상규
주 소	춘천시 신샘밭로 526-22
교 단	예장(백석)



새누리교회



교회설립일	1946년 12월 21일
담임목사	신현천
주 소	춘천시 춘천로 310번길 45
교 단	기장



신포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4월 18일
담임목사	신은섭
주 소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4819-12
교 단	기장



교동교회



교회설립일	1955년 1월 2일
담임목사	김치홍
주 소	춘천시 서부대성로 105-8
교 단	기장



새희망교회



교회설립일	1983년 11월 28일
담 임 목 사	조용태
주 소	춘천시 근화동 601-6
교 단	기장



한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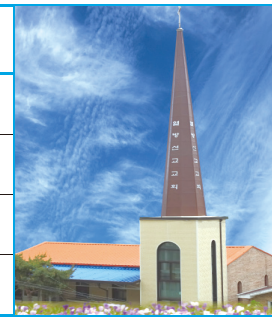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7년 12월 17일
담 임 목 사	박동주
주 소	춘천시 대양당길 19-1
교 단	기장



열방선교교회



교회설립일	1989년 7월 4일
담 임 목 사	정수열
주 소	춘천시 춘천로 64번길 32
교 단	기장



대명교회



교회설립일	1993년 12월 16일
담 임 목 사	이상호
주 소	춘천시 남춘천새길 41번길 7
교 단	기장



세계로교회



교회설립일	2004년 9월 5일
담 임 목 사	백승국
주 소	춘천시 춘천순환로42 삼익2차@ 상가
교 단	기장



오탄교회



교회설립일	
담 임 목 사	홍봉의
주 소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1336-9
교 단	기장



강원총신교회



교회설립일	1998년 10월 15일
담 임 목 사	용석만
주 소	춘천시 동면 한솔만천로 15-6
교 단	예장 합동개혁



평안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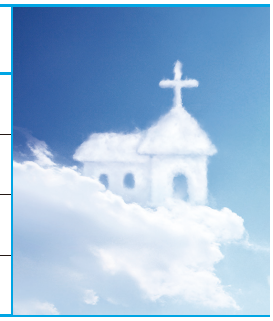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0년 11월 20일
담 임 목 사	김다윗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상천2길 43
교 단	예장 합동개혁



수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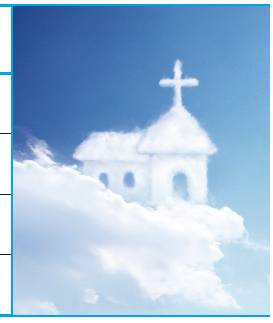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9년 7월 13일
담 임 목 사	공병용
주 소	춘천시 춘천로 254, 2층
교 단	예장 합동개혁



시온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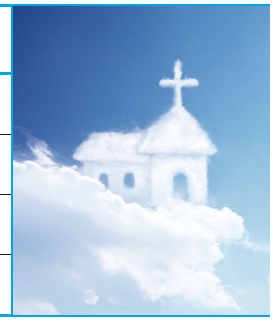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9년 7월 13일
담 임 목 사	이경애
주 소	춘천시 퇴계로 146번길 4-1
교 단	예장 합동개혁



춘천드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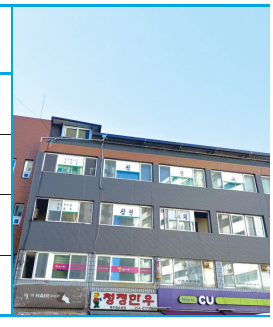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1년 11월 13일
담 임 목 사	고성언
주 소	춘천시 서부대성로239번길 47-26
교 단	예장 합동개혁



참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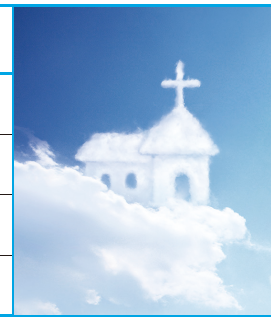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9년 10월 20일
담 임 목 사	최은옥
주 소	춘천시 후만로 24번길 13 현대5차상가 401호
교 단	예장 합동개혁



주성령교회



교회설립일	2020년 6월 10일
담 임 목 사	김정일
주 소	춘천시 공지로 432-1, 2층
교 단	예장 합동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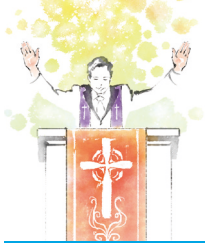
광염교회



교회설립일	2020년 7월 25일
담 임 목 사	이종례
주 소	춘천시 세실로 187 청실아파트상가 3층
교 단	예장 합동개혁



행복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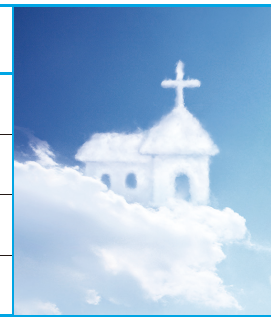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21년 8월 27일
담 임 목 사	김광민
주 소	춘천시 후만로 126번길 20-1
교 단	예장 합동개혁



샘물교회



교회설립일	2021년 10월 24일
담 임 목 사	이영심
주 소	춘천시 벌말길104 지하
교 단	예장 합동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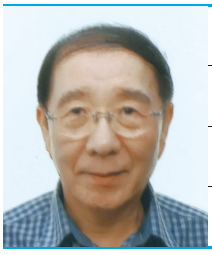
춘천광명교회



교회설립일	1986년 9월 7일
담 임 목 사	김종익
주 소	춘천시 동광길 16-1
교 단	예장 백석대신



춘천중앙장로교회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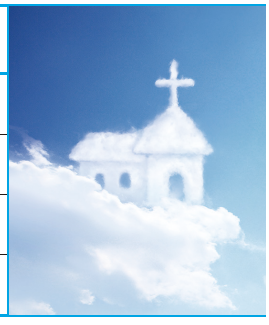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1년 3월 1일
담 임 목 사	사공정
주 소	춘천시 우묵길 60번길18
교 단	예장 백석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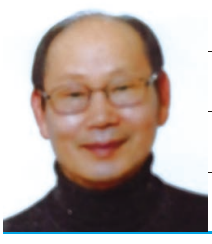
하라교회



교회설립일	1990년 8월 23일
담 임 목 사	이규영
주 소	춘천시 춘추로 179번길 6-6
교 단	예장 백석대신



단비교회



교회설립일	1992년 5월 5일
담 임 목 사	김면기
주 소	춘천시 법원뒷길 12
교 단	예장 백석대신



평강제일교회



교회설립일	1996년 12월 3일
담 임 목 사	이병주
주 소	춘천시 퇴계동 944 한주아파트상가 2층 201호
교 단	예장 백석대신



예수자랑교회



교회설립일	2000년 8월 15일
담 임 목 사	김희문
주 소	춘천시 거두택지길 61-16
교 단	예장 백석대신



주창성교회



교회설립일	2006년 5월 30일
담 임 목 사	최춘배
주 소	춘천시 공지로 426
교 단	예장 백석대신



일심교회



교회설립일	1984년 1월 3일
담 임 목 사	이순주
주 소	춘천시 동면 공단로 70번길 200
교 단	예장개혁



주안교회



교회설립일	1984년 4월 1일
담 임 목 사	김용욱
주 소	춘천시 동면 하일길 128
교 단	예장개혁



동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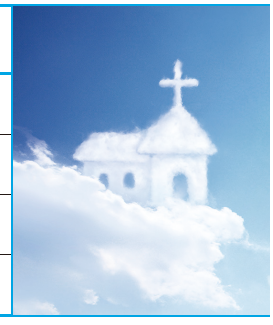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6년 6월
담 임 목 사	장영우
주 소	춘천시 금촌로 388
교 단	예장개혁



춘천새누리교회



교회설립일	1989년 11월 14일
담 임 목 사	한수진
주 소	춘천시 동면 143번길 28
교 단	예장개혁



평안교회



교회설립일	1990년 초반
담 임 목 사	최승국
주 소	춘천시 화목원길 116-6
교 단	예장개혁



춘천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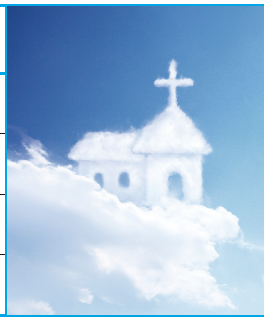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3년
담 임 목 사	박영남
주 소	춘천시 모수물길 60
교 단	예장개혁



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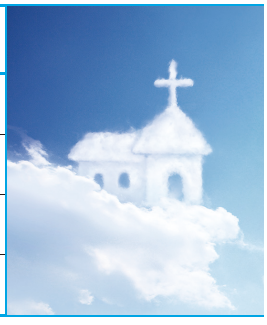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4년 8월 20일
담 임 목 사	김혜영
주 소	춘천시 보안길 79
교 단	예장개혁



주성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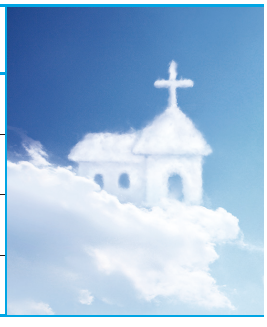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6년 6월 11일
담 임 목 사	김병철
주 소	춘천시 만천로 215번길 21
교 단	예장개혁



축복교회



교회설립일	
담 임 목 사	최재영
주 소	춘천시 우두상리길 14-4
교 단	예장개혁



봄내사랑교회



교회설립일	2018년 3월 1일
담 임 목 사	김희균
주 소	춘천시 동면 하일길 61
교 단	예장(개혁연대)



하이교회



교회설립일	2020년 2월 2일
담 임 목 사	정성용
주 소	춘천시 공지로 270, 5층
교 단	예장(개혁연대)



새시민교회



교회설립일	1990년 2월
담 임 목 사	권기호
주 소	춘천시 후평동 산1-46
교 단	예장 고신



장자교회



교회설립일	1999년 2월
담 임 목 사	정승남
주 소	춘천시 효평길 101
교 단	예장 고신



소양시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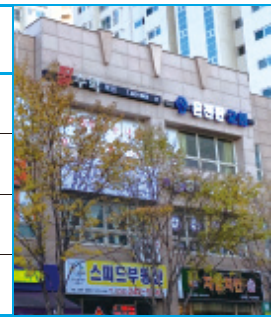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0년 11월
담 임 목 사	김신구
주 소	춘천시 충열로 170
교 단	예장 고신



온전한교회



교회설립일	2002년
담 임 목 사	박종천
주 소	춘천시 마장길 60 롯데캐슬 상가내 302
교 단	예장 고신



늘사랑교회



교회설립일	1985년 4월 7일
담 임 목 사	정재호
주 소	춘천시 우석로 79번길 7-9
교 단	예장(합신)



봄내로뎀교회



교회설립일	1994년 12월 12일
담 임 목 사	김승권
주 소	춘천시 우석로 101번길 83 부영A상가
교 단	예장(합신)



조양장로교회



교회설립일	1996년 2월 1일
담 임 목 사	전효진
주 소	춘천시 동산면 모래재길 19-6
교 단	예장(합신)



춘천돋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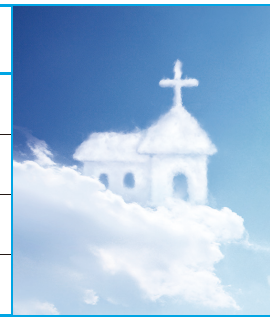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7년 5월 1일
담 임 목 사	이원평
주 소	춘천시 서부대성로 113, 2층
교 단	예장(합신)



드림교회



교회설립일	2002년 10월 2일
담 임 목 사	최금희
주 소	춘천시 춘천로 296번길 21
교 단	성장



나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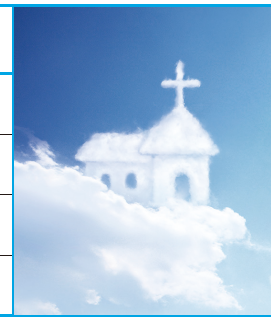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5년 10월 30
담 임 목 사	탁명수
주 소	춘천시 동면 만군길 233-1
교 단	성장



강남교회



교회설립일	
담임목사	이상수
주 소	춘천시 춘주로 174
교 단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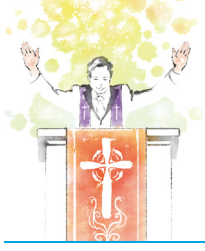
예안교회



교회설립일	
담임목사	이광원
주 소	춘천시 금강로89-1
교 단	성장



참사랑교회



교회설립일	
담임목사	손두진
주 소	후석로 58201호
교 단	성장



동산교회



교회설립일	
담임목사	김정애 전도사
주 소	
교 단	성장



춘천장로교회



교회설립일	1970년 6월 28일
담 임 목 사	지태성
주 소	춘천시 춘천로 295번길 8
교 단	예장(순장)



가나안교회



교회설립일	2021년 5월 10일
담 임 목 사	김의철
주 소	춘천시 춘천로 295번길 8
교 단	개혁(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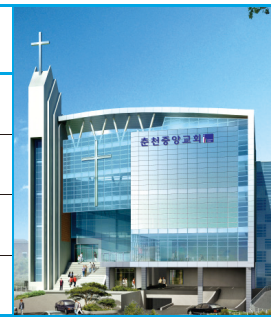


3. 성결교단

춘천중앙교회



교회설립일	1934년 7월 3일
담 임 목 사	장기동
주 소	춘천시 약사고개길 14
교 단	성결교회(기성)



소양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1월 30일
담 임 목 사	김선일
주 소	춘천시 서부대성로 43번길 19
교 단	성결교회(기성)



산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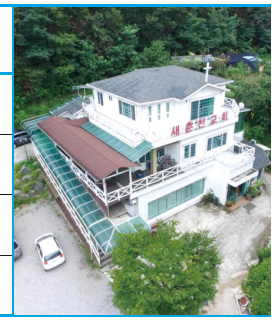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54년 2월 10일
담 임 목 사	강성용
주 소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440-12
교 단	성결교회(기성)



새춘천교회



교회설립일	1967년 6월 11일
담 임 목 사	신재원
주 소	춘천시 스무숲 3길 26-5
교 단	성결교회(기성)



삼천동교회



교회설립일	1967년 6월 11일
담 임 목 사	김광태
주 소	춘천시 옛경춘로 816-7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추곡교회



교회설립일	1972년 5월 5일
담 임 목 사	이종서
주 소	춘천시 북산면북산로 44
교 단	성결교회(기성)



행복한우리교회



교회설립일	1973년 4월 20일
담 임 목 사	강문구
주 소	춘천시 마장길77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엘림교회



교회설립일	1976년 11월 14일
담 임 목 사	김진수
주 소	춘천시 백령로75번길 35-1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충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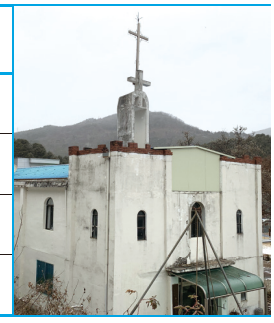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7년 8월 22일
담 임 목 사	이종규
주 소	춘천시 후석로 311-1
교 단	성결교회(기성)



구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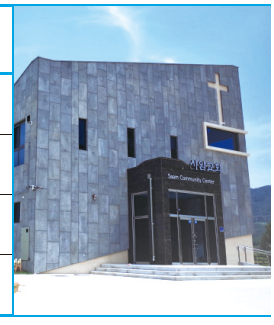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6년 2월 4일
담 임 목 사	서창범
주 소	춘천시 동산면 새술막길 638-10
교 단	성결교회(기성)



사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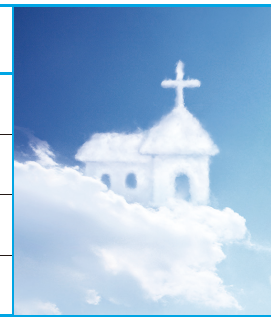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9년 5월 12일
담 임 목 사	최상도
주 소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3-28
교 단	성결교회(기성)



평화교회



교회설립일	1990년 9월 25일
담 임 목 사	염윤호
주 소	춘천시 신동면 올미길21-7
교 단	성결교회(기성)



하늘평안교회



교회설립일	1991년 9월 8일
담 임 목 사	오생락
주 소	춘천시 후석로 11-6
교 단	성결교회(기성)



안디옥교회



교회설립일	1991년 10월 20일
담 임 목 사	김왈욱
주 소	춘천시 춘천로296번길 3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제일교회



교회설립일	1992년 3월 15일
담 임 목 사	김승범
주 소	춘천시 외솔길19번길 9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나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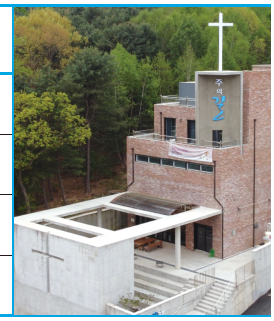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3년 2월 21일
담 임 목 사	피종호
주 소	춘천시 승지골길15
교 단	성결교회(기성)



주의길교회



교회설립일	1995년 4월 17일
담 임 목 사	최재용
주 소	춘천시 선들길 54
교 단	성결교회(기성)



소양제일교회



교회설립일	1996년 11월 3일
담 임 목 사	이주호
주 소	춘천시 윗무린개길 16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소망교회



교회설립일	1997년 5월 2일
담 임 목 사	최인호
주 소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16
교 단	성결교회(기성)



새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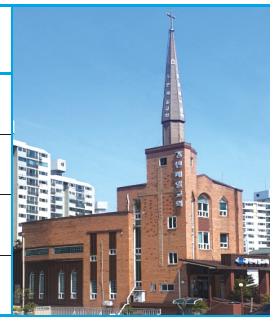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8년 12월 28일
담 임 목 사	박찬욱
주 소	춘천시 영서로 2000
교 단	성결교회(기성)



강변제일교회



교회설립일	2004년 1월 1일
담 임 목 사	손광오
주 소	춘천시 강남동 73-4
교 단	성결교회(기성)



세상을 비추는교회



교회설립일	2006년 12월 3일
담 임 목 사	기준호
주 소	춘천시 삭주로126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바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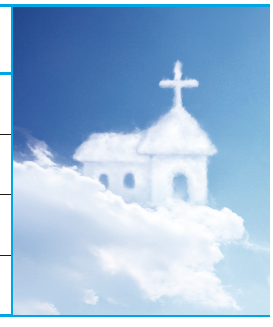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0년 8월 15일
담 임 목 사	이근택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34
교 단	성결교회(기성)



선한이웃교회



교회설립일	2010년 11월 14일
담 임 목 사	김중천
주 소	춘천시 서부대성로 239번길 19
교 단	성결교회(기성)



좋은나무교회



교회설립일	2010년 11월 28일
담임목사	조선영
주　　소	춘천시 성심로35번길 1, 2층
교　　단	성결교회(기성)



주님의교회



교회설립일	2011년 5월 29일
담임목사	김철영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사랑말길 114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새소망교회



교회설립일	2013년 6월 30일
담임목사	김지백
주　　소	춘천시 금강로114 대용빌딩 2층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드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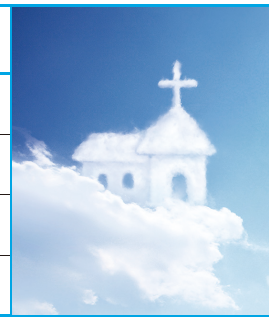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4년 3월 30일
담임목사	백승환
주　　소	춘천시 만천양지길 17-48
교　　단	성결교회(기성)



선한목자교회



교회설립일	2017년 1월 22일
담 임 목 사	김선영
주 소	춘천시 명동길21
교 단	성결교회(기성)



춘천평안교회



교회설립일	2017년 3월 5일
담 임 목 사	임동혁
주 소	춘천시 만천로205번길 29
교 단	성결교회(기성)



봄내교회



교회설립일	2017년 5월 31일
담 임 목 사	박희훈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3 3층
교 단	성결교회(기성)



하늘소망교회



교회설립일	2017년 10월 15일
담 임 목 사	노효철
주 소	춘천시 영서로 2261, 5층
교 단	성결교회(기성)



행복나무교회



교회설립일	2019년 6월 31일
담 임 목 사	한경묵
주 소	춘천시 동면 춘천로451-1
교 단	성결교회(기성)



신북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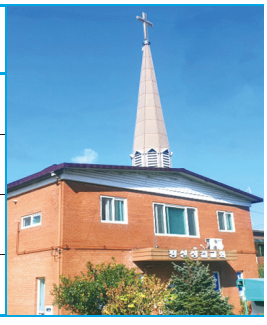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62년 4월 19일
담 임 목 사	이영규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서원말길 30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평성교회



교회설립일	1985년 12월 16일
담 임 목 사	서규환
주 소	춘천시 만천로 249번길6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푸른성결교회



교회설립일	1987년 6월 3일
담 임 목 사	고영일
주 소	춘천시 공단로 54번길 4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나눔의동산교회



교회설립일	2005년 7월 28일(1987년)
담 임 목 사	김재숙 전도인
주 소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2길 43-25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흥성결교회



교회설립일	1993년 4월 18일
담 임 목 사	최덕순
주 소	춘천시 삭주로 197-1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주향기교회



교회설립일	2002년 9월 15일
담 임 목 사	김성호
주 소	춘천시 후만로 98번길 10-1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후평제일교회



교회설립일	2003년 3월 22일
담 임 목 사	한정자
주 소	춘천시 후만로 119 금호빌리지 상가 2층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벧엘교회



교회설립일	2004년 6월 22일
담 임 목 사	전석규
주 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1길 26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함께하는교회



교회설립일	2018년 10월 30일
담 임 목 사	이장복
주 소	춘천시 후석로344번지3
교 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4. 순복음교단

순복음춘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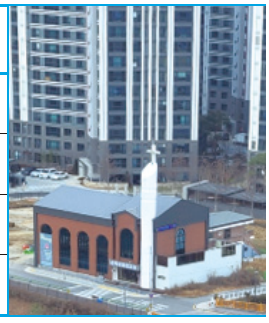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72년 4월 3일
담 임 목 사	이수형
주 소	춘천시 만천로 143번길 84-8
교 단	순복음



순복음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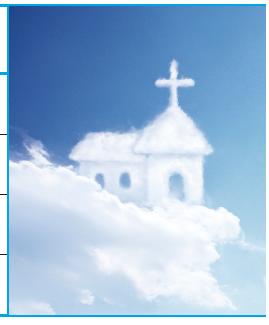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80년 7월 5일
담 임 목 사	하기철
주 소	춘천시 근화길 85
교 단	순복음



새능력순복음교회



교회설립일	1981년 5월 3일
담 임 목 사	정석호
주 소	춘천시 후석로 290 3층
교 단	순복음



열린순복음교회



교회설립일	1989년 10월 3일
담 임 목 사	신성균
주 소	춘천시 춘주로 176-9
교 단	순복음



호산나교회



교회설립일	1993년 12월 5일
담임목사	백영신
주 소	춘천시 애막골길11번길 14
교 단	순복음



새생명교회



교회설립일	1993년 2월 21일
담임목사	최동혁
주 소	춘천시 소양로 217
교 단	순복음



순복음삼성비젼교회



교회설립일	1993년 5월 25일
담임목사	박보배
주 소	춘천시 소양로 148
교 단	순복음



행복한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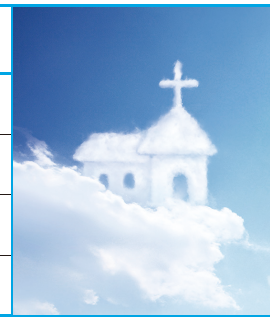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97년 7월 17일
담임목사	박문수
주 소	춘천시 퇴계로 145번 걸 3-16
교 단	순복음



순복음호반교회



교회설립일	1999년 7월 12일
담 임 목 사	강맹룡
주 소	춘천시 후석로 344번길 3
교 단	순복음



순복음조은교회



교회설립일	1999년 10월 19일
담 임 목 사	오의석
주 소	춘천시 옛경춘로 826
교 단	순복음



춘천순복음제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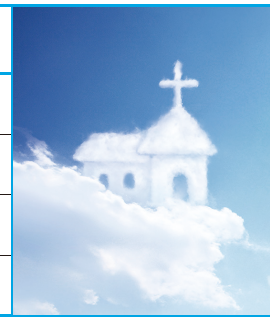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1년 1월 6일
담 임 목 사	이정하
주 소	춘천시 백령로 186, 2층
교 단	순복음



순복음청목교회



교회설립일	2001년 7월 1일
담 임 목 사	이승리
주 소	춘천시 신동솔밭길 78
교 단	순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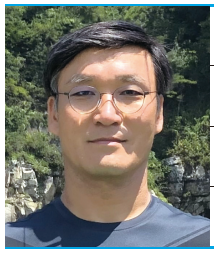
순복음명성교회



교회설립일	2001년 12월 10일
담 임 목 사	송재근
주 소	춘천시 공지로317번길 14-10
교 단	순복음



거두리순복음교회



교회설립일	2003년 10월 3일
담 임 목 사	고범섭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26번길 29
교 단	순복음



순복음생명샘교회



교회설립일	2004년 4월 24일
담 임 목 사	윤정호
주 소	춘천시 공지로 234-12
교 단	순복음



순복음비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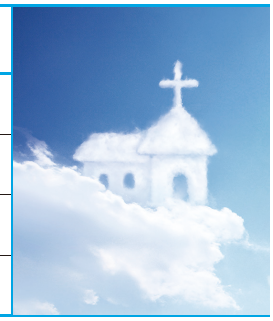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5년 7월 4일
담 임 목 사	김성훈
주 소	춘천시 성심로 82, 2층
교 단	순복음



방주순복음교회



교회설립일	2008년 8월 8일
담 임 목 사	박찬숙
주 소	춘천시 충열로67번길 9-5
교 단	순복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교회설립일	2009년 9월 11일
담 임 목 사	이상열
주 소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7
교 단	순복음



강촌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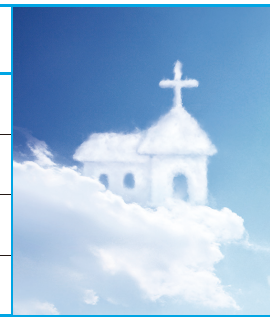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09년 11월 30일
담 임 목 사	이정희
주 소	춘천시 남산면 봄내길 1길 81
교 단	순복음



포도나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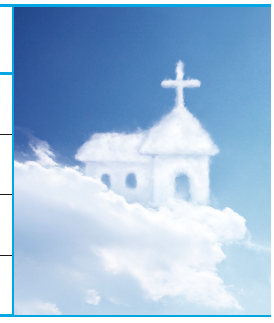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0년 8월 28일
담 임 목 사	이승재
주 소	춘천시 효자로 121
교 단	순복음



두란노교회



교회설립일	2011년 3월 26일
담임목사	김헌
주 소	춘천시 춘주로 150
교 단	순복음



춘천실로암교회



교회설립일	2011년 6월 25일
담임목사	민영수
주 소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9-15 보배아파트 상가 302호
교 단	순복음



참빛사랑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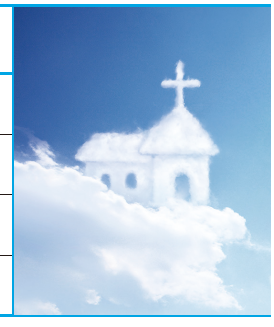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2년 5월 27일
담임목사	원선희
주 소	춘천시 공지로 331, 2층
교 단	순복음



한결교회



교회설립일	2012년 6월 20일
담임목사	최승찬
주 소	춘천시 삭주로 154, 대덕농산 2층
교 단	순복음



순복음예향교회



교회설립일	2014년 2월 15일
담 임 목 사	박제훈
주 소	춘천시 춘천로 312, 향군회관 지하
교 단	순복음



순복음쉼이있는교회



교회설립일	2014년 6월 14일
담 임 목 사	전순화
주 소	춘천시 세실로 184
교 단	순복음



헵시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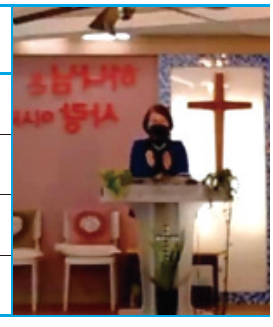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5년 3월 17일
담 임 목 사	이영숙
주 소	춘천시 우두강둑길 23 런던빌딩 3층
교 단	순복음



더조은교회



교회설립일	2016년 2월 27일
담 임 목 사	유희수
주 소	춘천시 후석로 275
교 단	순복음



꿈꾸는순복음교회



교회설립일	2016년 8월 27일
담 임 목 사	최재훈
주 소	춘천시 성심로47번길 46
교 단	순복음



순복음시온교회



교회설립일	2016년 9월 18일
담 임 목 사	최정용
주 소	춘천시 후석로45번길 5
교 단	순복음



순복음늘찬양교회



교회설립일	2018년 5월 6일
담 임 목 사	이상철
주 소	춘천시 사우5길 7
교 단	순복음



사랑의빛교회



교회설립일	2019년 7월 2일
담 임 목 사	김보실
주 소	춘천시 공지로 252번길 44-1
교 단	순복음



호두나무교회



교회설립일	2022년 9월 3일
담 임 목 사	표명혁
주 소	춘천시 향교앞길 13-4
교 단	순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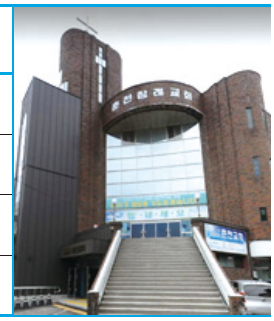


5. 침례교단

춘천교회



교회설립일	1953년 4월 5일
담 임 목 사	이지인
주 소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교 단	침례교



옥산포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4월
담 임 목 사	김기만
주 소	춘천시 영서로 3051
교 단	침례교



샘밭교회



교회설립일	1954년 6월 7일
담 임 목 사	차성회
주 소	춘천시 신북읍 맥국2길 48-5
교 단	침례교



남춘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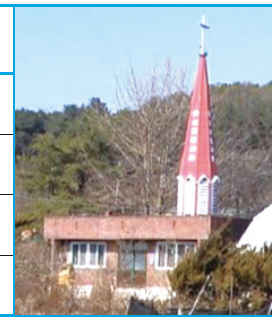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1967년 4월 28일
담 임 목 사	이응철
주 소	춘천시 퇴계로 77번길 7-10
교 단	침례교



춘성교회



교회설립일	1973년
담 임 목 사	함재진
주 소	춘천시 신동면 솟발길 22
교 단	침례교



예사랑교회



교회설립일	1976년 7월 17일
담 임 목 사	홍요셉
주 소	춘천시 안마산로 34-6
교 단	침례교



춘천농인교회



교회설립일	1982년 2월 8일
담 임 목 사	허인영
주 소	춘천시 안마산로 34-8
교 단	침례교



거성교회



교회설립일	1984년 8월 28일
담 임 목 사	이성훈
주 소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길 12
교 단	침례교



반석교회



교회설립일	1985년 3월 1일
담 임 목 사	허창
주 소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97번지
교 단	침례교



강원교회



교회설립일	1986년 7월 29일
담 임 목 사	차덕수
주 소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88
교 단	침례교



한마음교회



교회설립일	1990년 8월 20일
담 임 목 사	김성로
주 소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82
교 단	침례교



푸른초장교회



교회설립일	1998년 4월 17일
담 임 목 사	정덕현
주 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 2길 24번
교 단	침례교



제자들교회



교회설립일	2003년 7월 15일
담 임 목 사	정선문
주 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3길 20-23
교 단	침례교



돌봄교회



교회설립일	2008년 7월 1일
담 임 목 사	정상교
주 소	춘천시 춘천로 70-3
교 단	침례교



한울섬김교회



교회설립일	2010년 1월 1일
담 임 목 사	노에녹
주 소	춘천시 스무숲1길 16
교 단	침례교



은혜더하는교회



교회설립일	2017년 3월 25일
담 임 목 사	최병유
주 소	춘천시 우두상리4길 12
교 단	침례교



하늘뜻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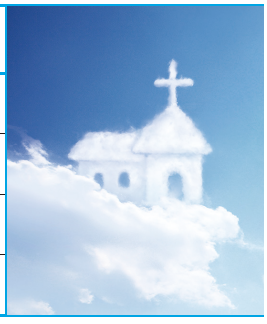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9년 5월 19일
담임목사	유영호
주　　소	춘천시 후만로 65, 2층
교　　단	침례교



회복교회



교회설립일	2019년 12월 6일
담임목사	주정환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율문3길 37
교　　단	침례교



그린교회



교회설립일	2019년 12월 25일
담임목사	표동진
주　　소	춘천시 공원3길 24
교　　단	침례교



6. 그리스도의교회교단

춘천그리스도의교회



교회설립일	1967년 3월 10일
담 임 목 사	하용수
주 소	춘천시 백령로138번길 3
교 단	그리스도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교회설립일	1996년 9월 16일
담 임 목 사	박종식
주 소	춘천시 송암길 17-15
교 단	그리스도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



교회설립일	1998년 10월 18일
담 임 목 사	전성원
주 소	춘천시 화목원길 45
교 단	그리스도



역동적인 그리스도의교회



교회설립일	2019년 3월 2일
담 임 목 사	이상준
주 소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76-30
교 단	그리스도



7. 구세군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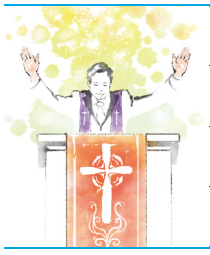
춘천구세군교회



교회설립일	1957년 6월 17일
담 임 목 사	윤영숙 사관
주 소	춘천시 후석로 66번길 17
교 단	구세군



북춘천구세군교회



교회설립일	1996년 5월 8일
담 임 목 사	안진영 사관
주 소	춘천시 사우 5길 13
교 단	구세군



8. 기타교단

춘천루터교회



교회설립일	2018년 12월 2일
담 임 목 사	원종호
주 소	춘천시 효자상길 10
교 단	기독교한국 루터교



가까운교회



교회설립일	2022년 6월 26일
담 임 목 사	최준혁
주 소	춘천시 사농동 568-2
교 단	기독교한국 루터교



대한성공회 춘천교회



교회설립일	1933년
담 임 목 사	김희철 신부
주 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113번길 19
교 단	대한성공회



하베스트타임국제교회



교회설립일	2010년 10월 24일
담 임 목 사	박남신
주 소	춘천시 두하길 14
교 단	독립교단, 외국인교회



나눔과섬김교회



교회설립일	2012년 3월 4일
담 임 목 사	정노아
주 소	춘천시 만천로 227번길 5
교 단	독립교단



산천무지개교회



교회설립일	2015년 5월 30일
담 임 목 사	윤재선
주 소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420-10
교 단	독립교단



시은소교회



교회설립일	2016년 1월 3일
담 임 목 사	박진영
주 소	춘천시 공지로 541번길 16
교 단	독립교단



하늘기쁨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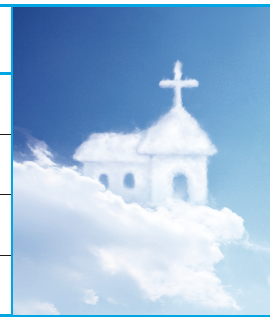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2019년 3월 9일
담 임 목 사	이선형
주 소	춘천시 효자로87 2층
교 단	독립교단



자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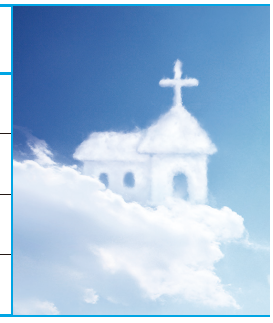
교회설립일	
담 임 목 사	권취우
주 소	
교 단	독립교단



예수촌교회



교회설립일	
담 임 목 사	차성도
주 소	
교 단	독립교단



춘천기독교120년사 도움주신 분들

교단 및 교회

- 감리교 : 김창수 목사(신성교회), 이석 목사(강촌교회), 김성호 목사(덕두원중앙교회), 성낙환 목사(은혜교회), 박인관 목사(광염교회), 문충기 목사(혈동교회), 이주헌 목사(동원교회), 안세현 목사(민들레교회), 김기태 장로(춘천중앙감리교회), 김종열 장로(신성교회)
- 장로교 : 김종익 목사(춘천광명교회), 이창봉 목사(신북교회), 홍동완 목사(도심리교회), 함영도 목사(기쁜교회), 박동주 목사(한신교회), 용석만 목사(강원총신교회), 장영우 목사(춘천동성교회), 김희균 목사(봄내교회) 정승남 목사(장자교회), 이원평 목사(돋움교회), 최금희 목사(드림장로교회), 지태성 목사(춘천장로교회), 장동길 장로(춘천동부교회), 황병호 장로(춘천제일교회)
- 성결교 : 피종호 목사(춘천나눔성결교회), 염윤호 목사(춘천평화교회),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이영규 목사(신북성결교회), 전석규 목사(벧엘교회), 김치홍 목사(교동교회)
- 순복음 : 이정하 목사(춘천순복음제자교회)
- 침례교 :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차성회 목사(샘밭침례교회), 이성훈 목사(거성교회)
- 그리스도의교회 : 하용수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
- 루터교회 : 원종호 목사(춘천루터교회)
- 성공회 : 김희철 신부(춘천성공회)
- 독립교단 :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윤재선 목사(산천무지개교회)

기독교 기관 및 사회단체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수형 목사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김영명 장로
- 춘천기독교연합회 김수일 목사
- 춘천목회자연합회 차성회 목사
- 춘천장로교연합회 신현천 목사
-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송제성 장로
- 춘천홀리클럽 조경화 장로
- 국가조찬기도회 석광훈 장로
-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정기선 장로
- 춘천운전기사선교 박무영 장로
- 베드로선교센터 조은제 대표
- CCC 이병연목사, 장기영 장로
- IVF 최인기 간사
- DFC 김연희 간사
- 예수전도단 권혁준 간사
- 예수제자운동 윤태호 목사, 이승수 · 유경숙 간사
- 기독대학인회 춘천ESF 진용화 간사
- 한국 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남준섭 장로
-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김마태 대표
- 예스컴 길선희 목사
- 광염회 황병호 장로
- 효신고등공민학교 방지각 목사, 엄두영 장로, 이수길 장로
-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 오덕환 교수
- 사랑의 메아리 · 예수마을선교공동체 · 한아름선교회 조영춘 목사
- 백합공동체 최준호 대표
-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김진솔 목사
-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황재국 장로, 홍연화 집사
- CCF목회자회 박인관 목사
-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김원중 목사
- 춘천YMCA 허대영 이사장, 이원영 사무총장
- 춘천YWCA 이병옥 이사장, 이선엽 사무총장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신희경 관장
- 기아대책 강원본부 정규상 본부장
- 춘천연탄은행 정해창 대표
- 해비타트 춘천지회 박유식 본부장
-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임미라 센터장
- 강원CBS 정예현 대표
-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남준섭 이사장, 이재준 이사장, 홍순신 상임이사, 엄규영 전무
-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 염노섭 회장
- 두란도어머니학교 춘천지부 김단옥 지부장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범 관장
-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
- 광림노인전문요양원 홍종환 원장
- 홈에버그린 박진숙 원장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김소영 관장
-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변영혜 관장
- 한국기독공보 최은숙 기자

자문위원 · 편집위원

- 지용찬 목사(춘천은혜교회), 피종호 목사(나눔성결교회), 김종익 목사(춘천광명교회)
- 편집위원 : 이영규 목사(신북성결교회), 정덕현 목사(푸른초장교회), 지태성 목사(춘천장로교회)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춘천기독교 120년사 2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이수형
발행처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총괄편집 김 훈, 임대형
인쇄처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비매품

ISBN 979-11-86066-98-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종교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춘천교회 120년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춘천시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